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요르단

목차

※목차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

I.일반

1.개요	4
2.한국과의 관계	7
3.경제현황	14
4.정치	21
5.주요산업	27

II.무역

1.수출입	29
2.한국과의 수출입	40
3.수출 유망항목	45
4.무역협정	53
5.수입규제 및 관세	57
6.통관 · 물류	69

III.투자

1.투자환경	78
2.외국인직접투자	88
3.한국기업 투자	93
4.투자진출방식	98
5.외환	110
6.노무	111
7.세무	118
8.지식재산권	122
9.청산 및 철수	124

IV.참고정보

1.시장특성	127
2.비즈니스 에티켓	132
3.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137
4.현지 진출 성공사례	137

5.출입국 안내	142
6.유관기관	146
7.물가정보	151
8.출장정보	157
9.생활정보	159
10.KOTRA 무역관 안내	184
11.전시회 정보	203
	205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가/지역	요르단 왕국(HASHEMITE KINGDOM OF JORDAN)
면적	89,342 km ² (자료원 : CIA FACT BOOK)
수도	암만(Amman)
인구	11,703,359 명 (자료원 : 요르단 통계청 / 2024년 10월 기준)
민족(인종)	2024년 10월 기준 요르단의 총 인구는 11,703,359명으로 집계되었다. 요르단 인구 중 아랍인(베두인 및 팔레스타인계 포함)이 약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르케스계(1%), 아르메니아계(1%)가 나머지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 외국인 중에서는 시리아인이 가장 많아 전체 인구의 약 13.3%를 구성한다. 이외에 이집트인(6.7%), 이라크인(1.4%) 순이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42%인 4,834,500명이 수도 암만(Amman)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이르비드(18.5%, 2,135,400명), 자르카(14.3%, 1,646,600명), 마프라크(5.8%, 663,400명) 등에 주로 거주한다. 요르단 인구 성장률은 1.89%(2024년 추정치)로 집계되었다. 2024년 3월 기준,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은 638,760명으로 추정된다(UNHCR 등록 기준). 이들은 자타리 난민캠프에 8.2만 명, 아즈락 난민캠프에 3.9만 명 가량 수용되어 있으며, 캠프 바깥에는 51.2만 명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 요르단 정부는 자국 내 시리아 난민 숫자가 13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요르단 거주 팔레스타인 난민은 2,307,011명에 달하며(UNHCR 등록 기준) 난민 중 남성은 전체 인구의 약 52.94%, 여성은 47.06%를 구성한다. 이외에 이라크, 예멘, 수단, 소말리아 등 출신의 난민이 약 7.4만 명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료: 요르단 통계청, 주요요르단한국대사관, fanack.com, Macrotrends, UNHCR, UNRWA 등]
언어	아랍어(영어 널리 통용)
종교	이슬람(수니파92%, 시아파1%), 기독교(6%)(요르단 관광청)

기후	<p>요르단은 반건조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 춥고 습하다. 즉, 요르단은 지중해성 기후에서 사막 기후 사이에 속하며, 땅은 일반적으로 건조하다. 요르단 남부 및 북부 고지대의 겨울 최대온도는 약 9~13°C인 반면 사막 지역은 19~22°C이다. 요르단 계곡의 여름 온도는 최대 38~39°C까지 달하나, 사막 지역은 26~29°C 수준이다.</p> <p>요르단은 크게 계곡, 고지대, 사막 등 3개의 기후적 지리로 나눌 수 있다. 요르단의 계곡 지대는 요르단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으로 겨울에도 따뜻한 것이 특징이며, 채소와 과일이 생산된다. 요르단의 고지대는 요르단 서부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으며 계곡과 사막 지역을 분리한다. 해발 1,600미터까지 이르는 고지대 지역은 요르단에서 가장 많은 양의 강수량과 가장 넓은 자연 식생 면적을 갖고 있으며 요르단 인구의 약 90%가 이곳에 거주한다. 요르단의 사막 지대와 그 동쪽 확장 지역은 요르단 전체 면적의 약 90%를 차지한다.</p> <p>요르단 연간 평균 강수량은 200~300mm에 불과하며 강수량의 약 75%가 겨울에 집중된다. 1991~2020년의 12~2월 월간 평균 강수량은 64.38mm인 반면 6~9월의 월간 평균 강수량은 0.16mm에 불과했다. 특히 요르단 전체 면적의 90%가 일반적인 연 강수량이 150mm를 초과하지 않으며, 영토의 약 8%만이 연 강수량 200mm를 초과한다. 일반적으로 요르단 북부 지역의 연 강수량은 200-300 mm 사이이며, 중부 지역의 연 강수량은 300mm를 초과하고, 북부 및 중서부 고지대 일부 지역에서는 연 강수량이 약 600mm에 달한다. 계곡 지역의 연 강수량은 약 200mm, 사막 지역의 연 강수량은 약 100mm이다. 일반적으로 연 강수량은 남쪽보다 북쪽이, 동쪽보다 서쪽이 더 많다.</p> <p>요르단의 기후는 변화무쌍한 편이다. 아프리카에서 발원하는 건조한 시로코(Sirocco) 바람(캄신(Khamsin)바람)은 일반적으로 봄에서 초여름 사이 약 50일간 요르단에 영향을 주는데 이때 요르단 기온은 최대 15°C 이상 상승한다. 주로 요르단 북쪽과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여름 바람인 샤말(Shammal) 바람도 기온 상승을 유발한다. 겨울(12월-3월)의 경우, 폭설 또는 폭우로 인하여 긴급 공휴일이 선포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봄(4~5월)에는 사막에서 불어온 모래 폭풍으로 인해 휴교령이 내려진 바 있다.</p> <p>[자료: 월드뱅크그룹, 미 국무부 웹사이트, 요르단 농업부, 현지 언론 등]</p>
----	---

국가원수

- 국왕: 압둘라 2세(King Abdullah II ibn Hussein al-Hashemi) (임기: 1999년 2월 7일~종신)
- 총리: 자파르 하산(Jaafar Hassan) (2024년 9월 15일 국왕이 임명)
- 왕세자: 알 후세인 빈 압둘라 2세 (Crown Prince Al Hussein Bin Abdullah II) (2009년 7월 2일 왕세자로 임명)

- 국왕 : 요르단은 입헌군주국으로서 실질적인 국가 원수는 국왕이다. 현재 요르단의 국왕은 압둘라 2세 (King Abdullah II ibn Hussein al-Hashemi, 1962년 1월 30일 생)로서 요르단의 제4대 국왕이다. 그는 선왕인 후세인 1세와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인 무나 알후세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영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요르단 육군의 헬기 조종사로 복무하다가 아버지 후세인 1세 국왕 서거 후인 1999년 2월 27일 에 즉위했다. 그는 서방 세계에 전사 왕(Warrior King)으로 불릴 만큼, 2010년대 이후 불거진 IS 등 테러조직에 맞서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 압둘라 국왕은 주변 지역과 국내외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견고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총리 : 요르단 정부 수반인 자파르 하산 박사는 2024년 9월 15일 압둘라 2세 국왕의 지시에 따라 총리로 임명되었으며, 비세르 알카사우네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1968년생인 하산 총리는 파리 미국 대학교에서 국제관계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보스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 석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공행정 석사,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국제학 연구소에서 정치학 및 국제경제학 석사 그리고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그는 1991년 외무부 부속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하심 왕궁에서 근무했다. 이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워싱턴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부대사로 역임하며 외교 경험을 쌓았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하심 왕궁 국제 업무 국장으로 활동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획 및 국제 협력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내외 정책을 주도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압둘라 2세 국왕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2018년에는 경제 담당 부총리 겸 국무장관을 맡아 경제 정책을 총괄했다. 다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압둘라 2세 국왕 비서실장으로 활동한 뒤, 2024년 총리로 임명되어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를 이끌고 있다.

- 왕세자 : 알 후세인 빈 압둘라 2세(Crown Prince Al Hussein Bin Abdullah II, 1994년 6월 28일 생)로서 2009년 7월 2일 국왕에 의해 왕세자로 임명되었다. 압둘라 2세 국왕과 라니아 알 압둘라 (Rania Al-Abdullah) 왕비의 장남이며, 그에게는 한 명의 형제인 하셈 왕자와 두 명의 자매인 이만(Princess Iman bint Abdullah) 공주와 살마(Princess Salma bint Abdullah) 공주가 있다. 그는 2012년 요르단의 킹스 아카데미(King's Academy)에서 고등학교를 마쳤고, 2016년에는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대학교 (Georgetown University)에서 국제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17년에 현 국왕 및 선대 국왕이 졸업 했던 영국 육군사관학교(Royal Military Academy Sandhurst)를 졸업했다. 2023년 6월에는 사우디 왕가의 라즈와 알 사이프(Rajwa Al Saif)와 결혼했는데, 이로 인해 요르단과 사우디 간 협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자료: 기존 KOTRA 자료, 위키백과 등]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62-07-26 (자료원 : 현지 공관 자료)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발효	1972-11-29		
문화협정 발효	1977-10-26		
경제, 기술 협력협정 발효	1977-10-26		
항공협정 발효	1978-05-01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2002-07-01	상호 간 투자에 대한 내 국민·최혜국 대우, 투자 수용(收用) 제한 및 수용 시 보상, 송금자유, 투자자와 투자국가 간의 투자 분쟁 해결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	2002-11-01	주재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세 부담이 크게 완화하였다.	
2004-2006년간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서명	2004-04-01		
한-요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 서명	2005-03-01	주재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세 부담이 크게 완화하였다.	
관광협정 서명	2005-10-01		
KOICA 봉사단 파견약정	2006-03-01		
원자력 협력협정	2009-05-01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왕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이다.	
국방분야 협력협정	2009-10-01	국방 분야에서 협력의 범위를 정하고 평등, 상호주의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우호적 군사 관계를 증진하였다.	

무상원조 기본협정	2014-08-01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 왕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이다.	
항공협정 개정	2015-03-01	한-요르단 구간을 운항할 수 있는 양국 항공사(지정항공사)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어 복수 항공사의 취항이 가능하다.	
외교관 사증 면제 협정	2017-05-01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다.	

한국교민 수

550 명 (자료원 :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2024년 9월 기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1) 최근 10년간 정치 교류 현황

한-요르단 간 국교 수교 후 2010년까지는 한국 내에 요르단 대사관이 부재(주일 대사관에서 겸임)해 명예영사가 활동했으나, 2010년 10월, 양국 간의 관계가 심화 확대되면서 주한 요르단 대사관이 정식 개설됐다. 2011년 8월에는 김장수 대통령 특사가 요르단 국왕을 방문해 주한 요르단 대사관을 설치하였다. 양국은 2012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지속해서 증진되고 있는 한-요르단 우호 관계를 평가하는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한-요르단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는 활발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압둘라 국왕은 2008년을 맞아 세 차례 국민 방문을 시행하였다(1999년, 2004년 에도 방문 시행). 또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1차례, 2015년 9월 추가 방한을 하여 최종 5차례 방한을 하였고 라니아 왕비도 2011년 세계개발 원조총회를 계기로 방한을 하였다. 가장 최근 방한은 2015년 동아시아국 순방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해당 기간 한-요르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은 이 회담에서 건설, 에너지, 수처리, 방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2018년 8월 한국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파이잘 엘 파예즈 상원의장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고 12월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파이잘 알 파예즈(Faisal A El-fayez) 상원의장과 아테프 타라우네(Atef Tarawneh) 하원의장을 잇달아 만나 한-요르단 의회 간 교류협력 등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은 수교 60주년 기념 축하 서한을 교환하였으며, 양국의 외교장관은 양국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 방안을 전화 통화로 논의했다.

또한 2020년 2월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2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Safadi) 요르단 외교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요르단의 입국금지 조치와 P4G 정상회의 개최계획 등을 논의했다. 2022년 6월에는 김장현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요르단 암만을 방문하여 아들리 알칼레디(Adli AlKhaledi) 요르단 외교부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공동으로 제3차 한-요르단 정책협의회를 열고 양국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2023년 2월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아살 알-탈(Asal Al-Tal) 주한 요르단대사의 접견에서 양국간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유공장 확장 및 담수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기업 참여 지원을 요르단 측에 당부했으며, 알-탈 대사는 요르단으로의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에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하여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Safadi) 요르단 외교부 장관과 전화로 통화했다. 양국 외교부 장관은 무력 충돌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위기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인도적 교전중단(Humanitarian pause)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

2) 한국과의 주요 인사 교류 현황

○ 한국 주요 인사 요르단 방문

- 2015.01. 한-요 의원친선협회(이철우 의원)
- 2016.02. 김영목 KOICA 이사장
- 2016.12. 최양희 미래부 장관
- 2017.02.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 2017.03. 심재권 국회 외통위원장
- 2017.07. 한-요 의원친선협회(전혜숙 의원)
- 2017.08.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2017.12. 이진규 과학기술부1차관
- 2017.12. 심재철 국회부의장
- 2018.11. 남부발전 신경식 사장
- 2018.12. 문희상 국회의장
- 2019.06.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 2019.07.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 2022.06.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4명, 요르단 상·하원 의장 예방, 요르단 원자력 위원장 면담 및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JRTR) 시찰
- 2022.06. 김강현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 방요
- 2023.03. 한-요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이명수, 박찬대, 정필모 의원)

○ 요르단 주요 인사 한국 방문

- 2015.04. Hazem Nasser수자원부 장관 방한(세계 물포럼 참석)
- 2015.05. 요르단 의원단 방한
- 2015.09. Abdullah 2세 국왕
- 2015.12. Fakhoury 기획국제협력부장관
- 2018.08. El-Fayez 상원의장(전 총리)
- 2021.11. Prince Mired 궁내부장관
- 2022.05. Basma 공주(제15차 산림총회 계기)
- 2022.05. Al Boucai 상원의원(요-한 의원친선협회장)
- 2022.10. Faisal 왕자
- 2022.11. Khasawneh 총리
- 2023.08. Al-Zoubi 산업통상공급부 차관
- 2024.01. Faisal 왕자(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참석)

[자료: 주요요르단한국대사관,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

경제

1) 최근 무역·통상 현황

요르단은 2000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미국, EU 등과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등 개방과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보호할 만한 산업 발달이 미미해 무역 부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나 이슈는 없다. 참고로 2020년에 2건의 한국 관련 세이프가드가 종료된 바 있는데, 알루미늄·바·로드·프로파일 관련 세이프가드는 2020년 5월 15일 요르단 내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종료되었고, 감자칩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2020년 5월 12일 요르단 산업부 장관 결정(No.73/2020)에 따라 수입 규제 조사 중지 및 규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국-요르단은 FTA 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가 아니며 부문별로 협정을 맺고 있다. 요르단은 한국에 대해 최근 수년간 매년 4~5억달러 수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양국간 FTA 협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3년까지 한국의 대 요르단 수출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이스라엘-중동 분쟁의 여파로 2024년 9월까지 한국의 대 요르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5% 감소하여 4억 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4년 9월까지 한국의 대 요르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5% 감소하여 4억 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중동 분쟁의 여파로 인해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승용차(△ 36.0%), 기타자동차(△ 57.4%), 전기자동차(△ 57.8%) 등 차량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4년 상반기 요르단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금액 기준 72.9%를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저가의 중국산 제로마일리지 전기차가 69.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고,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기타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은 2024년 9월까지 2,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며 가장 큰 성장을 보였고, 이는 요르단 내 산업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4년 9월까지 전체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5,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3-2024년 동안 한국의 요르단 수입은 주로 원자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수입의 87.9%가 화학 및 소재 산업용 원자재로 구성되었다. 기타 석유화학제품(TBPA, 브롬화 난연제)은 전체 수입액의 약 43.3%를 차지하며, 구리, 알루미늄, 압연 관련 원재료는 약 44.6%를 차지하였다. 2024년 9월까지 동안 한국의 대 요르단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기타 석유화학제품이 2,000만 달러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수입 규모는 유지되었다. 동제품의 수입은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은 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였다.

2) 최근 유상 원조(EDCF) 현황

우리나라는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요르단에 프로젝트 차관(유상원조)을 제공해 왔으며, 2023년까지 유상원조 승인액은 총 2,891억 원, 총 집행액은 총 2,792억 원이다. 지금까지의 주요 프로젝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1년 Madaba시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76.2억원)
- 2006년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 (241억원)
- 2010년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 (826.1억원)
- 2011년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2차) (487.56억원) *현재 진행중이며 2024년 종료 예정
- 2013년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사업 (보충용자, 327.6억원)
- 2015년 연구용 원자로 건설사업 (보충용자, 151.1억원)
- 2018년 나우르 폐수처리사업 (보충용자, 362.6억원) *현재 진행중이며 2024년 종료 예정

3) 최근 무상 원조 현황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08년 초 암만 대사관 내 주재원 사무소를 개소해,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12월, 한국-요르단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로 2015년부터는 한국의 대요르단 ODA 사업기관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KOICA로 변경되었다. 기존 한국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 사업이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은 인력개발, 기술협력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

대하고 있다. KOICA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4,747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추진해 왔는데, 주요 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2024년 한국의 대요르단 ODA 규모는 1,100만 달러이다.

- 2017년 요르단 시리아 난민 밀집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3개 학교 건립사업 (127.6억원)
- 2017년 요르단 자르카 기술고등학교 설립 (119.7억원)
- 2019년 UNDP 아랍국가 공공행정 효율화를 위한 지역협력 강화 (14.7억원)
- 2020년 요르단 발카대학교 산하 카락 및 이르비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훈련 역량강화 (71.4억원)
- 2020년 요르단 카라주 파쿠오 지역 노후 상수도 관망 개선 (110.3억원)
- 2020년 요르단 아랍어 점자 및 일반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저가형 보조공학기기 보급 (5.0억원)
- 2020년 석사학위-경제발전을 위한 규제관리 (0.6억원)
- 2021년 요르단 고용실업 개선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4.3억원)
- 2021년 요르단에 비특정 분야 관련 영프로페셔널(해외) 파견 (0.8억원)
- 2021년 요르단에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0.8억원)
- 2021년 요르단 경찰청 빅데이터 기반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75.6억원)
- 2022년 UNICEF 요르단 취약 청년 및 지역사회를 위한 평등한 기회, 사회통합, 기후 복원력 지원 (72.6억원) *다자성 양자원조(무상)
- 2022년 요르단 제라시주 마스타바 지역 노후 상수도 관망 개선 (103.1억원)
- 2022년 요르단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역량강화 (4.23억원)
- 2023년 GGGI 요르단 난민 및 지역사회를 위한 녹색 경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 창출 (77.4억원) *다자성 양자원조(무상)
- 2023년 요르단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기술기반 구축 역량강화 (5.1억원)
- 2024년 요르단 제라시주 알나심지역 노후 상수도 관망 개선 (16.5억원)
- 2024년 요르단 디지털 농업 역량 강화 (11억원)
- 2024년 시리아 및 주변국 인도적 지원(32억 5,000만 원)
- 2024년 요르단 아동 문해력 및 교육 접근성 강화 (8.39억원)
- 2024년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요르단, 고도화) (2억 4,882만 원)
- 2024년 (23/24 KSP) 그린빌딩 분야 역량 강화 (4억 3,693만 원)

상기 프로젝트 이외에도 KOICA는 연수생 초청 사업인 “씨앗(CIAT)”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요르단의 인력 개발을 위해 860명의 요르단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있으며,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4.31억원, 2021~2023년),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 (4.23억원, 2022~2024년), 요르단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기술 기반 구축 역량 강화(5.12억원, 2023~2025년) 등의 글로벌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OICA가 운영하는 월드프렌즈코리아 요르단 봉사단은 현재 이르비드, 자르카, 암만 등에 인력을 파견하며, 이들 인력들은 요르단에서 수요가 높은 유아 청소년 교육, 한국어 교육, 미술 교육, 건축, 전기, 태권도를 포함한 체육 교육 등 30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4) 최근 10년간 한국 기업 요르단 프로젝트 진출 현황

1980년대 초반까지는 대요르단 건설 진출 붐을 이루었으나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 이후 매년 1건 정도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 한국과 요르단 양국은 2008년 12월 압둘라 2세 국왕 방한 시 합의 서명한 원자력발전, 대수로 및 담수화 플랜트 건설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12월, 우리나라는 원전 사상 처음으로 5MW 규모의 연구용 원자로를, 2012년에는 573MW급 세계 최대 디젤 내연 발전소(제3차 민자독립발전소)를 수주하는 등 요르단의 대형 국책사업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이뤄졌다. 최근 10년간의 한국 기업의 요르단 프로젝트 진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한화건설: 사므라 화력발전소 증설 사업(2억 달러, 2009년 1월 완공)
- 현대엔지니어링, 코오롱 건설: 폐수처리장(EDCF 자금 포함)
- 현대중공업: 자르카 정유저장 시설 공사
- 두산중공업: 암만 서부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2억 달러, 2009년 8월 완공)
- 롯데건설: 요르단 정유 공사 LPG 저장 탱크 건설 사업(4,000만 달러, 2011년 8월 완공)

- STX건설: 알카트라나 시멘트공장 건설 사업(2,000만 달러, 2012년 완공)
- 한국전력: 알카트라나 화력발전소 완공(2012년 2월, 압둘라 국왕 착공식 참석) 롯데건설 시공, 남부발전 운영(25년간 운영 예정)
- 한국전력: 암만아시아 디젤 발전소 건립 (AAEPC) (2014년 10월 완공)
- 한국전력: 알마나커 화력발전소 건립 (2015년 4월 완공, 한전KPS 운영)
- 코오롱글로벌: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건설 1차 사업(2015년 완공)
- 한화건설: 마안 태양광발전소 신설 사업(2,000만 달러, 2016년 완공)
- 한국원자력연구원/대우건설: 5MW 규모 연구용 원자로 건설공사(2017 완공)
- 코오롱글로벌 : 암만 남부 폐수처리시설 건설 2차 사업(2017년 3월 착공, 2024년 현재 진행중)
- 한국전력: 푸제이즈(Fujeij) 풍력발전소 건립(2019년 7월 완공)
- 남부발전(대한풍력법인), DL에너지(구 대림에너지): 타필라(Tafilah) 풍력발전소(2021년 7월 완공)
- 코오롱글로벌 : 요르단 나우르 하수처리장 건설공사(2024년 기준 진행 중)

한편 2023년 9월에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국전력이 요르단발전소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매각 대상은 알카트라나 화력발전소 지분 29~45%,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지분 40%다. 참고로 알카트라나 발전소는 한국전력이 약 1,134억 원의 자본을 투입하여 지분 80%를 갖고 있었으며, 푸제이즈 풍력발전소는 877억 원을 투자한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ODA Korea, KOICA 암만사무소, 주요르단한국대사관]

문화

요르단에서는 한국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태권도 시범단, 비보이 공연, 한지 공예 행사 등이 이어지고 있다. 요르단 내 한류 확산을 위해 2011년 10월부터 요르단 국영 방송사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방영했으며 2012년에는 한-요르단 수교 50주년을 맞아 해 영화제, 공연 등 많은 문화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2014년에는 한국 클래식 공연, K-Pop 콘테스트, 한글 말하기 대회, 자타리 난민캠프 축구시합, 기업후원 마라톤 대회, 한복패션쇼, 양국 간 국가대표 친선축구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일부 행사는 2015~2016년에도 지속 개최됐다.

또한, 2014년 9월 한국 tvN의 드라마 '미생'의 배우, 스태프 등 약 50명이 요르단을 찾아 요르단을 배경으로 촬영했다. 약 1년 반가량 사전 준비를 거쳐 진행된 드라마 '미생' 요르단 촬영은 공항 도착 환영인파가 모이며 현지에도 화제가 됐고 미생 주인공 임시완은 요르단 현지 언론과 인터뷰가 대대적으로 홍보되기도 했다. 2014년 하반기에는 양국 국가대표 간 친선축구대회가 암만에서 열렸고, 한복패션쇼는 요르단 왕실 인사가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5년에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영화제, 음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협력 활동이 이어졌다.

2018년 6월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 제작진이 요르단을 방문하여 촬영을 진행했으며 8월은 K-Pop World Festival 2018 요르단 지역 예선을 개최하여 약 1,000명 이상 관람객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또한, 9월에는 한국 퓨전 국악팀을 초청하여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는 한국영화제를 실시하여 인기영화인 '마녀', '국제시장' 등을 상영하는 등 각종 문화 교류를 진행했다.

2010년대 말부터는 영화와 드라마 등 한국산 영상 콘텐츠의 요르단 진출이 두드러졌다. 2019년 주 요르단 한국대사관에서는 아카데미 수상작인 '기생충' 시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0년 5월에는 한국 드라마 '구미리 그린 달빛'과 '시그널'이 요르단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다. 이어 2020년 8~9월에는 요르단에서 한국 영화 '교섭'의 촬영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2021년에 불어닥친 넷플릭스 배급작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요르단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극중 의상 및 소도구 등이 요르단 내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기도 했다. 이후에는 '지옥', '스물다섯 스물하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수리남', '슈룹' 등 인기작들이 요르단 OTT 플랫폼에 대거 등장하여 요르단 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더욱 상승했다. 2023년에는 요르단 OTT 플랫폼에서 '더글로리 시즌1'이 7주 동안, '킹더랜드'가 8주 동안, '마이데몬'이 10주 동안 TOP10을 지키면서 요르단 내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상승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요르단 10~30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가요와 한국 드라마, 예능 등 한국 방송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들 여성들을 주축으로 현지 한류 동호회 'Jordan K-Pop Lovers'가 결성되어 온·오프라인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K-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동호회는 2023년 8월 'K-pop party'를 암만 시내 레인보우 극장(Rainbow Theatre)에서 개최하여 요르단에서 한국 음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며 2024년 3월 기준 SNS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2021년 12월에 요르단 왕립영상위원회(Royal Film Commission)는 주요르단한국대사관과 함께 3일간 한국 드라마 영화를 상영하는 '한국 영화의 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자산어보(The Book of Fish)', '터널(Tunnel)', '나랏말싸미(The King's Letters)' 등 3편의 영화가 레인보우 극장에서 방영되었다. 또한 2022년 '모가디슈', '범죄도시2' 등의 인기 영화를 상영했던 제 16회 한국 영화제에 이어 2023년 12월 5일에는 제 17회 한국 영화제가 암만 시내 타지시네마(Taj Cinema)에서 개최되어 영화 '밀수'를 상영하였다. 2023년 행사에는 200여명 이상의 요르단인들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요리, 사진, 댄스 등 각기 다른 한국 문화가 요르단에 전파되는 행사들이 열리기도 했다. 2021년 6월에는 요르단 최대 방송사인 Roya TV의 요리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요리가 소개되었고, 2023년 8월에는 KOTRA 암만무역관과 주요르단한국대사관이 주최한 'Korean Food Week 2023' 행사를 통해 코즈모(Cozmo), 패밀리 바스켓(Family Basket) 등 주요 하이퍼마켓에서 한국 라면, 어묵, 만두 시식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2021년 10월에는 주요르단 한국대사관 주최로 한국 비보이 크루팀인 '진조크루'가 암만 Mohammed Hamdan 센터에서 공연했다. 2021년 12월에는 암만 갤러리아몰(Galleria Mall)에서 한국과 요르단의 친선 사진전이 개최되었는데, 지난 60년 간의 한국과 요르단 우정의 이정표를 보여주는 전시들이 주를 이루었다.

2022년은 한-요 수교 60주년으로서 2022년 7월에는 요르단 태권도 시범단(요르단태권도연맹)과 K-타이거즈 공연팀이 요르단을 방문하여 후세인 스포츠시티(Hussein Sport City) 공연장에서 태권도 공연 행사를 진행했다. 2022년 8월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 비아이지(B.I.G)가 요르단 암만 문화 궁전(Cultural Palace)에서 공연한 바 있다. 2022년 12월에는 요르단 대형 쇼핑몰인 타즈(Taj)몰에서 제 16회 한국영화제가 개최되어, '모가디슈', '범죄도시2' 등의 한국 인기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 2023년 7월에 알후세인 문화센터(AI-Hussein Cultural Center)에서 열린 'K-Pop World Festival'의 암만 지역 예선전에서는 500명 이상이 참가해 한국 대중가요에 대한 열띤 관심을 보여주었다. 2023년 9월에는 'K-DRAMA meets classical music' 이 알 후세인 문화센터(AI-Hussein Culture Center)에서 개최되어 500명 이상의 요르단인들에게 바이올린과 플룻, 비올라, 첼로, 피아노로 연주되는 한국 드라마 OST를 선보였다.

2023년 5월에 요르단 교과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연수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 요르단의 교육 전문가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2023년 7월에는 알후세인 컬처 센터에서 열린 2023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요르단 본선이 있었다. 이 행사는 K-pop에 대한 요르단 젊은이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며, 양국 간 대중문화 교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24년 5월에 한-요르단 전통혼례 전시 행사가 있었다. 이 전시는 양국의 전통문화를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24년 10월에 주요르단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국 영화제가 열렸고, 개막작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상영되었다. 이어서 '청년경찰'과 '인생은 아름다워'가 상영되었으며, 이 영화들은 한국 영화의 최신 트렌드와 특색을 보여주기 위해 선정되었다. 이번 영화제는 요르단 현지 관객들에게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매력을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각 상영작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자료: 요르단타임스, 주요르단한국대사관, Zawya 등]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	-1.1	3.7	2.6	2.7	
명목GDP (십억\$)	43.7	46.3	48.8	51	
1인당 GDP (PPP, \$)	9,730	10,340	11,200	11,850	
1인당 명목 GDP (\$)	4,044.1	4,185.9	4,314.7	4,428.1	
정부부채 (% of GDP)	102.2	103.7	105.4	91.2	
물가상승률 (%)	-0.4	2.4	4.4	1.6	
실업률 (%)	23.9	22.8	22.6	21.4	
수출액 (백만\$)	7,931	9,371	12,366	12,464	
수입액 (백만\$)	17,141	21,573	27,328	25,754	
무역수지 (백만\$)	-9,210	-12,202	-14,962	-13,290	-
외환 보유고 (백만\$)	16,936	19,018	18,164	19,043	
이자율 (%)	2.5	2.5	6.5	7.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0.71	0.71	0.71	0.71	

<자료원 : IMF, 요르단 중앙은행, EIU, 요르단 통계청>

나. 경제 동향

1) 경제 정책 동향

[2021-2023 경제 우선순위 프로그램]

2020년 10월에 출범한 비샤르 알 카사우네(Bishr Al Khasawneh) 내각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국 경제회복을 위한 '2021-2023 경제 우선순위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동 정책은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개선,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증대, 관광, IT, 농업

및 산업을 포함한 우선 분야 지원 등을 목표로 53개의 세부 경기부양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관세 감면 및 환급, 운송 면허 수수료 면제, 회사 합병 시 소득세 면제, 자유구역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벌금규정 완화 등을 포괄한다. 총 프로그램 규모는 4억 8000만 요르단디나르이며, 이중 약 58%인 2억8000만 요르단디나르는 국고에서, 나머지 42%인 2억 요르단디나르는 해외원조에서 조달된다. 동 프로그램을 통해 PPP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발주될 예정이며 그 규모는 총 5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단, 2022년 4월에 독립비영리기관인 KAFA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의「2021-2023 경제 우선순위 프로그램」은 2022년 1분기까지 이행률이 33%에 도달했어야 하나 17%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2월 발표된 KAFAA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프로그램 이행률은 79.3%에 달했는데, 프로그램의 마지막 6개월 동안 실행이 급증하여 달성률이 2023년 6월 말의 56.9%에 비해 22.4%p 증가했다.

[2022-2025 경제 현대화 비전(Economic Modernization Vision)]

2022년 6월에 요르단 정부는 향후 10년간 경제·산업 개발, 고용 창출, 중산층 확대 등 내용을 담은「경제 현대화 비전(Economic Modernization Vision)」을 발표했다. 이는 왕실 주도로 수개월 동안 열린 국가 경제 워크숍의 결과로, 공공·민간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회, 시민사회 대표 등이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동 비전에는 성장 가속화, 시민 생활 수준 개선, 지속 가능성 유지 등의 전략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35개 주요·하위 부문에 걸쳐 366개 이니셔티브가 수립되었다. 특히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외 협력,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비용 합리화 조치 등의 액션 플랜이 담겼다.

2022년 12월, 요르단 내각은 경제 현대화 비전의 2023~2025년 3개년 간 연도별, 분야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겼으며, 재원 조달 방안,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전자 시스템 구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경제 현대화 비전에 포함된 전체 380개 세부 프로그램 중에서 183개가 이번 3개년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으며, 각 세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총 46건의 기존 법률 검토, 수정 및 신규 법률 입안 등이 추진된다. 요르단 정부는 정책 실행을 위해 2023년 9억5000만 달러를 포함, 3년간 약 32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총 필요예산 중 약 24.5%인 7억9800만 달러는 대외원조로 충당하며, 8개 중점 추진 분야 중 ‘지속 가능한 자원’ 분야에 가장 많은 9억7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2023년 요르단 경제 현대화 비전의 추진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우선, 2025년까지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여 2023년에는 목표의 5.7%를 달성했으며, 97개의 우선 과제 중 78개가 이행되었다. 또한, 투자 촉진을 위해 전자 투자 플랫폼인 Invest Jo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12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372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지원되었다. 이와 함께 5개의 저가 항공사와 관광 촉진을 위한 협정도 체결되었다.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는 암만과 자르카 사이의 전용 버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새로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일부 단계가 완료되었다.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는 77만 1천 개의 디지털 ID가 활성화되었으며, 5G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 사용이 123%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2024년 요르단 정부는 『경제 현대화 비전(Economic Modernization Vision)』 실행을 위해 대외원조 3억 5288만 달러를 포함한 11억 달러를 할당했다. 2024년 주요 목표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의료 인프라 확장,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다. 재생에너지 부문에는 총 3억 2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2024년에 전력의 30%를 생산하는 목표를 향해 추진 중이다. 또한 스마트 미터기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소비의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다. ICT 산업 부문에는 총 2억 5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5G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정부 서비스 도입을 통해 ICT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으며, 고등 교육 및 기술 교육(TVET) 분야의 디지털 학습 플랫폼도 개발되었다. 관광 산업에는 약 1억 2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페트라와 아카바 등 역사적 유산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 경쟁력이 강화되고, 요르단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헬스케어 부문에는 총 1억 2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의료 인프라 확장과 바이오헬스 연구소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 병원이 건설되고 의료 접근성이 높아져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며, 의료 기술과 의약품 연구 개발을 위한 바이오헬스 연구소 설립도 추진 중이다. 2024년 3월 요르단 알카사오네 총리는 『경제 현대화 비전(Economic Modernization Vision)』의 달성률이 82%를 초과했음을 밝혔으며, 해당 성과를 바탕으로 2033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요르단 정부는 약 12억 달러의 예산을 할당하여 182개의 과제를 실행하고자 한다. 주요 목표는 기존 프로젝트의 완성과 혁신적인 신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이다. 고부가 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제조업, 농업, 광업, 에너지 부문에서 혁신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총 3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암모니아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2024년에 시작하여 2025년에 완성될 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친환경 프로젝트이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제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관광, 운송·물

류, 엔지니어링, 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등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총 3억 달러가 투자된 ICT 산업 부문에서는 스마트 교육 시스템과 데이터 연구 개발 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5G 기반의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연구 개발(R&D) 센터를 통해 ICT 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것이다. 관광 산업에는 약 1억 3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디지털 관광 경험을 강화하고, 가상 관광 및 AR/VR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운송·물류 부문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물류 솔루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의료 부문에서는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와 보건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헬스케어 부문에는 총 1억 3천만 달러가 투자되어 아카바 의료 도시가 완성될 예정이며, 바이오헬스 연구소는 의약품 R&D센터로 확장되어 요르단의 의료관광 중심지로 발전하고 혁신적인 의약품 연구와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요르단 정부는 『경제 현대화 비전』에서 주요 추진 분야 중 하나로 ‘투자유치’를 내세우며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요르단은 기존 2014년 투자법 제30호(Investment Law No.30)를 대체하는 2022년 투자환경법(Investment Environment Law of 2022)을 제정하였고, 동법은 2022년 10월 16일에 관보에 게재되어 2023년 1월 14일부터 발효되었다. 2022년 투자환경법은 기존의 2014년 투자법보다 더 많은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전보다 다양한 인센티브(세금 감면 및 면제)를 제공한다. 2022년 투자환경법 제정 이후 실제로 요르단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세였다가 2022년 전년대비 약 83% 급상승했다. 2023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약 844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약 945백만 달러, 2025년에는 1,163백만 달러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요르단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자원 확보와 고부가 산업 부문 육성, 투자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요르단은 경제적 자립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꾸준히 실현해 나가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33년까지의 장기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현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 9월, 요르단은 세계무역기구(WTO) 주관으로 열린 무역 정책 검토(The third trade policy review)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요르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 현대화 비전』과 같은 일련의 개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 안정화에 기여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은 검토 기간 동안 약 1.9%의 합리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의 국가 파트너십 프로그램(Country Partnership Program)]

세계은행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요르단을 대상으로 국가 파트너십 프로그램(Country Partnership Program)을 실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요르단의 경제적 기회 확대, 인적 자본 개발 촉진, 양질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총 32억 5000만 달러 규모로 15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대출, 양허성 자금 조달,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었다. 프로그램의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총 약정액 중 19억 달러가 요르단에 배분되었으며, 이 중 5억 달러는 민간 및 공공 부문 투자 촉진에, 2억 9000만 달러는 일자리 유지에, 6억 4000만 달러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자금 배분은 요르단이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 프로그램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은행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의 새로운 국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Country Partnership Framework)를 수립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요르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핵심 목표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녹색 성장 촉진에 있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은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분야와 잠재력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건강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보호를 중심으로 한 교육 개혁을 통한 인적 자원 성과 개선, 물, 에너지, 도시 개발에 중점을 둔 회복성과 지속 가능성 증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요르단의 경제 현대화 비전(Economic Modernization Vision)과 공공 부문 현대화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미래의 충격에 대한 국가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국가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위해 세계은행 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행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부문, 녹색 금융, 양허성 자금을 유치하는 파트너십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개발, 관광, 기후 관련 서비스와 같은 고잠재력 분야에서의 개혁을 지원하여 민간 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고용 기회, 특히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재정 정책 동향

2023년 요르단 국내 수입은 약 118억9279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 약 114억5541만 달러에 비해 약 4% 증가한 수치이다. 전년 대비 종합소득세의 인상으로 인해 세수입이 약 1억9238만 달러 증가하고, 세외 수입이 약 2억 4499만 달러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23년 말 요르단 사회보장 투자기금(SSIF)이 보유한 부채는 2023년 추정 GDP의 89.3%에 달하는 약 455억 4198만 달러로 2022년 말 대비 약 5% 증가했다. 대외 공공부채는 2023년 말 GDP의 50.4%인 256억 8107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약 3%p 증가했다. 이러한 부채 증가에는 요르단 수자원청(WAJ)과 요르단 전력회사(NEPCO) 등의 예산 적자가 영향을 끼쳤다.

2023년 4월, 요르단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12억5000만 달러 규모, 고정금리 7.5%의 유로본드(2029년 1월 만기인 5년 만기 채권)를 발행했는데, 총 청약 규모는 당초 목표 금액이었던 7억5000만 달러의 6배에 달하는 47억 달러에 달했다. 동 청약에는 미국, 영국, 유럽, GCC 국가의 주요 펀드를 포함하여 23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했다. 많은 투자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경제가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의 금융 및 화폐 안정성을 높이 평가했다. 뒤이어 6월에 요르단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6억5000만 달러 규모, 고정금리 7.75%, 만기일 5.5년의 유로본드를 발행했는데, 총 청약 규모는 기존 목표 금액이었던 5억 달러의 3배를 초과하는 총 18억 달러에 달했다. 동 유로본드의 발행은 2022년 일반예산법에 포함된 재정예산의 일부로, 이번 유로본드 발행이 요르단 공공 부채가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2024년 1월 IMF 집행위원회와 요르단 정부 사이 2024년 3월 만료 예정이었던 3개년 확장재정기금(EFF) 계약을 계승하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4개년 EFF계약이 체결되었다. 해당 계약에서 IMF는 요르단에 약 12억 달러 규모의 국가 경제 및 금융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로써 요르단은 약 1억9000만 달러를 즉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4년 간 총 8회의 프로그램 이행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모하마드 알이시스(Mohamad Al-Issis) 재무장관은 EFF 프로그램이 요르단의 금융 안정 유지 및 경제 성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추가적인 세금 인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4년 3월, 2024년 국가예산법이 요르단 왕실로부터 최종 승인되었다. 금번 국가예산법에 따르면 공공 수입은 145.5억 달러로 2023년에 비해 8.9% 증가했다. 이 중에서 전체 세입 규모는 135.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4년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은 각각 149.7억 달러, 24억 달러로 추산되었는데 특히 자본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하여 공공 부채 상환 부문에 더 높은 비중이 할당되었고, '경제 현대화 비전 및 공공 부문 현대화' 로드맵 프로젝트에 대한 할당은 자본 지출의 20.2%, 군사 및 보안 프로젝트는 16.9%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 개발 및 지방분권 프로젝트는 전체 자본 지출의 18%를 차지했고, 기타 프로젝트는 45%를 차지했다.

3) 통화정책 동향

요르단은 1990년대 초반부터 요르단 디나르-미국 달러 고정 환율을 쓰고 있다. 이는 요르단의 주요 정책금리가 미국 금리의 움직임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요르단 중앙은행은 2.5%대의 낮은 정책 금리를 유지하면서 민간 은행에 유동성을 투입하는 등 민간 신용부문의 성장률을 6%로 끌어올렸다. 중앙은행 요청에 따라 2020년 각 민간은행은 배당금 지급을 보류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간은행 자기자본비율은 18.3%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2021년 12월 18.0%에서 2022년 6월 17.1%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민간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선인 1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요르단 내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며, 2023년 6월 17.4%로 다시 회복세를 기록했다.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요르단 중앙은행은 같은 해 금리를 총 4% 인상하여 2022년 말 기준금리를 6.5%로 설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세계 및 지역 금리 추세를 반영해 요르단의 통화 안정성을 유지하고, 저축 수단으로서 요르단 디나르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요르단 중앙은행은 총 네 차례에 걸쳐 0.25%p씩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금리는 1월 6.5%, 2월 6.75%, 3월 7.0%, 5월 7.25%, 7월에는 7.5%에 도달했다. 이후 2024년 11월까지 요르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5%로 유지했다.

하지만 2024년 9월과 1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각각 0.5%와 0.25%씩 기준 금리를 인하하여 총 5.0%에서 4.0%로 조

정했다. 요르단은 미국 달러와 연동된 고정환율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맞추어 2024년 9월과 11월에 각각 0.5%와 0.25%씩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총 7.5%에서 6.75%로 조정하였다.

2022년 12월 말 보안 기능이 강화된 1 요르단디나르 지폐가 새롭게 발행되어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이번 신간 발행은 20년만에 처음이다. 요르단 중앙은행에 따르면 새로운 지폐는 기존 지폐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보안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폐 식별 표시가 개선되었다. 이후 5, 10, 20, 50 요르단디나르 지폐도 점진적으로 신간 발행되었다.

2022년 12월에 열린 요르단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위원회는 10개 산업 부문(산업, 관광, 농업, 재생 에너지, 정보 기술, 교통, 보건, 기술 및 직업 교육,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약 18억 달러 규모의 재융자(re-financing) 우대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소기업, 전문가, 장인 및 기초상품 도매수입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당초 2022년 말에서 2023년 4월까지로 4개월 연장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4개월 간 고정 이자율에 따른 자금 제공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단, 2023년 1월 요르단 중앙은행은 요르단 경제 회복을 위해 실시했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2023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2022년 12월 요르단 중앙은행은 이라크, 이집트 중앙은행과 함께 ARPCSO(아랍지역지불청산협정기구)에서 운영하는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인 Buna 플랫폼을 통해 아랍 세계의 연금 수급자를 위한 국경 간 지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초기 단계에는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더 많은 아랍국가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9월 기준 요르단 중앙은행(CBJ)의 외환보유액은 228억 813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이는 약 9개월 동안의 요르단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외환보유액의 증가는 요르단 경제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4) 대외 무역 동향

2023년 기준 요르단의 연간 수출액은 124억 6,400만 달러이고, 수입액은 257억 5,400만 달러이다. 무역수지는 132억 8,900만 달러 적자이다. 요르단의 주요 수출 품목은 니트 의류 및 액세서리로, 2023년 기준 수출액은 18억 8,000만 달러이며 전체 수출의 15.1%를 차지한다. 두 번째 수출 품목은 비료로, 2023년 기준 수출액은 14억 5,200만 달러이며 전체 수출의 11.7%를 차지한다. 요르단의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로, 2023년 기준 34억 4,000만 달러를 수입했으며 전체 수입의 13.4%를 차지한다. 두 번째 수입 품목은 자동차로, 2023년 기준 수입액은 23억 3,000만 달러이며 전체 수입의 9.0%를 차지한다.

2024년 7월까지 요르단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두 번째 수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이다. 2024년 7월까지 요르단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18억 8,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니트 의류 및 액세서리로, 2024년 7월까지 해당 품목의 수출액은 10억 4,500만 달러이며 전년 동기 대비 21.0% 증가했다. 또한, 이 품목은 전체 대미 수출의 55.5%를 차지한다. 2024년 7월까지 요르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액은 9억 1,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의약품으로, 2024년 7월까지 해당 품목의 수출액은 1억 1,700만 달러이며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했다. 해당 품목은 전체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의 12.7%를 차지한다.

2024년 7월까지 요르단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며, 두 번째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이다. 2024년 7월까지 요르단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28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소비재로, 자동차와 전자기기가 2024년 7월 기준 전체 수입액의 각각 20.2%와 13.6%를 차지한다. 요르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한 금액은 23억 1,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로, 2024년 7월까지 13억 500만 달러를 수입하며 전체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의 56.3%를 차지한다.

5) 물/에너지 정책 동향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다각적 접근]

요르단 정부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네덜란드 및 독일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약 8천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수도 암만 남부 하수도 개설 및 북부 하수처리장 시설 확장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한 물 손실률을 연간 2%까지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행, 수원과 직결된 급수 네트워크 확장, 아카바 해수 담수화 및 암만으로의 수송, 수처리장 주변 농업 프로젝트 구현 등 다양한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암만-아카바 국가 물 담수화 및 수송 사업이다. 요르단 수자원관개부는 2023년 12월에 접수된 이 사업에 대한 입찰 제안서를 검토 중이며, 2029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총 공사비용 35억 달러 규모로, 유무상 원조 약 24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카바 만에서 매년 3억 입방미터의 담수화된 식수를 생산하여 요르단의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2023년 12월 요르단 수자원관개부는 미국 개발원조청(USAID) 및 유럽 투자 은행(EIB)과 요르단 계곡의 데이르 알라(Deir Alla) 및 카라마(Karama) 지역 수자원망 개선을 위한 7개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은 약 9,724만 유로 규모로 EIB의 대출과 USAID의 무상원조를 포함한 요르단 정부의 자본 조달을 통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요르단 계곡 지역에 걸친 물 공급 강화, 물 손실 최소화, 공평한 식수 분배 보장, 운영 비용 절감 등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는 총 길이 450km의 수도관 건설, 펌프장 및 제어 시스템 설립, 16개의 우물 시추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요르단은 「2023~2030년 요르단 에너지 전략」을 통해 탈탄소화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전략은 요르단 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중을 2020년 21%(2,400MW)에서 2030년 31%(3,200MW)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비산유국으로서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요르단이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요르단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그 결과, 2000년에는 에너지의 94%를 수입했으나, 2022년에는 약 83%로 감소했다. 이는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요르단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수소 부문 개발을 포함한 청정에너지원 탐사 및 활용, 인근국과의 에너지 연결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함께 논의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사업 경제성 검토, 스마트 그리드로의 전환, Hamza 유전 및 Al-Risha 가스전 개발, 연 3만 건 이상의 가정용 태양발전 시스템 설치 및 33개 지자체에 태양광 발전기 설치, 아카바항에 LNG 육상 재기화 장치 설치, 액화석유가스 저장, 요르단-이라크 전력망 연계, 요르단-이집트 연결 전력용량 증강(1,100MW까지), 자르카 정유소 4차 확장 등이 있다.

[2024년 신규 에너지 정책]

2024년 요르단에서는 천연가스과 전력망 연계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2024년 1월, 요르단 국영석유회사는 리샤 가스전에서 생산한 액화 천연가스를 아카바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충전소 건립을 시작했다. 이는 자국 천연가스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2024년 3월 30일부터 요르단과 이라크 간 전력망 연계 운영이 개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리샤 발전소와 이라크 룩바 발전소를 연결하는 300km의 중압 송전선을 통해 40MW의 전력을 공급하며,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요르단의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 IMF, EIU, 요르단 통계청, 요르단 중앙은행 및 각종 언론 보도자료]

다. 경제 전망

요르단 경제는 2023년에 비해 2024년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이보다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023년 성장률이 2.7%였던 것에 비해, 2024년은 2.2%, 2025년은 2.1%로 경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주요 원인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축과 난민의 지속적인 유입 등으로 인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르단 경제의 주요 산업 부문은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요르단의 서비스업 부문은 GDP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에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영향으로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으며, 호텔 공실률도 50%에서 75%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랍 국가들에서 온 관광객 수는 증가했으나,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관광객은 각각 26.7%와 49.8% 감소하였다.

제조업 부문은 요르단 경제에서 약 16.2%의 비중을 차지하며, 석유화학, 의류, 제약 산업이 주요 부분을 이룬다. 2024년 1분기 동안 제조업 부문은 전년 대비 4.2% 성장하였다. 원자재 공급 지연과 생산 비용 증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문은 높은 성장세를 이

어가고 있다.

광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요르단은 비료 및 화학 자원의 주요 생산국으로, 2024년 1분기 동안 광업 부문은 전년 대비 15.3%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특히 인산염 및 기타 광물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 요인이다. 요르단 정부는 이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광업을 더욱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광업 부문은 경제 다각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요르단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주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2024년 요르단의 재정 적자는 GDP의 7.0%로 예상되며, 2025년에도 6.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지출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국제 신용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르단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와 세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과 광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2023년 1.6%에서 2024년 1.7%로 소폭 상승한 후, 2025년에는 1.0%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 유가의 안정세는 수입 인플레이션을 줄였으며, 식료품 가격 억제를 목표로 한 정부 정책은 소비자 물가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물가 상승이 억제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이는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가 안정은 특히 낮은 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 요르단의 기준금리는 1월 6.5%에서 시작해 2월 6.75%, 3월 7.0%, 5월 7.25%, 7월 7.5%로 점진적으로 인상되었다. 이후 2024년 11월까지 요르단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5%로 유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2024년 9월과 11월에 각각 0.5%p와 0.25%p씩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총 5.0%에서 4.0%로 조정했다. 요르단은 미국 달러와 연동된 고정환율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맞추어 2024년 9월과 11월에 각각 0.5%, 0.25%씩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총 7.5%에서 6.75%로 조정되었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실업률은 21.2%로 예상되며, 2025년에도 20%대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2023년 기준으로 40.8%에 달하는데, 이는 경제 성장의 둔화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무역적자는 약 134.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136.6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요르단은 에너지와 소비재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과 에너지 자립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무역수지 적자의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제조업 육성을 통해 소비재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요르단 경제는 2024년과 2025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관광업 위축, 높은 실업률, 그리고 무역수지 악화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제 현대화 비전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역 내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도전 과제들이 여전히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 IMF, EIU, 요르단 통계청, 요르단 중앙은행 및 각종 언론 보도자료]

4. 정치

가. 정치체제

1) 정치 형태

요르단의 정치 형태는 입헌군주제이며, 실질적인 국가 원수는 압둘라 2세(Abdullah II Bin Al Hussein) 국왕이다. 요르단의 총리는 자파르 하산(Jaafar Hassan)이며 2024년 9월 15일 국왕이 임명했다. 국왕은 총리 임명 및 해임권을 보유하고, 총리는 국왕의 감독 하에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024년 11월 기준 요르단의 내각은 1명의 총리와 27개의 부처, 그리고 32명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5명의 장관은 별도의 부처에 소속되지 않는다.

2) 의회

요르단은 공식적으로 1952년 헌법에 의해 통치된다. 요르단의 의회 형태는 양원제로 국왕이 임명하는 상원(임기 4년, 65석)과 하원(임기 4년, 138석)으로 구성된다. 2024년 11월 기준 상원의장은 파이잘 알-파예즈(Faisal A. El-Fayez)이고, 하원의장은 아흐메드 알-사파디(Ahmed Al-Safadi)이다.

최근의 의회 구성일은 상원은 2022년 10월 30일이며, 하원은 제20대 총선일이었던 2024년 9월 10일이다. 상원은 4년마다 임명을 갱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법 제36조에 의하면 국왕이 임명권을 행사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이때 의장도 국왕이 임명한다. 하원의 경우 국왕이 헌법 제34조에 의해 하원을 해산할 수 있으며 의장은 매 1년마다 의원들이 선출한다. 하원의 경우 요르단 국왕이 소집하는 날인 매년 10월 1일부터 4개월 간 이루어지는 정기 회의(Ordinary session)와, 국왕이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혹은 다수의 대표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특별 회의(Special session), 하원 해산과 총선거가 실시된 뒤 새 하원이 소집하는 임시 회의(Extraordinary session)를 행하며, 상원 회의는 하원 회의와 동시에 개최된다.

하원은 총리 해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리는 하원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한다. 이때 총리가 하원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하원의원 3분의 2가 내린 결정을 통해 장관을 고발할 수 있고, 고발된 장관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하원 전체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부족 대표들이 점유하고 있었으나, 2024년 선거에서는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정당 기반 의원은 약 20%에서 증가하였으며, 이슬람행동전선(IAF)이 31석을 차지하면서 가장 큰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요르단에서는 유권자들이 정당보다 부족과 혈연 중심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명부제가 도입되면서 정당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하원은 지역구 97석과 전국구 41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8석이다. 여성 할당 의석은 18석으로 증가하였으며, 소수민족 의석은 12석으로 유지되었다.

입법 과정은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총리가 하원에 건의를 제공하고, 하원에서는 이를 수락, 수정, 거부할 수 있다. 이후 하원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원들이 제안을 수락하면 이를 정부에 회부한다. 정부가 법안 초안을 작성한 뒤 승인을 위해 하원에 다시 제출한다. 하원에서 승인된 법안은 하원의장에 의해 상원에 전달되어 토론과 표결을 거친다. 상원에서 승인된 법안은 왕에게 제출되며 왕은 칙령에 따라 법안에 동의하거나 승인 없이 법안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반환되어 검토 및 투표 과정이 반복된다. 양원이 공동 회의를 통해 반환된 법안을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면 이 법안은 국왕의 거부권보다 우선하는 의회 법안이 된다.

의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입법권: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입법권이 있으며, 총리가 제출하는 정부 발의 법안에 대한 비준동의, 수정, 거부권을 보유한다(헌법 제95조).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상원의 심사를 거쳐 비준동의(양원 각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 국왕이 이를 비준, 공포한다(헌법 제91조).
- 국정통제: 상하원은 공적 사안을 총리나 각료에게 서면 질의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해당 각료의 질의서 수령 8일 후에는 소환 질의가 가능하다(헌법 제96조). 상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승인하며 필요하다면 지출 삭감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2조).
- 조약비준: 국고의 지출, 요르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약은 상하원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헌법 제112조).
- 내각 불신임권 및 탄핵권: 내각 또는 각료에 대한 신임 권한을 지니며 절대 다수결(재적 과반수)로 내각 불신임 및 특정 장관의 해임(탄핵)결의가 가능하다(헌법 제53조 및 제54조). 단, 탄핵과 별개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하원은 특정 장관을 검찰에 송치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헌법 제 56조).
- 위헌법률심사제청: 상하원 및 각료회의(the Council of Ministers)는 헌법재판소에 법률과 규정의 합헌성 심사 제청이 가능하다(헌법 제60조).

3) 정당

1992년 8월 이후 정당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2024년 1월 기준 2022년 정당법의 창당요건을 충족한 30개 정당이 활동하고 있으며, 추가로 10개의 정당이 창당 준비 중에 있다. 이때 정치인의 소속 정당보다 그의 부족 및 가문 등의 배경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정당은 이슬람 행동 전선 등 이슬람 보수 정당(Islamic and conservative parties), 국가 행동(National Movement) 등 민족주의 정당

들(Nationalist parties), 알-바쓰 아랍 사회당(Al-Ba'ath Arab Socialist Party) 등의 좌파 정당들(Leftist Parties), 요르단 사회민주주의 당(Jordanian Social Democratic Party) 등의 중도좌파 정당(Center-Left Parties), 에라다 당(Erada) 등 중도 정당(Centrist Parties)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정당이 친 국왕 및 친 정부 성향을 보인다. 정치인들의 소속 정당은 수시로 변경되는 편이며 다수가 무소속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당의 역할이 아직 제한적이다. 단, 이슬람행동전선(The Islamic Action Front Party, 요르단 무슬림 형제단의 정치적 분파)은 타 정당에 비해 높은 결집력을 보이고 있는데 의회에서 보수적이고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참고로 이슬람행동전선은 알-야르무크 TV(Al-Yarmouk TV)와 라디오채널 하야트 FM(Hayat FM)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행동(National Movement)당은 알-바딜 신문사(Al-Badeel Newspaper)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5월, 요르단 상·하원은 요르단의 모든 정당은 창당 후 3년 이내에 여성과 청년의 참여 비율을 최소 20%까지 늘려야 한다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창립 멤버는 1,000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최소 10%는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여성과 청소년이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정당에 가입한 대학생들이 교내에서 어떠한 권리 침해 없이 당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의 요건들을 충족한 후 1년 이내에 당은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때 창립자 1,000명 중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최소 6개 주를 대표해야 한다고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2023년 5월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26개 정당의 법적 지위가 승인되었으나 19개 정당은 정당의 법적 지위 획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024년 1월 전체 당원의 38.5%를 차지하는 35세 미만의 청년 23,702명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며, 청년 당원의 44.1%는 여성이다. 전체 정당 당원의 수는 남성 34,575명, 여성 26,959명으로 총 61,534명에 달한다.

2024년 선거에서 이슬람행동전선(IAF, Islamic Action Front Party)은 총 31석(전국구 17석, 지역구 14석)을 확보하며 의회 내에서 가장 큰 세력으로 부상했다. 주요 정당으로는 국가협약당(National Covenant Party, 21석), 에라다당(Irada Party, 19석), 타카돔당(Taqaddom Party, 8석), 국가이슬람당(National Islamic Party, 7석) 등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명부제가 도입되면서 정당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반이스라엘 정서와 이슬람주의의 부상이 두드러졌다.

한편 서안지구에서 이주한 팔레스타인들도 1950년 이래로 요르단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여 투표권 및 공무담임권을 보유하고 있다.

4) 사법 제도

요르단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판사가 법의 권한 외에는 어떠한 권한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판사의 임명과 해임은 국왕이 승인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무부의 추천에 따라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고등사법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요르단 헌법 제99조는 법원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는데 각각 민사(civil) 법원, 종교(religious) 법원, 특별(special) 법원이다. 민사 법원은 법에 따라 민사 및 형사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며, 민사 및 형사 모든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을 관할한다. 민사 법원에는 치안 법원, 제1심 법원, 암만, 이르비드, 마안에 있는 3개의 항소 법원, 고등 행정 법원 및 거세 법원(대법원)이 포함된다. 요르단 민사법 체계는 19세기 초 이집트에서 시행된 프랑스 법률인 나폴레옹 법전에 기초한다. 종교 법원에는 샤리아(이슬람법) 법원과 다른 종교 공동체의 재판소(기독교 소수자의 재판소)가 포함된다. 종교재판소는 초등법원(Primary courts)과 항소법원(Appellate courts)이 있고 결혼, 이혼, 상속, 자녀 양육권과 같은 개인법과 관련된 문제만 처리한다. 또한 과거 계엄령 시기의 군사재판소는 폐지되었으며 군과 민간 재판관으로 구성된 국가보안 재판소로 대체되었는데, 해당 법원은 군과 민간인 모두를 재판하며 그 사법권에는 국가의 외부 및 내부 보안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범죄 및 기타 범죄가 포함된다. 요르단은 다른 아랍국에 비하여 종교재판의 범위가 적어 종교분쟁, 결혼문제 등만 종교 법원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사 법원이 담당한다.

2014년 행정사법법(Administrative Judiciary Law) 제 27호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인 행정법원(Administrative Court)과 최고 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으로 구성된 행정사법부가 설립되었다. 행정법원은 행정사법법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행정결정과 관련된 모든 항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최고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최고 행정법원은 실질적, 법적 관점 모두에서 행정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에 대해 제기된 항소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5) 지방자치단체

요르단은 Amman, Irbid, Mafrq, Ajloun, Jerash, Al Balqa, Zarqa, Madaba, Karak, Maan, Tafileh, Aqaba 등 12개 주(Governorate)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지사는 국왕이 임명한다. 이때 각 주는 군(Counties), 읍(Directorate), 면(Village) 등 하위 행정단위로 구분되며 Mutasarrif로 지칭되는 군수는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기관장이 정부에서 임명되는 행정조직 외에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Municipality)도 있다. 과거 328개의 지자체가 있었으나, 2001년 6월 행정조직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약 100개로 축소되었다. 2013년 8월 27일에 구역장(Mayor)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며, 2017년에도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2022년 실시된 구역장 선출 지방선거에는 총 519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는데 모든 후보자가 남성이었고, 23명이 35세 미만이었으며, 정당 소속 후보자는 36명으로 무소속이 다수를 차지했다.

[자료: 주요요르단한국대사관, 요르단 정치체계 관련 현지 자료 등]

나. 최신동향

2020년 11월 10일, 요르단에서는 제19대 하원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실시되었다. 하원 130석 중 여성에게 15석, 기독교인에게 9석, 소수민족 체첸인과 체르케스인에게 3석이 배정되었다. 당시 최종 투표율은 29.9%로 총 4,647,835명의 투표권자 중 1,378,711명이 투표했는데 이는 10년 동안의 투표율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 당시 남성 투표율은 34.12%, 여성 투표율은 26.11%였다. 독립선거관리위원회는 23개 선거구 수준에서 투표율을 발표했는데, 남부 바디아(Southern Badia)의 남부 베두인(Southern Bedouin) 지구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인 65.74%를 기록했지만, 반면 암만(Amman)의 제3 지구는 가장 낮은 투표율인 11.66%를 기록했다.

선거 결과, 무소속 의원 118명이 당선되었고, 요르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당인 IAF(이슬람행동전선)는 선거에서 5석을 차지하며 기존 의석 중 절반인 5석을 잃었다. 이때 IAF는 이번 총선에서 여성에게 할당된 15석 중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Islamic Centre Party 5석, Jordanian United Front Party 1석, National Loyalty Party 1석으로 총 130명의 하원의원들이 당선되었다.

2022년에는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르단 헌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대중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2016년 헌법 개정(총리나 관련 장관과의 협의 없이 다양한 고위직을 임명 가능)을 통해 압둘라의 권한이 강화된 후 6년 만의 헌법 개정이었다. 주목할 만한 개정안 중 하나는 국왕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NSC(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창설이었는데, 총리(Prime minister), 외무장관(Foreign ministers), 내무장관(Interior ministers), 왕국의 보안 기구 수장(Heads of the kingdom's security apparatuses), 육군 참모총장(Army chief), 국왕이 임명한 2명의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새로운 평의회는 광범위한 정치 및 안보 권한(외부 정치 문제, 국가 예산 및 기타 주권 및 안보 문제)을 갖게 된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국왕은 대법원장(Chief justice), 샤리아 사법위원회 위원장(Head of the Sharia Judicial Council), 대 무프티(Grand Mufti, 수니파 또는 이바디파 이슬람국가에서 종교법상 가장 높은 직책), 조정(朝廷, Royal Court로 왕실 업무 수행), 법원 장관(Minister of the Court), 왕의 고문(King's advisors)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또한 국왕의 전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전까지 국왕은 하원, 상원, 헌법 재판소, 군대 및 보안 부서 각각의 수장뿐만 아니라 총리를 임명할 수 있었던 권한이 있었지만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통해 추가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다. 국왕이 갖고 있는 최종 결정권(헌법을 위반하는 권한을 부여함)에 대해 야당은 이러한 변화를 위헌적 침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새로운 개정안이 요르단의 정치 개혁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2022년 3월에는 주지사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실시되었다. 동 선거에는 총 460만 명의 요르단 유권자 중 130만 명만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은 2017년 지방선거보다 2% 감소한 29.8%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 암만에서는 유권자 중 오직 14.75%만이 투표하며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2023년 7월, 요르단 의회는 국가적 단결을 훼손하고 국민 통합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연설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8월 요르단 왕실이 이 법안을 승인했다. 재야 인권 단체들은 동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며, 요르단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9월 26일, 요르단 국왕은 내각 개편을 승인하는 왕실 법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20년 10월 이후 비세르 알 카사오네(Bisher Al-Khasawneh) 총리 정부의 7번째 개편이다. 이번 법령 발표로 Raed Abu Soud 수자원관개부 장관, Wajih Azaizeh 국무 장관, Ahmad Maher Abul Samen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Haditha Khraisha 정치 및 의회부 장관, Yousef Shamali 산업통상공급부 장관, Nadia Rawabdeh 노동부 장관, Wesam Tahtamouni 교통부 장관, Muhannad Mubaidin 정부 커뮤니케이션부 장관 임명이 승인되었다.

2024년 1월 요르단 하원은 104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각서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고, 2월에 개정된 선거법 초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득표수와 선거구에 할당된 의석 수에 따른 당선자 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2024년 9월 10일 요르단 하원의원 선거에서 정당 명부제를 도입해 총 138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이슬람행동전선(IAF)이 반이스라엘 정서 확산 속에 31석을 확보하며 의회 최대 세력으로 부상했다.

[자료: 요르단 타임스 등 현지보도 종합]

다. 대외관계 및 사회적 특징

1) 대외 관계

현재 요르단은 유엔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여러 전문 및 관련 기관의 정회원이다. 그리고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이슬람협력기구(OIC), 비동맹운동, 아랍연맹의 회원국이다. 또한 유럽 연합(EU)의 유럽 이웃 정책(European Neighborhood Policy)의 맥락에서 EU와 요르단은 정치적,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고 현재의 유럽 연합과 제3국 간의 양자 협정(Association Agreement)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Action plan)을 공동으로 채택했다(1997년 11월 서명).

유럽연합은 2011년 시리아 내전 시작 이후 약 40억 유로를 요르단에 지원했다. 2021년~2027년 유럽연합은 인근국개발국제협력기구

(NDICI)를 통해 요르단의 민주적 개혁 등의 거버넌스 개선, 녹색 전환, 회복성 있는 경제 지원, 인력 개발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2024년 4월 유럽 연합(EU)은 최대 5억 유로 규모의 요르단에 대한 새로운 거시금융(MFA) 프로그램을 채택했는데, 이는 2013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요르단에 총 10억 8000만 유로를 지원한 이전의 MFA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동 프로그램은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요르단의 외부자금 조달과 재정 건실화, 일자리 성장과 투자에 대한 도움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 대출 형태로 3회에 걸쳐 제공된다. 2024년 6월 'EU-요르단 비즈니스 포럼'이 암만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EU 투자 확대를 통한 요르단 경제 지원과 요르단에서 EU로의 수출 증가 등이 논의 되었다.

요르단은 친서방 외교 정책을 표방해왔다. 특히 미국과는 1949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양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문제, 요르단과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극단주의의 종식이라는 상호 목표를 공유해왔다. 양국 공동의 전략적 목표와 긴밀한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요르단은 1996년 미국의 주요 비 NATO 동맹국으로 지정되었다. 미국과 요르단은 자유 무역 협정(2001년 12월 17일 발효,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맺고 무역관계를 확장했다. 이는 미국이 아랍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 무역 협정이었다. 2018년 미국과 요르단은 자금 가용성이 있을 때까지 5년 동안 요르단에 63억 7500만 달러의 양자 대외 원조를 제공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해당 MOU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과 대화 확대를 목표로 한다. 2024년 회계연도에 미국 행정부는 요르단에 총 14억 5000만 달러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요르단은 시리아 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약 17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2021년 미국에게 받았다. 이외에도 미국은 다양한 부문에서 요르단의 COVID-19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3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2022년 9월 16일, 미국과 요르단은 요르단에 대한 미국의 대외 원조에 관한 네 번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7년(FY2023-FY2029)동안 미국 행정부는 요르단에 연간 총 14억 5천만 달러의 경제 및 군사 지원을 실시한다.

단, 2023년 10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미국과 요르단 사이에 우호적인 기류가 다소 반전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략을 규탄하는 시위들이 10월 이래로 현재까지 주요요르단이스라엘대사관뿐만 아니라 주요요르단미국대사관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0월에 압둘라 국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동 사태 종식과 민간인 보호 방안을 논의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요르단 방문 직전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병원 공습을 이유로 압둘라 국왕이 면담에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11월에는 안토니 J.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 국무장관이 암만에서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과 알 후세인 왕세자와 만나 중동사태를 추가 논의했다.

2024년 2월 요르단 외교장관은 안토니 J.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구호품 전달과 민간인 보호를 위한 노력을 증진하고 두 국가 해법에 기초한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2024년 3월 암만에서 요르단 카사우네(Khasawneh) 총리가 미국 상원위원 대표단을 접견해 요르단의 포괄적인 현대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 현대화 비전의 목표를 강조했으며, 전쟁 구호품 제공에 대한 요르단 국왕의 노력과 전쟁에 대한 요르단의 입장을 표명했다.

걸프 중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간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다소의 부침이 있었다. 그러나 2023년 6월 1일 알 후세인 빈 압둘라(AI Hussein bin Abdullah) 요르단 왕세자가 사우디의 왕가 여성 라즈와 알 사이프(Rajwa Al Saif)가 결혼하면서 양국 관계는 향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 진행 중인 지역적인 위기로 인해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는 보다 밀접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2월 요르단 카사우네 총리(Khasawneh)가 사우디 정보부 장관 살만 빈 유세프 알-도사리(Salman bin Youssef Al Dossary)를 접견하여 지역 안정과 팔레스타인 독립에 대한 요르단의 입장, 요르단의 성지 관할권 등에 대한 사우디의 지원과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며,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때때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요르단은 항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을 국내 문제로 다룰 만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인다. 요르단은 1949년 정전 협정 이후 1950년 웨스트뱅크(the West Bank)를 합병했는데, 이 합병 이후 웨스트뱅크의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은 요르단 시민이 되었다. 이후 1988년 요르단 정부는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려는 PLO의 투쟁을 지원하기도 했다.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서 동예루살렘의 이슬람 성지 문제를 놓고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당국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었다. 단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양국 모두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1967년 6월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에 대해)을 지지하고 있어 여러 이슈에서 요르단 정부와 팔레스타인은 협력하고 있다. 2023년 10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은 중동 사태를 중단시키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가자 지구의 민간인을 보호하도록 국제 사회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랍 국가의 의무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2023년 11월 9일에는 요르단 정부가 서안지구 주민들을 위해 의약품 등과 함께 45,000톤의 밀과 곡물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압둘라 2세 국왕은 암만에서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회담을 가졌다. 국왕은 휴전 및 민간인 보호를 위한 노력 강화를 강조하고 요르단의 가자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될 것을 언급했다. 2024년 4월 요르단 사파디(Safadi)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여하여 국제 사회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유엔의 정회원으로 인정하기를 촉구했으며, 유엔 사무총장, 국제 적십자위원회 총재, UNRWA 사무총장 등과 각각 회담을 진행하여 가자 전쟁 종식 및 지속 가능한 지원 제공 방법 등을 논의했다.

요르단-이스라엘의 관계는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조약(1994년 7월 25일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라빈(Yitzhak Rabin),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 빌 클린턴(Bill Clinton)이 서명한 평화 조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데, 이 조약을 통해 요르단은 1948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끝낼 수 있었고, 수자원 공유 관련 분쟁도 해결했다. 또한 이 조약에는 요르단과 이스라엘 모두 자국 영토가 제3국의 군사 공격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서약도 포함했다. 이후 양국 간 외교 관계도 수립하며 양국 관계를 정상화했다.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다양한 관광객, 사업가, 노동자들이 두 나라 사이를 여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국경을 개방하기도 했다. 1996년 양국은 무역조약을 체결했고, 협정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은 암만에 있는 Modern Medical Center의 설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2020년 10월 8일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양국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알 아

크사 모스크에서의 긴장 때문에 때때로 악화되기도 한다. 최근 요르단 대사가 이스라엘의 알 아크사 모스크에 입장하지 못한 사건은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례로 여겨져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2023년 10월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요르단과 이스라엘 간 관계는 경색되었으며 요르단 외무장관은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요르단-이스라엘 사이의 전기-물 교환 협정서에 요르단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2024년 4월 요르단 외무장관은 베를린에서의 독일 외교장관과의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중동의 평화를 방해한다며 현 이스라엘 정부가 이 지역에 전쟁을 강요하고 새로운 폭력의 순환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같은 시기 UNRWA 관련 유엔 안보리 특별회의에서 요르단 외무장관은 UNRWA의 팔레스타인 지원이 이스라엘에 의해 방해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UNRWA를 정치적으로 말살하려 한다고 경고하며 국제 사회가 UNRWA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2) 사회적 특징

요르단은 정치참여율이 높지 않다. 1989년 총선부터 2013년 총선까지는 투표율이 50%를 상회(1989: 53.1%, 1993: 54.8%, 1997: 47.5%, 2003: 57.8%, 2007:54.0%, 2010:53.0%, 2013: 56.5%)하다가 2016년 총선은 36.1%, 2020년 총선에는 최저 투표율인 29.9%(29.88%)를 기록했다. 2020년 당시 이러한 낮은 투표율에 대하여 요르단 국영 독립선거관리위원회 IEC (The Independent Election Commission)의 칼리드 칼랄데(Khaled Kalaldehy)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지만, 요르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당시 요르단의 경제 위기로 인한 대중의 깊은 불만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추측했다. 2022년 3월 요르단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투표율은 29.8%로 2017년 지방선거보다 2% 하락한 수치였다. 더하여 백지투표는 전체 유권자 수의 12% 이상인 약 165,000표에 달했다. 또한 요르단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암만과 자르카에서의 2020년 의회 선거와 2022년 지역 선거의 투표율을 비교했을 때, 암만은 16.6%에서 14.7%로, 자르카는 21.8%에서 16.9%로 감소했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 수치는 요르단 정치에 불만을 품고 있는 요르단 국민들이 점차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것을 보여주며 선거인의 정치 과정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2024년 9월 요르단 하원의원 선거 투표율은 32%로, 2020년 선거의 29%보다 3% 증가했다. 이번 선거는 반이스라엘 정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이전보다 높았다. 그 결과, 반이스라엘 가치를 내세운 이슬람행동전선(IAF)이 의회 최대 세력으로 부상했다.

[자료: 요르단 타임즈, 로야TV 등 언론사 보도 종합]

라. 정책 · 법령

2022년에 요르단 정부는 2022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에 걸쳐 3단계로 시행될 경제 현대화 비전(Economic Modernisation Vision)을 발표했다. 1단계(2022년~2025년)에서 344개의 이니셔티브 중 93%가 구현되며 2단계(2026~2029년)에서는 1단계의 성과를 완전히 활용하고 더욱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 3단계(2030~2033년)에서는 새로운 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토대를 만들고, 필요한 변화를 미리 촉진함으로써 향후 10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공부문 현대화 비전에는 크게 서비스 기둥(Services Pillar), 기관 기둥(Institutions Pillar), 입법 기둥(Legislations Pillar)의 총 3가지 기둥이 있고, 서비스 기둥에는 정부 서비스 분야(Government services)와 과정 및 디지털화 분야(Procedures and digitalization)가, 기관 기둥에는 조직 구조와 거버넌스 분야(Organizational structure and governance), 정책 및 의사결정 분야(Policy and decision making), 인적 자원 분야(Human Resources), 조직 문화 분야(Institutional Culture)가, 입법 기둥에는 입법 분야(Legislations)가 속해 총 7개의 구성요소가 있다. 7개의 구성요소 하에 33가지 전략적 목표가 있으며,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2025년 활성화 된 디지털 ID 350만개 도달
- 2024년 디지털 전환 전략에 따라 지원 운영과 운영 절차 60% 자동화 및 디지털화, 2025년 디지털화 구현 완성
- 문화 청소년부(2023년), 정부소통부(2023년), 교육과 인적자원개발부(2024년), 기반시설부(2024년) 등 신설 및 기존 부처 재구성
- 2025년 정부 의사결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열린 정책 개발을 위한 통합된 시스템 단계적 적용
- 2023년~2025년 매해 2000명의 정부인사와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를 위한 지속적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진행
- 2025년 신분증이나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법률 준수가 가능케 하는 비접촉식 준수(Touchless Compliance), 입법 관리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기술 시스템인 RegTech 적용
- 2025년 조직문화 개발지표에 대한 측정 결과 발표
- 노동 시장에서 100만 명 이상의 청년층을 수용
- 1인당 소득을 연평균 3% 이상 증가
-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요르단의 순위를 상위 30% 선으로 향상
- 요르단을 세계 100대 도시에 포함
- 레가툼 세계 번영 지수(Legatum Prosperity Index)에서 요르단의 순위를 상위 30% 선으로 향상
- 글로벌 환경 성과 지수(Global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에서 요르단의 순위를 상위 20% 선으로 향상
- 글로벌 지속가능성 경쟁력 지수(Global Sustainability Competitiveness Index)에서 요르단의 순위를 상위 40% 선으로 향상

이 비전에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요르단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초점을 맞춘 8가지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이 포함된다. 8가지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은 High-Value Industries, Future Services, Destination Jordan, Smart Jordan, Sustainable Jordan, Vibrant Jordan, Green Jordan, and Invest Jordan 등이다. 이 비전의 두 가지 주요 기둥은 ①교육, 의료, 교통 및 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②모든 요르단 국민의 삶의 질과 표준을 개

선하기 위해 요르단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비전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으로서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강조하고, 요르단의 개발 파트너들의 전문 지식과 자원을 유망한 분야로 이끌기 위해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향후 10년 동안 요르단 사람들에게 100만 개의 일자리에 대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비전의 실행은 최소 5,790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 중 대부분은 외국인 직접 투자와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 등을 통해 조달된다. 또한 해당 비전은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트랙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국가 현대화 노력과 일치하며, 세계 경제 지표에서 요르단의 입지를 개선하고 요르단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요르단 정부는 2022년 12월에 경제 현대화 비전의 향후 2023~2025년(3개년) 실행계획(Executive program)을 입안해 내각의 승인을 얻었다. 동 계획에는 3개년간 연도별 그리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함께 자원 조달 방안,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전자 시스템 구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번 3개년 실행계획에는 전체 380개에 달하는 경제 현대화 비전의 세부 프로젝트 중 183개가 포함됐다. 참고로 요르단 정부는 정책 실행을 위해 3년간 약 32억5000만 달러(2023년의 예산인 9억5000만 달러 포함)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기에는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 생산(56억 달러), 아카바 담수화 및 운송(42억 달러), 국가 철도 네트워크 연결(29억 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 정책 추진의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2023년 8월 요르단 총리는 960개의 정부 서비스가 디지털화 및 자동화되어 본래 목표치인 완료율 4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 요르단 디지털 경제 및 기업부 아흐마드 알 하난데(Ahmed Al Hanandeh) 장관은 현재 정부 서비스의 50% 이상을 디지털화했으며 100만 개의 디지털 ID를 활성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말까지 투자 서비스 플랫폼 출시, 5개 저가 항공사를 통한 요르단 전세 항공편 141% 증가, 아즐룬(Ajloun) 케이블카 및 움까이스(Um-Qais) 수로 터널 개설 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771,000개의 디지털 ID 활성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 JoMoPay와 CliQ 활성화, 산업지원 기금을 통한 395개 경제 시설 지원 등이 달성되었다.

[자료: 경제현대화비전 웹사이트 및 언론보도 종합]

5. 주요산업

가. 개요

요르단은 소규모 시장경제 체제로서 관광 등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외부의 자금지원이나 걸프국가에서 일하는 요르단인의 송금 등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띤다. 2022년 국외 거주 요르단인의 국내 송금액은 총 3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으며, 2023년 송금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35억 달러에 달했다.

2023년 4분기 GDP 기여도 순으로 요르단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18.3%), 금융·부동산·비즈니스 서비스(17.5%), 공공서비스(15.1%), 교통·물류·통신업(8.9%), 도소매 및 관광서비스(8.5%), 사회복지서비스(8.5%), 농업·산림업·수렵업(6.3%), 건설업(3.1%), 광산 및 채굴업(2.4%), 전력업 및 수자원 관련업(1.8%) 등이다. 전년 동기대비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한 산업 분야는 광산 및 채굴업 분야로 9.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1월~11월 요르단의 대외원조 규모는 34억3800만 달러였으며 이는 정기 보조금 13억4600만 달러, 연화 대출 15억8400만 달러, 시리아 위기 대응을 위한 보조금 5억680만 달러 등으로 구성되었다. 2023년 주요 대외원조 분야는 국가예산 지원(39%), 물·위생(25%), 에너지(11%), 교육(8%), 보건(6%), 경제 개발(3%) 등이었다.

[자료: 요르단 통계청, 요르단 중앙은행, 요르단 재무부 등]

나. 주요 산업별 현황

아래에서는 국내기업의 대요르단 진출이 유망한 산업인 중고차, 에너지, 제약, 의료 및 의료기기, 건설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중고차

2023년 기준 요르단 전체 차량 수입 중 중고차 수입은 약 70%를 차지했다. 즉, 요르단은 중고차 수입에 특화된 시장이며 중저가 차량을 선호하는 시장이다. 요르단으로의 중고차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한국은 2021년 이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중국산 중고차 수출이 증가하면서 2023년에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주었다.

2023년 상반기에 대한민국 전체 중고차 수출의 76.3%를 처리하는 인천항에서 수출한 중고차의 7.1%가 요르단으로 수출되었다. 인천항의 대요르단 중고차 수출량은 4위로 리비아(26.4%), 튀르키예(11.1%), 이집트(10.9%) 뒤를 이었다. 중고 가솔린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2022년 요르단은 수출 규모면에서 러시아에 이어 2위인 1억9000만 달러가량(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을 기록했다.

2) 에너지(전력)

요르단은 천연자원이 부족해 필요한 연료와 에너지의 약 93%를(요르단 전체 GDP의 약 8%) 수입한다(2022년 기준). 최근 수년간 인접국 난민 수용 등으로 인해 요르단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1인당 전력소비량 또한 2021년에 1,746kWh 2022년 1821kWh로 전년 대비 4.29% 상승한 바 있다. 2022년 요르단의 에너지 소비 지출은 2021년 GDP의 6%수준에서 2022년 10.4%로 증가했다. 2022년 요르단의 전력 생산원은 천연가스 68%, 재생에너지 27%, 석유 5%이다.

에너지 오일 및 가스와 관련해 요르단은 함자(Hamza) 유전과 알리샤(Al-Rishah) 가스전 등 두 곳의 생산기지만을 보유하고 있다. 함자 유전은 요르단 유일의 산유전으로 1984년에 발견되었으며, 17개의 유정이 시추되어 하루 최대 생산량이 500배럴에 달했다. 그러나 생산량이 하루 5배럴로 감소하면서 1989년 생산 및 유지보수 작업이 중단되었다. 2019년 함자 유전 재활성화 사업을 통해 2021년 7월 생산능력은 하루 2,000배럴까지 증가했고 2021년 평균 원유 생산량은 하루 427배럴 수준이었다. 단, 이와 같은 생산량은 소비량 추정치의 약 1.5%만을 지원할 수 있어, 요르단은 국내 연료 수요 충당을 위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요르단은 이라크와 2023년 6월부터 1년간의 원유 공급 및 운송에 관한 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요르단은 이라크로부터 하루 1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월간 브렌트유 가격보다 배럴 당 16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게 되었다. 2023년 8월부터는 수입량을 요르단 전체 원유 수요의 약 10%에 해당하는 하루 1만 5,000배럴로 늘렸다.

3) 제약

1962년에 요르단에서 최초의 제약 공장이 설립된 이래로 요르단의 제약산업은 성장을 거듭했다. 2024년 기준 요르단 내에는 총 29개의 제약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481종의 의약품이 생산되어 72개 국제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요르단의 제약산업은 요르단 전체 수출의 7.8%, GDP의 2%를 차지할 만큼 국가 핵심 산업이었다. 요르단 제약제조업체 협회(JAPM)에 따르면 2020~2021년 동안 요르단의 의약품 수출은 약 141억 달러로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은 유일한 국가 부문이었다. 2021년 요르단 제약 부문의 로컬 투자 규모는 약 10억 달러에 달했다. 요르단 식품의약품처(JFDA)에 따르면 2023년 요르단에서 약 8억 6,925만 달러에 달하

는 2,480개의 의약품이 수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요르단 내 거래된 의약품의 총 가치는 약 11억 7,207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 중 현지에서 제조된 의약품은 약 5억 6,756만 달러에 달했다. 2023년 요르단산업회의소(JCI)에 따르면 요르단의 제약산업의 생산량은 전체 산업 총 생산량의 약 10%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의 3%를 차지한다. 또한 지난 10년 간 제약산업 부문의 평균 생산 증가율이 연간 8.8%에 달했다.

2022년 요르단 의약품 전체 수출의 86%가 아랍국가를 대상으로 했다. 참고로 요르단은 주로 제너릭(복제의약품)을 생산하는데 국내 생산품의 약 75%는 MENA 지역으로의 수출 목적으로 제조된다. 요르단 내수시장의 90%는 복제의약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국 제약사들이 생산하기 어려운 고사양 의약품은 대부분 수입으로 충당한다. 최근 요르단 제약업계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의약품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2021년까지 요르단 식품의약처(JFDA)는 10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승인한 바 있다.

4) 의료 서비스 및 의료기기

요르단 의료 서비스 산업은 국가 주요 산업 중 하나로, 해외 의료 관광객을 매년 25만명씩 유치하며 국가 전체 관광 수입의 66%를 창출한다. 요르단 정부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해서 인프라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 관광객 유치는 급감하였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다시 의료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2022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약 124,000명의 환자가 요르단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중동 의료 허브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았다. 2023년 요르단 관광부 장관은 요르단이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 5년간 71개국에서 약 100만명의 환자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2024년 요르단 보건부는 향후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2023년~2027년 의료관광 국가전략'을 확정하고 의료 및 웰니스 서비스의 지역 허브로서 요르단의 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의료관광 부문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따라 의료기기 장비 시장 또한 확대되었다. 요르단은 이미 2018년부터 5개년 경제 발전 계획(Jordan Economic Growth Plan 2018-22)에 따라, PPP 모델을 도입하여 요르단 내 병원 신설 및 인프라 확장을 추진해 왔다. 또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국가 전자 보건관리 시스템(Hakeem)을 통하여 병원 및 클리닉 센터 등의 디지털화를 병행했다. 이로 인해 요르단에서는 병원 운영의 효율성 증진, 운영비 절감, 개별 병원의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ICT-의료 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20년에 요르단 정부는 전세계 의료 장비의 부족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무역기구(WTO)와 함께 의료 기술과 의료기기의 무역을 계속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에 합의한 바 있다.

5) 건설

2022년 요르단 건설 부문의 GDP 기여도는 3~4%를 차지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건설 부문의 연간 생산량은 국가 전체 산업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며 GDP 기여도는 2.2%이다. 요르단에서는 자국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 주거용/사무용 빌딩의 친환경화 등 건설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중이다. 2023년 7월, 요르단 수자원 관개부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한 이르비드의 처리수 운반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4년에 요르단 교통부는 도로 확장 및 재건축, 새로운 교량과 터널, 교차로 건설 등을 포함하는 암만-자르카 고속버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요르단 내 건설기업은 3,195개사가 등록되어 있고, 이들은 빌딩, 도로, 수자원 인프라, 전자기계 등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요르단 정부기관 웹사이트, 요르단 제약 제조협회, JFZIZ, 요르단 중앙은행 등]

II. 무역

1.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1) 요르단의 수출 및 수입 동향

요르단의 수출은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5% 하락한 65억 달러를 기록한 후, 2021년에 85억 달러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2022년 수출액은 116억 달러로 전년대비 36%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1% 감소했으나, EIU는 2024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3%, 2025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59%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요르단의 수출은 일반 수출과 재수출로 나뉘는데 2023년 11월까지의 총수출 규모는 1.8% 감소했으며 재수출 규모는 약 8억674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요르단의 주요 수출품은 의류, 비료, 장식품 및 귀금속, 의약품, 정제 석유 등이며,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UAE 등이다. 특히 미국은 요르단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 의류와 섬유 품목이 주로 수출된다. 인근 지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UAE 등도 요르단의 주요 수출 목적지인데 비료, 의약품, 의류 및 섬유, 식품 등이 주로 수출된다. 또한 요르단은 비료 품목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며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으로 비료를 수출한다. 2023년 기준 18개 아랍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아랍자유무역지대 (GAFTA)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는데, 주로 비료, 의약품, 신선 및 냉장 과일채소, 화장품 등이 수출되었다.

요르단의 수입은 2019년 171억 달러에서 2020년 149억 달러로 약 12.9% 급감한 이후 2021년에 194억 달러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그리고 2022년에는 2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무려 29.5% 증가했다. 2022년에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액을 달성했으나, 수입이 함께 늘어나면서 이 해에 무역수지는 1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초부터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요르단의 총 수입은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 특히 보석류(△27.9%), 곡물(△24.7%), 원유 및 파생상품(△17.5%) 등의 수입이 감소했다. 동 기간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9.5% 감소했다. 즉, 2023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했으나 수입 감소가 더 두드러지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감소한 10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EIU에 따르면 요르단의 수입 규모는 2023년에 전년 대비 5.3%, 2024년에 4.5%, 2025년에 4.6% 증가하면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요르단은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원유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며, 휘발유 및 디젤 연료와 같은 정제 석유 제품도 상당량 수입한다. 전기기계, 차량, 의료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기계 및 장비, 곡물, 육류 및 유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 비료와 의약품의 원자재를 포함한 다양한 화학 물질 등이 주로 수입된다. 2023년 1~11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은 17.5% 감소한 38억4061만 달러, 차량 수입은 40.7% 증가한 21억2693만 달러, 장식품 및 귀금속 수입은 27.9% 감소한 17억239만 달러를 기록했다. 요르단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독일, UAE, 터키 등이다.

2) 무역상대국으로서 요르단이 가진 강점과 리스크

요르단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은 아래와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 전략적 위치: 요르단은 전략적으로 중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인근 걸프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시장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동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매력적인 위치를 보유한다. 홍해를 접한 아카바항은 서부 중동지역 물류 중심지이다. 요르단은 1달이 소요되는 아카바-수에즈운하-베이루트 구간 해상 무역뿐 아니라 2~3일이 소요되는 아카바-시리아-레바논 구간 육로 무역 등 다양한 물류 구간을 보유한다.

- 젊은 소비층: 요르단 인구의 2/3 이상은 30세 이상의 젊은 청년인구로서 이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무역 상대국은 기존에 없었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요르단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15~24세의 인터넷 사용률이 남성 94.5%, 여성 93.2%에 달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이커머스 시장 진출도 유망하다.

- 자유 무역 협정: 요르단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및 중동의 여러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1997년 요르단은 아랍연맹국 21개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이후 미국, 캐나다, 이라크,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

히텐슈타인), 싱가포르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따라서 요르단을 교두보로 하여 제3국으로의 수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안정적인 정치 환경: 요르단은 정치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규모 대비 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무역 상대국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 인접국과의 협력 증진: 요르단은 최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인접국의 재건 움직임에 따라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요르단과 이라크 협력 프로젝트에는 송유관 건설, 전력망 연결, 공동산업단지 조성 등이 있다. 요르단은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전력망 연결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단, 요르단의 대외 무역은 아래와 같은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 지속적인 무역 적자: 요르단의 수출은 광업과 일부 제조업에 의존하는 형태로, 무역규모가 확대될 수록 무역 적자가 더 쌓이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농산품과 의약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인근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 요르단은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 최근 몇 년간 정치적 불안정과 분쟁을 경험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어, 요르단과 교역하려는 기업에게 불확실성이 야기될 수 있고 공급망과 운송 경로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2023년 10월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요르단 내부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요르단 내에도 시위가 발생하는 등 요르단 정치 안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 작은 내수 시장: 요르단은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로컬 제조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대외 수출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또한 암만, 이르비드, 자르카 등 3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전국적 규모의 유통망 발달이 미흡하며, 고소득층은 대부분 암만에 거주한다.

- 소득 분배의 불균형: 고소득층은 약 5%, 중산층은 20%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며, 요르단인의 70% 이상은 월 급여가 700달러 이하, 48.7%는 350달러 이하로 극빈 소득층이 다수 분포한다. 따라서 계층 간 소비 성향이 큰 차이를 보인다.

-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요르단은 에너지,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요르단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하며, 이는 경제와 무역 수지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한다.

- 제한된 천연 자원: 요르단은 천연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이로 인해 요르단에서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기업은 저렴한 원자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료: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요르단 통계청, EIU 등]

나. 국가별 수출입

- 국가별 수출입 현황

1) 수출

2022년 수출액은 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6% 증가했는데,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24억7830만 달러), 인도(18억709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12억2158만 달러), 이라크(9억2802만 달러), 인도네시아(3억3986만 달러) 순이다.

2022년 수출대상국 1위인 미국으로의 주요 수출품은 의류 관련품이 약 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귀금속이 11.4%, 알루미늄 제품이 2.9% 등을 차지했다. 같은 해 인도로의 주요 수출품은 소금·유황·석회 및 시멘트(39.7%), 무기화학물질(31.9%), 비료(25.2%) 순이었다.

2023년 수출액은 1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27억6047만 달러), 인도(17억3308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14억4774만 달러), 이라크(9억4700만 달러) 순이다.

2023년 미국으로의 주요 수출품은 의류 관련품 비중이 56.9%(16억6000만 달러)를 차지했으며, 귀금속이 27.7%(8억700만 달러), 비료가 2.9%(8,5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인도로의 주요 수출품은 무기화학물질 비중이 39.8%(6억7700만 달러), 소금·유황·석회 및 시멘트 34.2%(5억8100만 달러), 비료 21.4%(3억6400만 달러) 순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주요 수출품 비중은 의약품 17.3%(3억4600만 달러), 식용 식물 7.4%(1억5000만 달러), 무기화학물질 5.8%(1억1600만 달러) 등이다.

2) 수입

2022년 수입액은 총 2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9.5% 증가했는데, 주요 수입상대국은 중국(41억7130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0억 7630만 달러), UAE(21억2010만 달러), 미국(14억9570만 달러), 인도(14억 달러) 순이다. FTA 체결국인 중동국가를 누르고 중국이 2022년에 수입대상국 1위를 탈환했다(2021년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은 미국, EU 및 아랍연맹 국가와 FTA를 체결한 바, 수입 대상국 상위 순위에 해당 국가가 다수 포함되었다.

2022년 수입 상대국 1위인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전기기구 및 장치(18.3%), 원자로·보일러·기계(12.1%), 편직물(9.8%), 차량 및 부분품(9.1%), 철강(4.3%) 등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원유 등 화석연료(55.3%)가 압도적이었고 기타 플라스틱 제품(9.1%), 유기화학물질(3.8%), 철강(3.6%), 식용오일(3.2%) 순이었다.

2023년 수입액은 총 2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3.4% 감소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등 화석연료(34억3962만 달러), 차량 및 부분품(23억2971만 달러), 진주 및 귀금속(17억5227만 달러), 원자로·보일러·기계(15억8400만 달러), 전기기구 및 장치(13억4061만 달러) 등이었다. 주요 수입 상대국은 중국(45억221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36억5470만 달러), 미국(16억4694만달러), 인도(15억 4942만 달러) 순이다.

2023년 수입 상대국 1위인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별 비중은 전기기구 및 장치 11.8%(6억1300만 달러), 차량 및 부분품 10.5% (5억4100만 달러), 원자로·보일러·기계 8.56% (4억4100만 달러), 편직물 5.9% (3억500만 달러), 플라스틱과 관련 제품 5% (2억 5900만 달러) 등이었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등]

- 수출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691,063,206
2	사우디아라비아	1,144,403,327
3	인도	1,072,211,172
4	이라크	663,507,068
5	중국	588,705,299
6	아랍에미리트	431,429,694
7	인도네시아	292,103,174
8	쿠웨이트	255,434,236
9	스위스	252,403,189
10	이스라엘	191,775,742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509,288,194
2	인도	1,662,744,358
3	사우디아라비아	1,379,933,640
4	이라크	615,170,858
5	중국	510,803,787
6	인도네시아	384,080,297
7	아랍에미리트	354,964,576
8	이스라엘	298,529,549
9	쿠웨이트	253,792,820
10	이집트	236,201,998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966,500,586
2	인도	1,833,399,853
3	중국	917,040,135
4	사우디아라비아	866,102,362
5	이라크	657,969,224
6	인도네시아	626,021,396
7	아랍에미리트	329,928,292
8	이스라엘	317,744,467
9	브라질	278,240,369
10	영국	269,006,026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935,939,260
2	중국	705,593,262
3	스위스	169,804,654

4	캐나다	155,529,990
5	이스라엘	151,194,989
6	브라질	141,153,344
7	영국	124,930,133
8	이집트	123,660,212
9	튀르키예	113,113,086
10	말레이시아	111,321,900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2,819,615,592
2	사우디아라비아	2,214,013,893
3	미국	1,580,018,140
4	아랍에미리트	1,018,866,145
5	독일	797,587,920
6	이집트	750,329,572
7	튀르키예	632,924,900
8	이탈리아	537,568,146
9	인도	522,107,275
10	루마니아	519,777,556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국가명	금액(\$)
1	사우디아라비아	3,389,594,743
2	중국	3,372,777,623
3	아랍에미리트	2,382,638,832
4	미국	1,597,605,508
5	이집트	869,205,545
6	독일	813,374,280

7	튀르키예	790,068,840
8	루마니아	777,486,129
9	이스라엘	674,106,106
10	이탈리아	671,381,365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3,034,963,621
2	사우디아라비아	2,890,160,782
3	아랍에미리트	2,322,672,131
4	미국	1,189,867,940
5	인도	1,047,298,386
6	루마니아	954,230,988
7	인도네시아	873,013,192
8	스위스	743,870,353
9	이집트	721,169,772
10	튀르키예	691,781,863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국가명	금액(\$)
1	중국	5,007,819,597
2	미국	1,312,654,234
3	독일	855,485,577
4	튀르키예	802,466,830
5	스위스	708,422,608
6	이집트	533,857,157
7	네덜란드	477,737,011
8	일본	473,134,374
9	영국	463,132,702
10	브라질	400,732,052

나. 품목별 수출입

- 품목별 수출입 현황

1) 2023년 수출 현황

요르단 최대 수출품인 의류 및 편물류의 수출은 전년 대비 11.6% 감소한 18억8005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시장은 전체 의류 및 편물류 수출의 80.8%를 차지했다.

비료 수출은 전년 대비 38.3% 감소한 14억5227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인도, 중국, 미국, 이집트, 브라질 시장이 전체 비료 수출의 52.6%를 차지했다. 인산 및 폴리인산 수출이 전년 대비 25.5% 증가하면서 전체 무기화학물 수출은 전년 대비 17.9% 증가했고 인도가 전체 무기화학물 수출의 54.9%를 차지했다.

귀금속과 보석류, 금의 수출이 증가하여 10억7335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등이며, 미국 시장이 전체 귀금속류 수출의 64.4%를 차지했다. 의료 및 제약 제품 수출은 7억7489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미국, 아랍에미리트 시장이 전체 수출의 57.1%를 차지했다.

최대 수출품인 의류 및 편물류의 수출과 전년도 수출이 크게 증가했던 비료 수출이 감소했으나 무기 화학물, 의료 및 제약 제품, 귀금속과 보석류, 연마 및 청소 준비 및 향수 재료, 채소 및 과일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2) 2023년 수입 현황

차량 및 부분품(41.2%), 원자로·보일러·기계(9.13%), 전기기구 및 장치(8.87%), 의약품(13.28%) 등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최대 수입품인 원유 및 관련품(△25.29%)을 포함해 진주 및 귀금속(△27.14%), 곡물(△30.73%), 플라스틱 제품(△10.85%), 편직물(△15.71%) 등의 수입이 줄면서 2023년 수입액은 총 257억5357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8% 감소했다.

제1의 수입품인 원유 및 관련품 수입은 전년 대비 25.3% 감소하여 34억3962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석유제품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인도가 전체 수입 대상국의 93%를 차지했으며, 원유의 수입대상국 비중은 사우디아라비아가 75.45%, 이라크가 24.55%를 차지했다. 2023년 제 2위 수입품은 차량 및 부속품으로, 전년 대비 41.1% 증가한 23억2971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한국, 독일, 미국, 일본 등으로 전체 수입의 83.4%를 차지했다. 제 3위 수입품은 진주 및 귀중품으로 전년 대비 27.1% 감소한 17억5227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수입국은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등이었고 이들 국가들이 전체 수입 대상국의 90.7%를 차지했다. 한편 전기기구 및 장치의 수입이 전년 대비 8.87% 증가한 13억4061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품목에서는 중국이 전체 수입의 59.1%를 차지했다. 한편 2022년에 크게 증가했던 곡물과 플라스틱 수입액은 2023년에는 감소세를 보였다.

[자료: 요르단 중앙은행, GTA 등]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611420	면으로 만든 것	1,005,903,819

2	310490	기타	536,276,048
3	310420	염화칼륨	496,601,804
4	6114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89,547,918
5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437,679,443
6	300490	기타	420,666,920
7	2510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344,417,733
8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338,890,578
9	282759	기타	263,484,968
10	31029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229,085,928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611420	면으로 만든 것	931,327,899
2	6114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779,560,485
3	310490	기타	723,193,432
4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620,667,737
5	310420	염화칼륨	571,782,274
6	2510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531,006,419
7	300490	기타	478,406,873
8	31029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400,001,595
9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348,508,815
10	282759	기타	293,279,321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6114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103,617,664
2	310490	기타	1,056,025,387
3	310420	염화칼륨	1,045,317,312
4	2510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759,749,460

5	611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496,533,083
6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472,794,961
7	31029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443,428,509
8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29,427,142
9	290819	기타	412,911,827
10	611420	면으로 만든 것	394,355,111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10420	염화칼륨	617,796,818
2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47,912,170
3	611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416,581,762
4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349,907,207
5	6104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41,982,842
6	290819	기타	195,683,002
7	61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81,047,227
8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70,773,917
9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67,280,851
10	6105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48,470,025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881,376,926
2	271019	기타	739,185,219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56,950,679
4	271111	천연가스	516,143,717
5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439,824,941

6	300490	기타	420,963,062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339,034,634
8	600690	기타	334,568,640
9	100199	기타	259,665,696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223,308,318

<자료원 : UN Comtrade>

2021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231,826,807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135,832,891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52,283,427
4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604,870,160
5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551,941,994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502,266,106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76,869,353
8	300490	기타	468,507,568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416,254,285
10	271111	천연가스	358,825,159

<자료원 : UN Comtrade>

2022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598,881,265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032,637,696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984,388,781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920,735,094
5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653,643,509
6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445,077,126

7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377,490,624
8	271111	천연가스	370,056,353
9	100199	기타	363,351,008
10	300490	기타	350,926,517

<자료원 : UN Comtrade>

2023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390,743,205
2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87,378,046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41,368,442
4	300490	기타	295,781,285
5	841112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261,388,621
6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206,869,548
7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02,938,961
8	100390	기타	177,631,829
9	100590	기타	160,853,598
10	010410	면양	151,019,037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개요 및 동향

요르단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2020년 3.9억 달러였던 무역적자가 2023년에는 7.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주로 수출되는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 주요 품목들이 요르단의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한국의 대 요르단 수출은 2024년 이스라엘-중동 분쟁의 여파로 큰 타격을 받았다. 2024년 1~9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5% 감소한 4억 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한국이 요르단에 수출하는 가장 큰 품목으로 총수출의 60~75% 비중을 차지하며 주 수출품목에는 내연기관 승용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기타 상용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요르단에는 한국 자동차 수입 경험이 있는 다양한 규모의 바이어 및 유통망이 존재하며, 이들은 한국에서 수입한 차를 요르단 내수 시장뿐 아니라 이라크,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 인근국 시장으로 재수출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은 요르단에 다양한 제약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주로 약품, 백신, 의료용 화학 물질 등을 수출한다. 기계류와 기계 부품은 요르단의 산업 및 제조업 발전을 지원하는 주요 품목이며, 다양한 산업용 기계 및 부품을 포함한다.

한국의 요르단 수입은 주로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 산업용 난연제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TBBPA)는 요르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대표 품목이다. 이 원료는 요르단의 브롬회사(Jordan Bromine Co.)에서만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대요르단 수출입 규모는 아래와 같다.

- 2020년: 수출 4.70억 달러, 수입 0.84억 달러 (무역수지 3.84억 달러 흑자)
- 2021년: 수출 6.69억 달러, 수입 1.07억 달러 (무역수지 5.62억 달러 흑자)
- 2022년: 수출 8.22억 달러, 수입 1.46억 달러 (무역수지 6.76억 달러 흑자)
- 2023년: 수출 7.59억 달러, 수입 0.63억 달러 (무역수지 6.96억 달러 흑자)
- 2024년(1~9월): 수출 4.05억 달러, 수입 0.59억 달러 (무역수지 3.46억 달러 흑자)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RA암만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현지 언론보도자료 종합]

나.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1) 2024년 한국의 대요르단 수출 현황

2024년 9월까지 한국의 대 요르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5% 감소하여 4억 5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중동 분쟁의 여파로 인해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36%), 기타자동차(△57.4%), 전기자동차(△57.8%) 등 차량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2024년 상반기 요르단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금액 기준 72.9%를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저가의 중국산 제로마일리지 전기차가 69.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고,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기타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은 2024년 9월까지 2,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하며 가장 큰 성장을 보였고, 이는 요르단 내 산업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약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여 1,7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 2024년 한국의 대요르단 수입 현황

2024년 9월까지 전체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5,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요르단 수입은 주로 원자재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며, 2024년 9월까지 전체 수입의 83.1%가 화학 및 소재 산업용 원자재로 구성되었다. 기타 석유화학제품(TBBPA,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은 2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약 33.9%를 차지했다. 구리, 알루미늄, 압연 등 금속광물 원재료는 2700만 달러로 약 45.8%를 차지했고, 기타정밀화학원료가 2백만 달러로 3.4%를 차지했다.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0	470	84	386
2021	669	107	562
2022	822	146	676
2023	759	63	696
2024	405	59	34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1) 전체 수출입 개요

2023년 전체 수출 규모는 7억 5,900만 달러였다. 2024년 9월까지의 수출액은 4억 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5% 감소했다. 이는 후티 반군의 홍해 통과 선박에 대한 위협과 중동 분쟁으로 물류망에 큰 차질이 발생하며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2023년 전체 수입 규모는 6,300만 달러였다. 2024년 9월까지의 수입액은 5,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 특히 구리, 알루미늄 및 스크랩 등 금속광물 원재료의 수입 증가가 전체 수입 증가를 견인했다.

2) 대표 수출품 수출 동향

- 승용차 : 2023년 수출 금액은 3억 7,200만 달러였다. 2024년 9월까지 수출은 1억 8,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0% 감소했다. 2022년 자동차 수출이 강세를 보이며 대요르단 수출 성장을 견인했으나, 2023년 이후 중국산 제로마일리지 자동차의 점유율 확대로 승용차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 화물자동차 : 2023년 수출 금액은 6,100만 달러였다. 2024년 9월까지 수출은 4,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 기타자동차 : 기타 자동차는 승용차, 화물차 등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수 목적의 차량으로 구급차, 소방차, 청소차, 냉동차 등이 포함된다. 수출 금액은 2023년에 6,900만 달러였다. 2024년 9월까지 수출은 2,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4% 감소했다.
- 전기자동차 : 수출 금액은 2023년 7,600만 달러였다. 2024년 9월까지 수출은 2,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8% 감소했다. 요르단의 자동차 수입 중 전기차 비중은 급증하고 있지만, 2024년 상반기 금액 기준으로 저가의 중국산 전기차가 요르단의 전기차 수입 시장에서 69.7%를 점유하면서 한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기타석유화학제품 : 2023년 수출 금액은 1,900만 달러였다. 2024년 9월까지 수출은 2,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9% 증가했다. 이는 요르단 내 산업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의약품 : 수출 금액은 2023년 2,500만 달러였다. 2024년 9월까지 수출은 17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7% 감소했다.
- 자동차부품 : 수출 금액은 2023년 2,300만 달러였다. 2024년 9월까지 수출은 1,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하지만 요르단 내 전기차 특별소비세 인상 등으로 신차보다는 기존 차량 유지 경향이 높아져 자동차 부품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편직물 : 수출 금액은 2023년 1,000만 달러였다. 2024년 9월 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했다. 저렴한 중국산, 대만산, 말레이시아산 편직물의 수출 증가가 한국산 수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 합성수지 : 수출 금액은 2023년에 1,400만 달러였다. 2024년 9월까지 수출은 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7% 감소했다.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수요 증가로 요르단 시장에서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 중후판 : 2023년 수출실적은 없었다. 2024년 9월까지 수출은 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요르단의 프로젝트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요르단의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로 철강을 포함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표 수입품 수출 동향

- 기타석유화학제품 : 기타 석유화학제품의 대부분 수입 제품은 TBBPA(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다. 난연제를 만드는 필수 소재로, 2023년 기준 전체 수입품의 61%를 요르단에서 수입하고 있다. 2023년 수입금액은 2,400만 달러였다. 2024년 9월까지 수입은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증감률은 없었다.
- 금속광물 : 2024년 9월 기준, 동괴및스크랩은 1,800만 달러, 알루미늄괴및스크랩은 800만 달러가 각각 수입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증가율은 동괴및스크랩이 87%, 알루미늄괴및스크랩이 49%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산업재 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JFZIC, 현지 언론보도 종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372	0	372
2	7412	화물자동차	61	0	60
3	7419	기타자동차	69	0	68
4	7414	전기자동차	76	0	75
5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9	24	-6
6	2262	의약품	25	0	24
7	7420	자동차부품	23	0	22
8	4360	편직물	10	0	9
9	2140	합성수지	14	0	13
10	6131	중후판	0	0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4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183	0	183
2	7412	화물자동차	48	0	48
3	7419	기타자동차	26	0	26
4	7414	전기자동차	24	0	24
5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22	20	2
6	2262	의약품	17	2	15
7	7420	자동차부품	17	0	17

8	4360	편직물	7	0	7
9	2140	합성수지	5	0	5
10	6131	중후판	3	0	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3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9	24	-6
2	6221	동괴및스크랩	0	13	-13
3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8	-8
4	4411	편직제의류	0	6	-7
5	2262	의약품	25	0	24
6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4	4	0
7	1190	기타금속광물	0	2	-3
8	4412	직물제의류	0	2	-2
9	8311	집적회로반도체	0	0	0
10	8343	인쇄회로	0	1	-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4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22	20	2
2	6221	동괴및스크랩	0	18	-18
3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8	-8
4	4411	편직제의류	0	4	-4
5	2262	의약품	17	2	15
6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	2	0
7	1190	기타금속광물	0	1	-1
8	4412	직물제의류	0	1	-1
9	8311	집적회로반도체	0	1	-1
10	8343	인쇄회로	0	1	-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가. 수출유망품목(상품)

○ 라면

HS CODE	190230	수입액 (US\$백만)	42.7
수입관세율(%)	관세 0%+ 부가세 5%	대한 수입액 (US\$백만)	0.9
선정사유	코로나 19로 인해 즉석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0년 52.8%의 수입규모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2023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요르단 내에는 라면을 생산하는 현지 제조업체는 없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시장동향	한국산 라면은 인도미(Indomie), 코카(KOKA) 등 유명 브랜드에 비해 2배 이상 비싸지만, 한류의 영향과 간편한 조리법 등으로 인해 요르단 현지 소비자들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수입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요르단 수입량의 10~20%는 주변국으로 재수출된다.		
경쟁동향	수입시장 점유율은 사우디(66.6%) 인도네시아(23.7%) 프랑스(4.5%) 한국(2.1%) 순이다.		
진출방안	대부분의 제조 및 수출업체는 요르단 내 유통 중개기업을 통해 라면 제품을 요르단에 수출한다. 수출을 위해서는 요르단 식품의약처(JFDA)에 사전 제품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자동차 브레이크

HS CODE	870830	수입액 (US\$백만)	14.8
수입관세율(%)	관세 0~5% + 부가세 16%	대한 수입액 (US\$백만)	5
선정사유	요르단의 대중교통이 충분치 않아 대부분의 요르단인이 자가용 차량을 구입하며, 중고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에 차량용 소모품인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의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동향	2023년 요르단의 차량 수입은 40.7%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2023년 한국은 요르단의 차량용 브레이크 수입대상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경쟁동향	수입시장 점유율은 한국(34.0%) 중국(23.6%) 독일(13.6%) 일본(5.9%) 순이다.		
진출방안	자동차 브레이크 수입 통관을 위해 외국 원산지 증명서, 산업 송장, 등기 세관 신고서를 요르단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요르단 기술표준국(JSMO)에서 수입 관련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피부 필터

HS CODE	330499	수입액 (US\$백만)	77.41
수입관세율(%)	관세 5%+부가세 16%	대한 수입액 (US\$백만)	1.17
선정사유	요르단인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요르단 국민의 미용 시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요르단 내 필터 주사는 다른 성형 수술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필터 주사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동향	2020년~2023년 요르단의 피부필러 수입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23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으로부터의 필러 수입량은 전체 필러 수입의 1.5%를 차지했다.		
경쟁동향	수입시장 점유율은 프랑스(24.7%) 독일(12.3%) 미국(9.6%) 이탈리아(8.2%) 순이다.		

진출방안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한국 필러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피부필러는 의료기기로 간주되므로 요르단 식품의약처(JFDA)로부터 사전 제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CCTV

HS CODE	852580	수입액 (US\$백만)	8.2
수입관세율(%)	관세 0% + 부가세 16%	대한 수입액 (US\$백만)	0.27
선정사유	CCTV 카메라는 지정학적 문제 및 테러 공격으로 인해 관공서 및 국방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가 관광산업 성장으로 인해 호텔, 공항 및 기타 공공 장소의 감시 시스템에서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2014년부터 "REACH 2025" 이니셔티브를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마다바 산업지대(Madaba Industrial Zones) 및 요르단-이라크 산업지구(Jordan-Iraq Industrial Zone) 등의 개발은 CCTV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동향	2021년 이후 건설 프로젝트 부문이 활기를 찾으면서 관공서, 상업용 빌딩, 공장 등에 CCTV 설치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리아 난민 등의 유입으로 인해 2014년까지 범외율이 늘어난 이후 점차 감소하여 이전 수준을 되찾았으나, 2022년 범외율은 전년 대비 9%나 증가했으며 2023년 범외율은 전년 대비 0.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과 회사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요르단에서도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경쟁동향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국(68.0%) 일본(8.3%) 영국(4.0%) 한국(3.7%) 순이다.		
진출방안	요르단 정부의 CCTV 조달 입찰 프로그램에 주목해야 한다. 참고로 현지 디벨로퍼 또는 건설 계약업자들은 대형 프로젝트 진행시 중국산 보다는 고급형 CCTV를 선호하므로 한국 제품의 진입 가능성이 높다.		

○ 콘택트렌즈

HS CODE	900130	수입액 (US\$백만)	1.99
수입관세율(%)	관세 5% + 부가세 16%	대한 수입액 (US\$백만)	0.29
선정사유	요르단에서 콘택트렌즈에 대한 수요는 지난 수 년간 꾸준히 유지되어 왔으며, 특히 한국산 제품은 요르단에서 수요가 높고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이다. 요르단에서의 콘택트렌즈 시장은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연 평균 5.9%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동향	대부분의 요르단인들이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로컬 생산품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요르단 콘택트렌즈 시장은 거의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렌즈에 의존하고 있다. 요르단과 FTA를 맺은 미국, 유럽의 제품이 수입 대상국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안경 대비 콘택트 렌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쟁동향	수입시장 점유율은 미국(29.4%), 아일랜드(19.0%), 한국(15.0%), 영국(8.3%) 순이다.		
진출방안	요르단 소비시장은 가격 지향적인 시장으로 여겨지는 만큼 가격 경쟁력도 동시에 갖춰야 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한류를 활용하여 현지 광고, 카탈로그, 포장 등을 진행해야 한다.		

○ 원심펌프

HS CODE	841370	수입액 (US\$백만)	19.17
수입관세율(%)	관세 0% + 부가세 0%	대한 수입액 (US\$백만)	0.08

선정사유	요르단의 물 부족 현상 심화되면서 현지에서는 댐 건설, 수자원 관리, 빌딩 건축 등 프로젝트 진행시 워터펌프가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요소로 쓰인다. 또한 소형 원심펌프의 경우 요르단 물의 높은 염분과 석회 함량으로 인해 교체 주기가 3~4년으로 짧은 편이며 요르단 대부분의 지역에서 각 가정에 필수적인 제품이다.
시장동향	요르단의 모든 건물은 그 용도를 불문하고 지하실과 지붕에 물 탱크를 보유하며, 요르단인들은 탱크에 물을 보관한다. 요르단 대부분 지역에서는 도시 상수도의 수압이 낮아 건물의 고층까지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워터 펌프를 사용하여 수압을 높여 건물의 모든 부분에 물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수도가 깨끗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수 시스템과 함께 워터 펌프를 사용하여 식수 및 기타 용도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도 한다. 요르단 수자원 관개부는 '2023-2040 국가 물 전략'에 따라 워터펌프와 관련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23년 아인 알 바샤(Ain Al Basha) 정수시설 등 국가 주요 상하수도 인프라에 총 200만 달러 규모로 펌프를 교체하기로 계획했으며, 요르단 계곡에 12개의 우물을 만들어 식수를 끌어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023년 7월에는 자라 마인(Zara Ma'in) 정수시설의 20개 워터펌프를 교체하는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참고 농업 부문의 관개 능력 향상을 위한 수자원 관개부 프로젝트, 난민 캠프를 지원하는 국제기구 및 NGO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요르단 전체 펌프 소비량의 50%를 차지한다.
경쟁동향	수입시장 점유율은 이탈리아(24.1%) 일본(23.4%) 중국(11.4%) 독일(8.8%) 순이다.
진출방안	국내 기업은 현지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유통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 제품의 현지 등록 및 마케팅, A/S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제 기계, 에너지, 전기 전시회인 JIMEX 등 요르단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 시연 및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발광 다이오드(LED)

HS CODE	940540	수입액 (US\$백만)	23.01
수입관세율(%)	관세 0% + 부가세 0%	대한 수입액 (US\$백만)	0.1
선정사유	현재 요르단은 암만 시의 모든 가로등을 에너지 절약형 LED 장치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LED 조명 수입액은 2020년 4,487달러에서 2021년 87,983 달러로 증가하는 등 한국산 제품이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또한 LED 조명은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합리화를 위한 시스템, 장비, 장치로 분류되어 관세 및 일반 판매세 면세 품목이다.		
시장동향	기존의 조명에 비해 적은 전력 소모, LED의 긴 평균 수명, LED의 다양한 색상, 절감된 에너지 비용 등의 이유로 LED 조명에 대한 요르단 소비자의 관심이 높다. 또한 '경제 현대화 비전 프로젝트'를 위하여 요르단은 거리의 조명 장치를 LED 조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입찰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요르단 전역에 41만 개의 조명 장치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는 2022년~2026년 광역 암만 지방자치단체(GAM)의 전략적 계획에 따라 전체 공원 및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2024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요르단 각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LED 가로등으로의 교체를 시행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비용은 총 9,167만 달러에 달했다. LED 관련 정부 프로젝트는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현지 기업의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쟁동향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국(50.1%), 미국(26.6%), 이탈리아(10.1%), 스페인(3.6%) 순이다.		
진출방안	자사 제품이 면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한국 기업들이 현지 SONEX나 Interbuild Jordan 등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르단 정부의 입찰에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콘크리트 혼화제(Concrete Admixtures)

HS CODE	382440	수입액 (US\$백만)	12.57
---------	--------	--------------	-------

수입관세율(%)	관세 0% + 부가세 16	대한 수입액 (US\$백만)	0.08
선정사유	레디믹스(ready-mix) 콘크리트는 요르단에서 2021년에 총 4백 만m³ 생산된 바 있는데 콘크리트 혼화제는 콘크리트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2021년 이후 요르단의 건설시장 회복에 따라 건축자재의 수입도 증가하여 2020년~2022년 요르단의 콘크리트 혼화제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시장동향	요르단의 더운 날씨 특성상, 콘크리트를 열과 마모에 강하게 만드는 초가소제(superplasticizer)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요르단 내 건축허가 면적은 2023년에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나 원자재 물가 상승의 영향이 건설업에 악영향을 미쳐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했고, 콘크리트 혼화제 수입액 또한 전년 대비 31.5% 감소했다.		
경쟁동향	수입점유율은 러시아(28.2%), 사우디아라비아(27.8%), 중국(22.0%), 튀르키예(4.2%) 순이다.		
진출방안	Kingdom Concrete, Lafarge, Manaseer 및 Zhuiry 등 요르단 주요 콘크리트 생산기업의 수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BASF 및 Al-Faiha 등의 경우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주요 콘크리트 생산업체에 콘크리트 혼화제를 공급하고 있다.		

○ 가정용 정수 시스템

HS CODE	842121	수입액 (US\$백만)	14.09
수입관세율(%)	관세 0~15% + 부가세 16	대한 수입액 (US\$백만)	0.15
선정사유	요르단은 세계 두 번째의 물 부족 국가로, 1인당 물 공급량은 연간 61m³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국제적으로 절대 물 부족선으로 인정되는 연 500m³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수처리 공정을 통해 물을 정제하나 음용에 적합하지 않은 오염 물질이 포함되기도 한다.		
시장동향	가정용 정수 서비스는 수처리 기업에서 제공하는데, 요르단에서는 외국 브랜드의 에이전트 기업들이 주로 가정용, 산업용 정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르단의 가정용 정수 시스템의 수입은 2021년~2023년 기간 중에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3년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경쟁동향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국(19.8%) 이탈리아(14.6%) 튀르키예(13.9%) 베트남(10.1%) 순이다.		
진출방안	Safa water, Arab Engineers, Madar for water tech 및 Cwet과 같은 요르단 내 수처리 기업들에게 자사 브랜드의 공식 딜러 파트너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 의약품 제조기기

HS CODE	8479.82	수입액 (US\$백만)	12.33
수입관세율(%)	관세 0% + 부가세 16	대한 수입액 (US\$백만)	0.08
선정사유	요르단의 제약산업은 요르단 3대 수출산업 중 하나이다. '경제 현대화 비전'에 제약산업 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비전에 따라 요르단 정부의 제약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동향	2023년 기준 요르단 내에 총 29개 제약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여기서 481종의 의약품이 생산되어 72개 국제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 제네릭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 제약 정제 및 압축 기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요르단의 의약품 제조기기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46.9% 증가했다.		
경쟁동향	수입점유율은 중국(22.8%) 폴란드(17.6%) 튀르키예(12.9%) 슬로베니아(12.75%) 순이다.		
진출방안	현지 A/S에 유능한 요르단 대리점(수입업체)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 초음파 지방흡입기기

HS CODE	9018.90	수입액 (US\$백만)	60.77
수입관세율(%)	관세 0% + 부가세 16	대한 수입액 (US\$백만)	1.67
선정사유	요르단의 비만율은 28.44%로 높은 편이며, 아랍 지역 국가들 내에서 4위를 기록했다. 이에 요르단 성형/미용시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남/여 공통으로 지방흡입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Ultrasound Cavitation System'을 활용한 비교적 간편한 방식의 지방흡입술이 인기이다.		
시장동향	주요 소비층이 중·상류층으로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최상의 시술 결과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수입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요르단의 의료관광에서 지방흡입을 포함하는 성형을 중심으로 한 미용 의료관광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동향	수입시장 점유율은 미국(24.1%) 독일(19.5%) 중국(15.6%) 멕시코(8.3%) 순이다.		
진출방안	한국은 미용과 화장품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국가라는 현지 이미지가 자리를 잡고 있어 우수 에이전트 발굴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 절수형 샤워기

HS CODE	3924.90	수입액 (US\$백만)	12.52
수입관세율(%)	관세 5% + 부가세 16	대한 수입액 (US\$백만)	0.02
선정사유	물 부족국가인 요르단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물 절약을 위한 절수 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절수 관련 제품 전망이 유망하다. 2024년 요르단 수자원관계부는 'For a Drop(한 방울의 물을 위해)' 캠페인을 통해 가정 내에서 절수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가정의 물 사용 효율성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장동향	절수형 샤워기는 가정 폐수의 양을 줄이고 물을 데우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경쟁동향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국(70.4%) 터키(11.8%) 아랍 에미리트(4.5%) 이탈리아(3.2%) 순이다.		
진출방안	인증취득 제품의 경우 현지 표준계량기관(JSMO)을 통한 인증 재검이 필요하다. 건설/하우징 분야 에이전트를 통한 진출도 모색할 수 있다.		

○ 금고

HS CODE	8303.00	수입액 (US\$백만)	2.22
수입관세율(%)	관세 5% + 부가세 16	대한 수입액 (US\$백만)	0.17
선정사유	요르단은 금융업 발달이 저조하여 전체 인구 중 약 60~70%가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2022년 기준 은행계좌 보유 비율은 43.1%였으며, 전자지갑(E-wallet) 보유 비율은 14.9%였다. 이에 따라 현금 거래가 일상화되어 있어 현금, 보석류를 금고에 보관하는 경향이 높으며, 상업 분야에서 금고 사용 비중이 높다.		
시장동향	연간 수입규모는 약 100~200만 달러 규모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호텔/리조트 건설 프로젝트 확대가 예상되므로 동 품목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고시장은 크게 금융기관, 호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 지향형 시장과 가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 지향형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다.		
경쟁동향	수입시장 점유율은 독일(21.9%) 중국(19.5%) 슬로바키아(15.9%) 세르비아(14.9%) 순이다.		

진출방안	현지 에이전트와 협업하여 향후 추진될 대형 호텔·리조트 프로젝트 대상으로 납품하거나, 현지 마케팅을 위한 UL, SP 등 내화성 인증서, CE 인증서, UL(Underwriters Laboratories Certificate), ECB-S 인증서 등 각종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	---	--	--

○ 오프셋 잉크

HS CODE	3215	수입액 (US\$백만)	10.94
수입관세율(%)	관세 0~5% + 부가세 16	대한 수입액 (US\$백만)	0.54
선정사유	요르단은 디지털 전환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가로, 아직 신문, 책자 등 종이매체의 제작 수요가 높은 편이다. 암만에 400개 이상의 인쇄소가 운영되고 있다.		
시장동향	시장수요는 원색(CMYK) 80%와 팬톤 20%로 구성되며, 원색은 주로 4색 공정인쇄 방식으로 신문 인쇄에 사용됨. 오프셋 인쇄 잉크의 기본 색상 가격은 kg당 1.4~1.6달러 수준이다.		
경쟁동향	수입시장 점유율은 영국(13.4%) 사우디(12.6%) 이탈리아(12.0%) 중국(8.7%) 순이다.		
진출방안	고품질/고가격의 유럽산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저렴한 사우디, 터키 제품과 유럽제품 사이의 틈새 수요를 공략할 수 있다.		

○ MRI (자기공명영상장치)

HS CODE	9018.13	수입액 (US\$백만)	9.26
수입관세율(%)	관세 0% + 부가세 16	대한 수입액 (US\$백만)	0
선정사유	요르단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각 병원에서 주요 디지털 의료 장비인 MRI의 활용이 증가했다. 또한 방사선 전문의, 방사선사, 방사선센터 등 인적/물적 인프라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장동향	Closed MRI가 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나 최근 Wide-Bore MRI(25%), Open MRI(15%)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는 등 해상도가 높고 스캔 시간을 최소화한 MRI 장비 도입수요가 증가 중이다. 2020년~2023년 기간 중 꾸준한 수입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23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4.8% 증가한 926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쟁동향	수입시장 점유율은 네덜란드(46.0%) 미국(30.0%) 독일(16.7%) 일본(5.3%) 순이다.		
진출방안	요르단 방사선학회 연례 기술회의 등 현지 홍보가 가능한 행사에 참여하여 한국산 제품의 차별성을 홍보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요르단 현지 기업을 통해 현지 등록 및 유통을 진행해야 한다.		

나.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전기차 충전 서비스

선정사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자동차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초 기준, 요르단 내 전기자동차 운행대수는 전체 차량의 5% 이상인 10만 대 이상으로 추산되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

시장동향	요르단에서는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민간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기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 암만 시는 친환경 차량용 무료 충전소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4년 초 기준으로 요르단 내에는 49개의 공공 충전소와 14개의 민간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 3,000개의 전기차 충전 미터기(EV charging meters)가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고 운용 중이다. 2024년 3월 요르단 자유지역 투자자 위원회(JFZIC)는 10~15년 내에 요르단 전기 자동차 도입률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쟁동향	2023년 기준 중국은 요르단 내에서 75.7%의 수입 점유율을 기록하며, 요르단 전기차 충전 시스템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외에 독일(4.5%), 이탈리아(3.7%), 핀란드(2.2%) 순으로 유럽 국가들이 수입 시장에서 강세이다.
진출방안	2020년 이후 요르단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각 시·도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주요 의제로 대두되면서 국내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 업체들이 정부 프로젝트에 턴키 방식으로 진입하는 등 B2G 차원의 협력이 고려될 수 있다. 일례로 2023년 이집트 Pathfinder Energy Group과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 등의 협력으로 EV 충전소 설치 프로젝트가 시작된 바 있다. 참고로 2018년에 요르단 에너지부는 주유소에 대한 면허는 전기 충전소가 있는 주유소에만 허용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같은 해에 독일 echarge는 10,000개의 스마트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 이해 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전자상거래(e-commerce)

선정사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약 50%에 달하는 높은 청년인구 비중 등의 요인에 힘입어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물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요르단 정보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요르단의 인터넷 보급률은 약 91%이며, 요르단 인구 56%에 달하는 약 640만명이 SNS 계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요르단에서는 고속 광대역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95.1%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동향	2011년에 해외기업에 의해 요르단에 전자상거래가 도입되었으나, 이후 로컬 기업, 로컬 스타트업 등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2021년 1월 기준 요르단 전자상거래 시장가치는 약 7억 달러에 달했다. 2023년 요르단의 경제 현대화 비전에 따라 요르단 정부는 '국가 전자상거래 전략'을 채택했고 시장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계획을 밝혔다. EcommerceDB에 따르면 요르단은 전자 상거래를 통해 2024년까지 총 25억9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동향	오픈마켓(Opensooq), 온라인 종합몰(Amazon Jordan 등), 쇼핑/딜리버리 서비스(Talabat), 구매대행(Cashbasha) 등 여러 형태의 이커머스 기업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진출방안	요르단인이 자주 활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한 홍보, 소셜커머스 등 신개념 이커머스 도입을 통한 틈새시장 개발 등이 필요하다.

○ 한국산 콘텐츠(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선정사유	요르단에서는 최근 한국산 드라마와 음악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오징어 게임' 등 글로벌 히트작이 요르단에서도 히트하는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시장동향	2020년 7월, 한국 스릴러 영화 "협상"이 요르단에서 촬영을 진행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요르단왕립영상위원회는 주요르단한국대사관과 함께 한국 영화 3편을 상영하는 '한국 영화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에는 제17회 한국 영화제가 타지시네마(Taj Cinema)에서 개최되어 영화 '밀수'를 상영하였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은 '오징어 게임', '사내맞선', '지금 우리 학교는' 등 한국 기반 TV 프로그램에 대한 요르단 내 시청률이 TV 프로그램 부문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요르단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23년 넷플릭스는 '더글로리 시즌1'이 7주간, '킹더랜드'가 8주간, '마이데몬'이 10주간 10위권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쟁동향	요르단은 미국의 서부 영화 장르의 주요 촬영 배경지였으며, UAE 등 인근국 아랍 TV 쇼와 영화는 요르단 콘텐츠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진출방안	자막 지원, 무료 상영회 개최 등을 통한 인지도 제고 및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한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	---

○ 뷰티케어 서비스

선정사유	요르단 암만에서는 외모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지방흡입, 보톡스 시술 등이 인기인데, 현지 여성들은 특히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을 편이다.
시장동향	수도 암만에만 최소 40개 이상의 성형시술 클리닉이 소재하고 있으며 한국의 뷰티성형에 대한 인지도 및 관련 한국제품(안티에이징, 미백 제품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더페이스샵 등 국내 화장품 브랜드도 2006년에 현지 진출한 바 있다. 2017년 한국 화장품 브랜드인 토니모리를 기점으로 최근에는 프리티스킨(Pretty Skin), 팜스테이(Farmstay), 글로벌맥스코어(Global Max Core), 웰포트(Wellfort) 등 많은 한국 브랜드가 요르단 시장에 진출했다. 요르단의 화장품 전체 수입은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23년에 크게 늘어 약 117만 달러를 기록했다. 요르단에서 소비하는 화장품의 45%는 현지 생산 화장품이며, 나머지 55%는 수입화장품이다. 수입 화장품이 더 비싸지만 요르단 소비자들은 수입 제품을 더 선호한다.
경쟁동향	요르단 피부과 전문의들은 유럽, 한국, 중국 브랜드를 이용한 뷰티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요르단에 거주중인 동유럽인들은 요르단 뷰티케어 시장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
진출방안	현지 유통망과 협업하여 오프라인 판촉전 등을 통해 샘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시장 반응에 따라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한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가격 지향적 요르단 시장을 고려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전자상거래 방식을 통한 시장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 스마트팜 솔루션

선정사유	요르단은 세계 2번째 물 부족 국가이며 건조한 기후가 작물의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극한의 기상 조건을 경험한다. 이처럼 빈번한 물 공급 감소, 극단적인 기상 조건 등으로 인한 낮은 수확량을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팜 기술이 최근 요르단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시장동향	안개 관개 시스템을 포함한 스마트 관개 시스템은 요르단 농부들의 관심을 끄는 품목이다. Ubtic, Almasiah 농장, JAFCO 및 Millenium 농장과 같은 회사는 작물을 관리하고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며 작물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다. 이들 기업들이 활용하는 농업 관련 인공지능(AI) 및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응용 프로그램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스마트팜 비즈니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요르단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2021년에는 스마트 농업, 효율적 관개 등을 목표로 하는 'Smart DESERT' 프로젝트가 해외 기관과의 협업으로 개시된 바 있다.
경쟁동향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중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요르단의 농업 프로젝트에 활용된 바 있다. 일부 로컬 기업은 기술 노하우를 습득한 바 있으며, 요르단 내 대리점 계약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관개 시스템, 자동화 및 사물인터넷 분야의 외국 기술에 수요가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수경 재배 시스템을 제공하는 lvest, 마찬가지로 사물인터넷 기술로 농장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Nestrom 등 요르단 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존재한다.
진출방안	요르단 스마트팜 관련 협회 또는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 농장주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 시연회를 고려할 수 있다.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GAFTA(Greater Arab Free Trade Area)	Arab League	1997-02-17	1998-01-01	<p>동 협정은 암만에서 열린 아랍정상회의에서 아랍연맹(Arab League) 주관하에 체결됐으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18개국이 가맹되어 있다.(가입국: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UAE, 팔레스타인(웨스트뱅크), 예멘) 이들 국가들은 글로벌 블록에 맞서 공동 아랍시장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아랍산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낮추고 수출입을 위한 아랍 자유무역 지대를 설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관세, 수수료 및 유사한 세금은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모든 비관세 제한(행정적, 양적 및 금전적)은 폐지되었다. 2005년 1월 1일에 회원국 간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었다. 참고로 worlddata.info에 따르면 GAFTA 가맹국은 1,146만 km²의 총 면적과 약 4억 5,628만 명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3조 4,860억 달러의 경제 생산량으로 세계 경제의 약 3.3%를 차지한다.</p>
요르단-알제리 FTA	알제리	1997-05-19	1999-01-31	<p>협약 부록의 상품을 제외한 요르단 및 알제리산 제품에 대해 관세 등의 세금이 면제된다.</p>
QIZ(Qualifying Industrial Zone)	미국	1997-11-16	1998-03-06	<p>요르단 내 승인된 산업 지대(Qualified Industrial Zone)에서 생산된 제품은 부가가치 기준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미국 시장 수출시 관세가 면제된다. 동 협약에 기반하여 이르비드(Irbid), 카락(Al-Kerak), 둘라이(Ad-Dulayi), 타자무아트(Al-Tajamouat), 아카바(Aqaba), 무샤트(Mushatt) 등 지역에 QIZ 산업지대가 세워졌다.</p>
요르단-모로코 FTA	모로코	1998-06-16	1999-10-21	<p>56개의 요르단 및 모로코산 상품(0-25%)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며, 관세범주가 25%를 초과하는 상품은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관세 및 제세가 매년 인하된다.</p>

요르단-이집트 FTA	이집트	1998-10-12	1999-12-28	식물, 의류 및 철근 제품을 제외한 요르단 및 이집트산 모든 교역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다.
요르단-UAE FTA	UAE	2000-05-21	2001-11-24	2003년 1월 1일부터 요르단 및 UAE산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다.
요르단-미국 FTA (JOFTA)	미국	2000-10-24	2001-12-17	동 협정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보호, 환경 및 전자 상거래 분야에 걸쳐 교역 자유화가 추진되었다. 계약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과도기 기간 10년의 과도기 기간 후인 2010년 1월 1일에 완전한 관세 면제에 도달했다. QIZ 협정과 달리 외부 국가의 투입물 활용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다. 협정 이후, 미국은 요르단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20% 차지한다.
Association Agreement	EU	1997-11-24	2002-05-01	유럽 연합 27개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요르단 공산품은 모든 관세, 수수료 및 유사한 효과를 지닌 세금에 대해 면제된다. 단, EU와 요르단 간 발전 수준 차이로 인해 협정 발효일로부터 12년에 걸쳐 EU 공산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점진적으로 면제된다. 또한 일부 품목은 관세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이후, 동 협정에 포함된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었다.
EFTA-요르단 FTA	EFTA	2001-06-21	2002-09-01	EFTA는 유럽 내 비EU 4개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으로 구성된 무역연합체이다. 동 협정에 따라 2014년까지 공산품, 어류 및 기타 수산물 거래에 대한 거의 모든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 협정에는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의 철폐와 경쟁 규칙, 지적 재산권 보호, 공공 조달, 국가 독점, 국가 지원, 지불 및 이전과 같은 기타 무역 관련 규율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요르단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각 국가간 양자 농업 협정이 포함되었다.
요르단-쿠웨이트 FTA	쿠웨이트	2001-12-25	2005-04-09	체약당사자 중 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업 및 농산물에 대한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다.
요르단-바레인 FTA	바레인	2001-07-21	2005-05-29	산업용이든 농업이든 관계없이 요르단과 바레인의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 면제된다. 그러나 담배 및 담배 대체품과 그 제조품(HS 코드 24), 알코올, 트랙터 및 차량(HS 코드 87) 품목들은 제외이다.

요르단-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2004-05-16	2005-08-22	요르단 상품은 싱가포르 수출시 관세 등이 면제되며 요르단이 수입하는 싱가포르 원산지 상품은 5~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관세가 면제되었다. 동 FTA는 싱가포르가 중동 국가와 맺은 첫 FTA이다.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무역에 관한 협정	EU		2006-01-01	EU와 요르단 간의 Association Agreement에 대한 추가 협정이다. 농산물 및 가공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요르단과 EU는 농산물 무역에 대하여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7개 제품(생화, 감자, 마늘, 오이, 작은 오이(gherkins) 감귤류, 딸기, 버진 올리브유)을 제외한 모든 요르단 농산물에 대하여 EU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협정이다. 앞의 7개 품목 중 생화와 버진 올리브유를 제외한 5개 품목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 EU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했다. 가공 농산물에서는 3개 제품(설탕 가공품, 초콜릿 및 기타 코코아 함유 식품, 특정 비스킷)을 제외하고 관세가 면제된다.
Agadir Agreement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레바논, 팔레스타인	2004-02-25	2007-03-27	동 협정은 장기적으로는 아랍 공동 시장을 촉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중해 아랍 국가 간의 자유 무역 지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체결되었다. 2020년 레바논, 팔레스타인과도 추가로 협약이 체결되었다.
요르단-이라크 FTA	이라크	2009-09-04	2010-10-01	2019년부터 요르단-이라크 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약 300여개 품목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중이다. 협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양국 간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제조 및 생산을 위한 특별 경제 구역인 요르단-이라크 공동 산업 지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양국 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르단은 아카바(Aqaba)에 반입되는 이라크 상품에 대한 관리 및 취급 수수료(Administrative and handling fees)를 75%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요르단-캐나다 FTA	캐나다	2009-06-28	2012-10-01	아랍 국가 중 캐나다와의 첫 FTA이다. 요르단의 대캐나다 수출시 관세는 즉각 면제되며, 캐나다 공산품은 요르단 수출시 약 3~5년의 점진적인 관세 인하 기간을 거친 후에 관세가 면제된다.
Association Agreement	영국	2019-11-05	2021-05-01	관세 또는 기타 장애 없이 양국의 제품을 EU와의 협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십 협정이며, 상품과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을 그 대상으로 포함한다.

요르단-이스라엘 무역 협정	이스라엘	2021-03-01	2021-11-03	요르단과 이스라엘 관할지역인 요르단 서안 지구(West Bank) 간에 체결된 협정이다. 요르단의 814개 품목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수출될 경우, 팔레스타인의 기술 규격 및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를 면제받는다. 동 협정은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자원 협력과 함께 이루어졌다.
-------------------	------	------------	------------	--

<자료원 : 2024년 기준 공관 자료 및 현지 정부 기관 자료 등 (참고로 요르단은 아랍 세계의 경제 및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특혜 무역 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및 양자 자유 무역 협정(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여러 아랍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양자간 조약들은 GAFTA(Greater Arab Free Trade Area)와 함께 작동하며, 이때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수출입 시 자신이 원하는 협정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나. 논의 중 협정

없음.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1) 수입 규제 현황

○ 정기적인 수입관리 공고제도는 없으며 총리 명의의 발표에 의해 건 별로 발표하고 있다. 1995년 수입면허제도 폐지로 인해 수입업자는 면허 없이 자유롭게 외국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단, 수입면허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수입된 모든 농산물 또는 식품은 요르단 식품의약국(Jord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JFDA)에서 검사를 거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품 첨가물은 요르단 표준계량원(Jordan Standards and Meteorology Organization; JSMO)에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2015년 수입지침(Importation Instructions No. 109 for 2015)에 따라 수입 품목에 수입 허가가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는 수입업자 등록부에 등록하고 유효한 전자 수입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 21)을 WTO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고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 21)과 2004년 수출입 규정(Import and Export Regulation No. 114 of 2004)에 의한 2015년 수입지침(Importation Instructions No. 109 for 2015)에 따르고 있다. 1988년에 요르단 산업무역부는 수입자유화 정책의 하나로 수입 절차 완화를 위한 새 규정을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 발표한 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요르단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 외국인 투자자, 요르단에 등록된 외국 계약자(Contractor) 및 회사, 언론에서 일하는 외국인 등은 물품 수입 전에 정부로부터 수입 면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요르단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국가 중 가장 평균 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무관세 품목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다만,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자국 생산 가능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 중이다.

2) 수입 금지 품목 및 수입 규제 품목

- 수입 금지 품목
 - 모든 종류의 약물(마약), 마약성 작물(양귀비, 대마초, 카트(Qat) 등), 유독 물질, 공공보건에 해로운 물질
 - 무기, 폭발물, 탄약, 소리만 나는 모형 총, 3인치 초과 미사일 폭죽(어린이용 폭죽, 폭죽 달린 아동용 권총 포함)
 - 연식 5년 이상 된 중고 자동차, 10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는 제외), 디젤 구동 승용차, 통관시점 기준 1년 이상된 기관차 헤드(Locomotive heads)
 - 중고 배터리 또는 그 부품의 수입을 금지, 다만,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배터리는 개인 사용 목적에 한해 수입이 가능
 - 요르단 정부는 유럽 또는 미국의 규격을 준수하지 않는 전기차의 수입 및 전시를 금지
 - (페인트 및 금속 코팅 공장용으로 수입된 것을 제외한) 육가크롬(Hexagonal chromium)
 - 할랄인증 안 된 육류(할랄 대상 육류만 해당)
 - 성수(Holy Water)
 -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유기체 유사 인형(The organism-like doll made up of human and animal genes)
 - 모자이크 그림(Mosaic paintings)
 - 짙은 선팅이 된 소형 승용차 및 운송 차량
 - 소말리아산 석탄
 - 모링가 나무(Moringa tree)의 씨앗과 묘목

-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쇼핑백(Non-biogradable plastic bags) 등의 플라스틱 쓰레기
 - 산호(Coral)
 - 석궁(Crossbows)
 - 시계, 펜 등의 도청장치 또는 카메라를 내장한 위장물품 및 장비
 - 음란물
 - 점멸등 및 위험 경적(Flashers and Danger Horns)
 - 사진 차단 스프레이(photo blocker spray)
 - 의류 내부 및 기타 형태의 설탕(Sugar in the form of internal clothing and other forms)
 - 소말리아 석탄
- 수입 규제 품목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요르단 내 특정 기관 또는 회사만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 규제 품목과 그 규제기관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천연 가죽(Raw natural leathers): 요르단 제혁 회사(Jordan Tanning Company)만 수입 가능
 - 광유를 제외한 석유 및 그 파생물(Petroleum and its derivatives other than mineral oils), 하우스 가스 실린더(House gas cylinders): 요르단 석유 정제 회사(Jordan Petroleum Refinery Company)만 수입 가능
 - 검은 시멘트(Black Cement): 요르단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만 수입 가능
 - 화약, 폭발물, 폭발 캡슐(Gunpower, explosives, explosive capsules), 미정제된 인산염(Raw Phosphate): 요르단 인산염 광산 회사(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만 수입 가능. 단, 이 경우에도 화학무기금지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고 타이어: 요르단 타이어 수리 공장만 수입 가능 (단, 해당 부처는 언제든지 공장 점검을 통해 송장의 정확성과 판매된 타이어가 제대로 마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무기 등 방산제품: 요르단 정부에서 인가하는 업체 및 기관만 수입 가능
 - 중고 카메라: 요르단 표준계량원에서 승인 받은 기업만 수입 가능
 - 눈의 각막: 요르단 안구 은행(Jordanian Eye Bank)만 수입 가능
 - 방탄 조끼(Protective vests): 요르단 내 보안 서비스(Security Services) 제공하는 기업만 수입 가능
 - 위험 경보, 자동차의 하이라이트 장치: 요르단 보건부, 군대, Public Security, 민방위(Civil Defense), 관세청, 사립 병원 구급차만 수입 가능
 - 색상 투명도가 10% 이하인 스테인드글라스 차량: 왕립 하시마이트 법원(Royal Hashemite Court), 정부 부처, 부서 및 공식 공공 기관만 수입 가능
 - 카메라 또는 시계, 펜 등의 (첩보용) 위장 재료 및 장비: 보안 및 군사 기관만 수입 가능
 - 생담배 또는 손상된 담배: 요르단 담배 공장 또는 비료 공장만 수입 가능
 - 산업용 가루 우유(Industrial powdered milk): 농업부에서 발행한 자동 수입 허가에 따름(아이스크림, 초콜릿, 비스킷, 삼각 치즈, 페타 치즈, 다미아티 치즈, 가향 우유, 요거트, 수프 분말, 크림 및 케이크 혼합물)
 - 석궁에 사용되는 공기총 및 탄약: 석궁 타격 연습을 위한 지정 및 허가된 센터만 수입 가능

3) 수입 허가 필요 품목 (아래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요르단 관할 부처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중고 타이어, 밀가루와 그 부산물, 흰 시멘트, 중고 오븐, 온수기, R12를 사용하는 냉장고용 압축기, 중고 리퍼브 및 재고 전기 제품, 철근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동물의 냉동 정액, 올리브유, 냉동 동물, 날고기, 요거트, 냉동 및 냉장 고기, 방부 처리한 야생 동물, 비료,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및 소독제, 수의학 의약품, 감자, 양파, 마늘, 산업용 분유,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수입된 유가공품, 농업용 묘목, 농업에 사용되는 종자 및 과일, 꿀(2kg 이하 팩), 천연 밀랍, 꽃가루(벌 사료), 과일과 야채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 살아있는 동물(농업부 및 산업통상부)
- 할론(Halons), 브로모메탄(Bromomethane), 프레온(Freons), 광물유 또는 미네랄 오일(mineral oil), 용매(Solvents) 등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질산암모늄, 병기 탄약, 폭발물, 잭나이프(스위치 블레이드), 연료로 작동하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콘으로 조정되는 장난감 비행기, 모든 종류의 무기 및 장비, 상업용 전자게임, 전자 자기 방어 용품, 소형 감시카메라, 질산암모 (내무부 공중안보부서; Public Security)

Directorate, Ministry of Interior)

- 보건부/군대/경찰/관세청/사립 병원 등의 구급차 부품 용도로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보 및 하이라이트 장치, 3D프린터 (내무부; Ministry of Interior)
- 오일 파생상품, 아스팔트(에너지광물자원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방사성 물질, 우라늄, 엑스레이 기계 또는 방사선 관련 장비, 중수(산화중수소), 동위원소 분리 및 단편화용 기계 및 장치, 스펙트럼 파장 측정과 같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분석을 위한 기기 및 도구, 밀도 계량기를 포함한 각종 계량기, 수분 감지기, 연기 감지기, 물품 검사 장치, 모든 종류의 가속기, 토륨 광석 및 농축액, 원자로에서 소비된(방사선에 노출된) 연료 요소(카트리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연료 요소(카트리지), 동위원소와 동위원소의 유기·무기 화합물, 원자로 및 원자로 부품,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 또는 수의학용으로 사용되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영상 또는 방사선 치료 장치 포함), 산업용 X-ray 촬영용 원격 제어 장치, 전자 포획 검출기, 혈액 조사 장치 등 (에너지 및 광물 규제 위원회; Energy and Minerals Regulatory Commission)
- 무선수신기와 방송국, 무선 알람 장치, 무선 보안 감시 카메라, 원격 조정 장치(모터, 차고, 창문, 셔터 포함: TV, 비디오 장치 제외), GPS 위치 장치, 휴대폰 장비, 무선마이크, 통신용 단말기, 원격조정 장난감, 비텔레비전 방송용 위성 수신기, 영상 송수신기, 무선 액세스 포인트, 무선 컴퓨터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카드 및 무선 장치(라우터기 포함), 레이더, 케이블 및 금속탐지기 등 (통신 규제위원회;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Commission)
- 우편 통관 도구 (요르단 우체국; Jordan post)
- 디코더와 위성방송 수신기 (요르단 라디오·텔레비전 공사; Jordan Radio & Television Corporation)
- 군복 (군사령부; General Command of the Armed Forces)
- 석면(벽돌 및 하수관 제조에 사용 제한), 파이프와 패널, 기타 화학물질 등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 식품 첨가물(Food additives), 특수 식품 및 허브 제품, 우유 및 이유식, 의약품 전체(백신 포함), 향생제, 운동선수용 식품 보조제 (식품안전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수중탐사장비(굴삭기) 등 (수자원관개부; Ministry Of Water And Irrigation)
- 화학물질 : 하이드록시-1-메틸피페리딘 (CAS 3554-74-3), 플루오린화 칼륨 (CAS 7789-23-3), 클로로에탄올 (CAS 107-07-3), 디메틸아민 (CAS 124-40-3), 염화 디메틸아민 (CAS 506-59-2), 플루오린화 수소 (CAS 7664-39-3), 메틸 벤질레이트 (CAS 76-89-1), 퀴누클리돈 (CAS 3731-38-2), 피나콜론 (CAS 75-97-8), 시안화 칼륨 (CAS 151-50-8), 수소 플루오린화 칼륨 (CAS 7789-29-9), 수소 플루오린화 암모늄 (CAS 1341-49-7), 플루오린화 나트륨 (CAS 7681-49-4), 수소 플루오린화 나트륨 (CAS 1333-83-1), 시안화 나트륨 (CAS 143-33-9), 오황화 인 (CAS 1314-80-3), 디이소프로필아민 (CAS 108-18-9), 디에틸아미노에탄올 (CAS 100-37-8), 황화 나트륨 (CAS 1313-82-2), 염화 트리에탄올아민 (CAS 637-39-8), 트라이이소프로필 포스페이트 (CAS 116-17-6), O,O-디에틸 포스포리티오에이트 (CAS 2465-65-8), O,O-디에틸 포스포로디티오에이트 (CAS 298-06-6), 헥사플루오로실리케이트 나트륨 (CAS 16893-85-9)(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Supply)

4) 수입 등록 필요품목

- 모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품목은 요르단 식품의약처(Jordan Food & Drug Administration)에 수입 전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경우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의 규제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은 요르단 식품의약처에 등록된 에이전트를 통해 제품 등록을 진행한다. 하기 '비관세장벽-인증제도'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 모든 요르단 및 외국 무역 회사는 통관 목적으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수입 카드를 발급받거나, 수입 상품 가치의 5%에 해당하는 관세 채권을 납부해야 한다. 비무역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목적에 맞는 상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특별 제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료: 요르단 관세청, 각 부처 홈페이지 현지 신문기사 등]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일반 수입품 검사 제도

○ 개요: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2007년 8월 1일부 발효된 The Directorate of Testing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운영 목적: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표준규정 혹은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적용 범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대상이다. 세관신고서 등록 이후 관할 세관원은 규정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데, 이때 왕궁 계정으로 수입되는 물품,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인가된 외교 기관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도착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세청은 이를 통지하고, 통지 이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물품을 세관 창고로 이전한다. 다음과 같은 물품은 세관 규칙 또는 수입자 요청에 따라 수입자의 비용부담 원칙 아래 세관 밖에서 검사가 이뤄진다.

- 완전한 생산단위의 형태로 입고된 물품
- 현장에서 설치한 후에야 검사가 가능한 제품
- 세관 내에서 하역 및 처리가 불가능한 중량물
- 상하차 작업으로 인해 부패 또는 파손 가능성이 있는 민감성 물품
-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 기타 부서에서 승인된 물품

○ 검사 방법: 검사 구역으로의 물품 운반, 소포의 포장 해체 및 재포장, 검사 과정에 필요한 기타 모든 작업은 신고인(수입자)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수입품은 위험도에 따라 해당 관청에서 감독하는 선별기준에 따라 녹색 레인(Green Lane), 황색 레인(Yellow Lane), 적색 레인(Red Lane) 등 3가지로 분류된다.

- 녹색 레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에 필요한 문서만 갖추어지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황색 레인은 해당 필요 문서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친 경우에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세관 공무원은 물품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 요청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고 물품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 이때 검사는 수입신고자 또는 수입신고자의 대리인이 입회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관청은 신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검사 일자를 통보한 후 신고자의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지정된 검사 시간에 포장을 개봉하고 물품 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 적색 레인은 해당 필요문서에 대한 검증작업(서류심사) 및 실물 검사를 모두 실시하며, 상품의 성격에 따라 신고자 혹은 대리인에게 통보된 이후 특별히 지정된 위치에서 검사가 이루어진다. 해당 관청은 물품의 유형, 사양 및 법률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서의 상급 직원 3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물품을 분석할 수 있다. 만약 분석에 의해 해당 수입예정 물품이 유해하거나 승인된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관청은 물품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비용으로 물품을 파기시킬 권리가 있다. 관세청이 상품 또는 제출된 서류의 조사를 통해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조사할 수 없을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필요한 증거 서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관세청의 물품 분석 결과에 대해 신고인 등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와 관청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품 소유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는 분쟁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권장 사항을 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전문가 및 기술자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소유자는 분석 결과 도출 전에 관세 수수료를 미리 지불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기본 검사 절차는 '수입품 샘플 채취 → 소정의 검사소에서 검사 → 수입허가 혹은 불허 판정, 통보'의 순으로 진행된다.

○ 검사 기준: 요르단 자체 검사기준이 없을 때 국제 라벨링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다.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기준이 있을 때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능성 등이 없을 경우 수입이 허가된다. 국장은 검사 절차를 단순화할 목적으로 특정 물품 포장에 대한 특별 규칙을 부과할 수 있다.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미구비 시 샘플 테스트 후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요르단 내에서 검사 불가능 시 샘플과 라벨링 정보 상호 비교 후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요르단 관세청은 자체 심사 또는 제출된 증빙 서류를 통해 수입물품 내용의 지침 준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검사를 중단하고 필요한 증거 요소를 제공하는 보다 철저한 문서를 수입업자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입 내용물에서 요르단 지침 미달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은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 원산지에서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포장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창고에 반입된 경우: 발송 전에 원산지 국가에서 요르단 지침 미달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 * 포장물이 불량한 상태로 창고에 반입된 경우: 세관과 운송회사 양측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인
- * 포장물을 양호한 상태로 창고에 반입하여 사후에 의심의 대상이 된 경우: 창고를 책임지는 기관에서 책임을 짐
- 요르단 관세청은 상품의 유형 및 사양과 국제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 및 요르단 식품의약국(JFDA)과 같은 공인 분석가가 수입물품을 분석하게끔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2) 수입물품 등록제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요르단 식품의약국(JFDA)에 등록이 필수이며 관련 절차는 바이어 또는 에이전트 등을 통해서 관련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요르단 식품의약국은 2008년부터 재정적, 행정적 독립성을 갖춘 법인격을 갖춘 기관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자재, 식품의 제품 등록을 포함하여 요르단의 식품 및 의약품 전반을 관리한다. 해당 기관은 소매 및 도매 유통 수준에서 식품을 검사할 권한이 있으며, 제품이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람이 섭취하기 부적절하다 판단될시 유통 채널에서 제거한다. 아래는 등록 관련 세부 내용이다.

○ 등록 절차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등의 수입품을 요르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식품의약처(JFDA) 방문 약속을 잡아야 한다. 이때 식품의약처는 필요 서류, 증명서, 견본을 제출하는 날짜를 알려 준다. 필요서류, 증명서, 견본 및 등록 수수료는 제품마다 다르다. (제품별 보다 자세한 정보는 요르단 식품의약처 홈페이지(jfda.jo) 참고)

- 제품등록 관련 식품의약처 전문위원회에 서류 및 증명서(제품에 따라 위원회도 상이하다)를 보내면 전문위원회가 최초 수입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제품 등록 여부를 결정한 결과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서명하고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 만약 전문위원회에서 제품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는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신청자가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회에서는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심사를 다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종 결정자인 식품의약처장에게 제출한다. 식품의약처장은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에 따라, 수입 또는 마케팅을 금지하거나 살균제 및 세제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이전의 승인 또는 회수를 취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 의료기기에 관한 모든 변경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주요 등록 기준(의약품)

- 제품의 성분, 라벨, 용도 및 기타 전문위원회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검토한 후 제품 등록이 승인된다. 기본적으로 제품에 부착된 라벨은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하며, 담배 등의 경우 요르단에서 규정한 건강 경고문이 부착된 요르단 표준 사양을 따라야 한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외부에 배치(Batch) 혹은 로트(Lot) 번호, 만료일, 제조사 이름, 원산지, 보관 조건, 멸균 제품일 경우 해당 국가의 멸균 방법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에 CE 마크가 표시된 경우 라벨의 일부로 표시되어야 하며, 읽을 수 있고 제거할 수 없어야 한다.

- 요르단 내부 또는 외부에서 약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조하거나 출시하는 현지 FDA 승인 기업 또는 자유 판매 증명서(Free-Sale certificate)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모두 의약품 판매 허가 보유자로 간주한다. 의약품이 등록되지 않고, 등록번호 발급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 한 요르단 내 유통이 금지된다. 의약품 등록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품이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약효, 의약품 품질, 약품 안전성이 그것이다. 의약품은 상품명, 학명, 농도, 유통기한 등의 정보가 지워지지 않게 명확하게 인쇄되어 의약품의 내/외부 포장 및 내부 리플렛에 게시되어야 하며, 영어와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등록이 모든 약학적 형태와 농도의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등록 신청서는 유럽 지침(EMA)에 따라 각각의 약학적 형태와 농도에 대해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 등록된 지 5년 이상 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만료일 이전 3개월 내에 판매점 또는 현지 의약품 공장의 담당 약사가 JFDA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참고로 의약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① 등록대상의약품은 동일한 성분으로 원산지에서 이미 등록 및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이어야 한다. 유통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그 이유와 FDA 승인 국가 중 하나의 자유 판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필수 등록 의약품은 원산지 또는 FDA 승인 국가 중 한 곳에서 최소 1년 동안 유통되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무총장은 의약품 안전성을 달성하기 위해 전염병 및 풍토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과 치료상 이점이 있는 약물의 경우에 한해 의약품 등록절차를 제외할 권리가 있다.

- 화장품 및 의약 화장품(pharmaceutical cosmetics)의 경우, 요르단 규격 및 기준이 적용되며 만약 요르단 기술 기반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 규격이 적용된다. 화장품은 최종 용도가 미용 목적인 경우에도 유효한 의약품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의약품으로 간주된다. 화장품 및 의약 화장품의 구성 성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제품으로 간주하여 반드시 신제품으로 등록해야 하며, 외부 포장이나 내부 포장, 또는 내부 사용설명서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약품, 의료용품, 소독제 또는 소독제의 등록은

품질, 효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통과시까지 금지된다. 또한 검사를 받기로 결정된 의약품, 의료용품, 소독제, 소독제, 화장품 또는 의약품의 유통은 국장의 유통 승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금지된다.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검사 시에는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체가 분석 비용을 지불하고 테스트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샘플 전체 또는 그 일부가 내부 포장, 외부 포장, 내부 사용설명서 등 요구되는 기술 사양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사양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샘플이 합격하더라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합격 판정이 나올 수 있다.

○ 주요 등록 기준(의료기기 및 의료기자재)

- 의료기기 및 의료기자재 수입업자는 JFDA에 제품 등록을 위해 아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수입업자로부터 등록을 요청하는 서신 (제품명, 살균제 또는 소독제, 등록할 크기 및 치수, 제조회사, 원산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요르단 산업통상부가 수입업자에게 발급한 유효한 상업 등록부(Commercial Register) (수입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입업자에 대한 유효한 직업 면허 (또는 만료된 지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어야 한다)

④ 수출국의 공증인 또는 상공회의소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승인된 공식 기관에서 발행된 원본 또는 원본 인장이 찍힌 사본(여러 페이지가 있는 경우 각 페이지마다 인장 필요) 형식의 아래 인증서 (제품에 따라 필수/선택사항임)

1) 공증인이 서명하고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510k 인증서 (유효기간 없음)

2) 다음 요구 사항 및 수정 사항에 따라 유럽 연합의 인증 기관에서 발행한 CE 인증서

- 의료기기 지침 93/42/EEC

- 능동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DD 90/385/EEC

3) 효과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따른 의료 용품의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Class 1로 분류된 의료 용품: 무균 또는 측정용인 경우 제품 그룹명으로 일반 CE 인증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 표준 또는 원산지 국가의 무료 판매 인증에 따라 제조되었다는 제조업체 선언(적합성 선언)이 발행되어야 한다.

- Class 2A 및 2B의 의료 기기: 제품 그룹명으로 발행된 일반 CE 인증서가 필요하다. 2B에 포함되는 임플란트의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Class 3 의료 기기: 브랜드 이름과 모델이 포함된 상세한 CE 인증서가 필요하다.

- 능동 임플란트 범주의 의료기기: 상품명 및 모델이 포함된 상세한 CE 인증서가 필요하다.

4)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유 판매 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5) 스위스,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의 자유 판매 증명서 외에 원산지 국가의 공식 기관에서 발행한 무료 판매 증명서. 만약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다른 원산지인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의료 용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다음 공식 중 하나를 사용하여 판매될 수 있음이 선언되어야 함 (자유롭게 판매(freely marketed), 무료 수수료 판매(feely sold), 판매될 수 있음(may be marketed), 판매 허용됨(allowed to be sold), 판매 허가 권한이 부여됨(authorized to sell), 판매에 대한 법적 이의 없음(no legal objection against the sale) 및 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진술 혹은 용어)

- 유효 기간이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 제조 장소뿐만 아니라 판매권을 소유한 제조업체 또는 소유자의 이름이 언급되어야 한다/

6) 원산지 국가에서 의료 요건이 아닌 시설에서 의약품으로 간주되는 제제의 생산 라인에 대한 GMP 인증서를 획득한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자유 판매 증명서

- 자유 판매 증명서에 GMP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5)항의 각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자유 판매 증명서와 별도로 권한 있는 기관이 인증한 GMP 증명서가 제공된다.

7) 살균제 및 소독제 등록 관련, 원산지 국가의 자유 판매 증명서 원본 또는 CE 증명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살균제 및 소독제의 유효 기간과 보관 조건을 명시한 선언서와 이에 대한 안정성 진술 보증, 완제품 샘플과 사양, 분석 방법 등을 제출해야 한다.

8) 실험실 시약에 대한 인증서는 체외 진단 지침(98/79/EEC)의 분류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⑤ 원본 구성 인증서

- 활성 및 비활성 성분이 특정 숫자로 중량/중량% 또는 중량/부피% 또는 중량/부피% 또는 중량/부피% 등으로 나열되어야 한다. (서명 및 날인)

⑥ 완제품 사양(제조업체의 날짜 및/또는 번호로 서명 및 날인)

⑦ 원본 분석 증명서(서명 및 날인)

⑧ 제조업체의 선언서(Declaration)

- 제품의 유효 기간, 살균제 또는 소독제, 보존 및 보관 조건, 해당 보관 조건 하에서의 안정성 보장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필요시

안정성 연구 수행 필요)

⑨ 외부 패키지 + 내부 패키지

⑩ 제품 내부 전단지(있는 경우)

⑪ 동물성 파생물이 불포함되어 있다는 선언서(Declaration)

- 동물성 파생물이 포함된 의료용품은 현행 규정에 따라 전염성 해면상뇌증(TSE) 및 소해면상뇌증(BSE)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서를 표시해야 한다.

⑫ 구성, 용도, 금기 사항, 경고 등을 포함한 공급품/살균제/소독제에 대한 카탈로그 등 완전한 정보 (운영 안정성 연구 보고서 등)

- 전시 활용 또는 재수출 목적이 아닌 한, 중고 또는 리퍼브 의료기기 및 의료기자재의 요르단으로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의료기자재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 현지에서 제조한 살균소독제,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원료, 연구실용 표준자재는 등록 관련 서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수입 배치에 대한 분석 증명서 또는 안전 데이터 증명서(MSDS)만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기위원회는 수입 신청 내용을 평가하고 최초 수입 신청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신청자는 공식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의료기기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는다.

- 의료기기가 의약품 투여 형태이거나 의약품을 포함하는 경우, 의료 기기에 대한 전체 정보가 포함된 원본 카탈로그, 의료 기기의 유효기간과 보관 조건을 명확히 하는 제조업체의 안전성 진술 보증, 의료기기의 완제품 사양 및 분석 방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가 동물성 성분을 함유한 경우 TSE/BSE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 등록을 위해 제출된 의료, 무균, 방부제 제품이 2회 연속으로 시험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업자 또는 현지 제조업자는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주요 등록 기준(식품)

- 식품등록 신청시에는 식품의 성분, 영양정보, 제조공정, 포장, 라벨링,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 필요 서류의 목록은 ① 성분 및 영양 정보를 포함한 제품 정보 ② 라벨링 및 포장 세부 정보 ③ 공인 실험실에서 발급한 분석 증명서(CoA) ④ 원산지 증명서(수입 제품의 경우) ⑤ 제조 및 생산 정보 ⑥ 건강 및 안전 인증서 ⑦ 상표 등록 서류 ⑧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이다.

- JFDA에 면허를 받기 전에는 현장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승인된 시설은 관할 당국의 승인 없이 구조나 장비를 크게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도살장, 식품 제조 시설, 중앙 관할 당국이 결정하는 기타 유형의 식품 시설의 경우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도살장의 경우 농업부에서 등록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문서는 연방 정부 혹은 기타 기관의 도살장 허가증, 등록 코드, ISO 혹은 HACCP 품질 보증 인증서, 이슬람 협회 혹은 이슬람 위원회에서 발급된 할랄 도축 준수 증명서 등이 있다. 식품의 경우, 유전자 변형 물질을 포함한 식품 첨가물 및 식품을 수입 및 거래할 수 있다. 단,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유통된 전례가 있어야 하며 원산지 국가의 지침 및 규정에 부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만약 원산지 국가에서 유통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 첨가제나 식품은 요르단에서도 등록될 수 없다.

- 현지 유통 전에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는 아랍어 라벨이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한다. 라벨에는 다른 언어도 포함될 수 있으나 반드시 아랍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라벨에 포함시켜야 하는 정보에는 제품명, 성분 목록(무게 내림차순), 알레르기 정보(해당되는 경우), 순 수량, 제조 날짜, 유통기한, 보관 지침, 원산지,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수입업체 이름 및 주소, 영양 정보(해당되는 경우), 사용 지침, 배치(batch) 또는 로트(lot) 번호 등이 있다. 이때 라벨에는 선명하고 읽기 쉬운 글꼴을 사용해야 하며, 글꼴 크기는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유기농, 유아용 조제분유, 건강보조식품 등 일부 식품 카테고리에는 추가 라벨링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치즈의 경우 처음으로 수출할 시 자유 판매 증명서가 필요하다.

- 수입된 식품에 유통 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이거나 성분의 허위 기재시 반입이 금지되며, 수입업자의 비용으로 수출국으로 재수출된다. 또한 식품이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요르단 내 저장을 금지하고 6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수입자의 비용으로 수입국으로 재수출해야 한다. 육류, 유제품 등 빠르게 부패하는 식품 혹은 부패한 식품 등 재수출이 불가할 경우 수입업자의 비용으로 제품을 파기해야 한다. 다만, 요르단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등록이 유보되며, 이때 해당 제품이 재가공을 통해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허용된다.

- 요르단은 수입 절차에서 3단계 검사율 시스템을 사용한다. 고위험제품은 80~100% 검사율, 중간 위험 제품은 검사율 25~50%, 저위험 제품은 검사율 5~10%로, 식품의 위험도에 따라 검사 정도를 구분한다.

[자료: 요르단 관세청, 표준계량원, 식품의약국 홈페이지 등]

요르단의 기술 규정, 표준 관련 규정 제정이나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사안은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이 관할하고 있다. 요르단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요르단은 총 8건의 TBT 사안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7건은 요르단에서 제기했으며 1건은 요르단이 피당사국이 된 경우이다. 관련 품목은 주로 가정용 전자제품, 차량, 장난감, 에너지 관련 제품, 기체 연료 이용 제품, 일정한 전압 범위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 등이다. STC(특정무역협약)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부터 2022년까지 요르단이 2건 피당사국이 된 바 있다. 2009년에 멕시코가 STC 사안을 제기했으며, 2021년에는 EU가 사안을 제기했다.

[자료: WTO 홈페이지]

기타

1) 영사인증제도 폐지

○ 기존에 요르단은 해외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상업송장(Invoice)과 원산지 증명 등 무역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 회의소 인증을 받은 후 각국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대요르단 수입품에 대한 영사인증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2020년 7월 28일, 요르단 산업통상부는 영사 인증을 수입통관 시 필요 요건 서류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단,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상업 송장, 패킹 리스트 제출은 여전히 의무이다. 상업송장의 표준 형식은 없으나 운송 거래 당사자, 운송되는 상품, 제조 국가, 가격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2)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의 경우, 2016년부터 알루미늄바, 로드, 프로파일에 부과되었던 수입규제가 2020년 5월 부로 최종 종료되었다. 2019년 9월 16일 요르단 내각위원회는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종료된 것이다. 해당 세이프가드는 일반관세(30%)+판매세(16%) 외 톤당 300 JD(423불) 추가 요금을 해당 품목에 부과하기로 한 규제였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였다. 참고로, 요르단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바, 로드, 프로파일의 비율이 요르단 전체 수입액의 3% 미만이면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되었는데, 한국이 요르단에 수출하는 알루미늄 바, 로드, 프로파일의 비율은 요르단 총 수입액의 3% 미만이므로 한국은 해당 세이프가드에 적용을 받지 않았다. 향후 1년간 해당 품목에 세이프가드가 다시 재개될 여지는 없다.

○ 반덤핑의 경우 2000년에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규정'을 발표한 이후 2006년까지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해당 규정이 실행 중이나 발동실적은 전무하다. 한편 요르단은 1994년 'GATT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의해 수출 증진을 위한 보조금을 받았으나 2018년 12월 31일 기간이 종료된 뒤 2020년 1월 13일 연장 포기를 결정했다.

3) 환경 관련 규제

○ 환경 관련 규제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유해물질을 정화하는 촉매 변환 장치(catalytic converte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요르단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많은 환경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에 자동차 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인터넷이 연결된 센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구대를 만들어 2007년 의회를 통과한 환경 관련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 2014년 7월부터 에코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르단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과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램프, 각종 IT 제품과 전기모터 제품 등 가전기기에 대해 에너지 디자인·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

○ 2021년 11월, 요르단 정부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 및 선적 전 요구 사항에 따라 개인 용도 목적의 중고 자동차 배터리를 수입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새 배터리는 허용되지 않음). 그 이전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배터리를 수입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자동차 배터리 수입에 대한 의무 요건 이행 하에 조건부로 수입이 가능하다. 자동차 소유자는 3년마다 자동차 배터리 1개를 수입할 수 있으며 배터리는 매우 양호한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수출국에서 선적 전 검사가 의무이며, 수출국의 검사 센터(Inspection center)는 수입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후 해당 인증서를 JSMO(Jordan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에 제출하여 JSMO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2023년 8월부터 환경부는 자동차용 배터리(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동력용) 재활용 전문 시설에 허가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승인된 시설들은 배터리에서 납을 추출하거나 수출을 위한 배터리 재조립이 가능하다.

○ 요르단 환경부는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은과 수은 화합물을 수중 장비 제조업, 포장 및 포장재 산업, 산업 폐수 처리업, 전기 산업(수은 램프 제외), 농약 산업 등에서 금지한다.

4) ISO 라벨링 표기 규제

○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은 2020년 1월부터 제품 및 포장재(상자포함)에 ISO 표기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ISO 9001, ISO14001, ISO22000을 포함한 모든 ISO 표기와 관련된 수입 제품에 해당 라벨이 있으면 수입 통관이 금지 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제품 홍보자료(카탈로그 등)에 내용 또는 설명으로는 표기할 수 있으나, ISO 라벨 사용은 금지된다. ISO 인증 종류에는 제품 및 서비스 자체에 대한 품질 인증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는 인증라벨이 있다. 해당 인증이 제품에 표기되면 현지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은 판단하였다. 즉 현지 소비자들은 ISO 인증마크만 보고 제품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는 광고,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ISO 라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제품 자체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이번 새로운 규정의 도입 취지이다. 2018년부터 발효하려고 했으나 유예되어 2020년부터 발효를 발표하였다.

5) 요르단 무역 촉진 포털(Jordan Trade Facilitation Portal)

2021년에 요르단 세관은 요르단 무역 촉진 포털(Jordan Trade Facilitation Portal)을 출시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수출되는, 또는 경유하는 상품에 대한 세관 법규, 절차, 필요 문서 등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포털은 무역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요르단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JTFP는 국제무역센터(ITC), 요르단 정부, 독일국제협력공사(GIZ)가 협력하여 개발했으며, 독일 연방 경제 협력 개발부(BMZ)와 네덜란드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 포털은 투명성을 향상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국경 통제 기관과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한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s://tradeportal.customs.gov.jo/?l=en> 이다.

이 포털은 7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를 다루는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며, 이 가이드에는 필요한 문서, 관련 비용, 예상 소요 시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무역업자가 복잡한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기관의 900개 이상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법적 프레임워크, 협정, 원산지 규정, 서비스 수수료 등을 조직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자료: 요르단 관세청, 표준계량원, 식품의약품 홈페이지 등]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개요

○ 요르단은 1997년 3월 2일, 통합 관세법 개정 발효를 통해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재경비했으며 이후 2000년 4월 WTO에 가입하면서 관세제도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 요르단 정부는 WTO 가입과 함께 2000년 4월 1일부로 최고 관세율을 종전의 35%에서 30%로 인하하는 한편 WTO와의 양허관세 일정에 따라 2005년에는 25%로 그리고 2010년까지는 20%(담배, 술 등 특별소비 용품 제외)까지 인하였다.

○ 2022년 1월 요르단은 다양한 품목에서 대폭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통일하는 '관세율 체계 개선'을 시행했다. 동 정책에 따르면 요르단의 '엔지니어링, 건설, 가구, 식품 산업'에서 생산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단 자동차,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 담배 등 특정 품목 제외)은 0%와 5%의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53%가 '제로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40%는 5%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2022년부터 요르단 관세율 카테고리는 기존 11개(0%, 1%, 5%, 6.5%, 10%, 15%, 20%, 25%, 30%, 35%, 40%)에서 4개(0%, 5%, 15%, 25%)로 줄어들었으며, 관세율의 범위도 0~40%에서 0~25% 수준으로 바뀌었다. '엔지니어링, 건설, 가구, 식품'의 경우, 2022~2024년에는 15% 또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동 25% 관세율 적용 품목도 2025~2026년에는 20%, 2027년부터는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2027년 관세율 카테고리는 3개(0%, 5%, 15%)로 축소될 예정이다.

○ 요르단은 한국과 같이 HS를 사용하고 있다. 요르단은 WTO의 관세평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인보이스 가격이 관세율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수입물품의 가치는 통관 시 중앙은행에서 환율(JD 1=\$ 1.41)을 적용해 요르단 디나르로 전환해 산정되며 특별한 예(Under Value 물품 등)를 제외하고는 세관의 자의적 관세 적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수입물품의 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수수료 및 중개수수료(구매 수수료 제외), 세관 컨테이너 비용, 포장비, 재료비 및 인건비, 수입품 생산 과정에 소비된 비용 등을 가산한다. 요르단 관세청은 HS 세번, 단세제 그리고 종과세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수입품에는 관세외에 판매세, 일반세, 관세, 표준화 수수료, 검사비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 상품 대부분에 수입 관세 이외에도 16%의 일반 판매세(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가 부과된다.

○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는 세관에 신고를 등록한 날부터 부과되며, 관세구역에 수입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재수출 물품에 관세구역에 입국하는 시점에서의 유효한 세율을 적용한다.

○ 하지만 세관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자의적 관세 부과(서류상 제품 단가가 아닌 세관에서 제품 가치 재조정 후 과세율 적용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요르단으로 상품 수출시 명시된 종류, 물품 가치, 무게, 원산지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 요르단 관세청이 지정한 세율로 재측정되며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수입품의 원산지 기준은 물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인 전환 과정이 발생해야 한다. 이때 실질적인 전환 과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6자리 관세 분류가 다른 경우와 부가가치가 공장부지 내 물품가 격의 40% 이상인 경우이다.

○ 2022년 1월, 요르단 정부는 관세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시행하여 종전에 0~30%에 달하던 관세 범위를 장기적으로 0~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2027년 1월까지 복잡한 품목별 관세율 범위를 통합하고, 요르단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 이전 세율은 0%, 5%, 10%, 15%, 20%, 25%, 30% 등의 7개 구간으로 구성되었고, 수출용 원자재, 생산 투입용 원자재, 의료용품 등 생필품 수입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었다. 기타 소비재에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되었고, 주류, 담배 및 자동차에는 더 높은 30%의 세율이 적용된 바 있다.

- 새로운 관세 체계에서는 0%, 5% 및 15%의 3가지 구간만 유효하다. 15% 관세비율은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르단 엔지니어링, 건설, 가구 및 식품 산업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요르단 재무부는 2027년 1월까지 요르단에 들어오는 수입품의 53%가 관세가 면제되고 자동차, 알코올 음료, 담배 및 그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40%의 물품에 5%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엔지니어링, 건설, 가구 및 식품 산업에는 중장기 관세율 플랜이 적용되는데, 1) 처음 3년(2025년까지) 동안에는 15% 및 25% 2) 그 이후에는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관세율이 25%에서 20%로, 20%에서 15%로 차례대로 감소한다.

○ 요르단과 자유무역협정 혹은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미국, 싱가포르, EU, EFTA, 아랍국 등)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는 공통으로 WTO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2) 세관 서비스 수수료

○ 2017년 2월 요르단 정부는 수입대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세관 서비스 수수료(Customs services fee)를 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부과되는 수수료 액수는 최소 100 요르단디나르(141달러)에서 최대 1만 요르단디나르(1만 4,124달러) 범위이다.

○ 2021년 2월 24일부터 물품의 가치가 200요르단디나르(282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요르단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는 100요르단디나르에서 2배인 200요르단디나르로 상향 조정되었고, 10%의 고정 수수료만 부과된다. 이때 10% 고정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물품에 대한 세금이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로 그 이전까지는 50요르단디나르 이하의 경우 5요르단디나르의 수수료가, 100요르단디나르 이하일 경우 10요르단디나르의 수수료가 징수되었다.

○ 요르단과 FTA가 체결된 국가 중 미국과 EU 제품의 경우 관세가 부가되지 않고, 또한 해당 국가 이외의 FTA 체결국가(캐나다, 아랍국가, 싱가포르 등) 제품의 경우 1%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한국은 요르단과 FTA 미체결 국가로 세관서비스 수수료 5%를 적용한다.

○ 관세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는 물품 보관 및 검사에 필요한 보관, 보험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이 부과되며, 보관비용은 어떤 경우에도 상품 추정 가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서비스 수수료는 수입되어 요르단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그 가치에 비례하여 책정된다.

3) 부가가치 세제(일반 판매세)

○ 정확하게 말하면 요르단에는 부가 세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서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가 부가가치세 형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방식은 (CIF 수입가 + 수입관세) X 일반 판매세율이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판매세율은 16%이다. 한편, 요르단 정부는 2018년 생필품 가격급등 방지 및 서민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과일 및 채소 등은 판매세를 10%에서 0%로 면제하였고 그 외 농산물 관련 품목은 10%에서 4%로 그리고 농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품목은 판매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2023년 8월 요

르단 내각은 개인 및 회사를 위한 수입 트럭의 교체 및 현대화를 위해 수입 트럭 헤드 부분에 대해 16%로 설정된 일반 판매세 적용을 면제하기도 했다.

4) 특별소비세

○ 요르단에는 세관에서 부과되는 고유의 소비세가 존재한다. 이를 특별소비세라고 하며 담배, 자동차, 술 등의 제품 등에 부과된다.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별도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면서 내는 세금이 상당한 경우가 많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20%~55% 구간으로 부과되어 자동차 가격의 절반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담배의 경우 50%의 특별소비세가 붙는다. 부족한 국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요르단 정부의 세금 종류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5) 요르단 수입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종류 및 부과방식

- 관세(Tariff): 요르단 HS Code 분류기준에 따라 부과(0~25%)
- 세관 서비스 수수료(Customs services fee): 물품의 가격에 5% 부과
- 판매세(sales tax): 물품의 가격에 16% 부과
- 서류취급세(documents): 물품의 가격에 1% 부과
- 소득세(income tax): 물품의 가격에 2% 부과
- 기타(others): 요르단 정부에서 정한 기타 세금 요율에 따라 부과

6) 관세 면제

○ 요르단 왕궁 공급품(국왕의 이름으로 수입된 물품), 부처·정부 공공 부서 및 기관·공식 대학·지방 자치 단체·농촌 협의회 및 합동 서비스 협의회에 수입되는 보조금 및 기부금, 외교 관련 물품(상호주의 바탕으로 한도 내에서 면세), Royal Jordan 항공사 물품, 환승 물품, 과학·기술·종교·자선단체 필수품, 장관의 권고에 따라 장관 협의회의 면제 결정을 받은 물품 등은 면세된다.

○ 요르단 투자 증진법에 의거해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프로젝트나 사업을 위해 요르단으로 수입해오는 자산, 기계, 장비 등 등록된 자산은 관세 면제 가능 물품(호텔이나 병원을 위한 가구나 장비), 프로젝트 및 사업을 위해 수입된 자산 중 미사용된 자산은 관세 면제, 등록된 자산이 프로젝트 및 사업의 확장이나 개발, 현대화를 위해 사용될 경우 관세 면제(이로 인해 기존의 프로젝트 및 사업의 생산력이 25% 이상 증가할 경우), 호텔과 병원 프로젝트는 가구와 장비를 현대화할 경우에 한해 7년마다 한 번씩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등록된 자산의 가격이 오른 경우 인상액만큼의 관세를 면제(원산지의 가격 인상, 화물운송 가격의 인상, 환율 변화로 인한 인상분에 한함)한다. 요르단에서 근무하는 비요르단 국민의 외교, 영사 사절단 책임자 및 구성원과 비명예 인사로서 외무부가 발행한 목록에 이름이 언급된 이의 개인 소지품도 면제된다(면제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도 포함됨).

○ 요르단군 혹은 요르단에 주둔하고 있는 아랍국의 군대와 관련한 탄약, 무기, 장비, 피복류, 차량 및 예비 부품 등의 물품은 관세, 기타 수수료 및 세금이 면제된다. 수입품이 사용된 이후 판매되거나 반품된 경우 동 금액의 75%는 관세 및 기타 수수료를 대신해 국세청에 귀속된다.

○ 요르단 사람들이 거주를 위해 요르단으로 가지고 오는 개인 물품(자동차 제외)과 가정용 가구는 관세 및 기타 수수료와 세금이 면제된다.

○ 수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르단으로 반환되는 반품의 경우도 관세 및 기타 수수료와 세금이 면제된다. 이때 반품의 원산지는 요르단이어야 하고, 이전에 요르단에서 수출된 것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관세 및 기타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고 요르단에 정식으로 등록 및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하다.

○ 면세 품목은 면제가 부여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당사자는 통관 절차 완료와 관세청의 관세 양도 허가 이전에 해당 품목을 양도할 수 없다.

○ 면세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면세 신고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은 대사관 또는 영사 직원의 임기 만료, 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거나 외교관 혹은 영사관 사용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처분될 수 있으며, 부과된 수수료는 감면되지 않는다. 면세 신고 등록일로부터 3년 이후 자동차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관세가 전액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교관 또는 영사 소유자의 임기 만료로 이루어진 경우 관세가 30% 감면된다.

○ 다음 품목도 관세가 면제된다.

- 실제 거래 가치가 없는 샘플
- 배송비를 제외하고 10JOD를 초과하지 않는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 선박 및 항공기에 필요한 보급품, 연료재료, 윤활유, 예비부품 및 보급품
- 광고용으로 설계된 달력
- 상업적 목적과 관련이 없는 스포츠 및 과학 메달 및 상패
- 장관이 발행한 지침에 따라 상업적 특성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객이 가져온 개인 선물
- 학교, 기관 및 장애인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교육 및 의료 자료, 보조 기구, 도구, 기계, 부품 및 교통 수단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장관의 권고에 따라 각료 회의가 결정한 종류, 수량, 가치에 따라 민간 소비자 공사(Civil Servants shop)가 수입한 물품
- 모스크, 교회 및 수도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받은 보조금, 기부금 및 선물

[자료: 요르단 관세청, 요르단 투자위원회, 요르단 표준계량원 등]

관세율 알아보는 법

2018년에 런칭한 요르단 관세청의 관세 통합 세율 시스템(CITS: Customs Integrated Tariff System) 웹사이트 링크는 아래와 같다.

- https://services.customs.gov.jo/JCcits/Search_Cits.aspx?parent=search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제품명 및 HS Code로 검색할 수 있다. 동 웹페이지는 모바일로도 지원된다. 다만, 관세 검색 서비스는 아랍어로만 제공된다. 위 링크에 접속한 후 3번째 입력란에 HS Code를 입력한 뒤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품목을 검색한 후 해당 품목 좌측에 있는 '\$' 아이콘을 클릭하여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관세 통합세율 시스템(Mobile CITS)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10요르단디나르를 지불한 뒤 1년동안 사용 가능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얻어야 한다. 인터넷 연결 없이 11자리 HS코드 항목과 설명, 관세 금액, 항목에 적용되는 규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동 웹사이트는 2021년에 아랍연맹(Arab League)으로부터 아랍 전자정부 실드 상(Arab e-Government Shield Award)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요르단 정부는 온라인 무역 포털(<https://tradeportal.customs.gov.jo>)을 신규 런칭하고 각 품목별 수출입 신청 절차, 필요 양식, 소요 비용, 소요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자료: 요르단 관세청]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무역항 및 물동량

○ 요르단의 아카바 항은 요르단 남단의 유일한 해상무역항이다. 아카바는 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 영토교환협정에 의해 요르단 영토로 편입된 요르단 유일의 항구 도시이며 2001년 요르단 국왕에 의해 경제특구(Aqaba Special Economic Zone, ASEZ)로 지정되었다. 아카바 항은 요르단 내 유일하게 해상 무역이 가능하며, 아카바 항 인근에는 4개국(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항구가 인접해 있다. 최근 이라크, 시리아 등 주변국이 정정 불안에 빠지면서 내륙 교역이 어려워지자 유일한 해상교역 통로인 아카바 항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또한 아카바 항과 요르단 내 주요 거점을 잇기 위한 건설 프로젝트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 한편 아카바 항은 구항(Old port)과 신항(New port)으로 나뉘며, 2018년부터 운영을 개시한 아카바 신항은 곡물, 일반화물, 석탄 등을 취급하는 동시에 석유, 천연가스, 액화가스 등 3개 에너지원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항구와 인산염, 암모니아, 황 등 요르단 주요 생산원자재의 수출 전용 산업항구 등이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2021년 12월에 아카바개발공사(Aqaba Development Corporation; ADC)와 아부다비 항만(Abu Dhabi Ports)은 아카바 항구 지역 개발, 유람선 터미널 개선, 항구 시스템 디지털화, 다목적 항구 건설 및 개조를 위한 5개의 신규 계약 및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아카바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아카바 컨테이너 터미널(ACT)은 운송 공급망을 강화하는 아카바 경제특구의 전략적 물류 시설로서 2015년에는 그 규모가 1,000㎡로 확장되어 터미널의 처리 능력이 150만 TEU로 증가한 바 있다. 한편 아카바 유람선 터미널의 경우 하루 2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승객 총 3,000명 수용이 가능하다.

○ 아카바 항은 하루 24시간 운영되며, 이 항구에서는 곡물, 철, 대리석 등 물품의 하역과 자유무역지대로 향하는 자동차들을 가득 태운 로로선(roll/on-roll/off ship)의 접안을 거의 매일 목격할 수 있다. 아카바 항은 12개의 터미널, 32개의 선석, 2개의 항구, 해양 서비스를 포함한 6개의 운영사업자 및 국제 개방형 하늘 공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아카바개발공사는 항공 화물 창고, 물류 시설, 세관 야적장, 트럭 마샬링 야드 및 X선 스캐닝 플랫폼을 개발한 바 있다.

○ 한편 2024년에 아카바 컨테이너 터미널(ACT)은 6천만 달러 규모 '항만 장비 전기화 시범사업'의 일부로서 중동 최초로 전기 배터리를 이용한 컨테이너 처리 장비를 도입했다. 새로운 전기 장비는 완충시 8시간 작동 가능한 45톤 리치스태커(Reach Stacker), 완충시 8시간 작동 가능한 8톤 엠티 핸들러(Empty Handler), 터미널 트럭 등이 있으며 2025년까지 장비 기사 모집이 완료될 예정이다.

○ 2020년 아카바 항을 통한 수입 물동량은 약 970만 톤이었는데 이중 곡물, 가축, 자동차 및 일반 상품의 핸들링 및 수입이 520만 톤이었으며 나머지 440만 톤은 석유 관련이었다. 같은 해 아카바 항을 통한 수출물동량은 약 470만 톤이었으며 그리고 중계무역용 수입물동량(transit import)은 약 17만 톤이었다. 이를 합하면 2020년 아카바 항의 총 물동량은 약 1,460만 톤이며, 이를 위해 1,600여 척의 선박이 부두에 입항했고, 아카바 항만 관리 운영사업의 매출액은 약 1억 달러에 달했다. 단, 동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7%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가 그 주요 원인이다.

○ 2021년 전체 아카바 항을 통한 수입 물동량은 약 1,007만 톤이었는데 원유나 석유·액체 가스를 포함한 액체화물(Liquid bulk)이 426만 톤이었고, 곡물(Cereals)은 260만 톤이었다. 같은 해 아카바 항을 통한 수출물동량은 483만 톤이었으며 중계무역용 수입물동량(Transit import)은 약 18만 톤이었다. 2021년 아카바 항의 총 물동량은 1,490만 톤이었고, 이를 위해 1,845척의 선박이 부두에 입항하였다. 또한 2021년 컨테이너의 총 물동량은 765,662TEU였다.

○ 2022년 아카바 항을 통한 수입 물동량은 약 1,000만 톤으로, 이때 액체화물이 409만 톤, 곡물은 351만 톤이었다. 같은 해 아카바 항을 통한 수출 물동량은 인산염을 포함한 건조 벌크(Dry bulk)가 제외되면서 약 80만 톤을 기록했으며 중계무역용 수입물동량(Transit import)은 약 32만 톤이었다. 이를 합하면 2022년 아카바 항의 총 물동량은 1,080만 톤이었고, 이를 위해 1,759척의 선박이 부두에 입항했다. 또한 2022년 컨테이너의 총 물동량은 852,554 TEU였다.

- 2023년 아카바 항의 수입 물동량은 896만톤으로 작년 대비 10% 감소했으며 이때 액체화물(Liquid)이 약 372만 톤, 곡물(Cereals)이 302만 톤을 차지하였다. 같은 해 아카바 항을 통한 수출 물동량은 건조 벌크(Dry bulk)를 제외하고 약 88만톤을 기록했다. 2023년 아카바 항의 총 물동량은 985만톤이며 총 1,429척의 선박이 아카바 항에 입항했다.

-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아카바의 수입 물동량은 약 300만 톤을 기록하였는데, 주로 액체화물(Liquid bulk), 건조 벌크(Dry bulk) 위주로 수입되었다. 액체화물(Liquid bulk) 및 광물유(mineral oil)가 약 120만 톤, 그 외 곡물류가 약 77만 톤, 철(steel)이 10만 톤을 기록했다. 동일 기간 아카바의 수출 물동량은 약 38만 톤으로, 수출품목은 2월에 수출된 건조 화물(Dry bulk) 117톤, 3월에 수출된 액체화물(Liquid bulk) 3천 톤을 제외하면 모두 일반화물이었다. 2024년 아카바 항구의 연간 생산성은 수출 증가로 인해 작년에 비해 8% 성장한 모습을 보였으나 컨테이너 총 물동량은 4월 233,971 TEU를 기록하며 전년도 동월 대비 23.14% 감소를 보였다. 2023년 11월부터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바브알만데브(Bab Al Mandab)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 위협을 가하면서 발생한 물류 위기가 이번 물동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2) 공항 및 물동량

- 요르단의 국제공항은 퀸 알리아 국제공항(Queen Alia International Airport)이 사실상 유일하다. 2013년 공항 확장 공사를 마치고 재개항한 퀸 알리아 공항은 국영 요르단 항공(Royal Jordanian Airport)의 거점 공항으로서 이라크와 레바논, 이스라엘로의 출입국을 담당한다. 2024년 요르단 정부는 공항국제그룹(AIG)과 협력하여 퀸 알리아 국제공항(QAIA)의 재건, 확장 및 운영에 관한 6차 개정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는 요르단 정부의 '경제 현대화 비전' 정책에 따라 항공 운송/물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 2021년에 퀸 알리아 공항은 총 58,278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2020년 기록에 비해 20.8%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단 동 물동량은 2019년에 비해 43.1% 감소한 수치이다. 퀸 알리아 공항을 통해 수출된 물품의 가치는 2021년에 전년 대비 4% 증가한 1억 3,100만 요르단디나르이다.

- 2022년에 퀸 알리아 공항은 총 61,290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2021년보다 5.2%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단 동 물동량은 2020년에 비해 40.2% 감소한 수치이다.

- 2023년에 퀸 알리아 공항은 총 67,336톤의 화물을 처리하여 2022년보다 9.9%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 중 항공화물은 12월에 6,434톤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30.4%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AIG에 따르면 2024년 3월 한 달 동안 퀸 알리아 국제공항은 6,361톤을 처리하여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3) 유의사항

- 아카바 항은 요르단의 유일한 국제 항구이고 최근 들어 개선은 되고 있으나 항구 규모에 비해 물동량이 많아 화물 적체 시간이 다소 길다. 또한 홍해 진입로가 좁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환적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1~2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어 운송이 지연될 수 있다. 아카바 항구에서 통관한 물품은 시리아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지로 육상교통을 통해 이동 가능하며, 도로 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단,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로 이동하는 경우, 도로 사정은 좋지만 심한 국경 검문으로 운송에 시간 소요가 많은 편이다.

- 아카바 항은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2022년 6월 27일에는 아카바 항에서 염소가스 25톤을 실은 탱크 로리가 전복되면서 13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아카바경제특구청(ASEZA) 부청장은 당시 약 2,700명의 직원이 항구에 고용되어 있었으나 부주의로 인해 안전성 검사를 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카바 항에는 이와 관련한 안전지침이 부재했다고 한다.

- 또한 아카바 항이 위치한 홍해는 핵심 무역로이지만 이스라엘, 예멘, 소말리아, 이집트 등이 마주하고 있어 정세 불안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2023년 11월부터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통과선박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아카바 항을 포함한 홍해 지역의 항구들이 물류 위기에 처해 있다. 본래 선박들은 홍해에 위치한 바브엘만데브(Bab Al mandab) 해협을 통해 아카바 항에 도착해 왔으나, 2023년 11월부

터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업용 선박을 공격하자 여러 상선들이 경로를 바꾸었거나 취항을 취소했다. 2024년 5월 기준 아카바를 향하는 대부분의 선박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운항 중인데 이는 긴 시간과 비용 증가(약 3,000달러)를 수반한다. 요르단 해운 협회 회장은 아카바 항구에 도착하는 컨테이너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언급했다.

○ 요르단의 우편 시스템은 수신자의 주소뿐 아니라 전화번호에도 의존하는 편이다. 로컬 운송기업인 아라멕스(Aramex)나 DHL 등은 물품 배송 시 수신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길을 안내받는 방식으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요르단으로 샘플배송 등 적은 양의 물품을 배송시키는 경우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추가하여 우편물 분실 등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요르단은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으나, 물품 통관 시 자의적인 세관 행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아카바 컨테이너 터미널, Jordan Shipping Association, 아카바 개발공사, 국제공항그룹(AIG), 기타 뉴스자료 등]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 개요

○ 요르단은 규정에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요르단에 수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이 도착하는 곳은 암만의 쿨 알리아 국제공항(항공배송인 경우)과 아카바항(선적배송(Shipping)인 경우) 등 2곳이다.

○ 아카바항의 경우, 유일한 국제 항구이고 최근 들어 개선은 되고 있지만, 항구 규모에 비해 물동량이 많아 화물 적체시간이 다소 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해 진입로가 좁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환적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1~2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어 운송이 지연된다. 아카바 항구에서 통관한 물품은 시리아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지로 육상교통을 통해 이동 가능하며, 도로 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로 가는 경우에는 도로 사정은 좋지만 심한 국경 검문으로 운송에 시간 소요가 많은 편이다.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5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자동차로는 암만에서 약 4시간 반가량 소요된다.

○ 공항의 경우, 실제로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은 쿨 알리아 국제공항이 유일하다. 해당 공항은 1982년 완공됐으며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5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쿨 알리아 공항은 국영 요르단 항공(Royal Jordanian Airline)의 거점공항으로서 이라크와 레바논, 이스라엘로의 출입국을 위한 항공 요충지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쿨 알리아 국제공항은 지난 2007년 4월 Abu Dhabi Investment(UAE)와 Aeroports de Paris Management Co. (프랑스)와 25년 운영 조건의 BOT 계약을 체결하고 총 6억 달러 규모의 공항 확장 및 시설 현대화 계획을 추진했으며, 2013년 3월 공항 확장 공사를 마치고 개항했다. 확장 공사 이후 새 터미널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있던 3개의 터미널(여객 터미널 2개와 화물 터미널 1개)은 폐쇄되었다. 2014년 1월부터는 쿨 알리아 국제공항의 두번째 확장 공사(약 10억 달러 규모)가 시작되어 2016년에 완료되었다. 이로 인해 연간 승객 수송 능력을 1,200만 명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 한편 2024년 3월부터 요르단 정부는 원활한 물류와 공급망 안정성 보장을 위해 통관 절차를 통합 감독하는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는 현장에서의 통관 절차를 감독하고 통관 관련 장애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2) 통관 절차

요르단은 통관과 관련해 특별한 유형분류가 없으며 통상적인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통관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세관 신고: 모든 종류의 물품을 통관할 때 면세된 경우라도 세관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Electronic means)으로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는 국장(Director)이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적하 목록(One manifest)에 언급된 상품만 포함해야 한다. 함께 봉인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조립된 수많은 포장물품이 세관 신고서에 하나의 단위로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인은 그의 요청에 따라 세관이 수락한 후 신고 항목 중 하나 이상을 수정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세관이 이미 통관 절차를 밟은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 수입업자는 일반적으로 세관신고서 등록 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수입업자는 새로 신고 등록을 해야한다. 신고인(대리인)만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상품을 볼 수 있다.

○ 물품 검사: 세관 신고서를 등록한 후 관할 세관원은 국장이 발행한 지침에 따라 상품 전체 또는 일부를 검사해야 한다. 운송된 제품은 통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을 위해 세관으로 이동된다. 이송에 관여하고 검사를 위해 물품을 준비하는 사람은 관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르단 관세청은 식품, 농산품, 위성 안테나, 통신 장비 등 일부 품목의 통관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이 발급한 허가서를 요구할 수 있다. 모든 물품은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세관 또는 외부에서 자체 비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 또는 대리인의 입회 없이 상품을 검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금지된 물품 또는 세관 문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된 시간에 검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 관세청은 검사를 위해 포장을 개봉할 권리가 있다. 또한 세관은 상품의 유형 및 사양을 확인하기 위해 요르단 표준계량원, 요르단 식품의약처 등 공인 분석기관으로부터 추가 분석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국장은 분석 또는 검사를 통해 유해한 것으로 입증되고 승인된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을 폐기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상품 폐기 비용은 상품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부담해야 한다.

○ 세금 부과: 요르단 관세청은 해당 서류들을 확인하고 제품을 직접 검사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송장내용에 따라 관세, 판매세, 수입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해당 결과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수료 및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 분쟁위원회: 수입품 검사로 인해 관세당국과 상품 소유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부서 고위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분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세, 가격, 원산지, 특성, 상품의 관세 분류 등에 대해 조사를 수행한다. 관세당국과 상품 소유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품 소유자의 서면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는 분쟁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권고 사항을 국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전문가 및 기술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장의 결정에 대하여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관세 및 세금 납부 및 물품인출 : 모든 통관 절차 및 비용 납부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인수할 수 있다. 요르단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30%로 책정되나 주류, 자동차, 담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관세율이 책정된다. 또한, 관세 외에도 16%의 판매세가 추가로 붙는다. 물품을 회수하기 전에 관련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결정된 관세 및 세금의 납부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다. 그러나 과세 대상자는 전체 납부금에 대해 은행 또는 현금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 및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수입품을 인출할 수 있다.

3) 참고 사항

○ 요르단 내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 및 외국 무역업체는 통상산업부에서 수입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물품 통관시 제시해야 한다. 수입업 증명서가 없을 경우(개인 자격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 물건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수입 벌과금 성격; 수입업자가 물품 수입 후 정부에 납부하는 제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을 세관에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단 병원과 은행, 호텔 등에 대해서는 Limited Card를 발급해 특정 목적 물품 수입에 대해 수입 과징금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도 반드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일반적으로 수입권한이 있는 운송업자만이 물품 통관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허가받은 통관 대리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때 통관 대리인은 물품을 위탁받은 사람과 관세청 및 창고, 창고 및 자유 구역의 투자 기관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요르단 관세법에 따라 통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송장이 영어로 돼 있을 경우에는 아랍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 (통상 수기로 이루어짐)해야 한다.

- AWB 혹은 B/L 원본 1매(선사 인증 원본) 및 복사본 2매
- 상업송장(수량과 제품에 대한 상세 내역 명기), 필요한 경우 Serial Number(원본 2매, 복사본 3매)
- 포장 리스트(원본 2매, 복사본 3매)
- 원산지 증명 및 영사인증(원본 1매, 복사본 3매)
- Shipping Agent의 운송 요구서 2매

[자료: 요르단 관세청 등]

통관 시 유의사항

1) 자의적 세관 행정

○ 요르단은 관세법을 통해 “Under Value 물품을 제외하고는 자의적 기준가격 설정 및 관세 부과를 엄격히 규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의적 기준가격 설정 및 관세 부과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보이스에 명기된 물품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격’ 대비 터무니없이 낮다는 이유로 인보이스 가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체 보유 시장가격 정보(통상, 인보이스 가격의 1.5~2배)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세관에서 시장가격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궁이 가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자동차용 OEM부품 수입’(순정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대해 요르단 내 자동차 딜러들의 순정부품 판매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장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적용방법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 이외에도 포장 리스트와의 비교를 위해 컨테이너에 있는 전체 수입 물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통관을 수주 간 지연시키거나 혹은 원산지 표시가 지워지거나 희미해져 원산지 표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입 통관을 거부하고 수출국으로 반송(Ship Back)을 요구하는 등 경직된 세관 행정에서 발생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2) 샘플 통관 시, 관세 부과

○ 통상적으로 샘플 통관시에는 규정상 상업적 목적과 관련이 없는 샘플은 관세가 면제되며, 또한 배송료를 제외한 금액이 10JOD를 초과하지 않는 사용 불가 품목도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요르단 세관은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세관 담당자가 샘플치고는 수량이 많다고 여길 경우, 일반 품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우편으로 배달되는 50달러 수준의 저가 샘플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기준가격 설정 및 관세(및 판매세)를 부과함에 따라 인보이스 가격의 배가 넘는 금액을 통관 비용으로 납부해야 하는 예가 발생한 바 있다.

○ 한국업체는 반드시 적정 수량의 샘플 수량을 요르단 바이어측에 보내야 하며 반드시 Invoice를 첨부하여 해당 인보이스안에 샘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많이 사용하는 DHL의 경우, 해당 서류 및 작업을 사전에 준비해서 첨부하여야 세관 통과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보관료를 줄일 수 있다. 참고로 보관료는 14일까지는 무료이며, 14일 이후 10요르단디나르(약 14달러)의 핸들링 요금(Handling fee)과 함께 매일 2요르단디나르(약 2.8달러)의 보관료가 추가된다.

3) 소포 운송 및 통관 관련

○ 2024년 기준 한국-요르단 간 한국 우체국 EMS 및 EMS프리미엄이 운영되고 있다. 요르단은 배달지연국가로 지연 시 손해배상이 되지 않으므로 EMS프리미엄으로 접수할 것이 권장된다. EMS로 보낼 시 배송 금지 품목으로는 화폐, 술, 음료수, 동물부산물(털, 가죽, 깃털), 보석류, 화학제품, 신용카드, 증서, 여권, 칼, 라벨, 가죽제품, 정치서적 등이 있으며 제한 품목은 500달러를 초과하는 광고물, 미술품, 시계, 카메라, 비디오게임, 전자부품, 카메라 렌즈, C16 의류기, 의류, 문구류, 화장품, 우표, 향수, 개인선물, 차량, 기계부품, 장난감이 있다. 음료수 캔은 3개까지, 담배는 5개, 약 2개, 펜은 300달러 이하만 가능하다. 기타 금지제한 품목은 요르단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 가능하다.

○ 또한 한국-요르단 간 소포 배송에는 FEDEX, DHL, UPS, ARAMEX 등의 기업이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한국 우체국에서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적으로 UPS 운송사를 통해 국제 배송이 이루어지며, 일반 EMS로 한국에서 발송시 요르단 중앙우체국(암만 Al Muqabalein 지역 소재, Jordan Post Office Headquarters)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 포장식품, 의약품 등의 운송은 가능하나, 단 FEDEX의 경우 부패하기 쉬운 식품 및 냉장 또는 기타 환경 제어가 필요한 식품 및 음료의 운송 및 통관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ARAMEX는 한국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동 사무실에 account 넘버(개인용 또는 기업용)과 함께 배송하면 동 어카운트에 해당하는 요르단 주소로 배송 및 통관이 가능하다.

4) 항공배송 소포의 쿵 알리아 공항 통관 관련

○ 요르단에 거주중인 한국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DHL과 UPS(한국우체국 EMS 프리미엄)는 한국에서 출발한 수입품(소포 등)의 쿨알리아 공항의 통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옵션을 운영하고 있다.

- ① 수입품(소포 등)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특정 통관업체에 부여
- ② 통관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수입품이 도착하면 DHL에서 요르단 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DHL/UPS의 공식 통관업체를 사용하여 통관 및 배송할지 여부를 문의
 - * DHL의 공식 통관업체(파트너사)는 Ali Hlaiyel Clearance Company이며 UPS의 공식 통관업체(파트너사)는 Al Dar Al Mutahida For Clearance Company임
- ③ 어떤 업체도 지정하지 않고 수취인이 스스로 통관 및 배송 진행

[자료: KOTRA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등]

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The Right way for Logistics Services

주소	Abu Qamar Complex, Khalda, 219 Wasfi At-Tall St
전화번호	(+962) 7 9222 4325
이메일	info@rightway-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s://rightway-logistics.com/en/
비고	20년 경력의 국제적인 운송회사로 요르단 암만에 본사를 두고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튀르키예에 지점을 두고 있다. 주로 해상 운송, 항공 화물, 통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 보석 등 귀중품, 의료 및 산업 샘플, 주요 서류를 빠르게 배송하는 특급 배송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 GWL Logistics

주소	Mecca Street, Al Hajar Al Abyad Complex, Building 164, 8th floor, office No. 802
전화번호	(+962) 6 554 1416
이메일	admin@gwl.com.jo
홈페이지	https://gwl.com.jo/project_handling/
비고	2009년에 설립된 요르단의 선도적인 화물 운송업체로서 175개 이상의 국가에 해상 운송, 항공 화물, 육상 운송, 통관 수속, 프로젝트 카고 핸들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요르단의 암만, 아카바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다.

○ DHL

주소	DHL Hub, Queen Alia International Airport St G867, Amman, Jordan
전화번호	(+962) 6 580 0800

이메일	info@dhl.com.jo
홈페이지	https://www.dhl.com/jo-en/home.html
비고	DHL은 문서 및 소포 운송, 화물 운송 서비스, 기업 물류 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DHL은 쿤 알리아 국제공항에 허브를 두고 있으며 소포를 정리하고 배달할 수 있는 파트너 통관 회사(Ali Hlajyel Clearance)를 운영 중이다.

○ UPS

주소	Midas Building, 249 Wasfi Al-Tal Street, Amman, Jordan
전화번호	(+962) 6 537 7772
이메일	customerservicejo@ups.com
홈페이지	https://www.ups.com/jo/en/Home.page
비고	UPS는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배송을 보장하는 전세계 특송 화물을 통해 국제 무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통관 중개 서비스를 통해 상담 서비스 및 화물 포워딩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UPS는 쿤 알리아 국제공항에 허브시설은 운영하지 않으며, UPS를 통해 들어오는 패키지를 관리하고 통관시키는 자회사(AI Dar Al Mutehida Clearance Company)를 운영한다.

○ ARAMEX

주소	Building 5, King Hussein Business Park, King Abdullah II St 242, Amman, Jordan
전화번호	(+962) 6 551 5111
이메일	AMMcare@aramex.com
홈페이지	https://www.aramex.com/jo/en
비고	ARAMEX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수준의 소포 및 화물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통관 회사 파트너를 통해 통관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 전자 상거래 비즈니스, 구매회사가 국제 배송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국제 패키지 수집 주소를 제공하는 "Shop and Ship"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Naouri Group

주소	Building No. 30, Sa'ad Bin Abi Waqqas St., Um Uthaina, Amman, Jordan
전화번호	(+962) 6 500 4000
이메일	info@naouri.com
홈페이지	https://naouri.com/#
비고	1994년에 설립된 요르단의 로컬 물류기업인 Naouri Group은 화물 포워딩, 해운 대리점, 육상 운송, 통관, 포장 및 제거를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요르단내 파트너 회사(Kareem Logistics)를 통해 통관 솔루션을 제공한다.

◦ Eastern Group

주소	8, Khareja Al-Ashjae Street, Peace Building – Jabal Luweibdeh P.O. 815408 Amman 11180 Jordan
전화번호	(+962) 6 462 1775
이메일	info@eastern.com.jo
홈페이지	https://www.eastern.com.jo/
비고	Eastern Services는 항공, 해상 및 육로 화물 운송, 통관, 포장 및 제거, 창고 보관 및 유통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르단의 로컬 화물 운송업체로서, 암만 상공회의소(IATA)와 요르단의 미국 상공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Eagle Transport Services Co. W.L.L.

주소	Building No. 24, Eagle Transport Services Co., Al Sab Bin Jathamah St, Amman, Jordan
전화번호	(+962) 6 550 3030
이메일	info@eagle.com.jo
홈페이지	http://www.eagle.com.jo/
비고	Eagle Transport는 항공 화물 GSA, 국제 화물 포워딩, 프로젝트 물류, 창고 및 유통, 통관 서비스를 포함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200명의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 암만에 5층 건물이 있다.

◦ Jordanian Coast Cargo Services

주소	350 Air Cargo Road, Qastal, Amman, Jordan
전화번호	(+962) 6 471 1118
이메일	info@jordaniancoastco.com
홈페이지	http://www.jordaniancoastco.com/

◦ GLFS Group

주소	Al Rawdah Commercial Complex, Al Shareef Abd Al Hameed Sharaf St 87, Amman
전화번호	(+962) 6 566 2836
이메일	info@glfs.com.jo
홈페이지	http://www.glfs.com.jo/
비고	1998년 요르단 암만에서 설립되어 전 세계적으로 모든 화물에 대해 통관, 운송 및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53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6개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 DSV - Global Transport and Logistics

주소	Al-Zaitoneh Complex, Paris St., Al Swafieh, Amman, Jordan
전화번호	(+962) 6 588 5454
이메일	Jordan.dsv@dsv.com
홈페이지	http://www.jo.dsv.com/
비고	1976년 설립된 운송 물류 세계 3대 기업으로, 요르단 암만에 지점을 두고 있다.

○ Jordan Global Shipping Agencies Co. Ltd.

주소	Global Commercial Complex Prince Muhammad St(아카바)
전화번호	(+962) 6 5516474 (암만) / (+962) 3 2013 006 (아카바)
이메일	info@jgsaco.com(암만 지부) / Aqaba@jgsaco.com(아카바 지부)
홈페이지	https://www.jgsaco.com/
비고	2003년 초 설립된 국제 해운 회사로서 주로 해사 컨설팅, 마케팅 및 포워딩, 선박 연료 공급,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열사를 통해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투자환경

○ 요르단 정부는 현 압둘라 국왕 취임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경제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요르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기업들에게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요르단은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2020년 비즈니스 하기 쉬운 국가 순위(World Bank's Ease of Doing Business 2019 Index)에서 190개국 중 75번째를 기록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는 경제 개방도,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법적/규제 안전성, 무역/투자 안정성 분야에서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 지난 20년간 요르단 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소유권 제한 철폐, 각종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호의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에너지, 대중교통, 항공 등 주요 인프라 개발사업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함으로써 요르단 국영기업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영기업의 역할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공공민간파트너십(PPP)을 통해 철도, 정유, 해수 담수화와 같은 분야에서도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2020년대 들어 요르단 정부는 경제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투자유치 목표를 위한 신규 정책들을 "런던 이니셔티브"를 통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기업 운영 및 투자 관련 금융도산법, 벤처자본법 등을 마련하고, 또한 신규 법안 마련,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 부문 개방 등을 예정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들에게 좀 더 우호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법안 마련 전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요르단 정부는 '경제 현대화 비전' 정책을 통해서도 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는 경제 현대화 비전의 주요 정책목표 중 하나이며, 요르단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의 요르단 직접 투자, FTA 관련 무역,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요르단 정부는 자본 투자를 줄이고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 민간 부문에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2) 외국인투자법 개요

○ 요르단 투자법은 1995년 제정 후 2000년 일부 개정하고 2014년 재개정 되었다. 요르단 정부는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에 투자법(Investment Law No. 30)을 발표했다. 이 투자법은 2014년 10월 26일에 제정되었다. 개정된 투자법으로 인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있던 투자 관련 업무가 요르단 투자청(JIC; Jordan Investment Commission) 관할로 개편되었다. 요르단 투자청은 유일한 정부 투자 에이전트로서 투자 유치, 수출 장려,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등 투자 부문 전반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JIC가 직접 투자자 등록, 허가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투자 신청 과정이 매우 간략화되었다. 새로운 투자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경제 부문을 확정하였다. 또한, 내각은 사안별로 비 우선 부문에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하였다.

- 우선순위 부문은 농업 및 가축, 병원 및 전문 의료 센터, 호텔 및 관광 시설, 엔터테인먼트 및 여행 레크레이션 시설, 콜센터, 과학 연구 센터 및 과학 실험실, 예술 및 미디어 제작, 회의 및 전시회 센터, 수자원 운송 및 추출, 가스 및 석유, 항공 운송, 해상, 철도, 항만 등이다. 해당 부문의 경우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의 품목은 수입, 현지구매 모두 관세가 면제되며 판매세가 0% 적용된다.
- ICT와 그린 에너지 분야 또한 우선순위 분야로 추가되었다.

○ 이후 기존의 요르단 투자법 30호를 대체하는 2022년 투자환경법(Investment Environment Law of 2022)이 2022년 10월 16일 에 관보에 게재됐고 90일 이후인 2023년 1월 14일부터 발효되었다. 투자환경법은 지역 발전 촉진 및 고용률 증진을 위해 요르단 지역별

로 그 개발 정도와 고용인원 수를 고려하여 지원금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즉, 소유한 토지를 판매 혹은 임대하는 경우,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한 경우, 인프라 서비스를 구축에 투자한 경우, 일정 기준에 맞게 요르단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해당 법안이 발효됨으로 기존의 2014년 투자법 30호는 자동 폐지되었다. 그러나 2022년 투자환경법은 기존의 2014년 투자법에서 다른 세부사항들 중에 상당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존의 2014년 투자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따라서 기존 2014년 투자법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이미 2014년 투자법 30호로부터 혜택을 받던 투자자들은 기존의 혜택을 ①상기 법률의 명시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②해당 법안이 발효된 기간으로부터 7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3) 요르단 투자시 권리, 의무

○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 외국인 법에 따라 요르단에서 투자 회사를 완전히 소유하거나 파트너십 및 지분에 참여 가능
- 법적으로 하자 없이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계속 보장
- 경영활동에 필요한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당국에 필요사항 요청 가능
- 공공이익을 제외하고는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할 수 없으며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도 다음 조건에 의거하여 투자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
 - ① 요르단 디나르 혹은 교환성 통화로 일시불로 지불
 - ② 해당 자산의 공정한 시장 가치와 동일
 - ③ 요르단 중앙은행이 발표한 금융 금리의 이자율 포함
-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자금의 원금회수나 과실의 자유로운 해외송금이 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봉급도 송금보장
- 투자자들에게 모든 절차 상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서비스가 제공
- 투자활동 청산과 중단 가능

○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

- 투자목적으로 고정자산을 확정하고 장비를 갖추면 영업개시일 또는 생산 개시 일을 서면으로 제출
- 투자목적에 투입된 고정자산 목록의 상세한 기록과 요르단 공인회계사에 의한 정기적인 회계감사 수감
- 투자에 투입된 자산 및 인원 등에 대한 정보나 서류에 대한 요청 시 제공의무
- 비요르단인의 고용은 전문화를 요구하는 관리 및 기술 업무 분야에서 전체 직원 수의 25% 미만 (불가능할 경우 40% 미만으로 범위 확장 가능)

○ 투자자산의 권리변동

- 투자자산에 대한 면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한 경우도 후임자가 전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바, 면세기간은 잔여기간까지 적용
- 투자자는 구매가의 계속 사용을 조건으로 승인을 얻어 면세 장비의 판매나 이전 및 재수출이 가능
- 면세장비의 제세부담 후 타인에게 매각 가능
- 은행대출을 위해 면세자산의 담보가 가능하나 장부열람 요청시 응할 의무

[자료: 요르단 투자부]

투자인센티브

1) 인센티브 개요

○ 요르단의 외국인 투자자는 요르단 각 법률에서 제정한 각종 인센티브 혜택 및 누릴 수 있다. 해당 인센티브들은 투자환경법 (Investment Environment Law of 2022), 투자법 (Investment Law No. 30 of 2014), 투자 인센티브 규정 (Investment Incentives Regulation No. 33 of 2015), 판매세법 (the Sales Tax Law No. 29 of 2009), 소득세법 (Income Tax Law No. 34 of 2014), 투자위원회 결정 (Decision of the Investment Council No. 1/1/2016)에 따라서 제공된다.

○ 가장 최신 법률인 2022년도 투자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인센티브 내역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4조) 사업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여하는 투자자는 국제 금융 관행에 따라 요르단 내에서의 자금 이체가 가능하다. 투자자는 행정·기술 직종에 비요르단인을 전체 직원 수의 25%까지 고용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직종에 요르단인 고용이 어려울 경우 비요르단인 고용 허용 비율은 40%까지 상향 조정된다.

- (9조) 개발구역(Development zone) 또는 자유구역(Free zone) 밖에서도 고정 자산, 생산 투입물 및 경제 활동을 위한 예비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 (10조) ①저개발 지역에서 운영되거나 ②실제 사업 운영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지속되며 최소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을 고용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 소득세는 면제되거나 30% 이상 감면된다.

- (11조) 관세 또는 기타 세금이 면제된 상품·서비스가, 면제가 부여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투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및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13조)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관 의회는 일부 경제활동(소유한 토지의 판매 혹은 임대, 에너지 및 물 비용 보조,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인프라 서비스 구축 비용 지원, 요르단인 직원 고용)에 대해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인센티브와 면제를 채택할 수 있다. 이때 인센티브 조건(350명 이상 요르단인 고용, 50% 이상 요르단 여성직원 고용(50명 이상), 수출시장 목표 경제활동 50% 이상, 지역 부가가치 50% 이상, 지식, 기술 및 디지털 이전 목표 활동 등)을 충족해야 한다.

- (14조)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설립을 단 1회에 승인하기 위해 장관 의회(Council of Ministers) 내에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Incentives and Exemptions Committee)」를 설치한다.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는 직·간접 투자를 위한 투자 펀드나 기타 상호 펀드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를 검토하고 처리한다.

- (15조) 하나의 프로젝트에 500만 JOD 이상을 투자하거나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을 고용한 투자자는 법률·규제·조직 조항의 수정/변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즉, 투자자에게 앞의 두 조건 중 하나를 달성한 날로부터 7년 동안 법률·규제·조직 조항의 수정/변경에 비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투자자는 해당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률·규제·조직 조항의 수정/변경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양식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각료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

- (16조) 이 법에 따라 관세·세금 혜택 및 면제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향유하는 경제 활동은 법 시행일로부터 첫 7년 동안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부여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혜택, 면제, 인센티브를 유지한다.

- (17조) 투자자와 그 가족 및 최고경영진의 직원에 대한 투자자 신분증 부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신분증 소지자의 입출국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 그 외의 인센티브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개발 구역 및 자유지대 이외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 자유 지역 내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 개발 구역 내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2) 개발 구역 및 자유 지대 이외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구역 및 자유구역 밖의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부문별로 다르다.

○ 모든 분야: 정부에서 설정한 발전 필요 지구에서 10년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50%의 법인세(CIT) 감면 혜택 제공, 특정 경제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및 생산투입물에 대한 상품용역세(GST)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2022년 투자환경법에서 새롭게 제정한 내용으로, 저개발 지역에서 운영되거나 실제 사업 운영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지속되며 최소 250명 이상의 요르단인을 고용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 소득세는 면제되거나 30% 이상 감면된다. 인센티브 및 감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관 의회는 소유한 토지의 판매 또는 임대, 에너지 및 물 비용 보조,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인프라 서비스 구축, 요르단인 고용 등 일부 경제활동에 대해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인센티브와 면제를 채택할 수 있다. 이때 다음의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최소 350명의 요르단인 고용
- 전체 노동력의 50% 이상을 요르단 여성 직원으로 고용(단, 요르단 여성 50명 이상)
- 수출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활동 50% 이상
- 지역 부가가치 50% 이상
- 지식, 기술 및 디지털 변환의 이전을 목표로 하는 활동
- 전략적 경제 활동
- 공공민간파트너십(PPP) 프로젝트에 나열된 활동

- 빈곤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및 개발

○ 산업 및 수공업 분야: 특정 품목 수입, 생산 요건, 고정자산, 이중 고정자산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요르단의 저개발 지역에 위치한 산업 및 수공업 부문 투자는 투자법 제 5조에 따라 20년 동안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동 인센티브는 투자기업이 입주한 4가지 범주의 지역에 따라 법인세 감면율에 차이가 있다.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A지역: 100% 법인세 감면) Al-Aghwar Al Shamaliyyeh District, Deir Alla District, Shuna al-Janubiyya District, Al-Aghwar al-Janubiyya District, Al Rowashed District, Badiah Shamaliyah District, Badiah Gharbiyah District, Al-Azraq, Al Jizah District (excl. Jizah Municipality), Muwaqqar, Aqaba Governorate (excl. Aqaba Special Economic Zone)

- (B지역: 80% 법인세 감면) Governorates of Ma'an, Tafilah, Kerak, Ajloun

- (C지역: 60% 법인세 감면) Governorates of Jerash, Mafraq, Irbid (excl. Greater Irbid Municipality)

- (D지역: 40% 법인세 감면) Governorates of Madaba, Balqa, Amman (excl. Greater Amman Municipality), Zarqa (excl. Zarqa and Rusaifa Municipalities)

○ ICT 분야: 특정 품목에 대하여 관세 면제 혜택 제공, 특정 서비스, 특정 수입품, 현지 구매 품목에 대하여 상품용역세(GST) 면제 혜택 제공, 5%의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특정 서비스에 대해 상품용역세(GST) 영세율을 적용한다.

○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재생 가능 에너지원, 에너지 보존 시스템 등과 관련한 장비 수입에 관세 면제, 재생 가능 에너지원, 에너지 보존 시스템, 장비에 관하여 상품용역세(GST) 영세율을 적용한다.

○ 그 외 분야(농업, 의료서비스업, 호텔 및 관광업, 운송업 등): 특정 품목에 대하여 수입관세 면제 혜택 제공 특정한 경제활동을 위한 품목에 상품용역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 요르단 대출 보증 공사(JLGC; Jordan Loan Guarantee Corp.) 인센티브: 회사의 신용 조사 및 신청서 평가를 시행하여 대출 목적 및 대출 보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고객이 대출 보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정 분석을 거쳐 대출을 승인한다.

○ 요르단 소득/판매세 부처(ISTD; Income and Sales Tax Department) 인센티브: 산업 및 수공업 분야에 대하여 법인세를 14%까지 낮춰준다. 그 외 분야에서는 양도 소득에서 파생된 소득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 회사, 금융 중개 회사, 보험 및 재보험 회사 및 금융리스 활동을 하는 회사는 제외)

○ 요르단 기업 개발 공사(JEDCO; Jordan Enterprise Development Corp.) 인센티브: 두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첫 번째, GDF라는 프로그램은 보조금 대출, 자기 자본 기여, 전환 사채를 제공한다. 두 번째 JICN는 프로그램은 창업 기업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소득세: 투자기업이 입주한 3가지 범주의 지역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에 차이가 있다.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A지역: 5년 간 100% 소득세 감면) Wadi Araba Sub-District, Al-Quweira District, Al-Disah Sub-District, Al-Husayniyyah District, Al-Jafr Sub-District, Al-Mreighat Sub-District, Al-Qatraneh District, Ghor Al-Mazra'a Sub-District, Ghor Al-Safi Village, Al-Ruwaishid District, Deir Al-Kahf Sub-District, Al-Khalidiyah Sub-District, Umm Al-Jamal Sub-District, Al-Salihiya Village, Qasaba Jerash Sub-District, Deir Ala District, Southern Shuna District, Busira District

- (B지역: 5년 간 75% 소득세 감면) Al-Hasa District, Northern Badia District Umm Al-Qattin Sub-District, Petra District Athroh Sub-District, Al-Jiza District, Al-Muwaqqar District

- (C지역: 5년 간 50% 소득세 감면) Qasaba al-Tafilah, Sabha Sub-District, Balama Sub-District, Housha Sub-District, Ain al-Basha District, Northern Shuna Village, Al-Mujib Sub-District, Umm al-Rasas Sub-District, Rajm al-Shami District

3) 자유지역 내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요르단은 6개의 공공 자유지대와 38개의 민영 자유지대를 가지고 있다. 자유지대에서 누릴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다.

○ 소득세: 자유 지역 내에서 상품의 수출, 운송 무역,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자유

지역 내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비요르단 직원의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VAT): 자유지대 내에서 판매되는 서비스 및 소비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일반판매세를 면제한다.

- 관세: 자유지역에서 요르단 외부 시장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모든 관세, 세금 및 관련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자재, 장비, 기계, 공급품, 예비 부품 등 자유 지역 내 기업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된다. 단, 요르단 정부가 적용하는 국제 무역 보호 조치와 관련된 서비스 요금 및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 토지세: 자유지대에 설립된 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토지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 건물세: 자유지대에 설립된 건물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4) 개발 구역 내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요르단은 각 지역의 경쟁 우위를 활용하여 다수의 개발 구역을 설립하였다. 개발 구역 내에서도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다.

- 소득세: 소득세는 등록된 기업의 경제 활동에 따른 현지 부가가치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의 5%로 감면된다. 개발 지역에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는 아래의 소득세가 적용된다.

- 지역 내 부가가치가 30% 이상인 가공 산업을 운영하는 기관: 5%

- 기타 기관: 10%

- 일반판매세: 요르단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개발지역 내에서 제조된 상품이 요르단 현지 시장에서 소비하기 위해 판매되는 경우, 혹은 요르단 외부로의 서비스 수출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에서 관세, 수수료 및 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개발구역 내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역 및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 7%의 일반판매세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기업이 개발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수입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판매세가 면제된다

- 관세: 개발구역에 등록된 기업은 수출관세 및 용역비를 제외한 모든 관세가 면제된다. 개발구역 내 소비를 위해 판매되는 경우 특별세가 부과되는 상품의 판매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 수송차량: 운전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을 수송하기 위해 준비된 차량으로서 자유지역에서 기업에 판매되고 근로자를 자유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판매세가 면제된다.

[자료: 요르단 투자부, Jordan Investor's Guide 등]

제한 및 금지(업종)

- 요르단의 투자 제한 및 금지는 업종별로 규제되는데, 크게 4가지(100% 지분 가능, 50% 지분 가능, 49% 지분 가능, 투자 금지 분야)로 구분된다.

① 외국인 투자 100% 지분 소유 가능 업종

IT, 리스, 은행 및 보험, 병원, 호텔, 테마파크, 통신, 환경, 케이터링, 선박 소유, 비행기 보수유지, 철도 서비스 등

② 외국인 투자 최대 50% 지분 소유 가능 업종

건설, 도소매, 운송(해상, 항공, 기차), 폐기물 처리, 수출입 서비스, 환전(은행 및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 제외), 음식점(호텔과 숙박 시설에서 제공되는 음식점 제외), 광고, 사진 서비스 및 여행사, 해상 운송 및 보조 서비스, 항공 운송 보조 서비스, 도로 운송 서비스 및 통관 서비스와 같은 특정 운송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 중개 서비스(은행 및 금융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경우 제외) 등

③ 외국인 투자 최대 49% 지분 소유 가능 업종

화물 및 우편 항공 운송 서비스, 여객 및 화물 도로운송 서비스, 도로 운송 서비스를 위한 유지보수 및 수리 서비스, 라디오 및 TV 방송 송신기의 유지보수 및 수리, 건설을 위한 토지 구매, 주거용 아파트의 판매 및 주거지원서비스, 스포츠 클럽 운동 경기를 위한 조직 등

④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

석재, 채석장, 건설용 모래, 석조 블록, 탐정 조 및 보안 장치, 보호, 사설 보안 및 보안 교육 서비스, 통관서비스(검사 서비스, 화물 운송 기관 및 화물 중개업 제외), 무기 수입, 판매 및 유지 관리, 모든 유형의 빵집, 사설 사격장 활동 및 거래를 위한 회사 불꽃놀이 수입업 등

[자료: Wanainstitute.org 등]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아카바 경제특구

○ 아카바는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 도시로 홍해와 연결되어 있다. 홍해는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였으나 요르단-사우디 간의 상호 토지 교환 협정의 일환으로 아카바 지역은 1965년 요르단으로 양도되었다.

○ 2001년에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증대와 민간부문 활성화를 목적으로 아카바 경제특구(ASEZ, Aqaba Special Economic Zone)가 설립되었다. 동 특구는 산업·산호·해변·항구·공항·타운시설·위락지구 등 총 6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요르단에서 진행되는 수출입 대다수가 아카바 항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카바는 요르단 상업과 관련하여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아카바 경제특구청의 중앙 개발 기관인 아카바 개발공사(ADC)는 아카바 국제학교, 주거공간, 아카바 경기장 건설을 포함하는 Enabler 프로젝트, 공공 민간 파트너십 등을 진행했다.

○ 아카바 경제특구청은 최근 민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6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집트 정부와 NEOM 프로젝트를 2030년까지 완료하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했다. 네옴 프로젝트는 사우디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이긴 하나 홍해 근방을 중심으로 요르단의 아카바 경제특구도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다.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을 활용해 급속한 도시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아카바 경제특구에 스마트시티 건립도 포함되어 있다. 이어 2021년 12월에 아카바 개발 공사(Aqaba Development Corporation; ADC)는 아부다비 항만그룹(Abu Dhabi Ports Group)과 아카바 지역 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에 서명했다. 동 계약에는 크루즈 터미널과 첨단 디지털 항구 커뮤니티 시스템인 Marsa Zayed의 설립,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PCS)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 2021년 10월에는 아카바 경제특구청이 Sayegh사와 아카바 내에 민간 소유의 종합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약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2022년 7월에는 아카바 개발공사(ADC)와 Orbit Aluminium Industries사 간에 아카바 경제특구에 알루미늄 압연 공장을 설립하는 1억7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알루미늄 압연 공장이 설립되면 아카바 지역 최초의 알루미늄 압연 공장이 된다.

○ 2023년 9월 아카바 개발공사는 아랍에미리트의 Abu Dhabi Ports Group과 킹 후세인 국제공항의 개발 및 확장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아카바 국제 전시센터 건설과 Al-Quwaira 개발구역으로의 천연가스 공급, Al-Dura 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 국경 교차점 개발 입찰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 아카바 경제특구가 처한 도전 과제 중 하나는 화물이 아카바 항구를 벗어나게 되면 북쪽의 암만 수도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카바 내의 물류 관련 시설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마안의 내륙항 건설을 통해 아카바와 암만 간의 철도 운송 능력 증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

○ 아카바 경제특구 관련 연락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홈페이지: <http://www.aseza.jo/>

- 주소: Aqaba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Aqaba, Prince Al Hussein Bin Abdullah II Street and Queen Rania Al Abdullah Street, Jordan

- 우편번호: Aquaba 2565, Jordan

- 이메일: aldiwan@aseza.jo

- 전화번호: +962-3209-1000

○ 또한, 아카바 경제특구청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등록 절차를 간략화했으며 아래와 같이 특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을 마련했다.

- 차량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사회 복지 세금(Social Service Tax) 면제

- 건물 및 토지세 면제

- 지분 및 한도 분배세 면제

- 소득세율 5%로 인하 적용(은행, 보험, 운송 서비스 제외)

- 관광, 제조업, 농업 분야에서 100% 외국인 소유 인정

- 자본의 해외 반출에 대한 제한 없음

- 지역 판매세 면제(호텔 및 관광차량 서비스, 액세서리, 화장품, 타이어와 관련된 부품 등 제외)

2) 자유무역지대

○ 요르단은 6개의 공영 자유무역지대와 38개의 민영 자유무역지대가 있다. JIC는 해당 투자자 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에 관여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에서는 관세, 법인세, 판매세 등 각종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공영 자유무역지대(6개)

Zarqa Free Zone, Sahab Free Zone, The Queen Alia Int'l Airport Free Zone, Al-Karak Free Zone, Al-Muwaqar Free Zone, Al Karama Free Zone에 해당한다.

○ 민영 자유무역지대(38개)

Indo-Jordan Chemicals Company Ltd., Trans-Jordan Livestock Company, Hijazi and Ghosheh Company for meat and livestock, Jordan Bromine Company, Jordan Magnesia Company, Arab Fertilizers & Chemicals Industries LTD (KEMAPCO), Nippon Jordan Fertilizer Co NJFC, Solvochem Holland B.V. Co, Middle East Regional Development Enterprises (MEREN), Jordan Abyad Fertilizers and Chemicals Co. (JAFCCO), Jordan India Fertilizer Co (JIFCO), Jordanian Duty Free Shops Co, Jordan Media City (Dallah Media Production Company), International Diamond Investment Co, King Abdullah II Design and Development Bureau (KADDB), Al-Baha Company For Caustic Chlorine Ind, Bayt Al Mal for Saving and Investment Housing Bank, Jordan International Investment Company (JIIC), Hikma Pharmaceuticals Co.,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Jordan Saudi Company for Satellite (JASCO), Trans Middle East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 Ltd, Jordan Aircraft Manufacturing and Development Company, Jordan Aeronautical-systems Company (JAC), Jordan Aircraft Maintenance Limited (JorAMCo), Jordan Airmotive (JALCo), Jordan Airline Training & Simulation Company(JATS), Jordan Airline Catering Company (Dnata), Jordan Duty Free Shops, Jordan Air Cargo Company, Aviation Handling Services Company Ltd,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dustrial Cities Development Company (Cyber City), Jordan Gateway Projects Co., Ad-Dulayl Industrial Park and Real Estate Company (IDMC), Royal Jordanian Air Academy (RJAA), Rhodes Precast Concrete Letd, Airport Retail Shops Co, Al Mehaniya Aircraft Maintenance에 해당한다.

3) 최근 투자 동향(우리 기업 진출 유망 투자 프로젝트)

○ 현재 요르단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기간제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진출

이 기대된다.

○ 첫 번째는 LNG 재기화 프로젝트이다. 정식 영문 프로젝트명은 'ADC-LNG Regasfication'이며 현재 FSRU(Floating Storage Regasfication Unit) 방식의 재기화 터미널 시설을 FSU(Floating Storage Unit, 해양 저장 탱크) + 육상 재기화(Onshore Regasfication)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주요 프로젝트 방향이다. 현재 프로젝트 개발 과정 착수를 위해 요르단 전력청(NEPCO)과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MEMR)와의 조정을 통해 예산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 FSRU(Floating Storage Regasfication Unit) 방식은 LNG 수송선 → 해상 잔교에 고정된 FSRU를 통한 재기화 실시- 잔교와 연결된 배관을 통해 재기화된 가스 공급)FSU(Floating Storage Unit)방식은 LNG 수송선 → 해상 잔교에 고정된 FSU → 육상 재기화 시설을 통한 재기화 → 육상 배관으로 재기화된 가스 공급

○ 두 번째는 아카바-암만 담수화 및 송수관 건설 프로젝트이다. 총 20억달러 규모의 동 프로젝트는 총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사업에서는 담수화 플랜트 및 송수관을 건설하고, 2단계 사업에서는 담수화 플랜트 설비를 확장함으로써 총 담수화용량을 연간 220 mcm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2년 상반기에 발주처인 요르단 수관개부에서 RFP를 발주할 예정이다.

○ 세 번째는 2023년 3월 발표된 요르단-이라크 국경 지대에 공동 경제-산업 단지(Economic City) 건설 프로젝트이다. 요르단-이라크 국경 지역에 총 면적 약 22km²의 공동 경제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서, 관련 개발, 자금조달, 관리, 투자, 홍보,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포함한 계획, 연구,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부문이 계획에 포함되었다. 총 사업규모는 최소 7,500만 달러이며, 2023년 상반기 내 디벨로퍼 초청 입찰공고 일정이 추진된다.

○ 네 번째는 아카바 천연가스 연결망 구축이다. 아카바의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을 활용해 아카바의 산업, 시설, 및 주거 지역에 LNG 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총 두 단계로 구현된다. 1단계는 임시 시스템인 압축천연가스(CNG) 구축, 2단계는 영구적 시스템인 천연가스(NG) 파이프라인과 네트워크 구축인데 2024년 상반기 기준 아카바 개발공사(ADC)는 현재 설계 및 입찰 문서 준비를 위한 입찰 요청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 요르단 투자부, MeedProject, 각종 언론보도 종합]"

산업단지

○ Ad-Dulayl Industrial Park (QIZ)

규모	82.7ha
위치	Ad-Dulayl Industrial Park (QIZ), Zarqa, Jordan
임차료	입지 조건에 따라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전화: (+962) 6 464 5416 이메일: info@dleil.com 홈페이지: www.dleil.com
비고	전반적인 사항은 Jordan Industrial Estates Company(JIEC)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 Abudllah II bin Al-Hussein Industrial Estate (AIE)

규모	253ha
위치	Abdullah II Ibn Al-Hussein Industrial Estate, Sahab, Jordan
임차료	입지 조건에 따라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전화: (+962) 6 4022101 이메일: sales@jiec.com 홈페이지: http://www.jiec.com/en/industrial_estates/2/
비고	전반적인 사항은 Jordan Industrial Estates Company(JIEC) 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 Aqaba International Industrial Estate (AIIE)

규모	170ha
위치	Aqaba Special Economic Zone (ASEZ), Jordan
임차료	입지 조건에 따라 상이 (토지의 경우 m당 연간 5.5달러에서 7.0달러, 건물 입주시 m당 연간 40달러에서 50달러 수준)
관할기관 및 연락처	전화 : (+962) 3 205 8000 이메일 : info@pbiaqaba-jo.com 홈페이지 : https://pbiaqaba-jo.com
비고	전반적인 사항은 PBI Aqaba Industrial Estate LLP 업체가 관리한다.

◦ Al-Hassan Industrial Estate (HIE)

규모	117.8ha
위치	Al-Hassan Industrial Estate, Ar-Ramtha, Irbid, Jordan
임차료	입지 조건에 따라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전화 : (+962) 2 7395152 이메일 : sales@jiec.com 홈페이지 : http://www.jiec.com/en/industrial_estates/4/
비고	전반적인 사항은 Jordan Industrial Estates Company(JIEC) 업체가 관리한다.

◦ Al-Hussein Bin Abdullah II Industrial Estate (HUIE)

규모	186.6ha
위치	Al-Hussein Bin Abdullah II Industrial Estate (HUIE), K.Hussein Street, Karak, Jordan
임차료	입지 조건에 따라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전화 : (+962) 3 235 6011 이메일 : sales@jiec.com 홈페이지 : https://www.jiec.com/en/industrial_estates/5/
비고	전반적인 사항은 Jordan Industrial Estates Company(JIEC) 업체가 관리한다.

<자료원 : 2024년 5월 기준 입수가 가능한 JIEC 자료 >

주요 지역별 여건

○ 아카바(Aqaba)

- 면적: 6,904.7km²
 - 인구: 18.8만 명
 - 주도: 아카바(Aqaba)
 - 주요 기관: 아카바 경제특구청(ASEZA), 아카바 개발공사(ADC)
 - 주요 산업: 관광(호텔, 골프장, 레저시설), 서비스(해운, 화물운송, 창고업 등) 제조업(섬유, 의류, 비료, 농화학품, 전기·전자조립공장, 의약품, 사해 화장품 공장 등), 부동산 개발(산업단지, 복합주택단지, 테마파크 등)
- 비고: 아카바는 요르단에 있는 유일한 항구 도시이다. 아카바 항구와 공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입이 아카바에서 이루어지며, 해상 및 육상 물류기지로서의 중요성이 높다.

○ 자르카(Zarqa)

- 면적: 4,761km²
 - 인구: 136만 명
 - 주도: 자르카(Zarqa)
 - 주요 산업: 엔진 오일 등 차량 용품 제조, 자동차 부품, 식품 가공
- 비고: 암만에서 북동쪽으로 20km 떨어진 도시로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아랍 국가에 대한 수출이 활발하며, 특히 대이라크 중고차량 수출 기지로 알려져 있다. 요르단 석유 정제소, 알 후세인 화력발전소와 가깝다.

○ 암만(Amman)

- 면적: 7,579km²
 - 인구: 400.7만 명
 - 주도: 암만(Amman)
 - 주요 기관: 요르단 정부, 의회 등
 - 주요 산업: ICT, 문화, 유통, 서비스 등
- 비고: 요르단의 수도로 비즈니스상업문화의 중심지이며 요르단 인구의 40% 이상이 암만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산업단지가 암만 주 내에 위치해 있다. 요르단 국가 차원 투자의 90%를 차지하며 국가 차원의 경제 및 상업기관 중 48%가 암만에 위치한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개요 및 동향

1) 요르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과 전망

[2000~2008년, FDI 호황기]

2000년대 중반 요르단은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해 FDI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요르단 인산염 광산 회사(JPMC)와 요르단 텔레콤(JT)의 지분 매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6년 FDI 유입액은 35억 4,4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약 20억 달러의 안정적인 투자 유입을 기록했다.

[2009~2021년, FDI 하락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FDI 유입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인한 지역 정세 불안은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을 높였고, 2014~2016년 유가 하락은 주요 투자국인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의 투자 여력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FDI 유입액은 2017년 20억 달러에서 2018년 9억 5,500만 달러, 2019년 7억 3,0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는 더욱 줄어 6억 2,20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2022~2024년, FDI 회복세와 향후 전망]

2022년 들어 요르단의 FDI 유치 실적은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며 점차 개선되고 있다. UNCTAD의 2023년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요르단의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82.9% 증가한 12억 5,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요르단 경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FDI 유입이 8억 4,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6%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스라엘 중동 분쟁 등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2024년 상반기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5억 8,100만 달러의 FDI를 유치하여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를 기록했으며, 2024년 총 FDI 유치액은 9억 4,500만 달러가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이어져 요르단의 FDI 최대 유치액인 11억 6,3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FDI 유입 증가세의 배경에는 요르단의 주요 투자국인 걸프 국가들의 경제 회복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요르단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요르단 정부는 경제 자유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르단 투자부 설치, 2018년 기업 부채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파산법 개정,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등이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정책은 시리아와 이라크 등 인근국 기업들의 요르단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외국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요르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대부분의 경제 부문이 100% 외국인 투자에 개방되어 있고, 요르단의 경제특구에는 판매세 및 수출세 면제 혜택이 있다.

2023년 발효된 2022년 투자환경법 제21호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국내 투자자와의 동등한 대우를 명문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매력도를 한층 높였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요르단 정부는 '경제 현대화 비전'과 연계한 '투자증진 전략 2023-2026'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Team Jordan'의 구성, 인적 자원 개선, 투자 친화적 정책 개발, 투자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약 25억 3,8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17~2021년 기간 총 요르단 내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량보다 49% 증가한 수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투자 분야로 정보기술(IT), 관광 및 의료관광, 제약 및 생명과학, 의료 서비스, 의류 및 섬유, 농업, 물류 서비스, 화학 물질 및 비료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핵심 투자 파트너로 GCC국가, 미국, 영국, 중국 등을 지정하여 요르단 내 기존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전략적 위치를 활용한 투자유치]

요르단의 전략적 위치는 걸프 아랍 시장 진출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요르단은 중동 내 주요 내륙 시장으로 접근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북쪽으로 시리아, 동쪽으로 이라크,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러한 위치적 이점 덕분에 요르단은 걸프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시장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요르단은 개발구역과 자유구역이라는 두 가지 특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발구역은 경제 다각화와 지역 개발, 민간 부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도시에 위치하며, 특정 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여 제조업, IT, 관광, 건설 등의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북부 이르비드의 알 하산 산업단지와 마프락의 알 마프락 산업단지는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인 소유권 완전 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건물 임차료와 토지 판매 가격 할인 등의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자유구역은 무역과 수출 촉진을 위해 조성된 구역으로, 경제활동이 요르단 외부에 있는 것처럼 취급된다. 이를 통해 법인세 면제와 세금 혜택이 제공되며, 외국인 투자 100%가 허용되고 완전한 외국인 소유도 가능하다. 대표적 자유구역인 아카바 특별 경제구역(AQABA SEZ)과 자르카 자유구역은 항구와 국경 근처에 위치해 수출과 물류 중심의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아카바 경제특구는 세금 및 면세 혜택과 함께 관광, 물류, 경공업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요르단의 국제 무역 협정과 투자유치 기회]

요르단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EU, 및 주변 아랍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국제 시장에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 거점으로서의 매력을 증대해왔다. 이러한 FTA는 요르단의 무역 및 경제적 위치를 강화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르단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요르단은 수출 및 투자 거점으로서 더욱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 잡아 외국 기업의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2000년 11월, 요르단은 세계무역기구(WTO)의 136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다. 이후 요르단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협정들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요르단이 체결한 주요 자유무역협정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터키, 아랍 자유무역지대(GAFTA)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요르단의 제품이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요르단은 자국에서 생산된 의류 제품을 면세로 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미국 수출은 요르단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했다. 미국으로의 의류 및 약세사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8.3억불로 전체 미국 수출의 53.4% 차지했다.

요르단은 중동 내에서 제약산업이 발달한 국가 중 하나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중동과 북아프리카(MENA) 지역 등으로 의약품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FTA는 이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에는 24개의 국내 생산시설을 통해 해외 80여 개국에 약 7억 달러 규모의 의약품 수출했으며, 2024년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하여 약 4.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요르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요르단 수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요르단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요르단 경제의 다각화와 현대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3) 투자유치 분야

통신 부문에서는 FDI를 통해 새로운 인프라 구축, 서비스 개선, 소비자 비용 절감, 그리고 많은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투자는 통신 인프라의 현대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했으며, 소비자 혜택과 더불어 경제적 성과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ICT 부문에서도 요르단은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2021년에는 요르단 디지털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부 입찰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투자 증진 전략 2023-2026'과 '경제 현대화 비전' 등 국가 정책의 투자 우선순위에 ICT가 포함되었다. 특히, ICT 부문을 국가적 주요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관세와 수출 소득세 0%와 같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7년에 전기 및 수도 공급과 배급이 민영화되면서 BOT 방식으로 추진된 암만 상수도 프로젝트에 터키를 비롯한 해외 투자가 유치되었다. 이후 이집트에서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으나, 2015년 아카바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이 개장하여 천연가스 공급이 보장되었고, 이를 통해 요르단의 사업체들은 석유 대신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랍 칼륨 회사(APC)는 2014년에 체결된 15년 계약에 따라 2017년부터 이스라엘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 있으며, 2016년에는 미국 노블 에너지와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초부터 이스라엘로부터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요르단의 재생 에너지, 세일오일, 원자력과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23년부터는 UAE의 미래에너지 회사(Masdar)와 핀란드의 자산관리 그룹 탈레리(Taaleri)가 합작 투자한 베이누나(Baynouna)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를 통해 매년 560기가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재생 에너지 투자는 요르단의 에너지 다각화와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광물 및 시멘트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요르단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미국-요르단 FTA를 통해 대미 의류 수출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는 요르단 의류 생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였다. 그러나 의류 생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일자리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면서 고용 창출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도 있었다.

[자료: EIU, IMF, UNCTAD, 요르단 투자청 등]

나.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요르단은 걸프 아랍 국가,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주요 투자국으로는 미국,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프랑스, 중국, 한국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는 요르단의 은행, 통신, 부동산,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1) 미국

- 미국의 아마존은 요르단에서 2,000명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3,000명으로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 및 고객 지원 운영을 확장하여 중동과 유럽 시장을 지원함으로써 요르단을 중동 지역 허브로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및 IT 분야에서도 아마존은 요르단에서 기술 및 고객 지원 확장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KBW(Keefe, Bruyette & Woods)사는 디지털 전환,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로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 유럽

- 프랑스는 요르단 텔레콤, 요르단 시멘트 공장 회사, 퀸 알리아 국제공항 등 민영화된 주요 기업들에 투자하며,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했다. 2023년 기준 프랑스의 투자 규모는 약 20억 달러에 달한다.
- 덴마크는 A.P. 몰러는 요르단의 아카바 컨테이너 터미널(ACT)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와 항만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걸프 아랍 국가

- 쿠웨이트는 요르단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은행, 통신, 소매,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증권예탁센터(SDC)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쿠웨이트는 암만 증권 거래소(ASE)에서 약 14억 달러의 투자액으로 비요르단 투자자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요르단 은행에 대한 투자에서 10%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르단 쿠웨이트 은행(51%), 주택 은행(18.6%), 아랍 은행(18.6%)에 집중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쿠웨이트의 민영화 지주회사(Kuwait's Privatization Holding Company)는 요르단의 에너지, 호텔 및 제조업 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KEC(Kingdom Electricity Company)의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아랍에미리트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요르단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컴퍼니는 요르단 풍력프로젝트 회사(JWPC) 지분 31%를 소유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약 2억 4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2024년 9월 아부다비 개발 지주회사(Abu Dhabi Developmental Holding Company, ADQ)는 55억 달러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4년 9월, 아부다비 개발 지주회사와 23억 달러 규모의 철도 투자 프로젝트가 체결되어 아카바 항, 알시디아(Al-Sheidiya), 고르에스사피(Ghor es-Safi)에 위치한 인산염 및 탄산칼륨 광산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르단은 연간 1600만 톤의 인산염과 탄산칼륨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카타르는 요르단과 기존의 20억 달러 공동 투자 기금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으며, 금융, 부동산,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카타르의 대 요르단 투자 규모가 45억 달러에 도달했다.
- 사우디 아라비아는 KBW 투자회사를 2013년에 설립되어, LED 가로등 조명, 모빌리티, 정부 문서 보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에너지, 헬스케어로의 확장을 계획 중이다. 사우디 요르단 투자 펀드(Saudi Jordanian Investment Fund, SJIF)는 30억 달러 규모의 기금으로 요르단의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4억 달러 규모의 헬스케어 시설 및 오픈수크(OpenSooq)에 지분 투자가 포함되어 있다.

4) 아시아 국가

- 중국은 요르단의 주요 투자자로서, 국가 철도망, 1,000MW 규모의 재생 에너지 발전소, 아카바의 산업 및 물류 단지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에는 아랍 칼륨 회사 지분의 28%를 매입하면서 중국의 투자가 확대되었고, 소금 도로(Salt Road) 건설에도 자금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보호 장비 및 시노팜 코로나19 백신을 기부하는 등 투자 및 무역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했으며, 2023년에는 카락(Karak) 주에 1억 달러 규모의 세라믹 공장을 설립했다. 진청 글로벌 세라믹스는 요르단 카트라네(Qatraneh) 지역에 1억 달러를 투자하여 고품질 세라믹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공장은 현지인 3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향후 800명까지 고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한국은 한국전력공사(KEPCO)가 요르단 에너지 부문에서 주요 투자자로, 약 12억 달러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또한 녹색 수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약 30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예상된다.

[자료: EIU, IMF, UNCTAD, 마물라카, 요르단 투자부, 아라비부스트]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730	760	622	1251	843

<자료원 : UNCTAD Stat>

다.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국 직접투자 현황

요르단 투자자의 주요 투자처는 UAE,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EU 등으로 부동산, 건설, 관광, 금융, 기술, 의료, 제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진행되었다. 아래는 최근 진행된 요르단 기업의 해외투자 주요 사례이다.

- 히크마 제약(Hikma Pharmaceuticals): 요르단 제1의 제약기업인 히크마 제약은 2019년에 미국에 본사를 둔 제네릭 기업 록산네 래버러토리스(Roxane Laboratories)를 인수하여 미국 내 입지를 확대했다. 또한 2020년에는 포르투갈의 제조 시설을 인수하여 유럽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 아랍 은행(Arab Bank): 요르단 최대 금융 기관 중 하나인 아랍 은행은 다양한 국가에 투자를 진행해 왔는데, 2019년에는 UAE에 소재한 바클레이즈(Barclays) 은행의 현지 은행 사업을 인수하여 UAE 금융시장에서의 고객군을 확대했다.

- 카와르 그룹(Kawar Group): 다각화된 요르단 대기업인 카와르 그룹은 물류 및 운송과 같은 분야에 해외 투자를 진행해 왔다. 2018년에는 오만의 선도적인 물류 공급업체 중 하나인 Oman International Transport Company(OITC)의 지분을 인수하여 대주주 자리에 올랐고, 걸프 지역에서의 물류 사업을 확장했다.

- 필라델피아 제약(Philadelphia Pharmaceuticals): 요르단 제약 회사인 필라델피아 사는 2019년에 알제리에 있는 제조 시설에 투자하여, 알제리에서 성장 중인 제약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사의 제조 역량을 강화했다.

- 알 라이 그룹(Al Rai Group):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알 라이 그룹은 사업 다각화 및 UAE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위해 2018년에 두바이에 본사를 둔 수처리 회사인 워터 엔지니어링 서비스(WES)의 지분을 인수했다.

- 요르단 중앙은행그룹(Capital Bank of Jordan Group): 요르단과 이라크를 대상으로 소매 및 기업 금융 전반에 걸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중앙은행그룹은 2021년 아우디 은행(Bank Audi)의 요르단 및 이라크 산업 전체를 인수했으며, 2022년에는

SGBJ(Société Générale de Banque -Jordanie)의 합병이 이루어져 요르단 전국 지점과 은행 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가 중앙은행 그룹으로 이전되었다.

[자료: 각 기업별 웹사이트, 언론 보도자료 종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9	2020	2021	2022	2023
43	26	16	-16	64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현황

○ 2024년 5월 기준, 요르단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10개사이며 LG전자, 삼성전자, 코오롱 글로벌, 제일기획 등 민간기업과 남부발전 요르단법인 및 대한풍력, 한국전력 알카트라나, 한국전력 암만아시아, 한국전력 푸제이즈, 한국전력 KPS 등 전력 관련 기업 6개사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전력 발전사들이 운영 중인 현지 발전소 전력생산 총량은 요르단 전력생산 총량의 약 20% 이다.

○ 2019년부터 최근 4년간 한국의 대요르단 투자규모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2019년 7,195만 달러를 기록한 한국의 대요르단 투자금액은 하락을 거듭하여 2021년에는 34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신규 투자가 없었다. 2023년 건설부문에서 신고 1건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 참고로 최근 투자는 모두 전력공급업 관련 투자였는데, 최근 요르단은 전력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여 추가적인 발전시설 건립 계획은 당분간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향후 3~4년간 국내 기업의 대요르단 투자 규모도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 한국전력은 2024년 5월 현재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푸제이즈 풍력발전소 지분 및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알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소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 현지 공관 및 언론보도 종합]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21	2	0	3,400	2	3,400
2023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

요르단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업종은 크게 1) 전력 공급업 및 2) 가전제품 판매업으로 나뉜다.

1) 전력 공급업

○ 2011년 한국전력은 요르단 카락주의 알카트라나(암만 남쪽 100km) 지역에 373MW 용량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IPP2)를 준공했

다. 25년간 BOO 방식으로 운영되는 동 발전소는 요르단 정부의 두 번째 민자발전 사업으로 발주처인 요르단 전력공사에서 100% 전력 판매를 보장하고 연료를 전액 공급하는 조건으로 운영된다. 이어 2014년에 한국전력은 요르단 나우르(암만 동쪽 40km) 지역에 573MW 용량의 디젤발전소를 준공했다. 이는 요르단 세 번째 민자사업으로 요르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저비용 가스원료를 활용하는 Dual Fuel(가스-중유) 운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했다.

○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도 진행됐다. 2019년 한국전력은 요르단 푸제이즈(암만 남쪽 250km) 지역에 총 89MW 용량의 풍력발전 시설을 건립했다. 이는 중동에서 한국전력의 첫 번째 풍력사업 진출 사례로 2039년까지 20년간 BOO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어 2021년에 남부발전은 요르단 남부 타필라(암만 남쪽 200km) 지역에 52MW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준공했고, 현지 대한풍력 법인을 통해 동 시설을 관리 중이다. 동 발전소는 약 4만 가구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 연간 112,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지한다. 남부발전은 칠레 태양광발전사업 수주에 이어 요르단 풍력발전소를 완공하는 등 해외 전력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가전제품 판매업

○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레반트 지역 판매법인은 요르단뿐 아니라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 인근 지역에 대한 판매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이라크 지역은 이들 기업들의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 판매시장이나 현지 안전문제로 이라크에는 지점만을 설치하고 요르단 법인이 현지 판매 활동을 관할한다.

○ 2020년 LG전자는 기아자동차의 요르단 쇼룸에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기아차, 캐나다 IT 서비스기업 AVXAV사, 기아차의 현지 딜러인 내셔널 아랍 모터스사 등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면서 자동차 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했다. 이어서 2024년 LG전자는 요르단강기금(JRF)과 아동 안전 및 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2년에 수도 암만의 중심지인 압둔(Abdoun) 지역에 쇼룸을 오픈하고 신제품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같은 해 요르단 왕립 아카데미와 협력하여 6주 동안 AI, IoT, 코딩 기술을 중심으로 '삼성 혁신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료: 한국전력, 현지 언론 보도자료 종합]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0	3,400	2	3,400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2023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건설업	1	0	0	0	0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대한풍력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생산
모기업명	한국남부발전, DL에너지

○ 한전 푸제이즈(Fujeij Wind Power Company)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전력생산
모기업명	한국전력공사

○ LG전자 레반트

진출연도	199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유통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LG전자

○ 삼성전자 레반

진출연도	199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유통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

○ 코오롱글로벌

진출연도	200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건설·공사업
취급분야	오수정화·쓰레기처리시설
모기업명	코오롱

○ KOSPO Jordan (남부발전 통합운영본부)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요르단 알카트라나 발전소 운영 및 정비
모기업명	한국남부발전

○ Amman Asia Electric Power Company (암만아시아)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력 생산
모기업명	한국전력공사

○ 한전KPS 알 마나키르 (KEPCO-KPS Al-manakher Office)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전력 생산
모기업명	한국전력공사

○ Qatrana Electric Power Company (QEPC)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력 생산
모기업명	한국전력공사

○ 제일기획 요르단 레반트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법인
업종	광고업
취급분야	광고
모기업명	제일기획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1) 법률 근거

○ 요르단 내 회사 설립 및 등록은 지난 1997년에 공포된 회사법(Company Law No. 22)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회사는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요르단 법인 실체로 간주된다. 또한, 2014년 발효된 투자법(the Investment Law No. 30 in 2014)에 의해 요르단 투자 위원회(Jordan Investment Commission)에서 모든 절차를 맡고 있다.

○ 회사 설립 시 회사명이 불순하거나 다른 회사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설립이 거부된다. 외국인이 소유주라는 점 이외에는 대부분의 설립 절차나 조건 등이 요르단 현지 기업과 동일하다. 법인은 요르단 회사법에 따라 다음 6개 형태 중 하나의 형태로 인가된다. 형태는 일반적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유한적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 합자 회사(Limited Partnership in Shares), 민간 출자 회사(Private Shareholding Company), 공공 출자 회사(Public Shareholding Company)이다.

○ 1997년 공포된 회사법(Company Law No.22)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웹사이트 : <https://www.sdc.com.jo/english/images/stories/pdf/thecompanieslaw-eng.pdf>).

2) 법인 형태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2인 또는 그 이상의 인원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사 이름은 설립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회사의 책임은 모든 주주의 책임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 참여자는 출자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회사 출자의 최소 자본금은 5만 요르단 디나르(약 7만 달러) 이상이며, 각각 1디나르 이상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분할 불가능한 주식으로 나누어야 한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설립된 첫 4개월동안 1회의 연례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연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경영자 또는 경영위원회 보고서 요약을 지역 신문에 게재할 의무가 면제된다.

○ 주식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in Shares)

최소 5명의 파트너, 최소 2명의 회사의 채무와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무한책임사원 및 3명의 지분에 따라 책임을 가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개인 자금을 통해 회사의 부채를 공동으로 책임진다. 모든 유한 파트너는 각 자본 지분에 따라 회사 부채에 대해 책임이 있다. 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동일한 가치의 유통 주식(Negotiable shares)으로 분할된 100,000 요르단 디나르(약 140,000달러)이며, 각각 1디나르 이상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분할 불가능한 주식으로 나누어야 한다. 유한책임 사원이 매년 선출하는 최소 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감독위원회가 구성된다.

○ 민간 출자 회사(Private Shareholding Company)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되나 감사관의 정당한 권고 하에서 회사 설립자 수에 제한은 없다(1명도 회사 설립 가능). 민간 출자 회사의 존속 기간은 정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이다. 회사 설립 자본금은 최소 5만 요르단 디나르(약 7만 달러)이며 설립회사는 요르단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선택사항). 회사 목적과 충돌하지 않는 한 회사 이름은 설립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회사 참여자는 출자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 공공 출자 회사(Public Shareholding Company)

최소 2명 이상이 회사 설립에 참여해야 한다. 감사관의 정당한 권고 하에서 1인이 설립할 수 있으나 이름에서 'Limited' 문구를 밝혀야 한다.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거나 금융 회사인 경우 참여자는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특정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 출자 회사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종료된다.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은 최소 50만 요르단 디나르(약 70만 달러)이며 납입자본(Subscribed capital)은 최소 10만 요르단 디나르(약 14만 달러) 혹은 승인된 금액의 20%이어야 한다. 설립 회사를 요르단 주식시장에 상장해야 한다(의무사항). 회사 이름은 설립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고 회사 참여자는 출자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 형태이다.

◦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요르단에 법인 설립 시 현지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이 법인 형태로 요르단에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선호하는 기업형태는 Private Shareholding Company 이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최소 자본금이 5만 요르단 디나르(약 7만 달러)에 불과하고 1인이 100% 주식을 모두 보유할 수도 있고(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혼자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음) 필요 시 많은 주주를 참여시킬 수도 있다. 주주들은 본인 출자 지분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원한다면 요르단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 형태(1인으로 등록)는 외국인에게 100% 개방된 분야(IT, 호텔, 병원, 컨벤션 센터 등)에서만 가능하다. 외국인 지분을 일정 비율로 한정하는 분야에서 요르단인이 포함된 Public Shareholding Company나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주로 선호된다.

3) 등록 절차

◦ 2014년 발효된 투자법(the Investment Law No. 30 in 2014)에 의해 요르단 투자위원회(Jordan Investment Commission)에서 모든 등록절차를 맡는 것으로 규정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투자환경법(Investment environment law No.21 of 2022) 제정을 통해 등록, 허가, 면허발급 업무를 위한 새로운 정부 당국인 투자부가 설립되고, 제 8조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장관 등으로 구성된 투자 심의회가 설립되었다. 2022년 투자환경법(Investment environment law No.21 of 2022)에 따라 'Invest in Jordan(invest.Jo)'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2024년 5월 기준 해당 웹사이트에서 회사 등록 및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 회사 등록 절차는 개발구역 및 자유구역에서의 등록과 그외에서의 등록에서 차이를 보이며, 개발구역 및 자유구역 외의 회사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이 6개의 절차로 구분된다.

① 경제 활동의 법적 형태 등록: 경제 활동에서의 법적 형태의 설립 및 등록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이다. 해당 법적 형태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enterprise), 합자 회사 및 유한 합자 회사(partnership company or limited partnership company),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공공 출자 회사(public shareholder company), 비공개 주식 회사(private joint stock company), 외국 회사의 지점(branch of a foreign company)로 구분된다.

②등록 후 서비스: 회사 혹은 시설의 본사가 요르단 내에 위치한 경우 기업과 개인 사업자는 상공회의소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요르단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과 지역 사무소(요르단 내 비영업 외국 기업) 또한 요구되는 양식을 제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사 자본의 가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외국 회사의 지역사무소일 경우 처음 등록 시 지불해야 하는 파트너십 서신의 수수료는 4 요르단디나르이다. 모든 상공 회의소의 등록 및 가입비는 2009년 상공회의소 규정 제 45호에 기초한다.

③부지 선정 및 환경 승인: 부지선정에는 무역 등록부, 토지 구획 계획, (10,000㎡를 초과할 경우) 허가받은 엔지니어링 사무소의 스케치 계획, 토지 소유권 등의 문서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25 요르단디나르, 기간은 근무일 기준 10일이 소요된다. 환경 승인은 활동의 위험성에 따라 5가지 매뉴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문별로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조건 및 절차에 차이가 있다. 저위험으로 분류된 활동에 경우 환경 승인을 얻는데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제외된다.

④계획 규제 승인 및 건축 허가: 설계를 시작하기 전 건축물에 대한 1차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토지 구획 변경 명세서, 엔지니어링 사무소와의 계약 서류가 필요하며, 25 요르단디나르 수수료가 있다. 암만에서의 건축일 경우 광역 암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어있는 토지에서의 건축 허가 와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의 건축 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⑤ 부문별 라이선스: 부문별 승인은 경제 활동의 형태에 승인을 받는 것이다. 경제 활동의 규제, 법규, 조건, 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 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문별로 승인 조건이 다르며 JORSIC의 분류에 따른 부문별 승인은 제조 부문, IT 부문, 보건 부문, 관광 부문 및 농업 부문에서 필요하다.

⑥ 직업 면허: 암만 내에 위치한 경우 광역암만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에서 전자상으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암만 이외 지방자치단

체에 위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되는 서류와 직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업 면허는 1년동안 유효하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ISTD(소득 및 판매세 부처; Income and Sales Tax Department)로의 회사 등록, SSC(사회보장기관; Social Security Corporation)에 사회보장세 등록과 상호 등록이 필요하다.

① ISTD로의 회사 등록: 투자자는 등록된 기업에 대한 세금 번호를 얻기 위해 '요르단 소득 및 판매세 부처(ISTD)'에 회사를 등록해야 한다. 이는 투자법에 포함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소득세 및 판매세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이며, 법인세 번호를 받기 위함이다. JIC 창구를 통해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하며 법인설립 직후 발급 가능하다.

② SSC 서류 발급: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율에 비례하여 매월 납부하는 사회보장세 납부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사회보장기관(Social Security Corp.) 사무국에 제출 및 등록해야 한다. 2024년 현재 SSC로의 사회보장세는 직원의 경우 본인 급여의 7.5%를 지불하고, 고용주는 직원 급여액의 14.25%를 별도로 지불한다. 이렇게 하면 매월 SSC에 근로자 1인의 총급여(Gross salary) 대비 총 21.75%가 지급된다.

③ 상호 등록: 등록 비용은 20 요르단디나르이며 일반 위임장 5 요르단디나르, 특별 위임장 2 요르단디나르, 변호사 위임장 제출 시 40 요르단디나르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최대 10일 정도 소요된다.

○ 자유구역 내 투자일 경우 투자 활동 허가증, 체류 보안 허가 승인, 거주증 등 추가 발급이 필요하다. 투자 활동 허가증 발급 수수료는 100 요르단디나르, 체류 보안 허가 승인 수수료와 거주증 발급 및 갱신 수수료는 10 요르단디나르이다.

4) 인수 합병 형태의 진출

○ 요르단 회사법에 열거된 회사의 합병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방식은 합병되는 회사는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청산되며 법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고 모든 권리와 의무는 아래 절차에 따라 합병하는 회사에 이전되는 방식이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합병되는 회사는 다른 회사 주주 지분의 소유권을 승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병하는 회사와의 제휴를 명기한 결정문 발행
- ② 합병 결정문, 최근 2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자산 및 부채 실제 가치 또는 시장 가치로 예비 평가한 내역 등을 요르단 산업통상부 기업 관리자에게 제출
- ③ 요르단 회사법(Company law)에 명시된 자산 추정 방법에 따라 합병되는 회사의 순 자산 및 부채 산정
- ④ 산정된 가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되는 회사의 자본 증자 결정서 발행
- ⑤ 합병 회사의 파트너와 주주는 합병 회사 자본의 증가분을 자신의 이익이나 주식에 비례하여 분담
- ⑥ 요르단 회사법에 따라서 산업통상부에 등록, 승인 완료. 또한, 산업통상부 기업 관리자는 합병합의서 요약본, 합병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재평가 결과를 관보 및 지역 일간지에 각각 2회 공표 최종 실시

[자료: 요르단 투자청, Jordan Investor's Guide, SSC 홈페이지, SDC 등]

지사

1) 지사 형태

○ 본사가 요르단을 제외한 타국에 등록 및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요르단 내 지사 설립은 기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세부 분류되는데, 하나는 요르단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항구적 지사이며 다른 하나는 요르단 내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철수해야 하는 비항구적 지사다. 비항구적 지사의 경우 요르단 상공회의소 처음 등록시 파트너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외국기업이 요르단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르단 회사법에 따라 반드시 정부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치할 지사의 본사가 요르단이 아닌 타 국가에 등록, 소재한 경우이며 연락사무소와는 달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이 건설회사를 위해 요르단에 진출할 경우, 통상 프로젝트 오피스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 지사 등록수수료는 투자자가 소재하는 본사의 총 주식가치가 100만 요르단 디나르 이하인 경우 1,000요르단디나르를 내야 하고, 그 이상이면 2,000요르단디나르를 내야 한다. 상표법에 하자가 없는 한, 지사의 경우 투자자가 자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통상적으로 상호 뒤에 'Jordan'을 추가하는 형태이다.

○ 지사는 등록과 노동허가를 취득한 후에 요르단 내에서 상업을 할 수 있으며 주소지 상공회의소 혹은 산업회의소 등록과 함께, 법인세와 소득세, 사회보장세 납부 및 지방정부의 영업허가를 매년 1차례 갱신해야 한다. 또한, 영업활동과 부대적으로 각종 세금 납부 및 재무제표 제출의 의무가 있다. 단, 각종 프로젝트 계약 조건에 면세 조항이 있을 경우,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등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사 인력은 최소 50%의 요르단인을 포함해야 한다. 단, 지점의 상주 관리자는 요르단인이 아닌 어떤 국적이어도 무방하다.

○ 지사 설립을 위한 신청서 제출 및 승인까지의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진출 기업이 직접 해도 무방하다.

2) 설립 방법

○ 현재 지사 설립은 요르단 투자청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요르단에 지사 설립을 등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 양식은 요르단 산업통상공급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본사의 설립 형태, 자산 규모, 목적 등이 명시된 정관 혹은 본사 설립과 관련된 문서 자료
- 지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사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현지 책임자에 대한 위임장
- 이사회(혹은 경영 위원회, 동업자) 구성원의 국적이 표기된 명단과 현지 책임자 명단
- 직전 연도 본사 회계 보고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소유권과 직업 허가증 사본 및 토지 구역 도면
- 요르단 통상통상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
- 관련 요르단 정부 부서가 발급한 지사 설립 허가 서류
- 기타 요구 서류

○ 이때 지사 설립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업체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업체명, 형태, 자산 현황
- 현지 지사의 사업 목표
- 설립자, 동업자, 이사회 구성원과 관련된 세부 정보 및 지분
- 그 외 담당 부서가 요구하는 서류

○ 해당 서류들은 반드시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요르단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관보에 등록 사실이 게재되면 등록 절차는 종료된다.

[자료: 요르단 투자청, 암만상공회의소, Jordan Investor's Guide 등]

연락사무소

1) 연락사무소 형태

○ 연락사무소는 요르단 내 영업 활동 및 그에 따른 이익 창출 행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디서든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 요르단 내에서의 활동은 비즈니스와 특정 프로젝트 관련 정보 수집 활동에 한정된다. 또한, 해당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현지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절반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한편 연락사무소의 혜택은 법인세, 지방세, 사회 보장세 등 제세 면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 보장세 면제, 사무 실용 기기, 가구, 샘플 수입 시 무관세 통관, 상공회의소 및 기타 협회 등록 변제, 관련 모든 회비 등 납부 면제, 본사 파견 인력의 경우 고용 허가 취득, 현지화 또는 외환계좌를 개설, 현지화 또는 외화를 보유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입출금, 송금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어 외환규제를 받지 않는다. 단, 동 금액은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것에 한한다.

○ 또한, 비 요르단 직원은 면세로 차량을 수입할 수 있으나 관세 해당 분 금액에 대한 보증금 은행 예치서를 재무성에 신고해야 한다. 동 차량이 재반출 또는 현지 매각 후에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설립 방법

○ 요르단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서류들은 반드시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요르단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연락사무소 역시 요르단 투자청(JIC)의 투자 창구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 본사 등록증명서
- 본사의 설립 형태, 자산 규모, 목적 등이 명시된 정관
-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현지 담당자의 위임장
- 회계 감사관의 인증을 받은 지난 2년간 본사 대차대조표

○ 또한, 연락사무소 설치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업체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본사의 업체명, 등록 일자, 목표
- 형태 및 본사 주소
- 업체 자산 현황, 설립자 및 조력자 명단과 개인별 국적, 이사회 정보, 주식 가치
- 그 외 담당 부서가 요구하는 서류
- 비요르단 근로자의 사용 목적으로 임시용 차량 반입 1회 허용(정부 허가 시 2회 허용)

[자료: 암만상공회의소, Jordan Investor's Guide 등]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요르단은 중동국가 중 투자 관련하여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된다.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와 달리 요르단은 투자와 관련한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요르단은 2014년에 투자법 제30호(Investment Law No.30)를 제정하면서 기존에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투자유치 업무를 요르단 투자위원회(JIC, Jordan Investment Commission) 관할로 일원화했다. 또한 요르단은 2022년에 개정된 투자환경법 제 21호(Investment environment Law No.21)를 통해 투자부를 설치하고 'Invest in Jordan'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투자 절차의 간소화를 이루고자 한다.

요르단 투자위원회는 투자유치 및 수출 지원, 안정적 투자환경 제공을 목표로 특별 경제개발구역의 설립 등 투자유치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했고, 2022년 투자환경법 하에서 투자부를 관리하기 위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투자 위원회(Investment Council)가 설립되었으며, 2023년 '경제 현대화 비전'을 기반으로 하는 '2023~2026 투자 촉진 전략'을 기획해 시행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전 세계 대요르단 총 투자금액(FDI inward stock)은 2010년 대비 2020년에 약 1.7배 증가한 365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동국가로의 총투자금액 평균 증가율인 1.3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2022년 요르단의 FDI 수입은 전년 대비 82.9% 증가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했다.

그러나 요르단 주변국인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난민이 지속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의 결속을 방해하고 요르단 거주민을 출신지에 따라 차별하는 등의 문제가 촉발되었다. 또한 요르단은 천연 자원 및 식품 부족으로 인해 상품 수입량이 수출량을 압도하면서 매년 막대한 규모의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약 21.7%에 도달한 높은 실업률은 사회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또한 요르단은 현재 증가하는 물 부족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이스라엘로부터의 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르단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들은 이 결정에 불만이 높다. 2023년 초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폭력 사태가 심화되면서 요르단 의회에서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늘어났다. 또한 2023년 10월에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도 경색시켰으며 전쟁 이후 이스라엘 대사관 근방에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단, 2024년 3월에 요르단은 2024년 5월 만료되는 이스라엘로부터의 물 공급 계약의 1년 연장을 요청했고 이스라엘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연계한 비즈니스 추진시 참고해야 할 요소다.

2) 투자진출형태별 규제

- 독자 투자(Single Investment): 외국 기업 및 기관은 요르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Trade & Supply, MOITS)를 통해 요르단에 사업을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다. 요르단 회사법은 외국 회사를 등록하고 지역 및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외국기업은 운영회사와 비운영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데 신뢰할 수 있고 알려진 변호사를 통해 회사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변호사는 요르단 정부의 관료적 행정 시스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요르단 시장과 관련한 여러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 합작투자(Joint Venture): 외국인 소유/기업 지분이 50%를 초과할 수 없는 일부 부문에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는 필수적이다. 해당 부문은 아래와 같다.

- ①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컨설팅
- ② 건설 계약 및 관련 서비스
- ③ 건축 및 건설 목적의 토양 검사 및 화학 물질 검사와 관련된 기술 검사 서비스
- ④ 영화 및 텔레비전 촬영을 제외한 사진
- ⑤ 고용 및 노동 제공
- ⑥ 은행, 회사 및 금융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중개 및 금융 중개 서비스를 제외한 중개
- ⑦ 광고 대행사 및 사무실을 포함한 광고 서비스
- ⑧ 대리인, 상업 중개인 및 보험 중개인의 서비스
- ⑨ 은행 및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환전
- ⑩ 호텔 및 모텔을 제외한 케이터링 서비스, 카페테리아 및 카페
- ⑪ 여행사, 품질 관리 및 여행
- ⑫ 유통, 수입 및 수출을 포함한 소매 및 도매 무역(경제활동 및 상품/상품 수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제외)
- ⑬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 활동
- ⑭ 요르단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한 선박의 운송을 제외한 여객 및 화물 운송, 해상 조사 및 검사, 해상 화물 포워딩 서비스, 해운 대리점, 해운 중개업, 선박 관리 서비스, 해상 및 선박 유지 보수, 지상 조업, 화물 검

물 포워딩 서비스, 해운 대리점, 해운 중개업, 선박 관리 서비스, 해상 및 선박 유지 보수, 지상 조업, 화물 검사, 하역 서비스

⑮ 항공 화물 중개업, 보관 서비스, 버스 정류장 및 역, 주차 및 터널, 교량, 도로 및 고속도로 운영 서비스

○ 한편, 외국인 소유/기업 지분이 49% 이하로 규정된 부문은 아래와 같다.

- ① 여객, 물품 및 우편물에 대한 정기 및 전세 항공 운송 서비스
- ② 여객 및 화물 도로 운송 서비스
- ③ 송신기 및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장비의 유지 보수
- ④ 주거용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의 매입 및 판매 또는 임대
- ⑤ 스포츠 행사 조직을 포함한 스포츠 클럽
- ⑥ 도로 운송 차량의 유지 보수 서비스

○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업종은 다음과 같다.

- ① 건설에 사용되는 석재, 건축모래, 석조 블록 등 채석장 및 석재 가공
- ② 조사 및 보안 서비스
- ③ 민간 보안 및 보호 서비스와 훈련 서비스
- ④ 통관서비스(검사 서비스, 화물 운송 기관 및 화물 중개업 제외)
- ⑤ 총기류 등의 무기 수입, 판매 및 유지관리
- ⑥ 모든 유형의 빵집
- ⑦ 사설 사격장
- ⑧ 폭죽의 거래와 수입 및 사용

○ 단, 위의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비요르단 기업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앞에서 언급된 비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① 비요르단 기업 내 요르단인이 자본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
- ② 회사는 요르단 국가 외부에 법인화되고 등록됨
- ③ 회사는 공개주식회사가 아님
- ④ 관계 법령에 대한 소유권 또는 참여에 제한이 없음.

3) 기타 장애요인

○ 물품대금 회수불능 문제

- 대금결제를 수표로 하는 경우, 수표하단 등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차기물품 도착 시 대금 지불” 등 이해가 안 되는 아랍어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으며, 동 수표를 받고 물품을 인계해 주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고, 재판에서도 대부분 무시한다.

- 또한 상당기간 대금을 잘 지불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또는 대금 결제시 변호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거나 공관 및 KOTRA 등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노무관리의 어려움

- 요르단의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아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하는 편이다.

-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한국 기업이 육성한 인력을 타국 기업이 고임금을 제시하여 인력을 유출시키는 현상이 최근 심화(IT, 에너지 분야)되고 있다.

○ 기타 애로사항

- 요르단 산업 발달이 미비하여 현지 구매 자재의 단가가 무척 비싸며 필수 자재를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전기요금이 높은 편으로, 2022년 에너지에 대한 세금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요르단은 아랍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전기요금이 높은 국가이다.

- 수도외 교외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외국 기업들에게 지역민 채용을 강제하는 등 사업 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다.

4) 분쟁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투자환경법에 따르면, 공식기관과 투자자 간의 투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그들 간에 합의에 따라 해결할 수 있지만,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분쟁에서 적용할 다음의 규칙들을 선택할 수 있다. 양 측 사이의 합의된 준거법이 없다면 요르단 중재법이 우선하는데, 중재 장소는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요르단 암만으로 한다. 이때 외국/국제 중재 재판소가 외국 판결법에 따라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 중재법 -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중재 규칙 - 국제 상공 회의소 중재 규칙 ○ 투자계약 분쟁에서 법원 또는 중재재판소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법을 적용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 사법 규칙상의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요르단 법을 적용한다. <p>5) 투자자의 요르단 시민권 취득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요르단 시민권 및 거주증 부여 조건이 대폭 수정되었는데, 시민권은 매년 500명의 투자자에게만 부여되며 조건이나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요르단 시민권이 취소되거나 경우에 따라 거주가 취소될 수 있다. 2022년 개정된 투자환경법에는 등록된 기업의 투자자, 관리자, 직원 및 가족에게 거주권을 부여하는 기준은 요르단인의 고용 비율과 지역 개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한다. ○ 외국인투자자가 요르단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요구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 시민권은 투자자가 3년 동안 100만 달러를 요르단 중앙은행(CBJ)에 무이자로 예치하고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출금하지 않을 때 부여됨 - 투자자는 6년 동안 100만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해야 하며 이자는 요르단 중앙은행에서 결정 - 투자자는 요르단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최종 권고에 서명하기 전에 적어도 한 달 동안 왕국 내에 있어야 함 - 요르단 시민권은 요르단 기업의 주식을 최소 3년 동안 처분하지 않은 경우 최소 150만 달러에 요르단 기업의 주식을 구매할 때도 부여됨 - 프로젝트의 설립, 등록 또는 경제 부문 투자시 암만 국경 내에서 총 자본금이 최소 100만 달러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또는 투자시 요르단 사람들에게 2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투자자는 최초 4개월의 기간 동안 고용 요건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3년 동안 동 조건을 준수해야 함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외국인 지분을 일정 비율로 한정하는 분야에서 요르단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상기 '법인설립' 섹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개주식(Public Shareholding) 형태이다. 이때 회사설립에는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참여인원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감사관의 정당한 권고 하에서 1인이 설립 가능하나 회사명에 'Limited' 문구를 밝혀야 한다. 수권자본금은 최소 50만 요르단디나르(약 7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는데, 회사의 사업 유형이 보험인 경우 자본금 규모는 200만 요르단디나르(약 283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설립 회사는 요르단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야 한다. 회사명은 설립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참가자는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참고로 유한주식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in Shares)의 형태도 존재한다. 이는 최소 5명의 파트너, 무한책임 사원 2명 이상과 유한책임 사원 3명 이상의 인원으로 설립되는 회사로서, 최소 자본금은 10만 요르단디나르(약 14만 달러)이며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종류와 손익분배방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무한책임 사원은 개인 자금을 통해 회사의 부채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유한 책임 사원은 각 자본 지분에 따라 회사 부채에 책임이 있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인원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중에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자산으로 총당되며 회사 참여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회사 설립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허가가 있으면 1인 유한책임회사 설립도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의 최소자본금은 3만 요르단디나르(약 4.2만달러)이다. 연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경영자 또는 경영위원회 보고서 요약물 지역 신문에 게재할 의무가 면제된다.

개인사업자

요르단에서는 Private Shareholding 형태로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법적으로는 해당 형태도 2인 이상 복수의 동업자가 필요하지만, 요르단 산업통상부의 허가를 받으면 1인 설립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 자본금은 최소 5만 요르단디나르(약 7만달러)이며 설립회사는 요르단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나 필수사항은 아니다. 유한책임회사와 동일하게 회사 참여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진다. 외국인이 법인 형태로 요르단에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선호하는 기업 형태이나 1인 설립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Qudah Law firm

전화번호	+962-6) 5525572
주소	Shumaysani, Sate Al Husari Street, Taj Al Safa Building No.33, Ground floor, Amman, Jordan
홈페이지	http://www.qudahlawfirm.com/index
이메일	info@qudahlawfirm.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무법인

◦ Sanad Law Group(Attorneys & Legal Consultants)

전화번호	+962-6) 563-0800
주소	The Edgo Atrium, 1 Rafiq Al-Hariri Avenue, Abdali, Amman, Jordan
홈페이지	https://www.eversheds-sutherland.com/en/jordan
이메일	amman@eversheds-sutherland.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무법인

◦ Al Tamimi & Co

전화번호	+962-6) 577-7415
------	------------------

주소	Emmar Towers, Tower B, 11th Floor, 6th Circle, Amman, Jordan
홈페이지	https://www.tamimi.com/offices/jordan/amman/
이메일	info@tamimi.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무법인

◦ Amosh Legal Services & Arbitration

전화번호	+962-6) 554-0456, +962-77)171-1111
주소	Masaken Capital, Al Madinah Al Munawarah St 156, Amman, Jordan
홈페이지	http://www.amoshlaw.com/
이메일	info@amosh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무법인

◦ Wazani Law Firm

전화번호	+962-6) 551-7063
주소	Complex No 6, Arteerya St 6, Amman, Jordan
이메일	wazanilawfirm@orange.jo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법무법인(홈페이지 없음)

◦ Audit & Consult Consortium(Dweik & Co)

전화번호	+962-6) 5692232
주소	Shmiesani, next to the Safeway Cairo Amman Branch building No.96, 4th floor, Amman, Jordan
홈페이지	http://www.dweik-acc.com
이메일	auditcon@dweik-acc.com, info@dweik-ac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회계법인

◦ Modern Accountants (Ghosheh

전화번호	+962-6) 5561204
주소	Um Uthaina, 16 Djibouti street, Amman, Jordan
홈페이지	https://modern-accountants.com/
이메일	info-nexia@modern-accountant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회계법인

◦ Hawit Fasheh Consultants

전화번호	+962-6) 4630391
주소	24 Rainbow St., Jabal Amman
홈페이지	http://www.fashehgroup.com
이메일	info@fashehgroup.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회계법인

◦ Abbasi Group International

전화번호	+962-6) 5811909
주소	King Abdullah II St., Al KarmI Bld. 296, 5th Floor
홈페이지	https://agicpa.com/
이메일	info@agcpa.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회계법인

◦ Ereifej and Partners International Law firm

전화번호	+962-7) 95537424
주소	K. Hussein St. 240, Abdali, Amman, Jordan
홈페이지	http://www.ereifejlaw.com
이메일	info@ereifej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지상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법인)

비고	법무법인 (노동, 법인설립 등)
----	-------------------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 외환 주무기관: 현재 요르단의 외환 관리는 1966년 외국환 관리법 95항 및 1978년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서 요르단 중앙은행이 실시하고 있다. 요르단 중앙은행은 외환 유입 및 유출, 외환 계좌, 대출, 상업 지불, 외환 허가 수수료 등 외화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다.
- 환율: 1995년부터 요르단 중앙은행은 자국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0.71 요르단디나르 = 1.0 달러의 고정 통화 환율로 JOD 가치를 USD에 고정시켰다. 그 이후로 요르단디나르는 USD보다 단위당 가치가 높은 몇 안되는 통화로 자리매김했다.
- 외환보유고: 2024년 5월 기준 요르단 외환보유고는 191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약 8.3개월 동안 요르단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대금 지불이 가능한 규모이다. 요르단 중앙은행(CBJ)은 2023년 7월 말 기준금리를 7.5%로 지정한 이후 2024년 5월까지 연속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요르단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와 2028년까지 확대기금(Extended fund facility) 지원을 승인 받은 바 있다.
- 금융 관련 제도: 2001년 국내 자본시장 육성법이 마련된 이래 Mutual fund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경직된 금리 정책과 2차 금융시장 미발달로 회사채 시장의 발달 수준은 높지 않다. 참고로 요르단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산업 부문 지원을 위해 18억 달러 규모의 재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 동 프로그램의 대출이자율은 0.5~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10억 달러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이자율은 2% 미만으로 유지된다. 최근 요르단 정부는 '2023-2028년 국가포용금융전략'을 내세워 여성과 청소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 요르단 중앙은행, Investopedia, EIU 등]

외환 규제

- 요르단 정부는 외환의 거래와 송금, 외국 기업의 현지 자금 조달 등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비거주자(일반적인 외국인으로서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현지 은행에서 외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요르단 내외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다. 외국계 회사의 과실 송금에 대한 제한도 없다.
- 1995년 3월에 요르단 중앙은행은 요르단디나르가 상업 거래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요르단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와 관련된 요르단디나르 자금 이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요르단으로 자금을 이체한 비거주자 및 외국인 투자자는 다른 양도 가능한 통화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과거 요르단 중앙은행 보고사항의 하나였던 투자 관련 자금의 이체 및 이관의 경우에도 이제는 중앙은행 보고 없이 이체 및 이관이 가능하다. 다만, 특이사항으로 요르단에서는 개인 혹은 법인이 달러계좌에 입금할 때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즉, 정부기관, 공공기관, 외교 또는 자선위원회를 제외하고 달러의 이전에 대해서는 0.001프로의 세금이 징수된다. 요르단디나르 계좌에 입금할 때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 참고로 요르단중앙은행(CBJ)은 2023년도 요르단 국외 거주자들의 송금액이 전년 대비 4.6% 증가한 총 5억 938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 다만, 외국인의 경우, 특정 국가(시리아 등)에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 및 수령인의 관계, 사유 등을 밝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송금하는 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르단인의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면 특정 국가 송금에 큰 문제는 없는 편이다.

[자료: 요르단 중앙은행]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 USD = 0.708 JOD(고정환율)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564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78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91
비고	2023년 2월에 요르단 민간합동노동위원회는 기존의 법정 최저임금 260요르단디나르(약 366달러)를 2024년 까지 변동없이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한편 2021년에 요르단 정부에서는 월간 최저임금을 기존 310달러에서 366달러로 약 56달러 인상한 바 있다. 한 달 근무시간을 192시간(8시간 x 24일)이라 가정했을 때 시간당 최저 임금은 1.91달러이다.				

<자료원 : 2024년 5월 기준 현지 언론보도 확인>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 1996년에 제정된 요르단 노동법은 유럽의 관계 노동법을 준용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은 상태이며 이러한 근로자 위주의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빈발한 형편이다.

○ 근로계약서는 아랍어로 최소 2부로 작성하고 각 1부는 각 계약자가 보관한다. 근로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법적 증명방식을 동원하여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다.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 요르단 노동부 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계약서 1부는 외국어로 작성한다. 고용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고용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재직기간
- 업무시간, 장소 및 범위
- 근로자의 연령 및 혜택
- 퇴사 절차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할 때까지 계속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근로하는 것으로 본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기간만료 시 자동으로 종료되며 계약의 양당사자가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계약은 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갱신하는 것으로 본다. 단, 근로장소에서 성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고용하거나 특정업무를 연속으로 수행하는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근로자로 본다.

○ 고용주는 견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견습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주는 수습 중인 근로자를 수습기간 중에 예고 없이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의 해지 방법으로는 ①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해지, ②근로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이 체결된 업무가 완료된 경우의 해지, ③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입증된 경우, ④양당사자가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회보장법에 명시한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등 있다. 또한 근로자 또는 고용주 중 한 당사자가 무기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해당 통지는 양 측의 합의가 없는 한 취소될 수 없다. 통지가 고용주에게 진행된 경우 고용주는 통지 후의 기간동안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근로자가 통보기간 만료 전에 퇴사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용주에게 보상해야 한다.

- 고용주 또는 그의 대리인은 매년 첫 달에 직원 수, 직무 위치, 작업 시작 날짜, 직원들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록들은 고용주의 설립기관에 보관되어야 한다.

- 근로자가 혁신한 지적재산권이 고용주의 업무성질과 관련이 없고, 고용주의 전문지식, 정보, 도구,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해당 지적재산권은 근로에게 귀속된다.

- 근로자는 고용계약을 통하여 합의한 직무의 성질과 본질적으로 다른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사고방지 또는 그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거나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의 역량과 해당직무에 필요한 사정 내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장소 외 다른 장소에서의 근로로 그의 거주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장소 외 다른 장소에서 근로하지 못한다.

- 요르단 내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채용 외국 인력은 분야별로 상이하다. 외국인 노동자는 1년 단위로 노동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불법고용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200디나르 이상 500 디나르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범 시 벌금이 2배로 가중된다. 또한 ① 근로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 고용 ② 노동부 내 관할기관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고용주를 위하여 근로허가를 받지 아니한 근로자 고용 ③ 허가되지 아니한 직무에 대한 근로자 고용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자료: 요르단 노동법, ilo.org]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일주일에 6일간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점심 및 쉬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125% (평일) 혹은 150% (주휴일, 종교기념일 또는 공휴일)의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1주일의 최대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1 일에 총 11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 정부 부처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보통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나 사기업의 경우, 1일 8시간 주 6일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 요르단 노동법]

휴가

1) 일반 연차 휴가

- 요르단 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매년 14일의 임금전액이 지급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한 기간이 연속으로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연차휴가기간은 21일로 하고 공휴일과 종교기념일과 주휴일은 연차휴가로 산정하여 기산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근로자는 연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한 번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회 2 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하여 연간 근로자의 휴가는 바로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근로자가 휴가의 이월을 요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가사용이 가능한 해가 경과한 때에는 이월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요청을 거절하지 못한다.

-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근로자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큼의 임금을 지불 받을 권리가 있다.

○ 사용자는 기업 내 업무에 필요한 바에 따라 매년 첫 번째 달에 각 근로자의 연차휴가기간과 기업 내 휴가사용방식을 정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병가

○ 모든 근로자는 기업에서 승인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토대로 1년에 14일의 임금 전액이 지급되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기업에서 승인한 의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임금 전액이 지급되는 병가를 14일 더 연장할 수 있다.

3) 기타 휴가

○ 근로자가 ① 관할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용자나 기업운영자의 추천에 따라 노동부에서 승인한 노동문화강의를 신청하거나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 경우 ② 이슬람 순례 의무를 이행할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단, 최소 5년 연속으로 근로한 자여야 하며 근무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1년 중 14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근로자가 대학교, 교육기관 또는 전문학교에 입학한 경우 4개월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 또는 후에 총 10 주의 임금전액이 지급되는 모성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산후 휴가기간은 6 주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 휴가가 종료되기 전에는 해당근로자를 근무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모성휴가 종료 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1일에 총 1시간 이하의 수유시간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남성근로자는 유급으로 3일 동안 아버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이 외에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피고용인의 경우, 메카 순례를 위한 14일간의 성지순례 휴가(1회)가 인정된다. 한 피고용인의 성별이 여성이며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피고용인은 최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복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피고용인은 육아휴직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

[자료: 요르단 노동법]

해고

1) 통상 해고

○ 사용자/근로자 중 일방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종료를 원하는 경우 최소 1 개월 전에 타방에게 계약종료의사를 서면통고 하여야 하며 통고는 양 당사자의 동의 하에서만 철회할 수 있다. 통고기간 동안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통고기간은 근로기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사용자가 계약종료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보기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으며 통보기간 마지막 7일을 제외하고 근로하도록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보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받는다.

○ 근로자가 계약종료의사를 통고하고 통고 기간만료 전에 사직을 하는 경우, 퇴직 후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며 사용자에게 해당기간의 임금분에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관할법원은 근로자가 해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한 소송을 통하여 해고가 강압적이고 이 법의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근로자의 원직복직 또는 근로연수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절반의 기간에 대한 임금액에 상당한 배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총 배상액은 최소 3개월치에서 최대 6개월치에 해당하는 급여액 및 기타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상액은 근로자가 최근 수령한 임금을 토대로 산정된다.

2) 즉시 계약 해지 - 피고용인에 의한 경우

- 고용 계약 해지 통보 없이 피고용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상 합의한 직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직무에 고용된 경우
 - 계약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시 고정적인 거주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고용 시 합의한 직무보다 낮은 직급의 다른 직무로 이동하는 경우
 - 제14조 규정(산업 재해로 인한 영구 장애 발생시 그의 상태에 적합한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 의료진이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근로를 지속할 경우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 고용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근로 중 또는 근로를 이유로 폭행하거나 모욕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 고용주가 노동법 또는 노동법에 따라 공포한 모든 규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이 경우 노동부 산하 관할기관으로부터 해당 규정의 이행에 대한 경고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3) 즉시 계약 해지 - 고용주에 의한 경우

-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고용 해지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피고용인이 이득을 차지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된 문서 및 자격을 제출하거나 거짓된 신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 피고용인이 고용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용인이 고용주의 중요한 물질적 피해의 원인이 되는 과실을 저지를 경우(이 경우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과실이 발생한 이후 5일 이내에 적절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알려야만 한다)
 - 피고용인이 서면으로 된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설립내규(안전 규칙 포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피고용인이 특정한 원인 없이 1년간 간헐적으로 총 20일을 쉬거나 연속적으로 10일을 쉬 경우(이 경우 고용주는 해고 전에 최소 한 번의 서면 통보를 등록된 메일 및 지역 일간지를 통해 고용인의 주소로 보내야만 한다)
 - 피고용인이 회사의 기밀을 유출할 경우
 - 법정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용인의 범죄 사실이나 불명예나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한 경범죄 사실을 발견할 경우
 - 피고용인이 명백하게 어떠한 약에 의해 취하거나 영향을 받고 있을 경우
 - 직장에서 도덕적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 피고용인이 고용주, 관리자, 선임자, 직장 내의 어떠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 사익을 위해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증명서 및 서류를 사용한 경우
 -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심각한 물질적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이 경우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과실이 발생한 이후 5일 이내에 적절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알려야만 한다)
 - 서면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규정을 포함한 회사 내규를 2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공공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

4) 해고 불가 경우

- 아래의 사유의 기간 중에 있는 피고용인이 다른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경우 해고할 수 없다.
 - 임신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휴가 중에 있는 여성 피고용인
 - 병역의 의무 또는 예비역으로 복무 중 복무하는 피고용인
 - 연차, 병가 또는 학습, 순례 등의 목적으로 고용주에게 부여받은 휴가 중인 피고용인
 - 노동조합 업무에 가담하고 있는 피고용

5) 주의사항

- 고용주는 퇴직 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의 성명, 직무의 종류, 근로개시일과 퇴직일을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증명서 또는 물품을 돌려주어야 한다.

○ 한국기업의 경우, 1년 자동 연장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고 자동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매년 갱신에 관한 고용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묵시적으로 자동연장할 경우, 해당 고용 계약은 무기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고용주 일방에 의한 해고 통보가 불가능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자료: 요르단 노동법]

퇴직금

○ 노동법 32조에 따라 비기간제 근로자이면서 사회보장세(요르단 국민연금에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한해 고용주는 해당 피고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즉 합법적으로 고용주가 사회보장세 납부를 지원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퇴직금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 각 기업의 내규 등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주의 재량권으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요르단에 진출한 일부 외국계 은행들에 서는 기업 내규에 따라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의 지급 시점은 계약 종료 시점이며, 피고용인은 근무 연수 1년당 1개월 월급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 만약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년 중 근무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부분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 퇴직금 금액의 산정은 피고용인이 근무할 당시 마지막으로 수령한 월급에 기반하며, 만약 마지막 월급이 특수한 업무에 대한 예외적 인 급여라면 피고용인은 퇴사 시점 이전의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급의 평균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자료: 요르단 노동법]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싶다면 회사 내규에 따르도록 한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현지 가격의 평균 산정액은 6세부터 19세 이하는 1년에 50 요르단디나르(약 71달러), 19세에서 45세 미만은 75 요르단디나르(약 106달러), 45세에서 60세 미만은 115 요르단디나르(약 162달러), 60세 이상은 150 요르단디나르(약 212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6세 미만의 아동은 정부의 무료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 민간회사가 피고용인을 위해 정부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피고용인 본인과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는 별도로 건강보험증(health insurance card)을 발급받아야 한다. 필요서류는 보험에 가입할 피고용인 이름이 적혀진 공문서, 여권 사본(외국인의 경우), 보험가입자와 수혜자의 사진 각각 1매이다.

○ 현지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민의료보험(Civil Medical Insurance) 시스템하에서 건강보험이 제공되며 현지 보건복지부 산하에 속하는 병원 및 메디컬 센터의 이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 요르단 고용보험의 형태는 사회보장공단에 납부하는 사회보장세 중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으로 볼 수 있다. 고용주는 월 급여의 0.5%를, 근로자는 1%로 총 급여의 1.5%가 실업보험 목적으로 사회보장공단에 지급된다. 직원이 노령, 장애, 사망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주로부터의 출산 보험 공제 금액은 직원이 정부 부처 또는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2%이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산재보험

1) 개요

○ 요르단의 산재 보험으로 볼 수 있는 형태는 사회보장공단에 납부하는 사회보장세 중 근무재해보험(Work Injuries insurance)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월 급여의 2%를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용인에게는 부담의무가 없다. 위험한 직종에 속하는 사업군의 고용주는 추가로 월 급여의 1%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 만일 피고용인이 직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보험공단은 부상일 기준 해당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산정된 월 출연금 일당의 75%에 해당하는 임금을 매일 보상한다.

○ 2023년 말 요르단 사회보장공단은 업무상 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4개의 민간병원과의 계약을 갱신한 바 있다.

2) 산재 발생 시 고용주의 의무

○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거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한 때 고용주는 부상자를 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송하여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또한 사고 발생시 관할안보기관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노동부에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위반행위당 100요르단디나르 이상 500요르단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용주는 의료진단서에 의거해 근로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보상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근로자의 산재청구 유효기간

○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날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담당관에게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청구를 이행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제출이 지체된 때에는 부상발생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제출 건을 수락할 수 있다.

4) 보상금

○ 업무상 부상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전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1,200일치 급여에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보통 2,000요르단디나르 이상 5,000요르단디나르 이하로 산정한다.

○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진단서에 적혀진 치료기간 동안 일일임금의 75%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에게 일부 영구장애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전신장애에 대하여 정한 보상액에서 해당장애가 비례하는 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한 건의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상의 재해가 여러 발생한 경우 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지급되는 총 비용은 전신장애 발생시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재해근로자의 고의적인 행위, 과실 또는 심각한 부주의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 음주,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복용으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 재해근로자가 부상으로 인한 치료 또는 예방과 산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공지된 지시를 위반한 행위가 재해발생에 영향을 끼친 경우

단,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으로 이르거나 영구장애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상기한 조건에 해당될지라도 보상금을 지급받

을 수 있다.

국민연금

1) Social Security Corporation

- 고용주는 월 급여의 14.25%, 피고용인은 월 급여의 7.5%, 총 월 급여의 21.75%를 사회보장공단에 납부하는 데 해당 비율 중 일부는 국민연금 성격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 민간분야의 근로자들과 1995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2002년 이후 임관된 군 관계자들의 연금을 운영한다.
- 민간분야에서 5명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업주는 본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세되지만 고용주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이다. 노령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려면 사회보장공단에 180개월 또는 15년 동안 기여해야 한다. 남성은 25년, 여성은 22년이면 50세에 조기 퇴직이 가능하다.

2) Military Pension System

- ①군 관계자 중 근무 기간이 20년이 초과하거나 ②근무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남성 피보험자의 경우 60세 이상 여성 피보험자의 경우 55세 이상이거나 ③요르단 군 또는 보안대에 복무 중 생긴 사고에 대한 영구 비근로 관련 장애 연금, 반영구 비근로 관련 장애 연금 또는 비근로 관련 사망 연금에 대한 자격을 얻은 경우 수혜 대상자이다.
- 2003년 이후 임관된 군 관계자들의 연금은 Social Security Corporation에서 담당한다.
- 요르단 국군 및 보안대는 피보험자의 월 급여의 12%를 매달 납부한다. 해당 납부액은 매년 1%씩 상승하여 최대 20%까지 상승한다.

3) Civil Pension System

- 본 제도는 요르단 재정부에 관할,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된다.
- 공공부문(Public sector)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산재보험을 위해 공공기관은 매달 고용인 월 급여의 2%를 요르단 재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 1995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의 연금은 Social Security Corporation에서 담당한다.

[자료: 요르단 사회보장법]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 요르단은 2018년 의회승인을 거쳐 소득세법(법인세 포함) 개정을 하였으며 2019년부터 해당 법(The income tax law no. 38 of 2018)에 따라서 법인세를 걷고 있다.
 - 통신, 전력(송배전 및 발전), 채굴, 보험 및 재보험, 금융중개, 금융회사, 금융임대에 종사하는 법조인은 24% 법인세를 납부
 - 은행은 35%의 법인세를 납부
 - 제약업 및 의류업을 제외한 제조업 분야 종사기업은 2021년에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5%를 납부
 - 제약업 및 의류업 종사기업은 2021년에 20%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5%를 납부
 - 기타 기업은 20%의 법인세 납부
- 2018년 소득세 개정 법률(The income tax law no.38 of 2018)의 시행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각 산업 활동에 대하여 법인세율 공제가 적용된다.
 - 제약 및 의류 산업: 2019년 50%, 2020년 30%, 2021년 20%, 2022년 10%, 2023년 5%
 - 기타 산업활동: 2019년 25%, 2020년 20%, 2021년 15%, 2022년 10%, 2023년 5%
 - 농업 및 목축업: 요르단 내에서 농업, 축산업 활동으로 발생한 법인의 순이익에서 1~50,000요르단디나르(약 70,621달러)까지 면세
- 요르단 소재 업체는 해외에서 창출한 수익에 대해서는 납세의 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수익이 요르단 내 자금에서 비롯되었거나 관련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 요르단에 거주하는 회사의 외국 지점의 경우 지점의 총 순이익에 10%의 소득세가 적용된다.
- 요르단 내에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별도의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 다음의 요르단 법률 조항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법인은 요르단 거주 법인(resident)으로 간주된다.
 - ① 요르단에 업무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는 사무소, 지점이 있는 경우
 - ② 요르단에 관리 본부나 실제 사무소가 있는 경우
 - ③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요르단 비거주 법인은 원천징수세(WHT)를 통해 과세된다. 이는 비거주 법인 또는 자연인이 수행한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요르단으로부터 수령하거나 벌어들인 금액, 업무 또는 서비스가 요르단에서 수행되었거나 그 결과물이 요르단 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로부터 파생된 금액은 요르단에서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자 법인 또는 자연인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세(WHT)는 지급액의 10%이며, 비거주자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Royalty)에도 동일한 요율이 적용된다. 또한 비거주자에 대한 지불 금액은 서비스 제공 산업에 따라 1%에서 7% 범위의 국가 기여금 공제를 적용받는다.
- 상기한 2018년 소득세 개정 법률에는 '국가기여세(National Contribution Tax)'라는 새로운 세금이 추가되었으며 세율은 아래와 같다. 한편, 2021년 5월 2일, 요르단 소득및판매세부서(Income and Sales Tax Department)는 국가기여세에 관한 2021년 지침을 발행했는데 이 지침에서는 2019년 이후 거주자, 비거주 법인 및 자연인에 대한 국가기여세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하게 다루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① 은행이 타은행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 수수료, 예금이익 ②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 ③ 요르단 재무부 장관이 승인한 법인 또는 자연인의 경우 국가기여세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 은행, 배전 및 발전 등 전력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은 과세 소득의 3%
 - 광업 또는 채굴 기업은 과세 소득의 7%

- 금융중개, 금융회사, 금융임대에 종사하는 법조인 등 금융 기업은 과세 소득의 4%
- 통신, 보험, 재보험 기업은 과세소득의 2%
- 기타 모든 법인은 과세 소득의 1%.
- 20만 요르단디나르(약 28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 금액 범주에 해당하는 자연인의 경우 과세 소득의 1%

○ 2022년 10월, 요르단은 2014년 투자법을 보완하는 '2022년 투자환경법(The Investment Environment Law of 2022)'을 새롭게 제정했다. 신규 투자환경법에서는 산업 분야와 지역에 따라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법인세 인센티브가 다르다. 참고로 2022년 투자환경법에 따르면 산업 분야 상관없이 저개발지역에서 경제활동하는 기업은 10년간 50% 법인세가 감면되며, 추가로 ICT 기업은 법인세가 5% 감면된다. 또한 산업 및 수공예 분야 투자 기업의 경우 지역별로 법인세 감면율이 상이하므로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인센티브 정보는 '요르단 국가정보'의 '투자 환경'과 '투자 진출 방식'을 참고바란다.

[자료: 요르단 소득/판매세부, 요르단 소득세법]

개인소득세

○ 요르단은 2018년 의회승인을 거쳐 소득세법(법인세 포함)을 개정했으며 2019년부터 해당 법(The income tax law no. 38 of 2018)에 따라서 개인소득세를 걷고 있다. 한 개인이 요르단 내에서, 혹은 요르단으로부터 수익을 얻었을 경우 금액을 지급 받은 장소와는 상관없이 개인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게 된다. 요르단의 개인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의 과세 대상 기준에 따른 개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5,000 요르단 디나르(7,052달러) : 5%
- 5,000 ~ 10,000 요르단 디나르(14,104달러) : 10%
- 10,000 ~ 15,000 요르단 디나르(21,156 달러) : 15%
- 15,000 ~ 20,000 요르단 디나르(28,209 달러) : 20%
- 20,000 ~ 1백만 요르단 디나르(1,410,455 달러) : 25%
- 1백만 요르단 디나르 이상 : 30%

*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 중 200,000 요르단디나르(약 28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1%의 국가기여세(National Contribution Tax)가 부과됨

○ 소득세법(The income tax law no. 38 of 2018) 63조항에 따르면 납세 신고가 늦은 납세자는 자연인의 경우 최대 100요르단디나르, 공공 및 민간 주식회사의 경우 최대 1,000요르단디나르, 공공 및 민간 주식회사를 제외한 법인의 경우 최대 300요르단디나르의 벌금이 부과된다.

○ 단, 농업 및 목축업에서의 소득은 일부 면세가 가능하다.

- 요르단 내에서 농업, 축산업 활동으로 발생한 개인의 이익에서 1~1,000,000요르단디나르(1,412,429달러)까지 면세된다.

○ 2022년부터 요르단 소득판매세부(ISTD)는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국가 전자세금계산서 어플리케이션 'Fawatery'를 새롭게 출시하고 운영 중이다.

[자료: 요르단 소득/판매세부, 요르단 소득세]

부가가치세

○ 요르단의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결합한 개념의 세금으로, 표준 세율은 2004년 4월 1일부로 16%(중전: 13%)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2018년 9월 채소 및 과일에 대하여 면세 조치를 취했고 다른 농산물에는 4%를 부과하는 등 품목 및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아카바 경제특구의 경우는 케이터링 서비스, 유람차 서비스, 호텔, 식당 및 일부 지정품목(7%)을 제외한 모든 최종 소비 물품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 럭셔리 아이템의 경우는 고관

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판매세가 면제되는 상품으로 빵, 5리터 미만의 물, 차, 설탕, 금, 돈 및 전기가 존재한다. 판매세가 면제되는 서비스에는 항공운송, 교육, 오수 및 폐기물 처리, 공중 보건 및 그와 유사한 활동, 종교 단체의 활동, 사회 단체의 활동이 있다.

○ 2020년 요르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광수입이 줄어든 바, 관광 관련 종사 업계의 판매세율을 기존 16%에서 8%로 인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단, 요르단 정부는 최악의 재정 수지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에 주요 국고 수입원인 판매세의 인하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르단 정부는 부족한 국가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가기여세(National Contribution Tax)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추가 징수하고 있다.

○ 2021년 10월 요르단 내각은 탈세 및 세금 환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반 판매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동 개정안에는 일부 납세자가 탈세 및 세금 회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일반판매세 환급액을 세금액 자체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 2023년 1월에 발효된 투자환경법 제21호 제9조 B항에 따라, 인센티브 및 면제 위원회에서는 요르단 정부를 대상으로 일반판매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2023년 3월 요르단 정부는 총 25개 의료기기·기자재, 유아용품 및 기타 품목에 대해 일반판매세(General Sales Tax) 영세율 신규 적용을 발표했다. 동 25개 품목(HS코드)은 아래와 같다.

- 의료 폐기물 멸균기(841920), 의료 기기, 장비 및 소모품(901819), 물리 치료 장비 및 용품(903180), 리넨, 베개, 매트리스를 포함한 다양한 침대 및 액세서리(940410), 각종 침대 커버(630210), 세탁, 표백 또는 염색 기계(845140), 열 고정 프레스를 포함한 다림질 기계 및 프레스(845130), 침대 헤드보드 및 액세서리(940320), 칼 식기류(821599), 수술 도구 및 키트(901849), 엑스레이 플레이트 및 필름(370110), 다양한 크기의 수건(630209), 식기 세척기(842290), 신체 유연성 측정 장치(392690), 마사지 장치(901910), 심박수 모니터(903180), 폐활량계 모니터(901920), 현금 기기(847050), 유아 치료 장치(852990), 구성품 및 소모품이 포함된 영아 인큐베이터(901890), 멸균 기구용 용기(901890), 침대 수유 홀더 등(940290) 담요, 이불 및 각종 담요(630130), 의류 건조기(842112), 다양한 차량 정차 장비(847989)

○ 요르단은 또한 2022년부터 국가 전자송장시스템(e-invoicing system)을 도입하여 세금 징수 방식을 기존의 직원 중심 체계에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요르단의 세금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 요르단은 세금 제도 내 탈세를 방지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여 2024년에는 GDP의 0.4%, 2025-2028년에는 1.1%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자료: 요르단타임스, PwC 등]

특별소비세

○ 수출용 재화와 서비스는 0%의 세율이 적용되며, 고가 사치품인 담배, 술, 자동차 등에는 특별소비세(Special Sales Tax)가 부과된다.

○ 요르단 주요 사치품의 특별소비세는 다음과 같다.

- 담배: 통합 개별 소비세는 20개비 담배 한 갑당 \$0.81이다. 추가로 담배 가격에 따라 개별 소비세가 더해진다. \$2.12 미만 가격의 담배는 20개비 한 갑당 \$0.77이 부과된다. \$4.59 이상의 가격의 담배는 20개비 한 갑당 \$1.86이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기기는 1밀리리터당 \$7.04이 부과되고 액상은 1밀리리터당 \$1.41이 부과된다. 비액상형 전자담배는 기기당 \$21.13이 부과된다.

- 주류: 맥주에 200%, 위스키에 180%, 진, 보드카, 리큐어에는 각각 200%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 자동차: 특별소비세는 차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된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14,100 이하 전기차에는 10%, \$14,100 초과에서 \$35,250 이하 전기차에는 40%, \$35,250를 초과하는 전기차에는 55%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전기차에는 별도의 관세가 없다. 하이브리드차에는 10%의 특별소비세와 50%의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합친 세율이 60%이다. 휘발유차의 경우, 특별소비세는 25%, 관세는 35%로, 두 세율을 합치면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총 60%가 부과된다.

[자료: 알후라, 알자지라, 로아뉴스, 요르단 소득/판매세부]

기타 세금

- (서비스세) 요르단의 주요 호텔, 식당 등에서는 일반판매세 이외에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장소에 따라 다르며 5%를 부과한다(2020년까지는 10% 부과).
- (지방세) 지방세는 거래물품 대금에 대해 0.3%(정부기관의 경우 0.6%)를 부과하는 인지세(stamp tax)와 건물의 예상 연간 임대 가격의 15%를 부과하는 부동산세로 나뉜다.
- (부동산양도세) 부동산 양도에는 등록비 5%와 부동산 판매세 4%가 부과된다. 참고로 요르단에서는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며 부동산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건물의 경우, 재산세율은 연간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는 월급과 수당 등 급여성 지불액에 대해 고용주에게 14.25%, 피고용인에게 7.5%의 세율로 부과된다. 고용주는 매월 이를 사회보장기관(SSC)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요르단에는 특정한 상속세, 재산세 또는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과세 여부는 납세자가 받는 대가의 종류와 해당 항목의 양도인과 수령인 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자료: 요르단타임스, 딜로이트컨설팅, PwC]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 요르단은 1972년에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2017년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가입함으로써 152번째 PCT 회원국이 되었다. 이에 PCT 절차를 통한 요르단의 국내단계 진입이 가능해졌다.

○ 요르단은 2001년 12월 1일부로 미국과의 FTA를 공식 발효하였고 2010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요르단은 중동지역에서 첫 번째이자 세계적으로는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특히 많은 법 조항이 규정되었다. 요르단은 FTA에 서명하면서 특히 제약 분야에서 더욱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을 약속하였다. 요르단에서는 제약분야 특허와 관련하여 공정특허(생산방법)와 상품특허(분자구조) 모두를 보호하고 있고 국제표준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단, 요르단은 지식재산권 법령은 구비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이 엄격하지 못하여 많은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은 거의 대부분 복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그 비율은 57%에 달한다.

○ 1953년에 처음으로 요르단 특허법이 제정된 이래 1999년 새 특허법에서 특허의 보호기간은 20년으로 연장되었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WTO/TRIPS)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다. 1999년 법에서는 특허 부여, 특허성 이외 조항, 특허권자의 권리 및 의무와 함께 특허 침해 시 특허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제재수단을 특허 및 디자인법(Patents and Design Law)에 의해 규정하였다. 해당 법은 2001년과 2007년에 개정되었다. 요르단은 출원주의를 채택했으며, 인정된 특허는 ①특허인정과 함께 등록비를 납부하고, ②매 4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으며, 특허권은 관보에 게재되어 제3자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경우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 요르단 상표법(Trademark Law)은 1952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2006년에는 '상품명법(the law for Trade Names)'이 제정되었다. 상표법과 유사하게 상품명법에서도 산업통상부의 등록담당 기관을 설정하고 해당 기관이 '상품명(Trade Names)'에 대하여 승인하고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의무를 진다. 출원주의, 관보게재, 이해관계자 이의제기 및 의장권 인정 등은 특허권 관련제도와 동일하다. 단,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서비스 관련 상표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르단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한 시민에 대한 물질적 보호 및 우대 조치의 내용을 포함하며 상표권을 침해한 상대방에 대한 민사 소송 제기기준을 낮추었다. 불법경쟁의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나,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한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 요르단의 현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은 영업비밀, 식물품종 및 반도체칩 설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요르단은 저작권, 특허 및 상표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작권과 출판권은 요르단 국립도서관에 등록하고, 특허와 상표는 요르단 산업통상부 내 특허 및 상표등록담당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1992년 발효된 요르단의 저작권법(Copyright Law No. 22)이 기본법으로서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 저작물 소유권이 보호된다. '1992년 제22호 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1999년 제22호 개정법 제31조'에 따라 저작물 보호기간은 저작물 공표일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공동저작물인 경우, 공저자 중 마지막 생존자가 사망한 이후 50년간 인정된다. 문화부의 저작물 발간 혹은 재발간 권고 이후 6개월 이내에 발간 또는 재발간이 없을 경우 문화부에서 소정액을 보상한 후 관련 저작물을 발간 또는 재발간할 수 있다.

○ '2003년 저작권보호법에 대한 개정법'에 따르면 저작자가 타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저작권은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인 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근로 중 사용자의 활동 및 작업에 관련하여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사용자의 경험, 정보, 도구, 장비 또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만들어낸 창작물은 별다른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저작권이 고용주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노고는 고려할 수 있다.

○ 2023년 8월 13일, 요르단은 신법인 '사이버범죄법(Cybercrime Law of 2023)'을 제정했다. 본 법의 제3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웹 사이트,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에 접근하여 그 일부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 게시, 손상, 전송, 복제하려는 자의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

의 징역과 600요르단디나르 이상 3,000요르단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요르단디나르 이상 15,000만 요르단디나르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7조에서는 ① 가해자가 그에게 부여된 지위, 업무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③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 경우 ④ 가해자가 외국이나 불법단체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배로 가중처벌됨을 명시하고 있다.

2) 지식재산권 관련 현지 업체

요르단 현지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생기면 현지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며 우리 기업이 이용 가능한 기업은 한국에 오피스를 두고 요르단 암만뿐만 아니라 중동 주요국에서도 각종 지적 재산권과 기업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Talal Abu Ghazaleh'(<https://www.tagorg.com/?lang=en>) 및 중동 최대의 로펌으로 요르단 암만에 오피스를 두고 한국 전담팀까지 꾸린 'Al Tamimi &Company' 등이 있다.

3) 최근 동향

요르단 시장에서 유통되는 영상, 소프트웨어 등의 상품 중에는 저작권 침해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최근 요르단 정부의 오디오, 비디오 및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행정조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2000-2016년 사이에 5,934건 이상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었으며, 2016년에만 317건의 지적재산권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어 월 평균 25건의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이 발생했다. 또한 2021년 10월 요르단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요르단 국경에서 세관원이 지켜야 할 검증 절차를 규정하는 내규를 제정하기도 했다.

한편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상표 등록이 69%, 특허 등록이 191%(54건 -> 15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요르단 법무부는 2023년 말까지 상표권 갱신 건수가 6,568건, 특허 갱신 건수가 613건, 상표 소유권 이전이나 합병 관련 거래 2,000건, 상표법정변경 관련 거래 1,41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과 달리 요르단 국민들의 높아져 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준다.

[자료: 미 국무부, 요르단 상표법, 현지 언론보도 종합]

9. 청산 및 철수

가. 청산 및 철수

안내문구

요르단 회사법에 따른 회사의 청산과 철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관련 법 및 절차

1) 관련 법령

○ 청산 및 철수 절차 관련 법령은 회사법(Company Law No.22)에 명시되어 있다 (<https://www.sdc.com.jo/english/images/stories/pdf/thecompanieslaw-eng.pdf>). 각기 설립 유형마다 청산 및 정산 절차가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비슷하며 정확한 정보는 회사법을 참고하여야 한다. 아래는 일반적인 청산 절차이다.

2) 청산의 종류

회사법(Company Law No.22)에서 드러나는 대표적 청산의 종류로는 자발적 청산과 강제적 청산이 있다.

- 자발적 청산: 공개 주식회사는 임시 총회에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청산을 결정할 수 있다. 아래는 자발적 청산의 경우이다.
 - 총회가 기간 연장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지정된 기간 만료한 경우
 - 회사가 설립된 목적의 달성, 소멸 또는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총회에서 회사 해산 또는 청산 결정을 내린 경우
 - 그 밖에 회사 정관에 규정된 경우
- 강제적 청산: 구속력 있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청산된다. 아래는 강제적 청산의 경우이다.
 - 회사가 법령 또는 협회의 규정에 중대한 위반을 범한 경우
 - 회사가 회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간 업무를 정지한 경우
 - 총회에서 증자 결정을 내리지 않고 회사의 손실이 납입자본금의 75%를 초과한 경우
 - 자발적 청산에서 강제적 청산으로 전환된 경우(청산인, 변호사,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요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

3) 법인 청산 관련 일반 절차

청산이 결정된 회사는 모든 서류와 서신의 회사명에 '청산 중'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자발적 청산의 경우 총회 결정이 발표된 날로부터, 강제적 청산의 경우 법원의 결정이 발표된 날부터 업무 수행을 중단한다. 법인격은 회사가 종료되고 해산될 때까지 청산인이 계속해서 대표한다.

- (첫 번째) 변호사 또는 회계사 대상으로 청산인 위임: 변호사 또는 회계사 대상으로 위임장 송부(Letter of Attorney)
- (두 번째) 위임장 공증 작업 실시: 현지 외교부 및 Ministry of Justice에서 동 위임장 공증 필요
- (세 번째) 예비 청산 증명서 발급(preliminary cancellation certificate): 기업관리국(Companies Control Department)에서 발급 실시
 - (네 번째) Drivers & Vehicles Licensing Department 관련 행정 처리: 동 부처 관련, 법인의 연관된 세금 등 청산 처리
 - (다섯 번째) 관세청 관련 행정 처리: 동 부처 관련, 법인의 연관된 세금 등 청산 처리
 - (여섯 번째) 건물 입주 임차 계약 해지: 법인 임차 건물 계약 해지
 - (일곱 번째) 사회보장기관(Social Security Corporation) 관련 행정 처리: 동 부처 관련, 법인의 연관된 세금 등 청산 처리

- (여덟 번째) 암만 시(Greater Amman Municipality) 관련 행정 처리: 동 부처 관련, 법인의 연관된 세금 등 청산 처리
- (아홉 번째) 무역명 등록(Trade Registration) 및 통상업무 관련 행정 처리: 산업통상공급부에서 법인의 연관된 세금 등 청산 처리
- (열 번째) 소득/판매세부(Income and Sales Tax Department) 관련 행정 처리: 동 부처 관련, 법인의 연관된 세금 등 청산 처리
- (열한 번째) 최종 청산 서류 발급: 기업관리국(Companies Control Department)에서 발급 실시
- (열두 번째) 은행 잔고 처리: 법인 은행 관련 잔고 수령 및 한국 송금 실시

4) 일반 법인(General Partnership) 청산 관련 체크 사항

- 법인 종료 : 법률에 따라 General Partnership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회사 영업을 종료할 수 있다.
 - 모든 파트너가 회사의 합병이나 청산에 동의할 경우
 - 파트너 간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 회사 창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 파산하였을 경우
 - 법원에 의한 강제 해산의 경우
 - 산업부 회사 담당자의 결정에 따른 회사 등록 취소의 경우
- 법인의 해산 :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따라 General Partnership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 특정 파트너가 파트너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파트너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
 - 회사 활동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손실로 나타날 경우
 - 회사의 손실이 막대하고 더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 파트너 간 불화로 인하여 영업 지속이 불가할 경우
 - 특정 파트너가 자신의 책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법인 청산
 - 법률에 명시된 이유에 따라 해산된 법인은 청산 절차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의 모든 자산은 청산 및 파트너 계약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 만약 청산 및 배분 내용이 파트너 계약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엔 법률에 따라서 진행된다.
 - 청산되는 법인은 청산에 필요한 최소 기준의 회사 직위를 청산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지한다.
- 청산인 임명
 - 파트너사 간의 합의에 의한 자발적인 청산의 경우, 청산인은 파트너들의 합의하에 임명이 된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청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청산인이 임명된다. 청산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관이 청산인을 지정하고 수수료를 결정한다.
- 청산인 역할
 - 청산인은 청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 최소 2개 이상의 지역 일간지에 청 시작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재하면서 청산을 실시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이 명시된 리스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파트너사 간의 권리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파트너들의 동의 또는 법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할 권한이 없다.
 - 청산인은 청산하고자 하는 회사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 청산인이 2명 이상 임명된 경우, 청산인 임명 결정 시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의견은 만장일치 또는 절대 다수결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다시 결정을 내린다.
 - 청산인은 청산 취소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해 총회 소집이 가능하다.
- 법인 해산 이후의 파트너 간 조정
 - 청산에 따른 이익 또는 손해를 파트너십 계약 및 합의 비율에 따라 파트너들에게 각각 배분해야 한다. 만약 파트너십 계약에 해당 비율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자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청산인의 의무

- 청산인은 각각 파트너들에게 최종 회계 장부를 제출해야 한다.
- 청산인은 자신이 청산인으로 임명된 것이 명시된 회계 장부를 산업부 기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청산인은 산업부 기업담당관에게 청산의 이유를 통보해야 하며 산업부 기업담당관에게 제출된 회계 장부는 청산 결정일로부터 1년이 넘어서는 안 된다.(산업부 기업담당관의 경우,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청산 중인 회사를 법원에 넘기거나 청산인이 해당 절차를 밟도록 한다. 또한, 산업부 기업담당관은 해당 법인의 청산을 관보 또는 지역 일간지에 공표한다.)
- 회사 종료시 청산인은 공식 신문과 최소 두 개 이상의 지역 일간지에 해산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14일 이내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산인은 위반일로부터 하루가 지날 때마다 10요르단디나르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5) 청산 비용 및 기간

- 법인의 규모와 청산의 복잡성(세금 문제 등)에 따라, 가격 산정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적정 기관의 청산 비용은 5,000JD~10,000JD(7,000불~1.4만 불) 정도 소요된다.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된다. 복잡하지 않은 일반적인 청산은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6) 청산시 주의사항

- 청산 절차가 시작된 지 1년 동안 청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청산인은 청산 세부 사항과 현재의 청산 단계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감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법원이 허가한 예외적인 강제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청산, 자발적청산 모두 청산기간을 3년을 넘길 수 없다.

- 청산인은 청산인의 보수를 포함한 청산 비용을 공제하고 다음 순서에 따라 회사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 ① 회사 직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 ② 국고 및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금액
- ③ 회사 설립을 위해 임대한 부동산 소유자의 임대료
- ④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기타 금액

- 청산 중 아래의 행위들은 금지된다

- ① 청산 중인 공개 주식회사의 재산 및 권리의 처분, 주식의 거래 및 소유권 이전
- ② 청산 중인 회사의 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의 의무 또는 회사에 대한 타인의 의무에 대한 변경
- ③ 회사 청산 결정이 내려진 후 회사의 재산 및 자산에 대한 압류 및 그러한 재산 또는 자산에 대한 기타 처분 또는 집행
- ④ 회사의 일부 채권자를 우대하기 위해 청산 중인 회사의 재산 및 재산을 양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 ⑤ 회사 청산 결정 3개월 전 모든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자금 및 자산에 대한 모든 모기지(Mortgage) 또는 보험 계약, 회사의 자금 및 자산에 대한 의무 또는 특권을 생성하는 기타 계약 또는 절차

[자료: 요르단 회사법]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특성

○ 요르단 경제는 협소한 시장, 취약한 산업기반, 부존 자원 부족으로 인해 GDP비중 중 서비스 생산이 약 67%, 상품 생산이 약 33%를 차지한다. 특히, 제조업 비중은 전체 GDP의 약 20%로 그 발달이 미비하며 식품, 의약품, 화학 제품, 의류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

○ 수입측면에서 요르단은 여타 중동국가와는 달리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이 거의 없어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과 주로 걸프만 국가에서 일하는 재외 국민의 본국송금에 의존한다. 요르단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바, ① 해외 거주 요르단인의 국내송금액(GDP의 약 10%), ② 관광수입(GDP의 약 12%), ③ 외국정부로부터의 무상원조(연 평균 20억 달러 내외)로 경상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요르단 중앙은행에 따르면 매년 전체 해외근로자의 국내 송금액은 약 35~40억 달러 규모로 GDP의 약 8~9%를 차지한다. 요르단은 세계 3위의 인산염(phosphate) 생산국이며, 탄산칼슘(potash) 매장량도 풍부하긴 하지만 이는 정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 외국정부로부터의 대외원조는 연평균 2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GDP의 4~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재정 지원의 주요 출처는 EU, 세계은행, 미국, 걸프개발기금, 메카기금 등이다. 요르단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회복 프로그램인 '2021-2023 경제 우선순위' 정책(총 6.8억 달러 규모)을 추진하면서 이중 약 3억 달러를 해외 원조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요르단 정부는 대외 원조 이외에도 IMF 확대신용공여, 유로본드 발행, EU-요르단 신규 대출 협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족한 수입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요르단 중앙은행은 최근 발표한 '2023-2025 전략 계획'을 통해 2023년 요르단 경제의 성장률이 2% 이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생산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중앙은행은 새롭게 '2023-2025 국가 전자결제 전략' 정책을 추진하며 핀테크 기술과 혁신을 통한 현금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달성하려 노력 중이다.

○ 지출측면에서 요르단 정부는 기초 식료품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인건비, 국방치안 및 공공채 이자비용, 공무원 연금 등 분야의 지출 비중이 크며, 이에 따라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19년에 GDP 대비 3.3% 수준이던 연간 재정 적자 규모는 2020년에 7.0%까지 떨어졌다. 단, 정부의 재정건전화 조치, 국제기구 및 우방국들의 원조와 지원, 그리고 경제상황 회복으로 인해 2022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5.2%를 기록하며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IMF, EIU 등]

나.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1) 요르단 자체 시장

○ 2024년 4월 20일 기준 요르단 통계청에서 발표한 요르단 인구는 약 1,158만 명이다. 또한, 2022년 요르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2.9%가 29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초 기준 요르단 국민의 평균 연령은 24.2세이며, IMF 기준 2023년 1인당 GDP는 약 4천 7백달러 수준으로 구매력은 낮은 편이다. 아래는 연령 구간별 인구 구성 비중이다.

- 19세 이하: 44.3%
- 20세 이상 ~ 29세 이하: 18.6%
- 30세 이상 ~ 39세 이하: 14.5%
- 40세 이상 ~ 49세 이하: 10.9%
- 50세 이상 ~ 59세 이하: 6.3%
- 60세 이상: 5.5%

○ 인구도 암만(42.0%)과 이르비드(18.5%), 자르카(14.3%) 등 3대 도시에 집중돼 있어 전국적 규모의 대단위 유통망 구축 및 발달은 낮은 편이다. 2024년 기준 전체 인구의 92.1%가 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종전 의식주 위주 소비행태에서 벗어나 자동차 및 최신 가전제품 구입, 여가, 의료 등으로 소비형태를 전환하고 있다. 특히 수도 암만의 경우는 인구의 16%의 부유층이 대부분 모여 살며, 이들은 전체 가구 소비의 약 30%를 소비한다.

○ 2024년 요르단 국민의 평균 연간 소득은 약 19,020요르단디나르이며, 하위 10% 소득과 상위 10% 소득은 각각 연 4,320요르단디나르, 84,580요르단디나르로 기록되었다. 전체 인구의 50%가 17,860요르단디나르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11,300요르단디나르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는 인구 수는 전체 비율의 25%를 차지했다. 반면 연평균 소득이 47,508요르단디나르인 인구 역시 25%이다. 즉, 요르단은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심하여 계층간 소비수준과 성향에 큰 차이가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다.

2) 요르단 주변 중계무역 시장

○ 요르단 자체 시장으로 놓고 보면 작은 소비 시장이지만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중계무역이 활발한 시장임을 고려할 때 더 큰 소비 시장으로 볼 수 있다. 간략히 설명하면, 최근 정세 불안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긴 했으나 북쪽의 시리아 및 그 주변국(터키, 레바논, 유럽 등), 서쪽의 이라크, 남쪽의 주요 걸프 국가 및 북아프리카를 잇는 주요 상업 동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카바-수에즈운하-베이루트까지의 해상 루트는 약 1달이 소모되나 아카바-시리아-레바논 육로 루트는 2~3일 소요되어 운송비용을 약 2~3배 가량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및 이라크 움카사르 항구의 물동량 적체 심화 등 요르단 아카바 항구를 활용한 이라크 진출의 필요성 존재한다. 아카바 항구는 2001년 특별 경제 구역(ASEZA)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라크로 수입되는 취급 수수료 75% 할인 등 다양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주변국 정세가 안정될 시 요르단의 중계 무역 시장으로서의 이점은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며 더 큰 소비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특히 시리아-요르단 공동자유구역은 과거 6년 넘게 폐쇄되어 오다가 2021년 12월 1일부터 재개되어 사업과 상업, 경제활동이 시작됐다. 시리아-요르단 공동자유구역은 상업 운동을 자극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서비스 부문을 활성화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시리아-요르단 공동자유구역이 재개장한 이후 2022년 상반기 동안 45,000톤의 상품(8,200만 달러 규모)이 약 1,950대의 운송 트럭으로 공동자유구역 내로 수입되었다. 수입된 주요 상품은 태양 에너지 패널, 식료품, 농업 및 건설 자재, 자동차 예비 부품이었으며 매일 약 70 대의 트럭이 요르단과 시리아 게이트를 통과했다.

○ 이라크와는 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져 왔으며, 2021년 3월부터 양국은 경제 및 상업 분야의 통합 촉진을 위해 이라크로 수출되는 요르단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2023년 3월, 양국은 요르단-이라크 국경 지대에 공동 경제-산업 단지(Economic City)를 건설한다는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 및 일정을 공식 발표했는데, 양국은 이미 2019년에 국경 지대에 공동 산업단지를 설립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24년 3월, 요르단 산업통상부는 공동 경제-산업 단지 프로젝트를 위해 외국기업 2개사가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다만, 2023년 11월부터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통과 선박에 대해 위협을 가하면서 전세계가 해운물류난을 겪게 되었으며 요르단도 동 사태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아카바 항을 기점으로 주변국을 연결하는 중계무역 물류에 비용이 상승하고, 또한 홍해 통과 선박 물류 규모가 줄어들면서 레반트 지역 물류 중심지로서의 요르단의 입지에도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다.

[자료: 요르단 통계청, 현지 언론 보도자료 등]

<자료원 : 2024년 5월 기준 요르단 통계청>

소비 성향

1) 구매력

○ 요르단의 1인당 GDP는 4,700달러 수준으로 시리아와 이집트를 제외한 주변 아랍 국가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매력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요르단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부유층의 소비 수준은 일반 국민의 약 5~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요르단 수도 암만 내에는 다수의 대형 쇼핑몰이 있으나, 이러한 쇼핑몰은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부 부유층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점차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요르단 통계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요르단 가구 중 약 14.8%의 한 달 가계수입은 416요르단디나르(약 586달러) 미만이다. 그 다음으로 전체 가구의 35.9%의 한 달 가계수입은 416~883요르단디나르(약 586~1,173달러)이다. 또한, 23.7%는 한 달 가계수입이 833~1,250요르단디나르(약 1,173~1,760달러)이며 13.2%의 한 달 가계수입은 1,250~1,666요르단디나르(약 1,760~2,347달러)이다. 나머지 5.9%는 한 달 가계수입이 1,666요르단디나르 이상이다. 따라서 요르단 가구 중 70% 이상은 한 달 가계수입이 1,700달러 미만이며 이는 제품 및 서비스 구매력과 직접 연관된다.

○ 또한 2017년에 발표된 요르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총 가계 소득을 가구 구성원 수로 나눈 1인당 소득의 경우 1,000요르단디나르 미만이 22.4%, 1,000~2,000요르단디나르가 35.1%, 2,000~3,000요르단디나르가 20.8%, 3,000~4,000요르단디나르가 9.2%, 4,000요르단디나르 이상이 12.5%였다. (2017년 이후 유사한 조사는 없었음)

○ 이처럼 요르단은 시장규모가 작고 타 중동국 대비 구매력이 높지 않아 제품 가격이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2024년 요르단 성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제품 브랜드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가격'을 꼽았을 만큼 요르단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다. 이에 따라 물류비가 낮고 각종 면세협정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인근 아랍국가 및 EU국 등의 수입 비중이 높다. 또한 원부자재 및 완성재 전반에 걸쳐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활발하다.

2) 주요 소비 성향

○ 2018년에 집계된 최신 요르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요르단 가구의 연간 지출 현황은 5,000요르단디나르 미만 지출이 7.1%, 5,000~10,000요르단디나르 39.4%, 10,000~15,000요르단디나르 27%, 15,000~20,000요르단디나르 13.4%, 20,000요르단디나르 이상 지출은 13.1%로 집계되었다. 이때 소비 지출이 15,000요르단디나르 이하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평균 가구 지출 비용은 13,665 요르단 디나르이며 이 중 35.7% 식품, 64.3%는 식품 이외의 물품 구매에 사용되었다. 식품 이외의 물품 가운데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전기, 가스, 물, 집 렌트 비용 등 생활 필수재로서 여기에 평균 2,520요르단디나르를 지출한다. 이외에 교통비(2,058요르단디나르), 교육 비용(581요르단디나르) 순이었으며 가장 지출이 적은 품목은 가전제품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암만 지역 가구의 연간 평균 지출 비용은 3,095요르단디나르이며, 자르카는 2,376요르단디나르 수준이었고, 가장 적은 지출을 기록한 지역은 1,730요르단디나르를 기록한 타필라 지역이었다. 식품 부분에서 가장 지출이 큰 품목은 고기류이며 그 다음은 담배류이다. 소비가 가장 적은 품목은 주류이다.

○ 요르단의 소비성향을 분석해보면 아직은 음식물, 전기, 가스, 물, 집 렌트 비용 등 생활과 직접 연관된 품목에 대한 지출이 많아 대다수 계층이 사치성 물품 등에 대해 지출을 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요르단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주요 지출은 전체 지출 가치의 32.7%를 차지하는 식료품에 있다. 의류 및 신발과 같은 비식품 상품은 총 지출의 4.1%만 차지한다. 또한 주택, 수도 및 전기에 대한 지출은 전체 지출의 23.6%, 교통비는 총 지출의 16.7%를 차지한다. 결론적으로 요르단의 주요 소비 지출은 총 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 음식, 물, 전기와 같은 필수 유틸리티 및 서비스에 사용된다.

○ 요르단에는 '이드 알-아드하'(이슬람력에 의거하여 매년 상이)라는 이슬람 명절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세일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요르단 소비자들의 주요 소비시즌으로도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요르단 소비자들은 유럽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그 예로, 암만 내 쇼핑몰에서 유럽에 기반한 의류 매장 및 레스토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요르단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유럽 제품 중심의 소비 성향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 최근 들어 대도시에는 대형 쇼핑몰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요르단의 주요 소비 유통 경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쇼핑몰을 고려해볼 때 향후 대형 쇼핑몰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르단 내 대형 쇼핑몰은 소비재만 판매하는 쇼핑몰과 식품 및 소비재(가전제품, 의류 등)를 동시에 판매하는 복합 매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전체 인구가 이러한 대형 유통 물을 이용하지는 않고 상류층 및 중산층에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는 현대적인 대형쇼핑센터와 재래시장이 공존하고 있으며 고소득 소비자들과 젊은 층은 주로 쇼핑센터를 선호하고 저소득층은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한다.

○ 한편 요르단은 「경제 현대화 비전」에 따라 2033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추진될 국가 전자 상거래 전략을 발표했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요르단 내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이 도입되고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최근 요르단에서 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향후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최근 소비시장 변화

○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및 통행금지 조치에 따라, 요르단 소비시장은 크게 위축되었다. 2020년 사업체 파산 비율이 약 15~20%에 달했으며, 이에 2021년 요르단 정부는 코로나 대응 및 경기부양 예산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와 재정 지원 협정 체결하여 IMF로부터 3.9억 달러 코로나19 긴급대응 사용 승인, 세계은행으로부터 1억6100만 달러 규모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요르단 중앙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약 7억 달러 대출을 실시하였다. 도소매(36.5%), 제조업(19.8%), 근로자 임금(43%) 분야가 대출 수혜 분야에 해당했다.

○ 이후 요르단은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에서 회복하기 시작하여 2021년 GDP는 전년 대비 2.2%, 2022년 GDP는 전년 대비 2.7% 성장했다.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상품 구매도 늘어, 2022년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요르단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IMF로부터 12억 달러 확대신용공여(EFF)를 승인받고,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3-2025 국가파트너십 협약(CPF)'을 세계은행과 체결하기도 했다.

○ 2024년 3월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110.61로 작년 대비 1.63%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는 물과 위생(Water and sanitation)이 7.34%, 개인 소지품(Personal effects)이 6.84%, 노동조합에 대한 기부금(Contribution to unions)이 5.86%, 담배(Tobacco and Cigarettes)가 5.37%, 임대료(Rents)가 4.12% 등으로 전년 대비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 2023년 10월에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요르단-이스라엘 간 물 공급협약 중단 가능성이 대두된 것도 물 부문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물 부족 현상 극복을 위해 현재 요르단 정부는 '2023-2040 국가 물 전략(National Water strategy)'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자료: 요르단 통계청, 요르단 중앙은행 등]

한국 상품 이미지

○ 요르단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중국산보단 비싸지만, 품질면에서는 유럽, 미국과 대비하여 경쟁력이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가전제품 분야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삼성, LG의 가전제품들은 전기 효율이 높고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강하여 인기가 높다. 요르단 휴대폰 시장은 연간 260만대(약 6.5억)가 판매되는 시장으로, 2023년 4월 Globalstats 자료에 따르면 요르단 스마트폰 브랜드별 점유율은 삼성 31.46%, 애플 22.28%, 화웨이 18.56%, 샤오미 6.44%, 테크노 5.4% 순이다. 2024년 3월 기준 요르단 스마트폰 시장의 브랜드별 점유율은 삼성 28.65%, 애플 19.96%, 화웨이 12.5%, 테크노 8.56%, 인피닉스 8.24%, 샤오미 7.38% 순이었다.

○ Focus2Move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요르단 차량 시장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총 34,995대가 판매되었다. 차량 브랜드별 판매 점유율에서는 2022년에 이어 도요타가 14,338대를(+5.3%) 판매하며 점유율 41.0%를 기록하였다. 2위는 한국의 기아차로 6,420대(+26.1%)를 판매했고 중국의 MG는 총 4,006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순위가 10계단 뛰어오른 3위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2022년 대비 약 1,000대가량 감소한 2,358대(-30.1%) 판매를 기록하며 4위를 기록했다.

○ 요르단 내에서의 전기 자동차의 수요는 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요르단 자유지역 투자자 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월 자르카 자

유무역지역에서만 전기차 4,777대가 통관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통관된 전체 자동차의 70%가 전기자동차였다. 한국은 2021년에 총 4,300만 달러 규모의 전기차량을 요르단에 수출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중국의 전기차 판매 수입이 2021년 총 3,500만 달러에서 2022년 총 3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은 요르단 전기차 수입대상국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요르단 자동차 유통망들이 비교적 저렴한 중국 전기차를 수입해옴과 동시에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자동차의 최대 20%에 달하는 보조금 부여)등으로 인해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다.

○ 이렇듯 전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은 주요 선진국 제품들과 비교할 때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것으로 현지에서 인식된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산 제품과 가격 경합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기도 한다. 일례로 태양광 패널, LED 조명장치, 광학·의료기기 제품, 전기차 등은 중국산 제품에 시장 점유율을 내주었다.

[자료: Globalstats, Focus2Move, 현지 보도자료 종합 및 KOTRA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요르단 바이어와 상거래 관행

- 일반적으로 상거래 시 바이어들 성향과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바이어들은 수입하고 있는 제품의 거래선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옵션 및 새로운 기회를 탐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 거래에서 첫인상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며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 현지에서 입소문은 중요한 판촉 방법이며 바이어는 현지에서의 평판조회를 통하여 특정 업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 기존에 요르단 바이어들은 일본, 유럽, 미국 등의 제품을 가장 고품질로 여기고 중국 제품을 저품질로 생각하며 한국 제품은 중간 수준이라고 여겼으나, 최근에는 한국 제품에 대한 평판 및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가성비 좋은 고품질의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 요르단 바이어들은 대부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의 국제 가격 수준(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 여러 원산지로부터의 가격 비교에 능한 편이다.
 - 요르단 바이어들은 이미 수입처가 있어도 새로운 공급기업으로부터의 옵션과 기회를 모색하는 경향이 강하다.
 - 요르단 바이어들은 대부분 영어로 유창하게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
 - 바이어들은 독점 대리점 계약을 약 1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선호하나 첫 번째 거래에서 가능한 독점적 에이전트를 주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같은 제품을 다른 상품명으로 두 명의 에이전트와 계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바이어들은 보통 기술, 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규모 TEST 주문을 통하여 사업 관계를 형성한다.
 - 바이어들은 인증서 보유 현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며, 수출입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부 인증이 필수적인 경우도 많아 다양한 종류의 인증서를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 거래 시 시장규모 및 구매력 등을 고려해 최소주문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간혹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소개비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커미셔너가 있으며 소개를 빌미로 커미션을 요청한다면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좋다.
 - 요르단 공식사회는 매우 깨끗한 편이기 때문에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
 - 요르단인들은 가족 중심적이어서 바이어와 친밀해지면 친구들을 통해 또 다른 바이어들을 소개받을 수도 있다.
 - 요르단의 경우 대리상 외 총판업자까지 에이전트 개념에 포함하며 'Jordan Law No 28 for 2001'의 5조에 따르면 미리 에이전트로 등록한 자만이 대리상법의 보호대상이 되고 동법 14조에서는 보상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중재합의는 불가하며 요르단 법원 관할 하에만 해결할 수 있다.
 - 현지 독점 판매 계약을 맺은 에이전트 교체의 경우(판매 부진 등의 사유),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사전 통보를 통해 에이전트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타사를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요르단 업계는 시장 특성상, 그 범위가 매우 좁은 편이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이 종료될 경우, 한국업체가 다른 에이전트를 물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으나 사전에 기존 에이전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물색하는 것이 현지 업계 관례상 바람직하다.

2) 대금 결제 관련 참고사항

- 거래를 위한 대금 결제 시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 거래 시 간혹 수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표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별도의 단서 조항이 있는 수표는 받지 말아야 한다.
 - 지불방법에서 요르단 바이어들은 T/T 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많고 미국, 유럽 등과 거래하는 방식인 L/C를 선호한다.
 - T/T 거래를 할 때는 공식적인 은행 송금보다는 West Union 등의 사설 exchange shop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요르단 에이전트들은 대부분 구매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일단 물건을 먼저 보내주면 현지 프로젝트 또는 현지에 판매한 후에 대금이

회수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국내기업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기업이 응할 경우, 현지에서 판매가 안 된다거나 프로젝트 발주처로부터 대금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바이어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기존 국내기업과 요르단 기업 간 신뢰를 쌓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런 형식의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자료: EMERiCs, KOTRA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 무릎 이상으로 올라가는 바지 혹은 치마, 가슴이 파인 상의 등 노출이 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야 하고, 호텔 밖을 가볍게 외출할 때도 과도한 노출은 삼가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반바지를 착용하고 조깅을 하는 예도 가끔 볼 수 있으나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며, 반바지를 입고 운동을 할 경우에는 실내 운동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국인들의 경우 복장에는 제한이 없으나,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일 경우에는 가급적 양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비공식적인 모임에는 자켓에 노타이도 무난하다. 요르단 비즈니스맨들은 업무 시 정장을 즐겨 입는 편이므로 요르단에서 미팅할 때는 가급적 정장을 입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사

○ 가벼운 아랍어를 구사하면 분위기를 더욱 좋게 할 수 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마르하반(marhaban, 안녕하세요.)'이나 '타샤라프나(tasharafna, 만나서 영광입니다.)'라고 인사한다. 헤어질 때는 '마앗살라마(ma'asalama, 평화가 함께하기를)'라고 말한다.

○ 요르단인들이 인사를 할 때는 악수를 한 후 오른쪽 뺨을 맞대고 다시 왼쪽 뺨을 맞대는데 오른쪽 뺨은 한 번, 왼쪽 뺨은 1~3회 맞대기도 한다. 뺨을 맞힐 때는 뽀뽀를 하듯이 입으로 소리를 낸다. 이러한 인사법은 친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는 대개 악수로만 끝나며, 조금 더 관계가 진전될 경우 아랍식 인사법을 사용해 보는 것도 서로 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의 하나이다. 단, 이러한 전통적인 인사법은 동성간(남성간 또는 여성간)의 인사법으로 친밀하지 않은 이성에게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전통적인 인사법은 차츰 줄고 있는 추세이다.

○ 무슬림들은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알라에게만 가능한 일이므로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다만 요르단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거나 상대방과 악수함과 동시에 살짝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방에 들어올 때나 소개받을 때에는 존경의 의미로서 서 있는 것이 예의이다.

○ 여성과 인사할 때는 여성이 먼저 인사 또는 악수를 권할 때만 가볍게 악수 등을 해야 하며, 여성이 악수를 권하지 않았으면 남성 쪽에서 악수를 청하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 여성을 지그시 쳐다보거나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삼가야 한다. 일부 보수적인 무슬림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우먼들이 악수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 때 악수를 거부하는 예도 있는데, 이는 종교상의 이념일 뿐 결례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무슬림들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나 악수를 할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큰 실례라고 여기는데, 이는 왼손이 사탄과 관련된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수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선물을 주고받을 때 등 좋은 일을 할 때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보통 무슬림들은 왼손을 화장실에서 용변 후 씻을 때, 신발을 닦을 때, 코를 풀 때 등 굵은 일에 사용한다.

○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착석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신발이다. 아랍인에게 있어 신발은 인생의 밑바닥을 상징하기 때문에 요르단인 바이어를 향해 신발 밑창을 보이는 행동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이라 하더라도 요르단 내에서 현지인의 집에 들어가거

나 베두인족 텐트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 미리 물어볼 필요가 있다. 신발을 옮길 때는 두 짝을 포개 채 왼손으로 든다.

3) 선물

- 아랍 지역에서 선물은 인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르단인의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할 시에는 반드시 선물을 들고 가야 한다. 빈 손으로 갈 경우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알본다고 생각해 오해를 살 수 있다.

- 요르단인이 집으로 초대할 시의 선물로는 주로 케이크, 과자, 꽃 등을 권유한다. 또한, 고가의 제품보다는 한국의 전통 건강식품이나 인삼차-전통 기념품 등 선물하면 매우 좋아한다. 단 술 또는 돼지고기가 가미된 식품(예: 돼지기름을 사용한 라면 등), 한국의 전통 탈 등은 금기시하므로 나누어 먹거나 선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르단에서의 한국제품의 성과를 감안할 때, 일부 VIP급 인사들에 대한 선물로서는 한국산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도 매우 유용한 선물의 하나이며, 한국의 전통보석함, 명함집, 도자기 등도 좋은 선물이다. 혹 향수 등 개인 취향의 제품을 선물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개인적인 취향을 확인하고 제품을 고르는 관심도 필요하다. 단, 이슬람은 우상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을 형상화한 조각, 인형, 인물화 등을 선물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경우 가끔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으나, 무슬림에게 술을 선물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약속

- 대체로 요르단인들의 시간관념은 느긋한 편이다. 한국 시간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약속시간에 늦게 오는 경우가 있으나 대개 늦더라도 약속 장소에는 반드시 나오므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약속시각이 되어 전화하면 5분 후에 도착한다고 해도 30~40분씩 더 지체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을 감안해 타이트하게 약속 시각을 잡기보다는 시간을 넉넉히 조절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 그러나 모든 요르단 사람들이 약속에 늦은 것은 아니므로 한국 측에서도 습관적으로 늦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약속을 잡을 때는 1~2주 전에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오후보다는 오전이 좋으며 목요일 오후 이후부터 토요일은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요르단의 주중 근무 시간은 일요일에 시작하여 목요일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에 끝나는 한국의 주중 근무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여 약속을 잡아야 한다.

- 중동 지역에서는 공동체적 약속과 신뢰가 가장 소중한 가치다.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외부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불신은 당연히 그만큼 강하며, 외부인과 거래할 때 시간을 두고 관찰하며 신뢰를 쌓는 과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중동에서 사업하려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그들의 기다림 전략에 익숙해져야 한다.

- 요르단의 경우 관공서와 은행, 그리고 대형 기업 등은 주 5일제를 시행하여 금요일과 토요일 휴무가 있으나, 민간 기업은 아직 목요일 오후 및 금요일 전일 휴무제를 시행(토요일 근무)하는 곳도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점차 금, 토요일 휴무제로 이동 중이다).

- 또한 라마단 금식 기간(매년 3~5월 중에 약 1개월 시행) 동안에는 주요 관공서 및 대부분의 은행, 기업이 단축 근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미리 업무시간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요르단 사람들 대부분이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으므로, 그들을 배려하여 약속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위주로 잡아야 한다. 라마단 기간에 요르단 바이어가 이프타르(일몰 후 식사)나 수후르(일출 전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표시이므로 되도록이면 거절 않고 참석해야 한다. 라마단 이후에는 이드 알 피트르(Eid al fitr)라는 대대적인 명절이 시작된다.

5) 식사

- 무슬림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먹거나 마시기 전에 '비스밀라(Bismillah,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말한다. 반드시 오른손으로 식사하여야 하며, 음식이 뜨겁다고 입으로 후후 불기 보다는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한다.

-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면 집으로 초대는 하지 않는다. 집에는 손님용 거실과 가족용 거실이 따로 분리돼 있으며 아주 친한 관계일 경

우에는 초대자의 전 가족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으로 초대를 받으면 '만사프'라 불리는 전통음식을 준비하는 예가 많은데, 이는 쥘 안남미를 쟁반 위에 깔고 그 위에 삶은 양고기를 얹은 후 잣과 아몬드를 뿌리고 '라반'(요구르트와 유사)을 부어 손으로 먹는 음식이다. 이 경우 손으로 먹는 것이 불편하면 스푼을 달라고 해 먹어도 되나, 손으로 식사해 보는 것도 서로 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만사프' 외에도 주로 병아리콩을 갈아 만든 소스인 '후무스'를 빵에 찍어 먹거나 '볼라' 샐러드를 곁들여 먹는다.

- 아랍식 식사는 빵과 함께 전체 요리가 먼저 나오고, 이어 주식이 나오고 과일과 차(혹은 아랍식 커피)가 순서대로 제공된다. 보통 차와 커피에 설탕을 넣어 마시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식사량은 대단히 많은 편이므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다. 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9~10시(아침), 3~4시(점심), 8~10시(저녁)로 조금 늦은 편이다. 보통 약속된 식사시간에 가면 약 1시간은 차를 마시며 환담을 하다가 식사가 시작되므로 사전에 간단한 요기를 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가정에서 식사할 때에는 손님과 가족 전체가 어울려 식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음식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므로, 식사량에 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거나 요구하는 것(특히 가정 방문 시)은 실례이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식사 자리에 집안의 남자들(특히 장남)이 함께하는 경우는 많으나 여자들은 동석하지 않는 것이 현지의 관습이므로, 여성 동석 권유는 자제해야 한다.

- 직접 요르단인을 초대해 식사할 경우에는 돼지고기, 개고기, 햄 등 금기 음식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패류 및 갑각류의 경우에는 이슬람 종파에 따라 금기시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식당과 식단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요르단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 방문자 접대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향을 확인한 후 전통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접대방법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식성이 서구화되어 이탈리아 레스토랑, 중국식당, 일본식당 등도 애용하는 요르단인이 많아지고 있다.

6) 문화적 금기사항

- 요르단은 헌법(2조)에서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고 있고, 전 국민의 97%가 무슬림일 정도로 이슬람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어 종교와 관련된 문화적 금기사항이 많다. 194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독자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했던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던 요르단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오랫동안 부족과 씨족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돼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가'보다는 '종교'가 앞서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금기사항은 주로 이슬람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거의 유사하며, 이는 민족 혹은 국가적 정통성보다는 종교적 정통성이 강한 인근 아랍 국가들도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종교적인 금기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구란의 구절을 곡해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선전 문구의 사용 및 알라를 모독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글씨나 문양 사용, 합법적인 결혼 이외의 남녀 간 성 접촉, 이슬람의 5대 의무(신앙고백, 예배, 회사, 금식, 성지순례)를 행할 때 이를 방해하는 행위, 이슬람식으로 도살하지 않은 고기, 술, 돼지고기 등을 나누어 먹거나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 그 밖의 문화적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정치 문제 등에 있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지속해서 대두하고 있으며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 및 Deal of Century 등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들로 인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요르단은 팔레스타인 계통이 전체 인구의 약 55~60%로 다수를 차지하는데 정부 관료는 본토 요르단인에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 팔레스타인인은 민간 비즈니스 분야에 진출한다.

- 2023년 10월에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요르단 내에서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을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요르단 바이어들이 보는 앞에서 해당 기업의 제품을 이용하거나 현지 매장을 들르는 것은 삼가는 편이 좋다. 이러한 류의 불매운동(BDS)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최근의 전쟁으로 인해 전보다 더욱 거세게 퍼지고 있는 추세이다.

- 요르단은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여, 국왕에 대한 비난 및 손가락 또는 물건으로 국왕의 사진을 가리키거나 비웃는 행위도 금기시된다. 또한 요르단 남성에게 여자 형제에 대해 묻는 것을 피해야 한다.

- 아랍 사람들에게는 옛날 사막의 유목민들이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새도록 떠들었던 '디완(diwan)'이라는 사랑방 문화가 남아있다. 요르단 바이어에게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지키기보다는 가벼운 대화를 통해 분위기를 먼저

부드럽게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7) 상담 시 유의사항

○ 요르단 현지에서 바이어와 상담을 할 경우, 바이어가 취하는 요르단 특유의 문화적인 행동과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대개 음료('차'와 '아랍식 커피', 여름에는 음료수도 제공)를 권하며 마시지 않겠다고 해도 무방하나 여러 번 권할 때는 선택 가능한 음료 중 하나를 선택해 주문하는 것이 예의이다.

- 상담장소는 대개 자신의 집무실을 이용하며, 자신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고 방문자들은 책상에 놓여있는 의자나 소파 등에 앉도록 권유한다.

- 상담 중에도 전화를 받거나 결재서류에 서명하는 등 일상적인 업무도 종종 병행하는데 접견 관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처음에는 비즈니스 그 자체보다는 날씨와 문화, 사회 등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요르단인들은 어려서부터 장사를 체득하기 때문에 주요 계약을 할 경우 자신의 말아들을 동석시킬 수 있다. 이를 관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무슬림이 약 97%를 차지하는 요르단에서 대부분의 요르단인들이 메카(카바신전) 방향으로 하루 5번의 예배를 드린다는 문화적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승낙의 표시로 '인사알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알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승낙의 여부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때 확증의 말을 거듭 요청하면 무슬림에게 있어 종교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요르단인들이 집으로 초대한다면 비즈니스 관계를 위해 거절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이어들은 때때로 매우 낮은 가격이나 매우 낮은 주문수량(MOQ)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최종 주문 조건에 다다르기 위한 유동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 바이어들은 제시한 조건을 타 경쟁업체에 제시해본 후 가장 경쟁력이 있을 때 오더한다.

[자료: KOTRA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3.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

○ Opensooq

사이트 주소	https://jo.opensooq.com/en
개요	Opensooq은 2008년에 요르단에서 스타트업으로 출발하여 2012년에 본격적으로 모바일 기반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다. 현재 Opensooq은 요르단, 사우디, 오만, 쿠웨이트, 이라크, 이집트, UAE, 터키, 리비아를 포함한 총 19개국에 지사를 두고 총 6천 5백만 명 이상의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아기용품 등 각종 상품의 거래뿐 아니라 부동산 구매/임대 서비스,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연간 Opensooq을 통해 판매되는 품목의 가치는 300억 달러가 넘는다. Opensooq은 프리미엄 목록, 상점, 배너 광고 등을 포함하여 판매자에게 다양한 광고 제품을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한다. 2021년 6월에는 사우디-요르단 투자 펀드로부터 2천 4백만 달러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Opensooq은 2008년에 설립되어 연 1천 7백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렸으며, 고용 규모는 요르단 법인 기준 200명이다. Opensooq은 향후 투자자금 조달을 통해 고용 규모를 약 600명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주요 판매 품목	자동차, 전자제품, 모바일기기, 의류, 아기용품, 부동산(주택, 건물 등), 식품, 교육 서비스, 구인/구직서비스, 도서류, 산업용 장비류 등
특징	요르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 중 하나로, 특히 자동차 섹션은 요르단 내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자동차 섹션에서는 판매자가 자동차와 관련한 세부적인 속성을 입력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제조사, 모델, 가격 등 여러 필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자동차 품목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Opensooq은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연락하고 협상할 수 있는 메시지 툴(Direct Message Tool)을 보유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와 쉽게 링크된다.

○ Carrefour Jordan

사이트 주소	https://www.carrefourjordan.com/mafjor/en/
개요	요르단 내 주요 도시(Amman, Zarqa, Irbid, Aqaba)에서 온라인 소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오프라인 까르푸(Carrefour) 매장과 연동하여 운영된다. 요르단의 까르푸 사업은 마지드 알 푸타임 요르단법인(Majid Al Futtaim Hypermarkets Jordan)에서 운영한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프랑스 다국적 소매 및 프랑스의 Massy에 본사를 둔 도매 회사인 Carrefour는 1960년 최초의 매장을 열었고, 2021년 기준 전세계 30개국 이상에 13,894개의 매장이 있다. 2022년 기준 요르단 내에는 53개의 매장이 있으며 약 400~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판매 품목	신선식품, 과일 및 채소, 주방도구, 아동용품, 전자기기,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기기 등을 주로 취급한다.
특징	25요르단디나르 이상 구매시 배달료는 무료이다. 까르푸 오프라인 특별 행사에서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 Talabat

사이트 주소	https://www.talabat.com/jordan
--------	---

개요	쿠웨이트에 본사를 둔 중동 최대 온라인 음식배달 플랫폼으로 전세계에서 6,000명 이상을 고용하며 연간 매출액은 15억 달러이다. 요르단 서비스는 Talabat Logistics & Online Management Co.에서 운영한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요르단에서의 서비스는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3년 기준 암만, 이르비드, 자르카, 아카바 등 4개 도시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종업원수는 약 350명이며 여러 배달원(Rider)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요르단의 Talabat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는 42% 증가했다.
주요 판매 품목	모든 종류의 레스토랑에서 요리된 음식을 주로 배달한다. 식료품 구매 대행 서비스도 지원한다.
특징	음식배달 분야 경쟁 어플리케이션으로는 SimSim, Caravan 등이 있으나 Talabat은 요르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기아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요르단의 총 7개 자선단체에 약 45,000달러를 기부했다.

○ Amazon Jordan

사이트 주소	https://www.amazon.com/Jordan/s?k=Jordan
개요	2017년 Amazon은 요르단 로컬 온라인 쇼핑 어플리케이션인 souq.com을 5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요르단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Amazon은 해당 인수를 통해 Souq.com의 백엔드와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인력을 확보했고, 고객들은 Amazon Jordan을 통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에서 아랍어로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7년에 설립되어 총 7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인원은 지속 증가 중이다. 매출 규모는 중동 전 지역 기준으로 약 1억 6천만 달러다.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가정용품, 가구, 화장품, 자동차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 전 분야를 20개 카테고리 나눈 50만 개 이상의 제품군을 취급한다.
특징	철저한 공급자 관리 및 무료 반품 보증 정책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으며, 기존 Souq.com이 보유하고 있던 온라인 지불, 배달 시 현금지불 옵션 등의 기능을 운영한다.

○ Smartbuy

사이트 주소	https://smartbuy-me.com/smartbuystore/ar
개요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요르단의 상거래 플랫폼으로 연간 천 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이용한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7년 요르단에서 설립되었으며 요르단 전역에 5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 중이다. 직원 수는 약 300명이다.
주요 판매 품목	해외 유명 가전브랜드(애플, 소니, 삼성 등)를 비롯한 여러 전자제품을 판매한다.
특징	모든 제품에 대해 구매 전 제품 테스트를 허용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 Cashbasha

사이트 주소	https://cashbasha.com/en-jo
개요	해외 온라인 쇼핑 구매대행 플랫폼으로 요르단,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 플랫폼은 고객이 직접 통관과 배송을 하지 않고 상품 대금을 한꺼번에 착불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4년에 설립되어 연간 약 500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고용인원 수는 확인 불가)
주요 판매 품목	해외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 일체를 취급한다.
특징	Cashbasha는 요르단으로 정식 수입되지 않는 제품들을 보다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고객들은 Cashbasha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 세계 최대 쇼핑 웹사이트인 Amazon, Ebay 등에 접속하여 제품 검색 및 통관/배송료가 포함된 총가격에 기반한 주문을 진행할 수 있다.

○ Jafar Shop

사이트 주소	http://www.jafarshop.com/
개요	집과 정원, 자동차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 및 도구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최초의 아랍 웹사이트이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를 통해 따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가능하다. 다만 아랍어만 지원된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7년 3명의 요르단 청년들에 의해 개설되어 현재 직원 6명을 두고 있는 소규모 스타트업 업체이다. 본사는 요르단 수도 암만의 King Abdullah street에 위치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Nama ventures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주요 판매 품목	톱, 공구나 가전제품 등과 같은 자동차, 주택 수리 및 유지와 관련된 10,000개 이상의 D.I.Y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특징	웹사이트 이용자들을 위해 주택 수리 등과 관련한 도구 사용 방법을 별도로 안내한다.

○ Nabteh

사이트 주소	https://nabteh.com/
개요	실내 식물 및 원예용품과 관련된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요르단의 플랫폼으로 아랍어와 영어 둘 다 지원한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9년 요르단에서 개인창업자에 의해 설립된 플랫폼이다. 정확한 사업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약 1~5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본사는 암만 7서클에 위치해 있다. 현재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신규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있다.
주요 판매 품목	주로 실내 원예용품과 관련된 제품(분무기, 화분, 플랜트 행거 등)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테리어 조화 등 인테리어와 관련된 소품도 존재한다. 2025년부터는 꽃, 화분 등을 추가 판매할 예정이다.
특징	소비자들을 위해 웹사이트에 식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법에 대한 블로그를 무료로 게시한다. 또한 친환경 생분해성 종이 포장재를 주로 사용한다. 제품 배달 시 수도 암만은 2.5요르단디나르, 그 외 지역은 3.5요르단디나르의 배송수수료를 요구한다.

○ Altibbi

사이트 주소	https://altibbi.com/
개요	MENA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창설된 최초의 원격 의료 플랫폼이다. 소비자에게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와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아랍어만 지원하며 플랫폼에 등록된 의사 수는 14만명이고, 연간 이용자 수는 2천만명 수준으로 요르단 내 어플리케이션 중 2024년 4월 기준 접속자 수 6위를 기록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8년 요르단 암만에서 설립되어 현재 182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본사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위치해 있으며 12개 기업으로부터 4,4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받아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판매 품목	의료 상담 서비스(한 달에 9.27요르단디나르, 한 주에 2.84요르디나르)
특징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의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규모 아랍어 웹사이트 중 하나인 mawdoo3와 계약을 맺어 의료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JorMall

사이트 주소	https://jormall.net/
개요	Central E-Commerce Company가 개발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으로, 아랍어와 영어 두 가지 언어로 서비스된다. 요르단의 공식 유통 업체를 통해 모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0년에 요르단에서 설립되었으며 고용인원은 약 100명이다. (매출규모는 파악 불가)
주요 판매 품목	전자 제품, 패션, 가정 및 주방도구, 건강 및 미용용품 등과 같은 다양한 품목의 제품을 제공한다.
특징	상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가정용 세정제, 아동용품, 관광기념품 등이 그 대상이다.

◦ Amman Cart

사이트 주소	https://www.ammancart.com/
개요	Amman Cart는 전자/가전제품 전문 온라인 B2C 판매 플랫폼으로 Netaq Amman For Electronic Marketing Company가 운영한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약 20명의 직원이 운영 중이다. 매출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주요 판매 품목	가전제품, 엔터테인먼트 기기, 생활용품, 도서, PC, 모바일기기,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미용품 등을 취급한다.
특징	삼성, LG, 파나소닉 등 요르단 수입 가전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에 대해 10센트의 배송료를 지원하고 48시간 내 배송을 보장한다. 고객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다이렉트 메신저를 운영하는 등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기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 Modanisa

사이트 주소	https://www.modanisa.com/en/
개요	현재 아랍 여성들이 의류를 구입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터키 최초의 국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다.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현재 140개국의 지사가 있으며 터키어,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바하사어 등 6개의 언어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650개 이상의 브랜드와 70,000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며 2018년 글로벌 플랫폼으로 “International Business Excellence” 상을 수상하였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1년에 런칭하였고 요르단에는 약 20여명 직원이 근무하는 지사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직원 수는 500명 이상이다. 요르단 지점의 매출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주요 판매 품목	여성의류, 아동의류, 가방, 신발, 악세서리, 화장품 등을 취급한다.
특징	여성복 및 아동복에 특화하여 운영된다. 특히 히잡(Hijab) 숄(Shawl)이나 아랍식 스카프(Scarf) 등 제품에 특화하여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어 젊은 무슬림 여성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 Time Center

사이트 주소	https://shop.timecenter.jo/
개요	국내외 40개 이상 브랜드의 시계를 판매하는 시계 판매 전문점 Time Center가 런칭한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1952년 요르단에서 설립된 Timer Center는 현재 요르단 내 29개의 매장이 있으며 15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요르단 내 멀티브랜드 부티크(multi-brand boutiques)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6개는 암만에 위치한다. 주요 취급 브랜드는 Continental, Tommy Hilfiger, Longines, Versace 등이다.
주요 판매 품목	남성용, 여성용 시계를 판매하며 장신구, 액세서리도 함께 취급한다.
특징	전자상거래 고객을 위해 A/S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이다. 배송비의 경우 주문한 품목의 무게, 치수 및 도착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LG전자 레반트 성공사례

○ LG전자의 레반트에서의 성공은 말 그대로 철저한 현장주의 정신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LG전자는 레반트 시장의 주력 시장인 이라크와 시리아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 그 어떤 경쟁사보다 우월한 지위를 구축했고, 따라서 현재의 시장 내 점유율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 그 첫 번째 성공 요인은, 남들보다 먼저 진입을 해 남들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점이다. 물론 현재는 상황이 다소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에서 아직 LG전자의 지위는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도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쌓아온 브랜드 투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를 위해서 제품에 대한 광고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CSR을 포함한 기업 홍보를 적극 해왔다.

○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최고의 파트너를 물색하고 그들과 긴 시간에 걸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레반트 지역에서 우리가 직접 법인을 영위하기란 대단히 힘들다. 따라서 현지 실정을 잘 알면서도 우리와 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실행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자금력과 정치력을 갖춘 업체를 파트너로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누가 그런 업체인지는 쉽게 알 수는 없다. 자금력이 있는 업체는 많아도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가 않다. 또한, 사업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금력이 부족해 사업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없는 업체도 부지기수다. 뿐만 아니라 정치력도 갖추고 있어서, 사업 외적인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방파제를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찾기는 어렵지만,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 세 번째 요인은 우리만의 유통을 확보하는 데 있다. 모든 사업의 첫걸음은 유통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그런 유통은 아무 물건이나 거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철저하게 신뢰관계가 형성된 거래선이 제공하는 제품을 믿고 자신들 상점 진열대에 올려놓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열정적으로 판매해줄 수 있는 유통의 확보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 이는 사업 파트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통에서도 결국은 파트너이자 거래선의 선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 네 번째 요인은 차별화된 제품의 출시이다. 차별화된 제품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제품을 알리는 데 있다. 알리는 대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소비자 와 유통이다.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광고이고, 이는 많은 돈이 필요하므로 그만큼 투자를 하고도 매출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제품들은 이 방식을 채택하고, 매출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이 방법 대신 유통망에 알리는 방식을 택한다. 유통망에 알리는 방식은 교육을 통해서 차근차근 다져 갈 수 있는데 LG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구사해 일거에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다.

○ 이를 통해 마침내 LG는 시장에서 가장 선호 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고 구매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다. LG 전자는 꾸준히 현지 시장에서 친화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사해에서 마라톤을 실시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요르단 주재 LG전자 레반트 법인장이 기고한 성공스토리는 KOTRA 해외시장뉴스 사이트(<http://news.kotr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 코오롱글로벌의 요르단 시장개척 성공사례

○ 요르단은 이슬람 부족사회 국가이다. 중동국가임에도 석유가 나지 않아 아직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원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2008년 코오롱글로벌은 한국 정부에서 원조하는 수도 암만 남부의 하수처리장 공사를 수주해서 요르단으로 왔다. 계약 후 선수금도 받고 사무실 개설까지 시작한 순탄했다. 그러나 막상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현장에 갔더니 주민이 와서 자기 부족영역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해서 안 된다며 반대를 했다.

○ 시작 전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은 다소 찝찝했지만 이런 일은 어디서나 존재하는 일이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음날 다시 현장에 나갔다. 그런데 이제는 다수가 몰려와 위협까지 해 더 이상 일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로부터 몇 달간 해당 부족과 대담 없는 협상이 계속됐다. 아랍에서는 현대까지도 씨족·부족중심으로 사회가 형성돼 있는데 부족장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상원의원직을 세습하고 장관직을 할당받고, 필요하면 수만 명의 부족민을 동원할 수도 있는 이런 부족의 강경한 민원에 요르단 국왕이 직접 만나서 설득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현장에 경찰을 파견해 공사를 강행하려고도 해보았지만, 부족의 반발 우려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었다.

○ 결국, 6개월 만에 현장을 포기하고 20km 하류의 민가가 없는 공단지대로 처리장 위치를 옮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단지대로 처리장을 옮겨서 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 공사를 우선 완료시키고, 옮긴 부지에 맞게 처리장을 재설계해 승인을 진행하던 중 튀니지에서 시작한 아랍 민주화 혁명, 일명 '자스민 혁명'이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정부를 차례로 넘어뜨리며 그 여파가 요르단까지 미쳤고, 다른 나라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각계각층에서 나름의 이권을 요구하며 시위가 계속됐다.

- 요르단 정부에서는 국민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임금인상, 물가안정 등 각종 혜택을 쏟아내고,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을 교체하는 개각을 수차례씩이나 단행하며 국민에게 새로운 정부의 이미지를 강화해 나갔고,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시리아까지 번진 아랍 민주화 혁명은 요르단에서는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처리장 승인서류가 개각의 소용돌이에서 맴돌고 있었다. 승인 서류가 4개 부처 장관 포함 최종 국무총리까지 승인을 받아야 완료되는데 개각이 돼 장관이 바뀌면 이미 사인받은 부처 장관의 것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서류에 실명이 적혀있기 때문에 바뀐 사람 이름이 적힌 그 서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 4개 부처 장관 전체 승인받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동안, 개각으로 계속 장관들이 바뀌니 해당 서류들도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고, 그렇게 1년이 넘게 걸려 마침내 국무총리 최종승인을 받아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원이 발생하고부터 착공하기까지 만만치 않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3) 한전 알카트라나 법인 성공사례

- 한국의 한전, 남부발전 및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을 통해 연간 373메가와트급 가스 복합 화력발전소 입찰을 수주, 완공해 운영하고 있다. 요르단 암만 남쪽 100km 지점에 건설되는 『요르단 알 카트라나 민자발전소』 건설에는 총 4억 4,500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한전 요르단 현지법인은 2012년부터 25년간 BOO(Build, Own Operate)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2억 2,500만 달러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지원하고 이 중 1억 2,500만 달러는 대출, 1억 달러는 대외채무 보증 방식으로 지원됐다. 이외 한전은 Islamic Development Bank, Proparco Bank(프랑스) 등 4개 은행으로부터 1억 2,500만 달러 등 총 3억 5,000만 달러를 Financing 하는 데 성공했다.

- 해당 발전소는 2010년 11월, 1차 가동, 2011년 초 2차 가동을 마쳤으며 2012년 2월 완공됐다. 우리나라 공기업(한전, 남부발전) 및 사기업(롯데건설)이 시행과 시공사로 나뉘어 컨소시엄 형식으로 참여해 12년 만에 해외발전소 건설 및 운영권을 따낸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동 발전소를 운영(O&M)하고 있는 남부발전은 발전소 현지 주민과의 상생과 사회공헌을 위해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 사업 등 활발한 CSR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 한전은 알 카트라나 발전소 수주에 이어 2012년 1월에는 600MW급 제3차 독립 민자발전소(IPP-3) 수주에 성공했다. 해당 발전소는 총 8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일본과 핀란드 기업도 지분 40%로 참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373MW 알 카트라나 가스복합 발전사업(IPP2)을 시작으로 573MW 암만 아시아 디젤 내연 발전사업(IPP3)도 건설 운영하고 있다. 푸제이즈 풍력발전이 2018년 말 상업 운전을 개시함에 따라, 한전은 요르단에서 전통 화력발전사업(가스복합+디젤 내연)과 친환경 신재생 발전사업(풍력)이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되었다.

4) KOTRA 사절단을 통한 바이어 확보 및 시장 진출한 중소기업 D사

- 젤리, 초콜릿, 사탕 등의 제과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D사는 KOTRA의 사절단 사업을 통해 현지 유통 업체와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한국에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은 돼지를 사용한 동물성 글루틴이 함유되어 있으나 D사는 제품 생산 시 식물성 글루틴을 사용하여 '할랄' 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슬람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중 제품에 비해 품질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 그러나, 요르단 소비자들의 빈약한 구매력으로 인해 요르단 시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D사의 요르단 시장 진출 시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이었다. 하지만 암만 무역관과 D사는 현지 바이어들에게 D사 제품의 건강하고 뛰어난 품질을 강조했으며 소비력이 강한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설정했다. 이에 D사는 사절단 사업에 참여한 현지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100,000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다른 제품보다 70% 이상 가격이 높음에도 인기 있는 주요 제과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5) 더페이스샵 성공 사례

- 더페이스샵은 지난 2006년 요르단 수도 암만에 매장을 오픈했다. 중동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요르단에 가장 먼저 진출에 성공한 후, 현재는 GCC(걸프협력회의)에 속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도 진출했다.

- 더페이스샵 매장은 요르단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자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소비자들이 방문하는 '메카몰'에 입점했는데,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저렴한 제품을 찾는 젊은 소비층과, 가격대는 높지만 기능이 좋은 제품을 찾는 중장년층의 구매 요구를 다 만족하게 할 수 있었다. 고가의 화장품이 상류층의 사치품으로 여겨지는 요르단에서 더페이스샵은 중저가 화장품 시장을 개척을 목표로 마케팅을 진행해 화장품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 특히 10대와 20대의 젊은 인구가 많은 요르단 시장 특성상, 젊은 소비층을 주 타깃층으로 하는 귀여운 디자인의 제품을 많이 판매했고, 현지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CC 크림과 'Eco friendly', 'Organic' 콘셉트의 마스크팩과 크림 제품들을 주력 상품으로 홍보했다. 이들 상품은 식물성 원재료를 사용해서 피부에 필요한 비타민을 제공하기에 피부에 자극이 없어서 아직 성장기인 10대 소녀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층을 더 확장시켰다. 더페이스샵의 성공 요인은 제품의 자연주의 이미지를 잘 부각시켰던 것을 꼽을 수 있다.

6) 셀트리온 성공 사례

○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복제약 제조업체인 셀트리온과 요르단 최대 글로벌 제약사인 히크마사는 KOTRA 암만 무역관의 지원을 받아 판권 계약을 함으로써 연 5억 달러 규모의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항체의약품 시장에 본격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해당 판권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히크마에 유방암 치료제 헤롭틴 바이오 복제약 2,500달러(1차분) 공급을 확정된 바 있다. 해당 건 공로로 히크마 담당이사는 KOTRA 암만 무역관의 추천을 받아 2010년 무역의 날 행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7) 국내 S사의 라면 진출 사례

○ 요르단에는 공식적으로 대형물에 국내 라면을 입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으며 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국내라면을 소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무역관의 도움을 받아 국내 S사가 매운 종류의 라면을 납품하기 시작하였으며 타지몰, 까르푸 등 요르단 현지 에 주요 매장에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해당 바이어는 다른 국내 제조사와도 라면 납품을 모색 중이다. 해당 기업의 성공 요인은 중동 입맛에 맞는 라면 소싱이 그 이유이다. 중동 사람들은 국물이 있는 라면보다는 매콤한 비빔 종류의 면을 선호하는데 그 입맛에 맞는 라면 납품이 해당 기업의 주된 성공 요인이라 볼 수 있다.

8) 대우건설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사업 진출 성공 사례

○ 한국이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한 원자력 시스템인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JRTR)를 통해 한국은 50년 만에 원자로 도입국에서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대우건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UAE 원전보다 더 빠르게 2009년 12월 4일에 요르단의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2010년 3월 30일에 요르단 원자력연구원 격인 JAEC(Jordan Atomic Energy Commission)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JRTR 건설사업은 지난 2010년 11월 기공식을 개최한 후 2016년 12월 준공식을 진행했다. 계약 공기를 준수하고 당초 계획한 성능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지체 보상금도 없이 우수한 준공을 한 건설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요르단 최초의 원자로 건설이 된 해당 사업은 요르단이 원자력 발전 도입을 앞두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한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로 계약금액만 2,000억 원 규모에 달했다. 요르단은 재원 대부분을 타 국가 원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요르단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총 재원의 절반 이상을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으로 충당했다.

○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시작한 지 반세기 만에 첫 원자력 시스템 일괄수출(원자로를 포함한 플랜트)이라는 개가를 쓰아 올렸으며 요르단에도 연구용 원자로는 우라늄 핵연료 시 생성되는 중성자를 활용해 물질의 구조연구, 신물질 개발, 의료용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핵연료 및 원자로 구조재 등 재료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조사 시험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해당 분야 발전에 큰 시작점이라 할 수 있었다.

9)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출 성공 사례

○ 첫 번째 성공 사례는 국내기업K사는 암만무역관에서 2019년 진행한 중고차 수출상담회를 통하여, 국내기업 카스타무역사와 요르단 바이어 A사의 상담을 주선되었다. 내수기업 K사는 최초 수출 2억 3,000불의 성약 달성을 하였는데, 2020년 코로나 19 바이러스 여파로 경남에 위치한 K사의 내수 및 수출이 어려움에 따라, 요르단 신규 바이어 B사를 발굴하여 3월 17일 화상상담을 지원을 통해 수출에 성공하였다. 요르단 내 중고차 수요 증가에 따라, 매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에 달성한 사례이며 비대면 상담이긴 했지만 현지에서 무역관의 지원함으로써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두 번째 성공 사례는 국내기업 J사로, 암만무역관에서는 국내기업 J사와 요르단 바이어의 계약 체결 및 에이전트 섭 협의를 위한 지원 실시하였다. 국내업체에서는 요르단 방문을 시도하였으나 코로나19 및 공항 폐쇄로 요르단 방문 포기. 요르단 방문이 무산됨에 따라, 무역관에서는 화상상담 본격 진행 및 5월 5억 4천 불 수출을 성약 달성하였다. 동 상담도 비대면 수단으로 진행되었지만 현지 무역관의 지원을 통하여 수출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10) 암만무역관 지사화 성공 사례

○ 국내기업 E사는 요르단 기업 Z사의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이라크 정부 선박 발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52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다. E사는 2018년부터 암만 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이용하고 있고, '19년 11월 요르단에서 개최한 이라크 재건 프로젝트 사절단 행사에 참가하여 바그다드 무역관과 협력하여 이라크 항만청 구매조달 담당자를 요르단으로 초청하여 프로젝트 진행 및 발주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하였다. 특히, 이라크의 정세 불안으로 주변국인 암만을 활용하여 이라크 진출을 모색한 것이 주요 성공 요인이다.

11) 남부발전의 풍력 분야 진출 성공 사례

○ 남부발전(KOSPO)은 2009년 알카트라나 가스복합 발전사업의 O&M(운영 및 정비) 사업자로 요르단에 첫발을 내딛었다. 알카트라나 가스복합 발전소 운영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다양한 CSR 활동을 추진하며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진출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후 남부발전은 2011년 요르단 광물자원부(MEMR)에 풍력발전 사업을 직접 제안했고, 2012년 5월에 요르단 광물자원부와 '타필라 지역 풍

력발전사업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요르단 신재생발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약 1년 6개월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요르단에 대한풍력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3월 요르단전력공사(NEPCO)와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6월 요르단 재무부와 정부보증계약(GGA, Government Guarante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2018년 10월 공사에 착공하여 풍력발전기 설치, 변전소 설치 등 순항 중이던 건설작업이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연 위기를 맞았으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2021년 7월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 요르단 풍력발전 사업은 한국남부발전 최초의 해외 풍력발전 사업으로서, 요르단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제안, 부지계약, 각종 인허가 승인 등 모든 프로세스를 현지법인인 대한풍력에서 직접 수행했다. 이로 인해 현지 기관들의 니즈 파악 및 대응을 보다 촘촘히 수행할 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기존에 축적된 사업개발·건설·운영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용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12) 현지 대형 하이퍼마켓을 대상으로한 공동 입점 성공 사례

○ 2022 국내 식품기업 12개사가 요르단 양대 하이퍼마켓인 Carrefour와 Cozmo 매장에 총 1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입점시켰다. 이 중 4개 기업은 이번 입점 성공으로 첫 해외 수출의 쾌거를 이뤘다. 국내 기업들의 현지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암만무역관은 13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요르단 유력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국내 제품 홍보를 추진했고, Carrefour 및 Cozmo에서 한국 식품 판촉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는 한편,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 식품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13) 바이어의 방한 지원을 통한 현지 소비재시장 수출 성공 사례

○ 암만무역관은 2022년과 2023년에 연중 소비재(화장품, 식품) 분야에서 현지 유통망 바이어의 신규 구매수요를 발굴하고, 구매수요에 맞는 국내기업을 발굴하여 국내기업-바이어 간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개별방한바이어 지원사업을 통해 바이어를 한국에 보내서 오프라인 상담을 추가 진행했다. 바이어는 이를 통해 국내 유명 화장품 업체 등 5곳과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했다.

○ 이후 암만무역관은 후속조치로 바이어로부터 추가 인콰이어리를 발굴하여 추가 온라인 상담을 실시한 결과, 바이어측은 국내 샴푸, 바디로션 등 제품을 총 21,000달러 주문하였고, 동 제품들은 요르단 암만에 신규 개장한 하이퍼마켓 Premier Supermarket에 입점에 성공했다.

[자료: KOTRA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나. 실패사례

○ 요르단 보건부의 해외제품 등록 지연으로 인한 수출 실패 사례

- 2021년 국내기업(C)사는 성형 의료기기의 요르단 수출을 위해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거래에 합의하였으나, 현지 인허가 기관인 요르단 보건부에 제품을 등록하는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긴 6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이에 바이어 측에서는 제품별 등록 지연으로 인한 행정비용 추가 발생을 이유로 최종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 우리 기업은 향후 현지 보건부에 제품 등록이 필요한 경우, KOTRA를 통해 현지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진행하여 현지진출에 수반되는 기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자료: KOTRA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단기출장/여행 비자

○ 한국과 요르단은 사증 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르단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를 받는 방법은 출국 전에 한국의 주한요르단대사관에서 받는 법과 요르단 도착 후 공항에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체류 기간이 길지 않다면 공항에서 받는 것이 더 편리하다.

○ 관광 목적의 경우 페트라 등 관광지 입장료가 포함된 요르단 패스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3박 4일 이상 체류할 경우, 요르단 패스를 사면 비자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요르단 패스 홈페이지에서 요르단 패스를 구입할 수 있으며(<https://jordanpass.jo>), Jordan Wanderer(비자 수수료 포함)는 70 요르단디나르(약 98달러), Jordan Explorer(비자 수수료 포함)는 75요르단디나르(약 105달러), Jordan Expert(비자 수수료 포함)는 80요르단디나르(약 112달러)이다. Jordan Wanderer, Jordan Explorer, Jordan Expert의 차이는 페트라 방문 가능 횟수이며 각각의 요르단 패스별로 페트라에 하루, 연속 2일, 연속 3일 입장이 가능하다.

○ 단, 3일 이상 체류시에만 입국 비자가 면제되며, 요르단에 입국한 날부터 한 달 이상 체류할 경우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또한 여러 아랍 국가들과 비슷하게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스탬프가 찍혀있을 경우 입국 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비자를 갱신하지 않고 체류한 경우 만료일 이후 1일당 1.5 요르단 디나르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 요르단은 비자 발급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종이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고, 전자 시스템을 완전히 도입했다. 전자 비자는 공식 홈페이지(<https://eservices.moi.gov.j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여권 정보 업로드, 비자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보통 며칠 내에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되며, 발급된 비자는 이메일로 수령할 수 있다.

2) 현지 발급

○ 암만 쿤 알리아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를 받기 전에 요르단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를 받는 절차는 아주 간단하다. 암만 공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곳은 입국 심사대 맞은편으로 'VISA'라는 안내판이 있다. 40요르단디나르로 도착비자 구입이 가능한데(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가능) 반드시 요르단 통화로 지불해야 하며 해당 비자로 요르단에서 1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환전은 수속장 내에 있는 환전소 또는 입국장을 나온 후 공항내 은행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 스탬프에는 'Contact The Nearest Police Station Within One Month'라는 문구가 같이 찍혀있는데, 이는 요르단에 한 달 이상 체류할 경우 비자 연장을 위해 한 달 이내에 경찰서를 찾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입국일로부터 한 달이 되는 시점부터 체류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 원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간단한 서류 작성 후 여권에 비자연장 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이때는 홍채/지문 등록 및 거주지 관련 정보(주소, 임대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도착 비자가 아닌 요르단 패스로 들어와서 1달을 연장하는 경우 40요르단디나르를 지불해야 한다. 한 달 이내에 요르단을 떠날 경우 경찰서를 찾아가갈 필요가 없다.

○ 이미 2개월을 연장하여 체류기간이 3개월인데 추가로 3개월을 더 체류하기 원하는 경우 요르단 국외로 나갔다가 재입국하거나 피검사 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요르단 공공안보부 산하 거주증 및 국경 관리국(Residence and Borders)을 방문하여 비자 연장 신청 서류(수수료 1요르단디나르, 약 1.4달러)를 접수한 뒤 보건소에서 피 검사를 한 후 2주 뒤 거주증 및 국경 관리국을 다시 방문하여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로 외국인의 거주증 발급을 위한 피검사 비용은 85요르단디나르(약 120달러)이다. 피검사를 위한 보건소는 "Chest Diseases &Immigrants Health Directorate"로, 소재지는 Wasfi Al Tal Street(Gardens Street) 인근이다. 이후에 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으며 출국한 뒤 재입국하여 해당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해당 비자는 단수비자로 출국 시 효력이 사라진다.

3) 한국에서 발급 방법

○ 출국 전에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여권 사진 2매, 여권 사본 1매, 비자 발급 신청서, 항공편을 지참하며 주한요르단대사관을 방문해야 한다(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 방문 가능). 단수비자(2개월) 78,300원 / 더블(2회) 비자(3개월) 113,100원 / 복수비자(6개월) 217,5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 또는 먼저 요르단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2주 가량 소요)하고, 승인 받은 이후 전자 신청 번호 및 비자 승인서, 비자 신청서, 여권 및 사본, 여권용 사진 2매, 항공권 및 숙박 예약서 사본, 비자 수수료(85,500원)를 지참하여 주한 요르단 대사관 방문하여 발급 신청한다. 비자 발급에는 대사관 신청 후 하루 정도가 소요된다.

* (참고) 요르단 전자 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전자 비자 포털 접속: 요르단 내무부 전자 비자 신청 포털(https://moi.gov.jo/EN/Pages/Visa_E_Applications)에 접속한다.
- 계정 생성: 처음 사용하는 경우 '회원 가입(Sign Up)' 또는 '계정 생성(Create Account)'을 선택하고, 이름, 이메일 주소,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하여 계정을 만든다. 보안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 로그인: 계정을 생성한 후,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한다.
- 비자 신청 시작: 로그인 후, '새로운 신청(New Application)' 또는 '비자 신청(Apply for Visa)' 섹션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비자의 종류를 선택하고, 국적(대한민국)을 포함한 기타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 비자 신청서 작성: 온라인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며, 여권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만료일, 여행 날짜(도착 및 출발일), 방문 목적(관광, 비즈니스 등),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입력한다. 모든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 필수 서류 업로드: 최근 여권용 사진(요구된 규격 및 형식에 맞게)과 여권의 생체 정보 페이지를 스캔하여 업로드한다. 서류는 JPEG 또는 PDF 형식이어야 하며, 포털에서 요구하는 크기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 신청서 검토: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한 후 진행한다.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 비자 수수료 납부: 신청서를 확인한 후 결제 섹션으로 이동하여 비자 수수료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한다. 단수비자는 40 요르단 디나르(약 56달러)부터 시작하며, 비자의 종류와 체류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결제 영수증을 저장하거나 인쇄해 참고용으로 보관한다.
- 신청서 제출: 결제 완료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이 검토 중임을 알리는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된다.
- 신청 상태 확인: 전자 비자 신청 처리 시간은 다양할 수 있으며, 계정에 로그인하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메일로도 상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전자 비자 승인: 비자가 승인되면 이메일로 전자 비자(e-Visa)가 발급되며, 이를 출력하여 여권과 함께 요르단 입국 시 제시해야 한다.

4) 기업투자 사증 발급 방법

○ 현재 요르단 기업투자사증의 정식 명칭은 Investment Residency for Corporate Owner, Partner, or through company(기업 오너, 파트너 및 가족을 위한 투자 영주권)이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요르단 내에 있어야 하고 여권 사본, 상업등기부등본, 자유 무역 구역에 등록된 회사에 대한 면허, 10,000요르단디나르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은행 서신 등 필요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한다. 현지 업체가 투자자 초청의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 한국 투자자는 사전에 요르단 현지업체 관계자와 연락해 요르단 측에 투자자 입국비자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 잠재적인 투자자 초빙을 위한 투자자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요르단 국적의 기업은 초대장, 요르단에 위치한 기업체의 등록 인증서, 잠재적 투자자의 여권 사본, 인적사항을 담은 양식 등의 서류를 지참해 요르단 투자청(Jordan Investment Board)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 또한, 외국 국적의 투자자들이 요르단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요르단 정부로부터 근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로 허가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다. 요르단 노동부만이 외국인 고용주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 허가증을 발급하는 유일한 발행처이며 외국인 노동자는 요르단에 반드시 입국하기 전, 요르단 노동부 장관이나 그의 대리인을 통해 근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로 허가증은 1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하지만 항상 소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로 허가증을 유효화하기 위해 은행이나 법원의 보증이 필요하

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합당한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요르단 거주증

○ 요르단의 거주증(이까마)은 요르단 대학교의 유학생, 기업 및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발급되며, 거주 목적이 불분명한 자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내무부에 신청해야 하고(4~5주 소요), 거주목적에 따라 신청서류가 달라진다. 이까마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관광비자는 1개월, 비자 연장은 2개월씩 가능)가 있으므로, 이때는 경찰서에 가서 계속 비자 연장을 해주어야 한다.

○ 체류 목적 및 소속 기관/기업에 따라 거주증 발급 요건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하며, medical certificate이 요구되는 경우 건강검진 항목별 결과에 따라 자격요건이 부합되지 않아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 요르단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체류 목적에 따른 거주증 신청이 가능하다.

* 웹사이트: https://moi.gov.jo/EN/Pages/Residence_Permits_E_Applications

○ 이까마 관련 공공기관은 14:00까지 운영하므로 빠른 절차를 위해서는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는 편이 좋으며, 라마단 기간의 정부부처 근무시간은 10:00~15:00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참고로 요르단대학교에는 정규과정 및 어학센터를 등록하는 자에 한해 요르단 내무부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발급을 도와준다. 2011년 9월 이후부터는 어학센터를 두 학기 이상 등록해야 이까마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 현재 요르단에서는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거주증(이까마) 또는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외국인인 요르단 내무부의 추방 대상자 목록에 등재된다. 이러한 경우, 기존에는 요르단 출국 시 벌금 납부를 통한 불법체류 기록 해소 및 재입국이 가능했으나, 현재에는 일정 유예기간 내 벌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불법체류 기록이 그대로 남게 되며 요르단 출국 후 재입국 또한 거부된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유의하여 이까마 갱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출입국 관련 사항

- 2023년 6월 15일부로 요르단 정부는 입국 관련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했다.
 - 출발 전 입국 정보 입력 및 QR코드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하는 의무 해제
 - 요르단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출발 전, 도착 후 코로나 19 진단검사는 면제. 단, 2022년 3월 27일부터 모든 공항 및 육로국경을 통한 입국자에 대해 무작위 PCR 검사를 실시하며 비용은 모두 요르단 정부가 부담
 - 요르단 내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의무 해제
 - 요르단 공항에서 환승하는 국제 환승객의 경우, 최종 기착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경우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 결과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환승시간은 무제한
 - 요르단 입국 시에는 출발국가에서 음성 PCR 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불필요
 - 입국 후 3일 이내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희망 시 보건소에서 무료 PCR검사가 가능
 -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절차 거부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최대 10,000요르단디나르(약 14,100달러)의 벌금 부과

○ 요르단 정부의 입국 관련 사항이 수시 변경될 수 있으니, 요르단 입국 절차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요르단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수시 확인하여 해당 조치를 꼼꼼히 숙지하여야 한다.

7) 요르단 입국시 반려동물 반입 희망시

○ 요르단 입국 시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의 반입이 가능하다. 반입을 위해서는 여권, 백신접종증명서(모든 필요한 접종 내역이 포함된 백신복), 건강증명서, 그리고 반입허가서를 준비해야 한다. 반입허가서는 요르단 농업부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10 요르단 디나르이다. 이 수수료는 온라인 결제가 아닌 요르단 현지에서 오프라인으로 납부해야 한다.

○ 반려동물은 최소 비행 30일 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개와 고양이 모두 광견병 백신을 포함한 주요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개와 고양이는 광견병 백신 접종 후 1년 이내에 요르단에 입국해야 하며, 2~3년 동안 유효한 광견병 백신이라 하더라도 1년 동안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는 요르단에 입국하기 최소 30일 전부터 1년 이내에 DHLPP 예방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고양이는 최소 30일 전에 FVRCP 예방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2024년 3월부터는 반려동물의 수입 및 수출 허가가 폐지되었으며, 대신 건강증명서를 통해 반려동물이 주요 질병으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반입은 한 종류당 최대 두 마리까지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요르단은 반려동물에 대해 마이크로칩 이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권장하고 있다.

[자료: 주요요르단한국대사관, 대한민국 외교부, 요르단 외교부, 요르단 농업부 등]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 2021년 자금세탁방지 및 대테러 금융법 20호(Anti 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t Financing Law No.20) 23조 A항에 따라 요르단 입국 시 14,100달러 (10,000JOD)를 초과하는 현금, 유가증권, 보석류 또는 귀중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쿤 알리아 국제공항 보안검색대 옆에 있는 세관으로 가서 신고해야 한다. 외화의 경우에는 입국 시 신고한다면 별도의 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여행객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요르단 세관 직원은 돈세탁 방지 규정의 시행 임무를 부여받은 당국과 협의하여 돈과 자산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압류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다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

○ 출국 시에는 요르단디나르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나 외화의 경우에는 반입하여 신고했을 당시의 금액만큼만 반출할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 셰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

○ 자금세탁방지 및 대테러 금융법에 따르면,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14,100달러 (10,000 JOD) 이상 소지한 여행자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에는 자금의 출처 및 목적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관 당국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최대 7근무일 이내에 공소기관에 통보된다. 공소기관은 최대 10근무일 이내에 압수된 자산의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 결정이 없을 경우 자산은 반환된다. 허위 또는 미신고된 경우,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이 없더라도 최소 10%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차 위반 시 벌금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다.

○ 요르단 세관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전자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여, 입·출국 전에 여행자가 전자 신고를 통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요르단 세관 공식 웹사이트(https://services.customs.gov.jo/Clean_money/login.aspx)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사용자는 '요르단인' 또는 '외국인'을 선택하여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전자 서비스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세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자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요르단 세관 공식 웹사이트 방문 후 현금 송금 신고 서비스 선택한다.
- 사용자 유형 선택: '요르단인' 또는 '외국인' 중 선택하여 양식을 진행한다.
- 전자 양식 작성: 개인 정보와 소지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필수 항목을 작성한다.
- 신고 제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전자적으로 신고 제출한다.

2) 휴대품 면세 한도

○ 여행자, 혹은 일반 승객이 200요르단디나르(약 282달러) 이하로서 상업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상품 또는 중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노트북, 휴대전화, 비디오카메라, 데스크톱 컴퓨터 등에 대해 각 1대씩 면제되는데,

이때에는 이미 사용한 증고물품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술(위스키, 와인 등)은 1병(1리터) 또는 맥주(330ml 기준) 6병/캔까지, 담배는 1보루(10갑, 200개피)까지, 향수는 개인 사용량 1병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 면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1층으로 내려와 수화물을 찾는다. 수화물을 찾은 후, 입국장을 나가기 전 모든 수화물은 엑스레이 투시기를 거쳐야 한다. 엑스레이 투시기 통과 후, 수화물이 많거나 의심스러운 짐을 갖고 입국하는 경우, 세관에서 별도 검사를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입국 인원의 10% 정도에 대해 임의 검색하며, 수상한 점이 포착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 세관원의 요청이 있으면 가방을 열어 세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간혹 샘플이 너무 많거나 고가품인 경우, 반입이 불허된다. 따라서 샘플은 가능한 여러 가방에 분산해 들고 오거나 별도 value가 낮은 인보이스를 준비해야 한다.

○ 세관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만일 세관원의 제지를 받게 된다면 16%의 판매세를 부담하고 반입해 요르단 국내에서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세관원이 요구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후, 임시로 반입하고 출국 시 반입한 물품을 그대로 갖고 나간다는 것을 확인받고 예치금을 돌려받는다.

○ 무기, 마약, 포르노 영상물, 도박용구, 동식물, 방사성 물질 등은 금지되며 최근에는 전기제품, 다량의 샘플 등에 대해서도 검사가 까다로워졌다. 무전기, 취재도구(카메라, 방송장비 등), 드론 장비는 사전 반입허가가 필요하다. 각종 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반입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 개인용 의약품만 허용되는데, 전문의약품은 영문으로 된 약품 내역 혹은 의사의 처방전을 함께 휴대하여야 한다. 또한 단기간 분의 약품은 반입 가능하며, 설령 장기체류자라 하더라도 (특히 요르단에서 구입가능한 약품일지라도) 수 개월 분 이상의 다량 반입은 불가하다.

○ 출·입국 시 마약 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 시 중형에 처한다. 특히 고가 다량의 샘플은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갖고 나가야 한다. 출국할 때는 보안검색 →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 → 출국 카운터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고 출국 심사를 받는다. 출국 면세점을 이용한 후, 해당 항공기 Gate 입구에서 다시 보안검색을 받게 된다. 별도의 출국신고서 작성은 없다.

[자료: 주요르단한국대사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Worldtravelguide]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요르단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962 6 593 0745~6
주소	Bahjat Al-Himsi St. No.7, Amman 11181, Jordan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o-ko/index.do
비고	대표 이메일: jordan@mofa.go.kr / 영사업무시간: 평일(일~목) 08:00~12:30, 13:30~16:00 / 비상 연락처: + 962 79 750 0358

○ KOICA 요르단 사무소

전화번호	+962 6 592 3463
주소	Prs. Basmah St. No.221, 2F, Amman, Jordan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oicajor/
비고	본사에서 파견된 2인을 포함한 총 10~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요르단 지상사회

전화번호	+962 6 5548 714~6
비고	2023년 기준 요르단 지상사회장은 LG전자 레반트법인장이며, 이외에 삼성전자 레반트법인, 한전 계열사 등 총 11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요르단 유학생회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groups/411404255570740/
비고	2023년 기준 가입자수는 약 60여명으로 장기 석박사 과정 학생, 단기(6개월 미만) 교환학생 등으로 구성된다. 주로 대사관 공지사항 및 한인회 행사 알림, 인턴 공고가 올라온다.

○ 요르단 한인열방교회

전화번호	+962 07 9777 4517
주소	Omar Ben Abdul Aziz St. 74, Amman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jordanallnationschurch
비고	대표 이메일: jordanallnationschurch@gmail.com

○ 요르단 한인교회

전화번호	+962 079 995 7062
주소	Tabasheer 6th St. No.8, Circle 7th, Amman Jordan
홈페이지	https://www.jokoch.org/
비고	대표 이메일: jokoch@hanmail.net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xpatriates(요르단 외교 및 재외국민부)

전화번호	+ 962 6 550 1444
주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Queen Alia Airport St 210, Amman
홈페이지	http://www.mfa.gov.jo
비고	요르단의 외교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 거주 중인 요르단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 기준 외교부 장관은 Dr. Ayman Hussein Abdullah Al Safadi이다. 24시간 핫라인 (080022278)을 운영 중이다.

○ Ministry of Interior(요르단 내무부)

전화번호	+ 962 6 569 1141
주소	Haroun Ar-Rashid St., Amman
홈페이지	http://www.moi.gov.jo/
비고	요르단의 전반적인 행정과 각 지역의 안보 및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비자 발급과 관련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24년 기준 내무부 장관은 Mazin Abdallah Hilal Al-Farrayeh이다.

○ Ministry of Finance(요르단 재무부)

전화번호	+962 6 222 1222
주소	Abdul Rahim Al-Waked street, Amman
홈페이지	https://www.mof.gov.jo
비고	정부 재정정책을 입안하고 투자를 시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2024년 기준 재무부 장관은 Mohammed Al-Issis이다. 24시간 핫라인(96264646516)을 운영 중이다.

○ Ministry of Justice (요르단 사법부)

전화번호	+962 6 460 3630
주소	Ministry of Justice, Jabal Amman, Third Circle – opposite to Ministry of Planning
홈페이지	https://www.moj.gov.jo
비고	2024년 기준 사법부 장관은Ahmed Ziyadat이다.

◦ Ministry of Political and Parliamentary Affairs (요르단 정무•의회부)

전화번호	+962 6 550 1200
주소	Wadi Saqra, Arar Street - Building 155
홈페이지	https://www.moppa.gov.jo
비고	요르단의 입법 절차를 수행하고 정당 및 협회들을 관리 감독하며 정치 현대화 시스템 프로젝트 등을 수행다. 2024년 기준 요르단 정무 · 의회부 장관은Haditha Jamal Haditha Alkhraisheh이다.

◦ Public Security Directorate (요르단 경찰청)

전화번호	196
주소	40, Ahmad Al Qutaishat, Amman
홈페이지	https://www.psd.gov.jo
비고	'2024~2026 PSD 전략 계획'을 추진 중이다. 2024년 기준 경찰청장은 Abeidallah Abedrabbuh Maaitah이다.

◦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Supply(요르단 산업통상공급부)

전화번호	+962 6 562 9030
주소	K. Hussein St. 34, Amman
홈페이지	https://www.mit.gov.jo
비고	1952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요르단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개인 사업자 등록 및 특허 등록 등과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2024년 기준 산업통상공급부 장관은 Yousef Mahmoud Al-Shamali이다.

◦ Ministry of Labor(요르단 노동부)

전화번호	+962 6 222 1020
주소	Ministry of Labour, Issa Al Naouri St 11, Amman
홈페이지	http://www.mol.gov.jo/

비고	요르단의 노동시장을 관리·감독 및 개발하여 요르단 국민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 기준 노동부 장관은 Nadiya Al-Rawabdeh 가 맡고 있다.
----	---

◦ Central Bank of Jordan(요르단 중앙은행)

전화번호	+962 6 463 0301
주소	Central Bank of Jordan, King Al Hussein St 60, Amman
홈페이지	http://www.cbj.gov.jo/
비고	요르단 통화의 발행 및 유통, 금 및 외화의 국가 준비금 관리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요르단 은행 환경의 안전을 유지하고 보장한다. 2024년 기준 Dr. Adel Al-Sharkas가 중앙은행장을 맡고 있다.

◦ Jordan Department of Statistics(요르단 통계청)

전화번호	+962 65 30 07 00
주소	30 Yajouz Rd, Jubeiha, Amman, JORDAN
홈페이지	http://dosweb.dos.gov.jo/
비고	인구조사, 연례 설문조사, 정기 조사 등을 통해 통계 데이터를 생성하고 요르단 내 민간 기관, 개인, 대사관의 수요에 따라 데이터를 배포한다.

◦ Jordan Customs(요르단 관세청)

전화번호	+962 6 462 3186
주소	Amman - Abdali - King Hussein Street - Next to the Central Bank of Jordan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v.jo/ar/index.aspx
비고	세관 서비스를 관할하는 부처로 2022년 1월에 관세시스템 개편을 전격 단행하여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최대 관세율을 기존 40%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2027년까지 단계적 적용) 2024년 1월부터는 수출입 전자 사전승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 Jordan Chamber of Commerce(요르단 상공회의소)

전화번호	+962 6 590 2040
주소	Prs. Basmah St. 218, Amman
홈페이지	http://www.jocc.org.jo/index_en.php
비고	1955년에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민간 및 공공 부문 기관과 협력하고 정부와 의회에 대해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Jordan Investment Commission(요르단 투자위원회)

전화번호	+962 6 560 8400
주소	Fifth Circle Musa Bin Nusir Street
홈페이지	http://www.jic.gov.jo/
비고	요르단 투자 위원회는 투자 촉진법이 도입된 해인 2014년에 설립되었고 요르단의 투자관련 모든 업무를 관장했다.

◦ Jordan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JSMO, 요르단 표준계량원)

전화번호	+962 6 500 8080
주소	Dabouq area, #50 Khair Al-Din Al-Ma ani St-(previous yathreb St), Amman
홈페이지	http://www.jsmo.gov.jo/en/Pages/default.aspx
비고	대표 이메일: JSMO@JSMO.GOV.JO

◦ The Jordan Times(요르단 타임즈)

전화번호	+962 6 560 0800
주소	Queen Rania Street, Amman
홈페이지	https://www.jordantimes.com
비고	요르단의 대표 영자 일간지이다. advertise@jordantimes.com을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 Petra News(페트라 뉴스)

전화번호	+962 6 560 9700
주소	Jamal Abdel-Naser Circle, Amman
홈페이지	http://www.petra.gov.jo/Include/Main.jsp?lang=ar
비고	대표 이메일: petra@petra.gov.jo

◦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

전화번호	+962 6 580 3060
주소	Abelrahim Alhaj mohammed ST - Building no.44
홈페이지	https://www.memr.gov.jo/
비고	에너지 관련 정부 부처로, 국내기업 참여가 가능한 중대형 프로젝트를 관장한다.

◦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Entrepreneurship(요르단 디지털경제및창업부)

전화번호	+962 6 580 5700
주소	Entrepreneurship 8th Circle Bayader Wadi Al Seer
홈페이지	https://www.modde.gov.jo/Default/En
비고	기존 정보통신부가 개편되어 탄생한 부처로 디지털 경제, 전자정부 등의 사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이다.

◦ Amman Chamber of Industry(암만공업회의소)

전화번호	+962 6 464 3001
주소	Amman Chamber of Industry, Al Kulliyah Al Elmiyah Al Eslamiyah St 33, Amman
홈페이지	http://www.aci.org.jo/
비고	요르단 내 주요 산업을 다루는 협단체이다.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708 JOD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3.530
2	식품	비빔밥	1인분	9.180
3	식품	냉동삼겹살	1kg	11.30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06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Grande)	3.670
6	음료	생수(마트, 최저가)	500ml	0.27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1.125L	0.850
8	의료	항생제	12정	2.820
9	교통	BRT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780
10	교통	JETT 버스(시외 관광버스) 요금	기본요금	14.11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0.55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1.3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octane 95)	1L	1.56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28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1.290
16	여가	담배	1갑	3.500
17	생활	샴푸 (최저가)	600ml	2.82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월)	367.23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 9-12학년 수업료	연간	25000.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6.750
21	식품	쌀	4kg	7.330
22	식품	식빵	한묶음	2.120
23	식품	쇠고기	1kg(브라질산)	13.300
24	식품	계란	30구	4.450
25	식품	우유	1L	1.690

26	식품	식용유	1.5L	2.640
27	주거	전기요금	1kWh	0.100
28	주거	수도세	m ³	1.400
29	주거	가스비	m ³	30.900
30	의료	의료보험료(1인)	월	250.000
31	의료	진료비(일반내과)	초진, 보험X	50.000
32	차량	자동차등록비	2000cc 이상	243.800
33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	1kW/h	0.130
34	통신	휴대전화 요금(Prepaid)	월(60GB 기준)	18.360
35	교통	Uber 택시비	5km 주행 기준	4.200
36	통신	인터넷 사용료	1개월(1년 구독시)	35.310
37	서비스	OTT 구독료(Disney Plus)	1개월	7.040
38	서비스	OTT 구독료(Netflix)	1개월(최저옵션)	3.990
39	서비스	세탁소(드라이클리닝)	셔츠1벌	1.410
40	교통	Careem 택시비	5km 주행 기준	2.960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 화폐단위는 요르단 디나르(Jordanian Dinar)로 약칭은 JOD이다. 지폐로는 JD 1, 5, 10, 20, 50가 사용되고 있다. 주화로는 1, 5, 10, 25, 50 끼르쉬(Qirsh)가 있으며 100끼르쉬는 1요르단디나르와 동일하다.
- 다만 1끼르쉬 동전은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지불할 시에 끼르쉬의 일의 자리는 반올림하거나 내리는 것이 보통인데,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 측에 유리하도록 반올림하여 계산된다. 50끼르쉬는 누스 디나르, 25 끼르쉬는 루브으 디나르라고 불린다.
- 일부 아랍 국가에서 사용되는 화폐 단위인 디르함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환전방법

- 암만에는 환전소 점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환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주로 호텔 혹은 쇼핑몰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에서 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시중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환전소로는 Abu Sheikha Exchange, Alawneh Exchange, Al-Alami Exchange 등이 있다. 환전소에서 환전 시에는 여권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점포별 환율은 유사한 편이나, 2~3개 점포의 환율을 비교한 후 환전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은행 ATM 기계에서도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를 통해 요르단디나르 출금이 가능하나 약 3.5~5요르단디나르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일반 은행 환율은 1달러 기준 0.71요르단디나르 정도이며, 호텔이나 공항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나 이 경우 환전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신용카드 이용

- 신용카드는 그동안 통용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통해 마스터, 비자 등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신용이 구축된 후 발급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입국 후 즉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어려우며, 이는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신용카드는 우리나라처럼 암호를 4자리로 설정하며 SMS 내역도 송부받을 수 있고 전기세 및 수도세 등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 요르단 인구의 약 70%는 은행 계좌가 없으며 신용카드도 없다. 주로 현금을 사용하며 특히 규모가 작은 상점에서는 현금 이외의 결제 수단을 받지 않는 곳도 많다.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나. 교통

교통상황

- 요르단 고속도로 및 포장도로의 총 길이는 약 7,200km이다. 이는 1,115만 명에 달하는 요르단 각 인구당 0.65m에 해당된다. 고속도로 및 포장도로의 인구당 길이로 따졌을 때 요르단의 교통 인프라 세계 순위는 221위에 불과하다. 요르단 경찰청(PSD)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요르단에서는 총 100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총 3,511명에 달했다. 2021년 교통사고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2021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 평균 589.8명으로 이는 인구 10만명당 약 5.224명에 달하는 수치이다.

- 요르단의 교통 상황은 열악한 편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자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이 암만에 집중되어 있어 암만의 인구 밀집도가 높다.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암만 전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다. 또한, 차선의 구분이 거의 없으며 도로의 상태 역시 한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 요르단에서 차량은 우측통행하며, 일반차량 번호판은 백색, 영업용은 녹색, 정부 차량은 붉은색, 국제기구단은 파란색, 외교단은 노란색을 사용한다.

- 요르단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내 대중교통 수단은 택시이다. 시내버스는 탑승시까지 장시간을 대기하여야 하여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할 경우 공항 택시나 버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일반 택시나 우버, 카림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 교차로에 영국식 라운드어바우트(현지어로 ‘두아르’ 또는 ‘서클’)가 있다. 라운드어바우트는 왼쪽 차량에 진입 우선권이 주어진다. 일단 라운드어바우트에 진입하면 진입하려고 하는 차들보다 주행에 우선권이 있게 된다. 라운드어바우트에 진입한 후, 빠져나갈 때는 우회전 신호를 먼저 주어야 한다. 라운드어바우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동시 신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 2010년 이후 난민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늘어난 인구 대비 도로·대중교통 등 교통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도로 시설이 노후했고 운전자 인식이 낙후되어 사고 위험이 높다. 도심내 일반 도로는 물론 고속도로에도 차선이 보이지 않으며 역주행이나 차선 끼어들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고가도로 난간, 라운드어바우트 경계석 등에 대한 유지 보수가 전무하여 운전 시 주의가 요망된다. 요르단 운전자들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유튜브 시청, 왓츠앱 메시지 확인 및 전송 등) 빈번에 따라 사고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 항만 교통의 경우, 요르단은 해안선 길이가 총 26km밖에 되지 않으며, 주요 도시들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 항만 및 국내 교통의 발달 수준은 낮은 편이다. 국내의 항만은 남부 홍해에 면한 아카바 항이 유일하다. 1948년까지 요르단은 지중해에 하이라 항(지금은 이스라엘 영토)을 이용해왔으나,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후 홍해의 아카바 항을 새로운 항구로 개발했다. 아카바 항은 이란-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이라크로 들어가는 물자 수송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1994년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지중해와 내륙국가를 잇는 요충지로 발돋움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자료: Worlddate,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버스

1) 시내버스

- 시내버스가 운행되긴 하나 노선이 굉장히 제한적이며 버스 운행 대수도 적은 편이다. 버스 노선 및 배차와 관련된 정보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다. 사용되는 차량은 20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버스로 우리나라의 일반 시내버스와는 상이하다. 차량 노선이 아랍어로 간략하게 차량 외부에 적혀 있어 외국인이 승차하기 용이하지 않다. 요금은 0.5 요르단 디나르 안팎으로 노선에 따라 다르다.

- 단, Bus Amman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버스카드 잔액 조회, 버스 정류소 조회, 버스 노선 조회, 버스 위치 조회 등이 가능하다. 시내버스 이용 희망 시 해당 앱을 통해 이용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앱 내의 언어는 영어로 통일되어 있다.

2) 시외버스

- 요르단의 고속관광버스인 JETT 버스의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JETT 버스 관련 정보는 <https://www.jett.com.j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외버스는 JETT 버스를 이용한다. 제라쉬, 사해, 아카바, 마다바, 느보산, 와디럼, 페트라 등 주요 관광지는 10~30 요르단

디나르로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예약도 가능하여 위에 기재되어 있는 서버로 접속하여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외버스 안에는 승무원도 있어 커피 및 간단한 샌드위치도 구입할 수 있으며, 일부 버스는 내부 화장실도 구비하고 있다.

3) 시내 고속버스 시스템(BRT)

○ 현재 암만시에서는 고속버스 시스템(The Bus Rapid Transit)을 운영 중인데 2024년 기준 BRT 노선은 총 32km의 주요 노선 2개로 구성된다. 1호선은 알 마하타 터미널부터 스웨일레 터미널까지 15km에 달하는 노선이다. 2호선은 스웨일레 터미널에서 요르단 박물관까지 17km를 운행한다. 현재 5분 간격으로 96대의 대형 버스가 배치되어 있고 특정 정거장에서만 탑승 및 하차가 가능하다.

○ 요르단 교통부는 암만과 자르카를 오가는 BRT 노선 구축을 추진 중이다. 총 예산으로 2억1300만 요르단디나르(쿠웨이트 보조금 포함)가 소요되는 동 프로젝트의 주요 노선은 알 마하타 터미널에서 자르카 역까지 19km에 달하는 특수 선로이며 중간에 마르카 역(Marka), 폴리틱 역(Polytanic), 루사이파 역(Rusaifa), 알 하시마이트(Al Hashemite) 군사 대학 역을 거친다.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택시

1) 택시 소개

○ 택시는 요르단에서 가장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대부분 노란색 차량이다. 택시 요금은 시간 거리 병산제가 적용되며 주간 기본요금은 35 끼르쉬이다. 암만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요금은 최대 4 요르단 디나르이다. 택시 내에는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 기사와 가격을 흥정하는 것보다는 미터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남성은 조수석부터 채워 앉으며 여성은 뒷자리에만 앉는다.

○ '세르비스'라고 불리는 흰색 셰어링 택시도 있다. 정해진 노선으로만 다니는 택시이며 가격은 주로 40~80끼르쉬이다. 대다수의 택시 차량의 상태는 열악한 편이며 일부 택시 기사는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내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터기를 일부러 끄고 주행한 후 도착지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탑승 후에 반드시 미터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미터기가 작동하지 않는 택시인 경우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편 최근에는 우버(Uber), 카림(Careem) 등 카셰어링 서비스(유사 택시업)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부 사항은 아래 '기타 교통수단' 파트를 참조)

2) 공항-시내 이동

○ 공항에서 시내 방향으로 택시를 탈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항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요금은 20요르단디나르 내외이며, 목적지마다 요금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흥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시내에서 공항으로 갈 때는 보통 일반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택시기사와 흥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18~25 요르단 디나르를 지급한다. 참고로 우버, 카림의 경우 택시기사와 흥정할 필요가 없이 거리에 따라 요금이 계산된다.

○ 공항 택시는 공항 내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릴 수 있으나 일반택시는 승객을 기다리기 위한 정차가 허락되지 않는다. 공항 택시 승차장은 입국장 바로 앞에 있다. 우버(Uber), 카림(Careem) 등 카셰어링 서비스 차량은 공항에서 대기할 수 없다.

○ 공항에서 암만 시내로 들어가는 셔틀버스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오후 6시부터 오전 00시까지 60분 간격으로 출발한다. 요금은 4 요르단디나르이며 노란색 차체에 Sariyah라고 쓰여진 버스를 타면 되며 암만 시내의 North Bus Station이 종착지이다.

3) 콜택시

○ 요르단에는 Al Moumayaz(알무마이즈‘특별한’, ‘차별화된’ 이란 뜻의 아랍어)라는 일종의 모범 콜택시가 있는데 24시간 운행하며 통상 출발 1시간 전에 부르면 약속 장소로 차가 온다(전화: +962 6 579 9999).

○ 일반택시보다 요금은 30% 정도 비싸지만, 승차 거부와 요금을 속이는 행위로 만연된 기존 택시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근부터 운행되고 있다. 최고의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며 차량마다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으며 영수증도 발행한다.

○ 차종은 최신 모델의 도요타와 메르세데스 벤츠이며 도요타의 경우 주간에는 기본요금이 0.58 요르단 디나르(약 1,020원)이다. 심야 시간(2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본요금은 0.70 요르단 디나르(약 1,240원)이며 53m마다 0.01요르단 디나르(약 18원)이 할증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주간에는 기본요금이 1 요르단 디나르이고 심야시간은 1.2 요르단디나르(약 2,100원)이며 26m마다 0.01 요르단 디나르가 할증된다.

[자료: QAIA 웹사이트,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기타 교통수단

1) 글로벌 카셰어링 서비스

○ 글로벌 카셰어링 서비스인 우버(Uber)와 중동 카셰어링 서비스인 카림(Careem)이 있다. 일반 택시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으나 차량 상태 및 서비스 부분에서 택시와 큰 차이가 있다. 기본요금은 1.5 요르단 디나르이며 손쉽게 원하는 위치에서 픽업 및 하차가 가능하다. 현지인들도 주로 애용하고 있다. Google Play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 및 다운로드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앱으로 신용카드를 추가하면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나 대개 현금 결제를 하는 편이다. 이들 앱을 이용하면 도착지까지의 예상요금을 미리 알 수 있고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우버, 카림 택시가 일반 요르단 택시보다 청결한 편이며 내부 관리가 잘 되어 있다.

2) 렌터카

○ 요르단에서 외국인이 차량을 렌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국제면허증(한국 면허증으로는 렌트 불가), 여권 사본 그리고 예치금 250 요르단디나르(약 350달러 정도) 또는 신용카드가 있어야 한다. 요르단에서 렌트한 차량은 시리아, 이스라엘 등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 주요 렌트카 회사로는 AVIS Jordan(www.avis.com.jo), Hertz Jordan(www.hertzjordan.com) 등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약 및 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3) 지하철 및 기차

○ 요르단 현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 지하철 및 기차는 전무하다. 국내 이동 시 차량 또는 비행기(아카바만 해당)가 유일한 이동수단이다.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다. 통신

핸드폰

○ 요르단의 핸드폰 통신사는 Orange, Zain, Unmiah이며, 이 세 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가정용 전화기를 사용하는 가구 수는 적은 편이다.

- Orange: 26개국에 있는 프랑스 Orange group의 자회사 중 하나이다. 무선통신 관련 사후지불(Postpaid) 최저 상품은 40GB 제공하는 'Orange 15'로 첫 달 제외 월 가격은 19.66요르단디나르이다. 사전지불(Prepaid) 최저상품은 23GB를 제공하는 'Orange 8 Max'로 첫 달 제외 월 가격은 10.49요르단디나르이다.

- Zain: 쿠웨이트 통신기업인 KSCPG가 요르단에서 운영하는 브랜드로, 무선통신 사후지불(Postpaid) 상품 최저가격은 월당 10.88요르단디나르이다.

- Umniah: 요르단 민간 통신기업으로 바레인 Batelco사의 자회사이다. 상기 2개사보다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나, 요르단인들은 동사 서비스가 통화품질이나 A/S 등 여러 면에서 상기 2개사보다 뒤떨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Umniah의 무선통신 사전지불 상품 최저가격은 월당 1요르단디나르로 500MB만 제공한다.

* 가격은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함

o 통신업체 가입을 위해서는 간단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원하는 통신사의 대리점에 방문하여 USIM을 구입한 뒤 요금제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요금제는 한 달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슈퍼마켓이나 전자기기 판매점에서 통신사별 요금제 충전 카드를 구입하여 요금제를 갱신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리점 방문이 더 저렴하다. 통신 속도는 한국에 비해 느리지만,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o 각 통신사에서 운영중인 지점별로 가격 차이는 없다. 대개 공항 환전소에서 달러-요르단디나르 소액 환전 후 공항 출입구에 있는 3개 통신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심을 구매한다. 각 통신사별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하고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지불카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도 개통 가능하다.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인터넷(와이파이)

o 인터넷(와이파이) 서비스 역시 Orange, Zain, Umniah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가입 절차는 원하는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원하는 제품 및 요금제를 선택하고 가입하면 된다. 단 이 경우에도 신분증(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 Orange: 가정용 광통신(월 25요르단디나르 이상), 4G(월 13요르단디나르 이상), ADSL(월 13요르단디나르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 Zain: 가정용 광통신(월 25요르단디나르 이상), 4G(월 8 요르단디나르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 Umniah: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를 월 6.9요르단디나르부터 제공한다. 단 모든 서비스에 15개월 이상의 약정이 걸려 있다.

* 가격은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함

o 인터넷(와이파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1년, 혹은 2년 단위의 약정제가 있는데, 장기 체류 계획이라면 약정에 가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와이파이 역시 핸드폰과 동일하게 한 달 단위로 요금제를 갱신해야 하는데,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요금제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가정용 와이파이 공유기뿐만 아니라 포터블 공유기도 구매가 가능하다. 통신사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니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라. 관광명소

o 아카바(Aqaba)

도시명	Aqaba, Jordan
-----	---------------

명소소개	<p>암만 남쪽 365km에 위치한 요르단의 유일한 항구도시로 솔로몬 왕 시절 남방으로부터 각종 보석과 향품, 백단목 등을 수입한 항구이다. 1965년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영토교환을 통해 아카바 지역을 획득한 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제공항 및 호텔 건설을 추진하면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했다. 이는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도 등장한다. 특히 이곳은 겨울에도 평균 20도 내외의 따뜻한 수온을 가지고 있어 거의 1년 내내 해상 스포츠(낚시, 수영,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바닥이 유리인 유람선)를 즐길 수 있으며 근해에는 물이 깨끗하고 140여 조의 각종 산호림이 울창해 수중 다이버들이 즐겨 찾고 있다. 아카바의 해변 관광 자체는 무료이지만 해변 관광이 용이한 지역은 대부분 사유지이며 입장료와 운영시간은 beach club 별로 상이하다. 대표적인 beach club으로는 Berenice Beach Club과 Saraya beach club이 있다. 아카바 시내에 beach club 별로 셔틀버스를 운행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p>
-------------	---

○ 제라시(Jerash)

도시명	Jerash, Jordan
운영시간	하계: 06~18시/ 동계: 08~16시/ 4,5월: 08~17:30/ 라마단기간: 06:30 ~ 17:30
명소소개	<p>암만시 서북쪽 48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암만에서 자동차로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반나절 관광이 가능하다. 기원전 332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기초를 세운 도시로 SELEUCID 시리아 왕에 의해 발전됐고, 기원전 63년에 폼페이 로마 왕에 의해 수도로 사용됐다가 나중에 데카폴리스(10개 위성 도시 중의 하나)가 됐다. 기원후 1~2세기가 전성기였으며 6세기경에는 14개의 기독교 교회가 있었을 정도로 기독교가 융성했다. 1806년 독일인에 의해 발견돼 1902년부터 발굴이 시작됐다. 로마의 위성 도시로서는 전체가 원형 그대로 보존된 유일한 유적지로 알려져 있다. 여름에는 매우 무더우며 그늘이 없어 3~5월에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입장료는 10 요르단디나르(이까마 or 요르단대학교 학생증 소지 시 0.5 요르단디나르)이다. 제라쉬 내부와 제라쉬 고고학 박물관을 모두 둘러보는 데는 약 3시간이 소요된다. 운영시간은 계절, 월별로 상이하며 요르단패스 사용이 가능하다.</p>
비고	관련 웹사이트: https://international.visitjordan.com/Wheretogo/Jerash

○ 느보산 및 마다바(Mt. Nebo & Madaba)

도시명	마다바
주소	Madaba, Jordan
운영시간	06~18시
명소소개	<p>느보 산은 암만 남쪽 약 2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암만 시내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신명기 34장에 언급된 것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킨 후 이곳에서 120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기원후 6세기경의 모세 기념 교회가 남아있으며, 근처에는 당시에 모세가 물이 나오도록 했다는 모세의 샘이 있다. 모세 기념관 앞에는 뱀 모형의 모조 놋뱀 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역병이 돌 때, 이를 치료하는 데 쓰인 뱀 십자가를 상징한다. 입장료는 2 요르단 디나르이다.</p> <p>마다바는 암만 남쪽 32km 지점의 왕의 대로(King's Road)상에 위치한 도시이며 청동기 시대부터 형성됐던 도시로 74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폐허가 됐다가 19세기 초 카락 지방에서 약 2,000명의 기독교인이 이주함으로써 재개발됐는데 비잔틴 시대 모자이크가 다수 발견됐다. 또한 마다바는 요르단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이다. 특히 이곳에 있는 St. George 기념교회 바닥에는 AD 560년경에 만든 세계 최고 최대(25m X 50m)의 모자이크 지도가 있는데, 이는 천연돌 약 200만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색깔과 도형으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뿐 아니라 이집트 나일 강부 터 터키까지를 나타내는 성서지리학의 중요한 자료가 됐다. 이러한 마다바의 수 많은 모자이크 장식품과 예술품으로 인해 마다바는 '모자이크 도시'라고도 불린다.</p> <p>마다바 고고학 박물관 및 교회 입장료는 3요르단디나르이다. 마다바 고고학 공원 티켓(3요르단디나르)을 구입하면 마다바 고고학 박물관을 무료로 둘러볼 수 있다.</p>

○ 마인 온천(Main Hot Spring)

도시명	마인
주소	Main, Jordan
운영시간	09~21시
명소소개	사해 인근에 위치한 폭포 형태의 온천이다. 온천의 평균 수온은 약 56~60도이며 황염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도 수많은 방문객이 독특한 경험을 위해 방문하는 지역이다. 암만에서 남쪽으로 70km 지점, 사해 동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온천으로 특히 해저 150km 지점에 위치한 계곡의 현무암 사이에서 솟아 나와 낙하하는 폭포형태를 취한 온천이다. 온천의 평균 수온은 약 56~60도이며 황염이 다량 내포돼 피부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며, 예수 시대 당시 헤롯왕이 피부병 치료차 자주 이곳에서 목욕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도 수많은 방문객이 피부병 치료 또는 폭포가 돼 낙하하는 온수의 마사지를 받는 독특한 경험을 위해 많이 방문하고 있다. 암만에서 마인온천까지 차로 약 1시간이 소모되고 택시를 이용한다면 20요르단디나르 정도가 요구된다.
비고	전화: +962-5-324-5500 홈페이지: http://www.mainhotsprings.jo/

○ 다나 국립 공원(Dana Biosphere Reserve)

도시명	다나 생물 보호구역
주소	Dana 66666, Jordan
운영시간	예약별로 상이하다. (기본 8시 - 15시)

<p>명소소개</p>	<p>1989년 설립된 요르단에서 가장 큰 생물보호구역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온갖 생물종이 모여 있다. 총 800종의 식물종과 449종의 동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모래고양이, 시리아늑대, 황조롱이, 가시꼬리도마뱀 등 25종의 멸종위기종도 포함된다. 대지구대(Great Rift Valley) 표면을 따라 1500m고원부터 사막 평야까지 지형도 석회암, 사암, 화강암으로 다양하게 약 292km에 달하는 풍경이 펼쳐져 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뱀에 물렸다고 알려진 장소 부근이기도 하다.</p> <p>정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요 하이킹 코스는 총 4가지로 다나 마을 투어(dana village tour), 나와테프 트레일(nawatef trail), 와디 다투네 트레일(wadi dathneh trail), 동굴 트레일(the caves trail) 등이다. 입장료는 외국인 10요르단디나르, 이까마 소지자의 경우 5요르단디나르이고 가이드비용은 별도이다. 공식 홈페이지인 https://www.rscn.org.jo/booking?lang=en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주변숙소로는 4성급 호텔에 속하는 wild Jordan - RSCN과 Ecohotels가 있으며 국립공원 내 운영하는 다나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비용은 https://www.rscn.org.jo/uploaded_files/reservation/Dana%202024-1.pdf에서 찾을 수 있다.</p> <p>1) 다나 마을 투어(dana village tour) - 코스: 다나 게스트 하우스 - 계단식 정원 - 지역 공예 작업장 - 연중 내내 운영</p> <p>2) 나와테프 트레일(nawatef trail) - 코스: 알 바라(Al-Barrah) - 나와테프 지역(Nawatef Area)- 롯지(Lodge) 지역 - 연중 내내 운영, 가이드 필수 동반</p> <p>3) 와디 다투네 트레일(Wadi Dathneh) - 코스: 와디 다투네(Wadi Dathneh) - 오아시스 - 와디 알 하마라(Wadi al Hamra) - 페이난(Feynan) - 연중 내내 운영(라마단 기간 제외), 가이드 필수 동반</p> <p>4) 동굴 트레일(The caves trail) - 코스: 루마나 캠프장(Rummana) - 샤크 알 칼브(사암 지형) - 동굴 암자 - 3월 15일 ~ 10월 31일 운영</p>
<p>비고</p>	<p>전화: +962 6 461 6513 홈페이지: https://international.visitjordan.com/Wheretogo/DanaFeynan?tabId=147&experienceId=6#at</p>

◦ 사해(Dead Sea)

<p>도시명</p>	<p>사해</p>
<p>주소</p>	<p>Dead Sea Rd., Jordan</p>

<p>명소소개</p>	<p>지구 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알려진 사해는 암만 시내에서 자동차로 편도 약 40분가량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 사해의 염도는 일반 바닷물보다 5배 정도 높으며 사해 바닷물은 각종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병 및 류머티즘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1924년 사해 동남쪽에서 기원전 2500~2000년경의 유물이 발견돼 기원전 2000년까지는 주거지였으나 갑자기 폐허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서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의 사해에 잠겨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사해 남쪽 끝에는 롯의 아내로 유명한 소금 기둥이 많이 남아있다. 사해 근처에는 캠핀스키, 뫼벤픽 등의 고급 리조트 호텔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요르단의 대표 관광명소 중 한 곳이다.</p> <p>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를 의미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바다이던 곳이 막힌 후 바닷물의 유입이 없게 되자 소금의 농도가 매우 짙어지게 된 죽어버린 바다라고 할 수 있다. 암만 시내에서 자동차로 편도 약 40분이 소요돼 반나절 관광이 가능하다. 현재는 지구 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만큼 산소가 많은 지역이다. 사해는 길이 65km, 폭 16km의 규모로 해저 400m 지점에 위치하며 보통 바다보다 약 5~6배의 염도를 함유해 어떠한 생물도 생존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각종 유기물을 함유해 피부병 및 류머티즘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럽 등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사해 공공해변은 입장료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지만 유료로 운영되는 사해의 사유 해변과 편의시설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p>
<p>비고</p>	<p>관련 웹사이트: https://international.visitjordan.com/Wheretogo/The-Dead-Sea</p>

○ 요르단강 베다니(예수 세례터)(Bethany beyond the Jordan (Baptism Site))

<p>도시명</p>	<p>사해 주변</p>
<p>주소</p>	<p>Dead Sea Rd., Jordan</p>
<p>운영시간</p>	<p>08~17시/ 라마단기간: 06:30 ~ 17:30</p>
<p>명소소개</p>	<p>암만 남쪽 약 40km, 사해 동쪽 10km에 위치한 요단 강 동편 지역으로 성경상 2000년 전 세례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4~5세기경 비잔틴 시대 때의 유적이 발굴됐는데 세례를 베풀 때 사용하던 물 저장 탱크 및 교회터, 예수가 세례를 받았던 곳과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내용이 희랍어로 새겨진 모자이크 바닥 등이 발견됐다.</p> <p>2000년 3월 21일 교황 바오로 2세가 이곳을 방문해 정식으로 예수 세례지로 인정했다. 특히, 이곳은 예루살렘과 느보 산의 중간 지점으로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곳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10시부터 16시까지 매시간 30분과 정각에 입구에서 입장권을 12 요르단디나르에 구입하고 여행객 증명서와 안내 통역장비를 받고 버스로 세례터로 이동하며 세례터에서 약 1시간을 보내게 된다. 특히 여름에 파리가 들끓어 긴 소매 옷이 필요하다. 요르단패스 사용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p> <p>예수님 세례터와 성경상의 요단강(요르단 강)에는 물이 말라 없어서 새로운 물길을 내었고, 이스라엘(현지 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거부반응을 보이고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름)과의 국경 사이에 폭이 약 8m의 요단강 세례터가 있다.</p>
<p>비고</p>	<p>관련 웹사이트: https://www.baptismsite.com</p>

○ 암만 성채(Citadel of Amman)

<p>도시명</p>	<p>암만</p>
<p>주소</p>	<p>citadel, amman, jordan</p>
<p>운영시간</p>	<p>06~18시</p>

<p>명소소개</p>	<p>암만은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성경상 랍바암몬으로 BC 1200년경 암몬족의 수도였으며, 그 후 로마 시대에는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데카폴리스 중의 하나로 번창해 당시의 유적들이 남아있다. 특히 랍바암몬 시절, 이스라엘 왕 다윗은 유부녀인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총복이요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이곳 랍바암몬의 최전선으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다.</p> <p>6,000명 수용규모의 야외 원형극장이 AD 2세기에 건립돼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건축공법은 현대인 에게도 어려운 정교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터 안에는 헤롯왕이 헤라클레스에게 바친 신전 및 비잔틴 식 정문이 서 있고 물 저장탱크 및 성곽 그리고 교회의 잔해들이 남아있다. 시타델에서 요르단 구도시(다운타운)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이 경치는 요르단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하나로 꼽힌다. 입장료는 3 요르단디나르(약 5300원)이며 요르단 패스 소지 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 후 사설 가이드를 쓸 수 있으며, 가이드비는 별도이다.</p>
--------------------	--

○ 레인보우거리(Rainbow st)

<p>도시명</p>	<p>암만</p>
<p>주소</p>	<p>rainbow st, amman jordan</p>
<p>명소소개</p>	<p>기존 레인보우 거리의 거리명은 Abu Bakr al Siddiq Street로 역사적인 Jabal Amman지역의 거리였지만, 젊은 층의 관광객들이 늘고 화려하게 거리를 꾸미며 레스토랑, 몰담배 카페, 펍 등이 들어서며 무지개거리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레인보우 거리에서는 우리나라 흥대 주변과 같이 매우 붐비는 밤거리를 즐길 수 있다.</p>

○ 와디 무집(Wadi Mujib)

<p>도시명</p>	<p>와디 무집</p>
<p>주소</p>	<p>wadi mujib, jordan</p>
<p>운영시간</p>	<p>06~18시</p>
<p>명소소개</p>	<p>해수면 아래 410m 지점에 있는 사해(Dead Sea)로 들어가는 협곡이다. 약 70km에 이르는 광대한 곳으로 '요르단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도 불린다. 성서에도 모세가 따라 걸었던 '아르논(Arnon)계곡'으로 묘사돼 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연보호구역이기도 하다.</p> <p>1987년 사해 동쪽 산지, 면적 약 220km²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특히 조류의 서식지로 국내외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과 암석지대, 사막, 협곡, 절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몇 곳은 해발고도가 900m 이상이다. 1,300m에 이르는 높이 변화와 이곳으로 흘러드는 7개의 지류들이 합해져 이 계곡에는 300종이 넘는 식물들과 10종 이상의 육식동물, 수많은 철새와 텃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대표적인 육식동물로는 줄무늬하이어나, 시리아 늑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염소인 누비안 아이벡스(Nubian ibex) 등이 있으며, 조류로는 유럽을 대표하는 맹조인 수염수리, 이집트 독수리, 아라비아고리치레 등이 산다.</p> <p>입장료는 코스 별로 상이하나 Siq trail코스가 21요르단디나르로 제일 저렴하다. 거주증(이까마) 보유 시 18요르단디나르이다.</p>
<p>비고</p>	<p>웹사이트: https://international.visitjordan.com/Wheretogo/Wadi-Mujib</p>

○ 와디럼(Wadi Rum)

<p>도시명</p>	<p>와디럼</p>
<p>주소</p>	<p>Wadi Rum Village, Jordan</p>

운영시간	08~16시
명소소개	<p>요르단 남부에 위치한 사막 지대로 붉은빛 모래로 유명하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마션'이 촬영된 장소로 유명하며, 페트라와 함께 묶어서 여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르단 관광지 중 하나이다. 여행객들은 와디럼에서 지프 투어, 트레킹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전통 아랍 베두인 텐트에서 아랍식 식사와 음악, 춤 등을 즐길 수 있다. 입장료는 5 요르단디나르(약 8,800원)이며 요르단 패스 소지자는 무료이다. 텐트 숙박 비용은 시설에 따라 다르며 최소 15 JD에서 최대 200 JD로 다양하다.</p> <p>와디(Wadi)는 아랍어로서 비가 오는 겨울에는 강이 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우기에는 마른 계곡이나 땅이 돼 버리는 곳, 럼(Rum)은 산을 말한다. 와디 럼(Wadi Rum)은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에서 남쪽으로 320km 지점에 위치한 곳인데 1998년에는 요르단 정부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총 720km²의 넓은 지역이며 약 3억 년 전 지각작용으로 이루어진 곳이며 아래층에 화강암층이 있고 그 위에 석회암 그리고 가장 상부에 사암으로 형성돼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은 해발 1,745m의 럼 마운틴(Rum mountain)이며, 평지로 보이는 곳도 해발 1,000m 정도이다. 와디 럼은 오래 전부터 아라비아 상인들의 교역로 역할을 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올라오는 카라반(대상)들이 시리아와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했고 당시에 이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그뿐만 아니라 선사시대에도 유목민들이 이곳을 통과하면서 남겨놓은 암벽화 등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p> <p>와디 럼은 1916년부터 아랍 지역에서 활동했던 아라비아의 로렌스(Thomas Edward Lawrence)가 이곳을 통과해 요르단 최남단의 아카바 항구를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 '아라비아 로렌스' 영화의 무대로도 유명하다. 와디 럼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트레킹이나 암벽 등반 또는 낙타나 자동차를 이용한 사막투어 등을 즐길 수 있고, 베두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베두인식 식사와 벨리댄스 및 아랍전통 음악 연주와 노래도 즐길 수 있다. 트레킹이나 암벽등반의 경우는 반드시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동해야 안전하다. 이 지역은 사막여우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 보호구역일 뿐 아니라 암벽등반 등은 오로지 이용자 스스로 안전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이다.</p> <p>차량을 통해 와디 럼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는 1인당 5 요르단 디나르이며, 와디 럼의 여러 레저들과 베두인 캠프에서 지내는 비용은 35~80 요르단 디나르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 예약할 경우, 베두인과 협상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p>
비고	<p>전화: +962-3-209-0600</p> <p>홈페이지: http://www.aqaba.jo/Pages/Details/Attraction?AttractionID=177&AspxAutoDetectCookieSupport=1</p>

○ 페트라(Petra)

도시명	와디무사
주소	Tourism St., Wadi Musa, Jordan
운영시간	하계: 06~18시 동계: 06~16시

<p style="text-align: center;">명소소개</p>	<p>요르단 암만시 남쪽 262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페트라라는 암만에서 자동차로 편도 3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 및 한국 tvN 드라마 미생의 촬영지로 유명하다. 페트라에는 암벽을 깎아 만든 신전 및 무덤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UNESCO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되었다. 페트라 전체 지역은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수일에 걸쳐 관광해야 하나, 알카즈네 근처까지만 관광할 경우에는 총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p> <p>페트라는 거대한 유적이기 때문에 입장티켓 종류가 1일치, 2일치, 3일치로 나누어져 있으며 요르단 거주증이 없을 경우 1일치 입장료는 50 요르단디나르(약 89,000원), 2일치 입장료는 55 요르단디나르(약 97,000원), 3일치 입장료는 60 요르단디나르(약 106,000원)이다. 요르단 거주증이 있을 경우 1 요르단디나르로 입장이 가능하다. 참고로 페트라 입구에서 페트라 계곡까지는 마차나 말을 이용해 약 500m를 이동하는데 팁으로 3~5달러가 필요하다. 페트라에서 숙박을 원하지 않는 거주증 비소유 관광객의 경우 90요르단디나르(약 162,000원), 거주증 소유 관광객의 경우 기존 1요르단디나르였으나 2024년 5월 1일부터 10요르단디나르를 내야 한다. 요르단 패스 사용이 가능하다.</p> <p>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으로 기원전 600년에 나바티안족에 의해 세워진 교역 중심 요새 도시이다. 에돔과 모압의 겹겹 지역에 위치한 페트라는 기원전 1400~1200년 기간에는 쉐라로 알려졌었으며 기원전 600년~기원후 100년 기간에는 에돔족과 나바티안족의 수도였다. 기원후 106년에 로마군에 의해 점령돼 제라시-다마스쿠스를 잇는 교역의 중심 도시가 됐으나 로마제국의 멸망과 수자원의 고갈로 폐허 도시가 됐다. 페트라는 암벽을 깎아 만든 각종 신전 및 무덤들이 자연 소재 그대로의 색상과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페트라 입구 직전에 ‘모세의 샘’이 있으며 페트라 안에는 모세의 형 ‘아론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아론의 무덤’은 산꼭대기에 있어 상당한 등산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어 관광객이 당일 여행하기에는 다소 벅차다.</p> <p>계곡 안에서도 마차를 이용해 가장 유명한 ‘알 카즈네’까지 약 1km를 이동할 수 있는데 마차 이용 시 편도 2~5 요르단 디나르 정도이다. 시간이 충분하면 알카즈네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로마 원형경기장, 로마 신전 터를 볼 수 있고 뷔페 점심을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다. 여기에서 알카즈네까지는 당나귀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데 보통 5달러 정도이다. 페트라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하루 일정으로 페트라를 둘러보고, 근처 뫼벤픽 리조트 호텔에서 1박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p> <p>페트라 야간개장(Petra Night)은 매주 월, 수, 목요일에 운영된다. 페트라 야간 입장 시 기존 입장료와 별도로 17 요르단디나르를 지불해야 하며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티켓은 페트라 방문센터나 현지 여행사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페트라 방문센터에서 티켓을 구입할 경우 사전예약은 불가능하고 당일날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만 구매할 수 있다. 야간에 페트라에 입장하게 되면 알-카즈하 유적 앞에서 베두윈족 차 마시기와 연극 구경이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비고</p>	<p>전화: +962-3-215-7093 홈페이지: http://www.visitpetra.jo/</p>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마. 식당

- 현지식당

○ 라 캐피테일(LA CAPITALE)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명</p>	<p>암</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p>	<p>+962 6 550 5555</p>
<p style="text-align: center;">주소</p>	<p>5th Circle, Al-Kindi Street Jabal Amman, Amman Jordan</p>
<p style="text-align: center;">가격</p>	<p>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1인당 USD 약 20-30를 지불할 경우, 기본 프랑스식 코스 식사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영업시간</p>	<p>오후 1시 ~ 오전 12시</p>

소개	프랑스식 식당
----	---------

○ 일 테라조 (IL TERAZZO AMMAN)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7 7570 0184
주소	Issam Al-Ajlouni St., Amman 11190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1인 당 15 ~ 30 USD 를 지불할 경우 기본 이태리식 식사 가능
영업시간	오후 1시 ~ 오후 11시
소개	이태리식

○ 주후르 알 샤파 (Zuhoor AlShafa Restaurant and Grills, Tlaa AlAli)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6 553 0019
가격	메뉴 별로 가격이 상이하나 기본 1인당 7 ~ 10 USD 이상 지불할 경우 기본 아랍식 코스로 식사 가능
영업시간	오전 10시 ~ 오후 11시
소개	아랍식 전통 식당
비고	현지 맛집으로 유명하다. 식사를 마친 후 바깥 테라스에서 베두인 식 차를 무료로 마실 수 있다.

○ 사라와트(Sarawat Restaurant)

도시명	Amman
전화번호	+962 6 551 1512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1인당 USD 20~25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아랍식 코스로 식사 가능
영업시간	오후 12시~익일 새벽 2시
소개	아랍식 전통 식당
비고	아랍식 구이 요리가 유명하며 현지인들이 가족 외식으로 즐겨 찾는 식당이다.

○ 릿치 스시(Litch sushi)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7 9601 5001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1인당 15~20요르단디나르를 지불하면 본 스시 및 캘리포니안 롤 식사 가능

영업시간	오전 11시 ~ 오전 03시
소개	일식
비고	저렴한 가격에 초밥을 즐길 수 있는 일식점

○ 말라바리(Malabari)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7 8838 8088
주소	Queen Rania St, Amman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단품메뉴는 4~6요르단디나르
영업시간	오전 10시~오전 02시
소개	인도식 카레 음식점
비고	요르단 대학교 북문 근처에 위치한 식당으로 다양한 인도식 카레를 판매한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맛으로 인해 학생들과 단체 손님이 많다.

○ 암만 쿠브라(Amman Al-Kubra)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6 581 8829
주소	Al Izz Ben Abed Al Salam, Amman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1인당 USD 20~25 정도를 지불할 경우, 기본 아랍식 코스로 식사 가능
영업시간	12~24시
소개	아랍식 전통 식당
비고	암만내 지점이 다수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 손님들이 많다. 양고기 구이가 가장 유명하다.

○ 하심 레스토랑(Hashem Restaurant)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6 585 8101
주소	King Faisal Street, Amman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1인당 최소 2~3 요르단디나르(4-5 USD)를 지불하면 기본 아랍식 코스로 식사 가능
영업시간	24시간 영업
소개	아랍식 전통 식당

비고	암만 시내에 위치한 전통 아랍식 식당으로 현지인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다. 요르단 국왕도 방문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	--

○ 주와나(Jwana)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6-534-9797
주소	Ahmad At-Tarawenah St., Amman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1인당 USD 5 정도를 지불할 경우, 식사가 가능
영업시간	24시간 영업
소개	아랍식 패스트푸드
비고	요르단 대학교 북문 근처에 위치한 식당으로 아랍식 샤와르마, 샌드위치, 피자 등을 판매한다. 한국인 입맛에 잘 맞아 한인 유학생들이 즐겨 찾는다.

○ 오션(Ocean Sea Food Restaurant)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79 9766 1100
주소	AlMadena AlMonawarah st . Building No. 130 Amman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상이하나 1인당 USD 20-25를 지불할 경우, 기본 해산물 메뉴로 식사 가능
영업시간	오전 10시 ~ 오후 11시
소개	해산물
비고	해산물 전문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다.

○ 렌차이(RENCHAI)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7 9619 6666
주소	Ren Chai, Methqal Al Fayez St 31, Amman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1인당 USD 35-40를 지불할 경우, 기본 중국식 코스 요리 식사 가능
영업시간	13~24시
소개	중식
비고	반드시 예약 필요

○ 차이니스 빌리지(Chinese Village Restaurant)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6 554 9297
주소	moh'd ameen al-momeny ST, Amman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1인당 USD 10-20를 지불할 경우, 기본 중국식 요리 식사 가능
영업시간	11~23시 30분
소개	중식

○ 사무라이(SAMURAI)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6 465 1234
주소	로얄 호텔 내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1인당 USD 30-40를 지불할 경우, 기본 일본식 코스 요리 식사 가능
영업시간	09~22시
소개	일식

○ 누다시아(Noodasia)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6 593 6999
주소	Abdoun Cir., Amman
가격	주문메뉴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나 1인당 USD 약 20를 지불할 경우, 기본 아시아식 식사 가능
영업시간	11시 30분~24시 30분
소개	일식+중식+태국식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 한국식당

○ 만나(Korean Bistro Manna)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7 8622 9030
주소	Amman, Abd ar-rahim alhaj-mohammad st
가격	1인당 기본 5~15요르단 디나르(약 9,750원 ~29,250원)
영업시간	오후 12시 30분~ 오후 10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김밥, 라면, 닭강정, 떡볶이 등 분식 위주로 판매한다.
비고	2024년 신규 오픈한 한국 식당이다.

◦ 비빔(Bibim)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7 9011 8798
주소	Nahr Deyala St., Amman
가격	단품 5.5 ~ 15 요르단디나르 (약 10,450원 ~ 28,500원)
영업시간	오후 12시 ~ 오후 10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비빔밥, 전, 해물볶음 등 한국 음식 제공

◦ 드림하우스 (Dream Restaurant)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7 9980 2293
주소	#8, At-Tabashir St, Amman
가격	15 요르단디나르 (약 25,000원)
영업시간	11시~15시/17시~19시
휴무일	없음
소개	가정식 스타일의 한식
비고	민박 겸업 / 금요일 휴무

◦ 마루(Maroo Restaurant)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77-783-2003
주소	Moussa An-Naaymat St. 47, Amman
가격	1인분 15 요르단디나르 (약 25,000원)
영업시간	오전 11시 ~ 오후 2시 / 오후 5시 ~ 오후 9시 (평일) 오후 5시 ~ 오후 9시(토)
휴무일	없음

소개	가정식 스타일의 한식
비고	민박 겸업 / 금요일 휴무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제네바 호텔 암만(Geneva Hotel Amman)

도시명	암만
주소	Abdulla Ghosha St., Amman
전화번호	+962-6-585-8100
홈페이지	https://genevahotel-amman.com/
숙박료	65~70달러 (싱글룸) (약 82000~85000원)
소개	KOTRA 사업으로 요르단을 방문하는 한국 출장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4성급 비즈니스 호텔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 크라운 플라자 암만(Crowne Plaza Amman)

도시명	암만
주소	King Faisal Bin Abdulaziz Street, 6th Cir., Amman 11195
전화번호	+962-6-551-0001
홈페이지	https://www.crowneplaza.com/hotels/gb/en/reservation
숙박료	140 ~ 190달러 (약 193,200 ~ 262,200원)
소개	암만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비즈니스 호텔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 포시즌 호텔 암만(Four Seasons Hotel Amman)

도시명	암만
주소	5th Circle, Kindi St, Amman
전화번호	+962-6 550-5555
홈페이지	http://www.fourseasons.com/amman/
숙박료	약 326 달러 이상 (449,880원 이상)

소개	암만 시내에 소재한 최고급 호텔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 인터콘티넨털(Intercontinental)

도시명	암만
주소	Islamic College Street Amman 11180
전화번호	+962 6 464 1361
홈페이지	http://www.ihg.com/intercontinental/hotels/gb/en/amman/ammha/hoteldetail
숙박료	139달러 (클래식 룸), 173~220 달러 (약 238,740원 ~ 303,600원)
소개	암만 시내에 위치한 호텔로 객실이 다소 좁으며 주차장이 협소함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 웨라톤 암만(Sheraton Amman)

도시명	암만
주소	P.O.Box 840064, 5th Circle, Amman 11184 Jordan
전화번호	+962 6 593 4111
홈페이지	http://www.sheratonammanalnabil.com/
숙박료	약 182 달러 ~ 197달러 (약 251,160원~271,860원)
소개	최신 건물이나 주차장 협소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 홀리데이 인 암만(Holiday Inn Amman)

도시명	암만
주소	P.O.Box 991825, Amman 11194 Jordan
전화번호	+962-6 552-8822
홈페이지	http://www.ihg.com/holidayinn/hotels/us/en/amman/amma/hoteldetail
숙박료	165달러 (싱글룸) (약 209,000원)
소개	암만 시내 위치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 켐핀스키(Kempinski)

도시명	암만
주소	Al Shmesane – Abdalhamee Shoman Street-Front of Jordan Bank
전화번호	+962-6 520-0200
홈페이지	http://www.kempinski.com/en/amman/hotel-amman/welcome/
숙박료	163달러(싱글룸)
소개	암만 시내 위치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 르 로얄(Le Royal)

도시명	암만
주소	Jabal Amman-Zahran Street 3rd Circle P.O.Box 52, Amman 11118 Jordan
전화번호	+962-6 460 3000
홈페이지	https://amman.leroyal.com/
숙박료	117~121달러 (싱글룸/트윈룸 약 161,460 ~ 166,980원)
소개	암만 시내 위치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 그랜드 하얏 암만(Grand Hyatt Amman)

도시명	암만
주소	P.O.Box 831159, Amman 11183 Jordan
전화번호	+962 6 465 1234
홈페이지	http://amman.grand.hyatt.com/en/hotel/home.html
숙박료	약 199달러 (트윈룸, 약 274,620원)
소개	암만 시내 위치 4성급 호텔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 데이스 인(Days Inn)

도시명	암만
주소	AL Rabyeh OmarBin Abdulaziz Street

전화번호	+962-6 5519011
홈페이지	http://www.daysinn.com.jo/
숙박료	98~122달러 (싱글룸/트윈룸 약 135,240원~168,360원)
소개	암만 시내 위치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 컴포트(Comfort)

도시명	암만
주소	Al Suefia, Ali Nasuh Altaher Street- Between Jordan Bank and Cairo Bank
전화번호	+962-6 5856184
홈페이지	http://comforts.com/
숙박료	83달러 (약 114,540원)
소개	암만 시내 3성급호텔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 암만 로타나(Amman Rotana)

도시명	암만
전화번호	+962 6 520 8888
홈페이지	https://www.rotana.com/rotanahotelandresorts/jordan/amman/ammanrotana
숙박료	188~209달러 (싱글룸, 약 259,440원 ~ 288,420원)
소개	무역관 인근지로 최근에 지어진 호텔이며 많은 출장자들이 숙박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 암만 메리어트 호텔(Amman Marriott Hotel)

도시명	암만
주소	Issam Al-Ajlouni St., Amman 11190
전화번호	+962-6-560-7607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en-us/hotels/ammjr-amman-marriott-hotel/overview/?scid=f2ae0541-1279-4f24-b197-a979c79310b0
숙박료	약 136 달러 (싱글룸, 187,680원)
소개	암만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비즈니스 호텔

비고	날짜 및 호텔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
----	-------------------------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 게스트하우스

o 드림 게스트하우스(Dream Guest House)

도시명	암만
주소	#8, At-Tabashir St, Amman
전화번호	+962 79 980 2293
홈페이지	http://www.dreamhouse-jordan.com
숙박료	1인실 100달러, 2인실 160달러 (조식, 석식 포함)
소개	암만 시내 소재
비고	사전 예약시, 점심 또는 저녁 식사 가능

o 마루 게스트하우스(Maroo Guest House)

도시명	암만
주소	Moussa An-Naaymat St. 47, Amman
전화번호	+962-77-783-2003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g/marooquesthouse/about/
숙박료	1인실 100달러
소개	암만 시내 소재
비고	사전 예약시, 점심 또는 저녁 식사 가능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사. 치안

치안상황

1) 국내 치안 상황

o 여행경보 단계: 2024년 4월 기준 요르단 전역은 시리아·이라크 접경 10KM 지역(여행 자제)을 제외하고 여행 유의 단계이다.

o 요르단은 혼란스러운 중동 정세 속에서도 주변 아랍 국가에 비해 낮은 테러 발생률을 유지하는 등 치안이 양호하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시리아 및 이라크 사태로 요르단에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시리아 및 이라크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주의가 필요하며 해당 국경 지대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에 요르단-시리아 국경이 개방되었으나 우리 국민의 시리아 입국은 금지되어있으며, 시리아 입국 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보통 혼자 시내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택시를 이용해도 사고가 발생하는 예는 거의 없다. 다만 밤늦은 시간에 여성이 혼자 택시를 탄 다거나 혹은 늦은 밤에 으스스한 곳 또는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홀로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3년 상반기에는 요르단 북부에 위치한 제2의 도시, Irbid에서 한국인 여대생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특히 여성들은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이 일부 암만 시내로 유입돼 구걸과 물건 강매 요구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암만 동부 지역(다운타운 기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암만 교외도시들은 야간통행 시 유의해야 한다.

-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슈가 격화됨에 따라, 요르단 내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르단의 경우, 팔레스타인 인구가 비공식적으로 전체 인구의 60% 이상 차지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슈는 요르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2023년 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장기화됨에 따라 산발적으로 관련 시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를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2024년 3월에는 수 천명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모여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맺은 평화 협정에 대한 종료를 요구하다가 요르단 보안군에게 최루탄으로 진압당하기도 했다.

2) 주변국 치안 상황

- 요르단은 1946년 독립 이래 이스라엘과 두 차례 전쟁(1967년 6일 전쟁,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을 겪었으나, 1994년 요르단-이스라엘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며, 후세인 전 국왕 및 압둘라 현 국왕의 평화적 대외정책과 관용적인 대내 정치를 바탕으로 중동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치안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 11월 테러(알카에다에 의한 호텔 3곳 자살폭탄테러로 80여 명 사망) 이후 요르단 정부의 테러위험 방지 및 치안 강화 노력으로 현재는 중동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요르단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 보호를 위해 테러 예방 및 공공안전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관계로 외국인이 느끼는 위험 요소는 그리 크지 않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정치적 목적을 제외한 살인, 강도, 납치 등 사상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로 급격히 악화된 시리아 정세 및 이라크 정정 불안에 따른 정세 악화 등으로 인하여 양국가의 국경이 폐쇄되었으나 2017년 8월, 2018년 10월 이라크-요르단, 시리아-요르단 국경은 재개하였다. 주변 안보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험요소가 있어 국경 근처는 절대적으로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여행 제재 국가로의 여행은 또한 추후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단, 2023년 초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충돌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요르단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요르단 여행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긍정적, 또는 옹호론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 요르단-시리아 국경지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리아가 전투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곤' 생산의 주요 기지인 만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르단은 시리아로부터의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요르단이 사우디 등 주요 걸프 국가에 마약을 팔기 위한 통로로 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2024년 4월에는 요르단 국경수비대가 시리아에서 요르단으로 넘어오려는 마약 밀수업자 2명을 사살하는 등 요르단 여행 시 시리아 국경지대로의 접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3) 기타 주의사항

- 요르단은 일반 형사사건은 형법, 교통법 등으로, 종교 관련 범법행위는 종교법으로 규율한다. 일반적으로 시내 주요 번화가 및 주택가의 치안 상태는 양호하나, 일몰 후 인적이 드문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동반자 없이 방문할 경우 주의할 필요는 있다.

- 관공서, 군사기지 등에서의 사진 촬영은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비자연장과 같은 이유로 경찰서 방문 시 휴대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 신용카드는 호텔, 유명식당에서 활발히 통용되나 가끔 일부 식당 등에서 관광객의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카드를 맡기지 말고 직접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기다리는데 오토바이나 승용차 등이 다가와 가방 등을 낚아채 가는 경우와 같은 소매치기, 도난, 강도사건도 있

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이 현지 범죄 행위로 인해 인신구속을 당할 경우 언어소통 문제로 인해 뜻밖의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대사관에 즉시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주한요르단대사관 긴급전화(근무시간 외): +962 79 750 0358
- 한국 영사 콜센터(24시간): +82 2 3210 0404

○ 라마단 기간에는 특히 테러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장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2018년 8월 라마단 이후 살트 테러 사건 발생)

[자료: 주요르단한국대사관, 외교부 웹사이트, 각종 언론보도 종합]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 사고 현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두어야 한다.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 신고서(Police Report, 아랍어 : 크로카)가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유지한 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검진이나 치료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서 작성 시 반드시 의료검진을 요청해야 하며, 진단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 또한, 외국인이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도로설치물을 파손했을 경우 경찰에서는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운전자를 구류 후 요르단 국적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요르단 국적의 보증인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어렵다.

2) 여권/지갑 분실

○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 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여권 분실 시, 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는다. 그 후, 현지 경찰서에서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든 후에 재외공관에 해당 증명서와 여권 사진 2매, 여권 번호, 여권 발행일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다.

○ 지갑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물을 다시 찾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에 관해 영사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911, 199
- 범죄 신고: 911, 192
- 의료(응급차량): 911, 193
- 한국 영사: +962-79-750-0358(사건, 사고 접수 희망 시) / +962-79-848-9577(여권 분실 접수 희망 시)
- 한국 대사관: +962-593-0745
- 구급 앰بول런스: 193
- 교통경찰: 194
- 전화 안내: 1212
- 공항 안내: 4010168

4) 주요 의료기관 연락처

- Abdali Hospital: +962-6-510-9999
- HUSSEIN MEDICAL CENTRE : +962-6-580-4804

- JORDAN HOSPITAL : +962-6-560-8080
- PALESTINE SHMEISANI : +962-6-560-7071/4
- SHMEISANI HOSPITAL : +962-6-560-7431
- UNIVERSITY HOSPITAL : +962-6-535-3444
- ARAB CENTER FOR HEART AND SPECIAL SURGERY: +962-6-592-1199
- KHALIDI MATERNITY: +962-6-464-4281/6
- AKILEH MATERNITY: +962-6-464-2441
- JABAL AMMAN MATERNITY: +962-6-464-2362
- JORDAN HOSPITAL: +962-6-560-8080
- AMAL HOSPITAL: +962-6-560-7155
- ITALIAN, AL-MUHAJREEN: +962-6-477-7101/3
- AMAL HOSPITAL: 5607155

[자료: 주요르단한국대사관, 외교부 웹사이트, 각종 언론보도 종합]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임차방법

○ 일반적으로 주재 지상사의 경우,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할 경우 연간 임차료의 5%씩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지불한다. 주택은 요르단 건축 법규상 대부분 한 건물에 5층을 넘지 않으며, 10가구 내외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한국에서와 같은 10층 이상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없다.

○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 경우 한국의 '직방', '다방'과 같은 부동산 매물 거래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Hagzi', 'Homes Jordan'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거주하고 싶은 집의 조건과 지역을 설정하여 간편하게 매물을 찾을 수 있다. 수도 암만 내 고급 부동산 매물만을 취급하는 'BRG' 웹사이트도 있다.

2) 계약 방식

○ 집 계약 방식은 연간 계약 방식이 보편적이며 1년 치를 선지급한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해야 하며 가구가 완비된 집의 경우에는 주요 가구와 비품 목록을 사전에 작성하고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계약 종료 시 발생 가능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입주 전 이미 손상된 부분은 미리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 임대주와 서로 확인하면 좋다. 각국 대사관, 국제 기구 등 주요 시설이 많아 가장 치안이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 압둔(Abdoun)은 타즈몰(Taj Mall) 등 대형 쇼핑센터도 있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 한편 요르단대학 주변의 주택은 계약기간이 짧은 곳이 많으며 월별, 3개월, 6개월치 지불이 보편적이다. 3개월 또는 6개월치를 한 번에 지불할 경우 임차료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다. 대학가 주변 주택은 건물 관리인(하리스)과의 연락을 통해 직접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관리인의 연락처는 건물의 앞에 눈에 띄게 표시해 놓으며 건물관리인에게 연락 시 방을 둘러볼 수 있다. 대부분의 건물 관리인은 아랍어로만 소통한다. 계약 당시에는 여권과 임차료가 필요하다.

3) 가격

○ 암만 시내에서 지역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주재 지상사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압둔과 4썬클 주변을 살펴보면, 1년 치 렌트 비용은 200 s/m의 경우, 25,000~35,000달러, 120 s/m의 경우, 16,000~20,000달러 수준으로 구할 수 있다. 건물의 연식, 위치, 주변 상가 시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동 가격 수준으로 고려하면 적당한 집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6월 ~ 8월)은 주변 걸프 국가에서 수도 암만 등으로 유입되는 휴가객 및 여행객이 많으므로 집값 상승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동산 렌트 시장이 긍정적이지 않아 협상의 여지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요르단인들의 렌트 환경 특성상, 큰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며 일부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 압둔 외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은 디에르그바르(Deir Ghbar), 스웨이피아(Sweifiah), 슈메이사니(Shmeisani), 압달리(Abdali) 등이 있다. 유학생들은 주로 요르단대학 근처의 원룸을 임차하여 사용하는데 1개월에 평균 250 요르단 디나르 내외로 임차를 하고 있다.

4) 유의사항

○ 첫 번째는 가격 협상이다. 가격 협상 부분에서 보통 현지에서 같은 아파트라도 외국인에게 가격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사전 가격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치안 등을 고려할 때 거주지로 적합한 지역의 경우, 임차비용이 높은 편임을 참고해야 한다.

○ 두 번째는 난방이다. 대부분의 집 바닥이 대리석 또는 타일로 되어 있고 단열재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아 겨울에는 춥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사 올 때 겨울옷(내복, 점퍼)을 넉넉히 가져와야 하며, 무더운 중동지역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겨울난방 준비(전기장판, 문풍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요르단의 집은 한국보다 크고 천정이 높으므로 한국보다 춥다. 집은 대부분 개별난방 형태로서 등유를 사용한다. 요르단의 겨울은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겨울철 2-3개월 이상 영상 0-10도 사이의 기온이 유지되고 있어 상당히 추운 편이다. 주로 난방하는 방식은 라디에이터나 온풍기인데, 요즘 들어 한국처럼 Ground-Heating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집도 종종 있다. 되도록이면 그라운드 히팅 시스템이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통 200 s/m 기준, 따뜻하게 지낼 경우, 가스비용은 약 400~500달러(한 달 기준) 또는 디젤난방의 경우 약 700-800 달러(한 달 기준)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 세 번째는 하리스(건물 관리 용역인) 비용도 유의해야 한다. 하리스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1가구당 일정 금액을 하리스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집 크기 등에 따라 30-80요르단디나르를 지불하고 평균 비용은 40요르단디나르 수준이다.

○ 네 번째는, 싱크대의 물 정수필터(Purifier) 설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요르단은 옥상의 물탱크에 물을 채워 집으로 조달하는 방식인데 물탱크가 낡거나 관리 부족으로 탱크내 이물질이 있는 경우도 많다. 수도관 낙후도 수질 악화에 영향을 주어 가정용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물탱크에 정수 필터를 설치해 놓거나, 싱크대에도 추가로 필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다섯 번째는 메인 도로와의 거리도 생각해야 한다. 요르단의 집은 방음이 잘 안 되는 편이기 때문이다. 소음이 고스란히 안으로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도로에서 떨어지는 곳에 집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 여섯 번째, 집 층수이다. 맨 꼭대기 층의 경우, 물탱크로 인하여 시끄럽거나 천장에 누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맨 아래층의 경우는 정원이 있어 관리가 힘들 수 있고 거리 또는 도보와 아주 가까워 치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2~3층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5) 임차 후 유의사항

○ 요르단의 가정용 연료로는 아직 주로 프로판 액화석유가스(LPG)가 사용되고 있다. 발열량이 크고 액화가 쉬워 운반이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누출 시에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 후 반드시 가스 밸브를 잠궈야 한다. 또한 액화석유가스(LPG) 통을 모두 사용한 후 교체 시에 연결 부위를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는다면 잔류가스 발생이 가능하여 교체 시에 가스가 새는 소리나 냄새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 건물관리인(하리스)이 전기세 지불일에 전기세 계산방식을 조절하여 세입자를 기망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세 계산법은 전기세 보조금 지급 건물과 전기세 보조금 미지급 건물이 다르다. 해당건물의 전기세 보조금 지급 유무는 집 계약 전 집주인의 연락처를 얻어서 알아보거나 요르단 국영 전기회사인 JEPCO 어플 다운로드 후 전기세 영수증(Faturah)에 적힌 계수기 개인식별번호를 등록 후 전기세를 알아보는 방법 등이 있다. 전기세 지불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여길 경우 영수증(Faturah)을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 건물별로 상이하나 독립된 두 방을 묶어서 사용한 전기량을 계수하는 건물 또한 존재하니 집 계약을 확정 짓기 전 많은 확인이 필요하다.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전화

1) 휴대전화

○ 휴대전화 보급률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가정용 전화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통신사는 Zain, Orange, Umniah 등 3개사 있다. 전체 시장의 99%가 GSM 방식이며, 시내 소재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점 혹은 통신사업자 매장에서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이용은 Pre-paid phone(선불카드 이용방식) 혹은 월 사용료 징수 방식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통신업체 가입을 위해서는 여권을 지참하여 원하는 통신사의 대리점에 방문한 뒤 USIM을 구입하고 요금제를 신청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선불 카드 이용 방식의 경우, 요금제는 한 달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한 달 내에 갱신하지 않을 시 데이터 사용 및 문자와 통화 모두 불가능하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슈퍼마켓이나 전자기기 판매점에서 통신사별

요금제 충전 카드를 구입하여 요금제를 갱신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리점 방문이 더 저렴하다.

○ 통신 속도는 한국에 비해 느리지만,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주요 정보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신사별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 Zain: <https://www.jo.zain.com/english/zainservices/Pages/default.aspx> (동 링크 접속불가 시 구글에서 Zain Jordan 검색 및 접속 요청)

- Orange: <https://www.orange.jo/en/pages/default.aspx>

- Umniah: <https://www.umniah.com/en/>

2) 일반전화

○ 신규 가설의 경우 Orange Telecom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가설비(36 요르단디나르) 및 보험료(150 요르단디나르, 외국인에 한정)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는 계약 해지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전화선이 이미 연결된 집을 구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 이는 주택의 소유주 명의로 전화가 이미 가설된 경우로서 입주자는 매월 전화 사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대부분은 편익상 소유주 명의의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전압/플러그

○ 요르단 전압 규격은 220V, 50Hz이다. 한국 전압 규격은 220V, 60Hz로 한국에서 가전제품을 가져오게 되면 Hz 차이로 고장이 잦고 관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구매하는 편이 좋다. 전력 부족 국가는 아니나 전력 공급 관리 미흡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암만 시내나 호텔에서는 24시간 전력이 공급된다. 요르단 가정집의 경우 하나의 전기 콘센트에 여러 전기제품을 꼽고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발열로 인해 해당 콘센트에 까맣게 그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 요르단에서는 전기 플러그로 국제규격 중 C, D, F, G, J 형이 모두 사용되는데, 통상적으로 C, F, G 형이 많이 사용된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는 C, F형으로 요르단의 규격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어댑터를 필수 지참해야 한다. 어댑터는 시내 상점에서 2~5달러 내외로 구입할 수 있으며 현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가형은 1요르단디나르 제품도 있다.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식수

○ 보통 가정 용수는 옥상의 물탱크에 물을 채워 사용한다. 암만 지역의 경우 암만시 정부로부터 주 1~2회 물이 공급되고, 이때 물탱크에 물을 채울 수 있다. 공급 일시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가뭄이 심한 여름에는 물 공급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는 사설 물 공급기업에 연락해서 사비를 주고 물을 채워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정부의 물 가격보다 비싸다. 거주 중인 빌딩에 하리스(건물 관리 용역인)에게 용수가 항상 충분히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물탱크, 수도관 등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보통 석회 물질이 많기 때문에 식수로는 부적합하다. 물은 반드시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것이 좋다. 권장되는 생수 상호는 Nestle, Ultra, Purelife, Aquafina 등이 있다. 가정용 수도물의 수질도 불량한 편이기 때문에 양치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도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중에 판매하는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는 수도꼭지 하단에 필터를 설치하여 1차적으로 정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요르단 내에서는 정수필터를 구하기 힘들고 필터층이 두텁지 않을 수 있어 유학이나 출장 등 비교적 단기간 체류시에는 국내에서 샤워기 필터나 수도꼭지 필터를 미리 구매하여 가는 것이 좋다.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1) 신차 구입 방법

○ 요르단은 전 세계 차량을 대부분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 아우디, 현대, 기아, 벤츠, BMW 등 웬만한 브랜드는 주로 에이전트를 통하여 요르단에 진출해 있다. 현대, 기아 자동차도 요르단 에이전트를 통하여 구입이 가능하고 해당 에이전트를 통하여 보험도 패키지로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 마일리지 사용 수에 따라 정기점검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2) 중고차 구입 방법

○ 중고차는 개인을 통하거나 중고차 매장 혹은 자르카 자유무역지대(암만 북쪽 30Km 지점에 위치)에서 구입한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량이 수입 판매되고 있어 구입에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다. 일부 주재 상사 중에는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장기렌트하는 경우도 있다. 렌트료는 비싸지 않으며 선택의 폭도 넓은 편이다. 또한, 현지 인터넷에 오픈마켓이 있어 개인이 자신의 중고차량을 업로드하여 판매도 가능하다.

3) 구매차량 등록

○ 7번 번호판의 경우

- 7번 번호판은 요르단 내 외교기관, 공관, 국제조직 등이 소유한 차량만이 받을 수 있는 번호이다. 7번 번호판이 달린 차량은 동 기관/조직들의 직원이 운전할 수 있으며, 차량등록증이나 차량보험내역에 개인운전자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7번 번호판 수령을 위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기본적으로 외교부, 내무부 및 관세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7번차량 등록은 불가능하다.

-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차량등록신청서 작성
- * 판매 기관이 서명하고 날인한 판매 또는 구매를 증명하는 문서
- * 대사관, 기관, 단체 또는 그 직원의 명의로 차량등록신청서를 기재한 외교통상부의 서신
- * 만약 당국 또는 대사관이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려는 경우 아래 3가지 조건이 추가됨
 - ① 외교 카드 사본 (거주카드) 제출
 - ② 유효한 여권 사본 제출
 - ③ 소유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참석 필수

○ 8번 번호판의 경우

- 8번 번호판은 임시 거주자에 대한 번호판으로, 차량 소유자에 따라 신청 승인이기관이 달라진다. ① 차량 소유자가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요르단 외교부, 내무부, 관세청 승인이 필요하며, ② 차량 소유자가 비영리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요르단 통상부, 내무부, 관세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 기타 구비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 외교카드 사본 (재류카드), 여권사본
- * 판매 기관이 서명하고 날인한 판매 또는 구매를 증명하는 문서

- 8번 차량은 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증빙에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 표기되어야 한다.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동 차량의 운전 권한을 추가로 부여 가능한지의 여부는 해당 소유주의 소속기관에 따라 달라진다.(동 건은 요르단 산업통상부, 외교부, 문화부 등의 권고에 의거하여 유관부처에 개별 확인해야 한다)

① 차량소유자가 대사관 직원인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임시 출입 차량을 등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가할 수 없다.

② 기업 지사(Regional office) 직원인 경우: 일부 지사는 직원 또는 승인된 사람의 가족 중 한 명이 이 차량을 운전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아랍/국제 관련기구 직원인 경우: 이러한 성격의 기구 중 일부는 해당 직원 또는 승인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노동부에서 인증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 차량을 운전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흰색 번호판(private)의 경우

- 흰색 번호판은 일반 민간 차량을 의미하며 흰색의 10~35번 번호판은 승용차, 36~37번 번호판은 밴, 38~40번은 픽업트럭을 가리킨다. 외국인은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 요르단에서 흰색 플레이트가 있는 자가용을 소유할 수 있다.

- ① 유효한 연간 거주 및 유효한 취업 허가증을 소지
- ② 요르단 내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허가부서, 기업통제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보안승인 획득 (약 2주 소요)
- ③ 당사자 또는 법적 권한이 있는 자의 입회

- 해당 차량 번호판 수령을 위해서는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 ① 차량통관전문관과 협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세관신고서
- ② 요르단 세관 검사 양식
- ③ 전자자동차보험계약서
- ④ 여권 사본, 거주 허가증 및 취업 허가증(모두 유효해야 함)
- ⑤ 상기 언급된 보안 승인서

- 차량 등록 및 번호판 수령을 위한 핵심 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면허센터 기술검사위원회에 차량 제시
- ② 요르단 민방위국 관계자의 차량 심사 및 기술심사 날인
- ③ 자동차 보험 계약서 제출

4) 차량 등록 갱신

○ 대부분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자동차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 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요르단 산업통상부, 내무부, 교통부 등에서 필요한 승인을 득함
- ② 여권 사본, 거주 허가증 및 취업 허가증(모두 유효해야 함)
- ③ 당사자 또는 법적 권한이 있는 자의 입회
- ④ 점검센터 방문
- ⑤ 보험계약서 제시
- ⑥ 접수원에게 양식 및 구비서류 제출
- ⑦ 유효기간 1년의 신규 차량등록증 수령 및 갱신 수수료 지불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차량가격

1) 차량 가격

○ 현대 차량의 경우, 현대 소나타 신형은 2만~3만 달러(옵션 및 면세 혜택에 따라 차이) 수준이다. 아반떼 신형의 경우, 약 1만 4천~1만 9천 달러다. 또한, 기아 차량의 경우, K5는 2만~3만 달러(옵션 및 면세 혜택에 따라 차이), 쏘렌토는 3만~4만 불(옵션 및 면세 혜택

에 따라 차이)이며 보통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 경우 한국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이유는 자동차에 붙는 세금(관세, 판매세, 특별세 등)가 다른 국가 대비 높기 때문이며, 관세는 가솔린 승용차량의 경우 98%, 전기차의 경우 10-15% 수준이다.

○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르카 자유무역지대의 매물들의 경우, 잘 찾아보면 연식도 낮고 옵션도 많은 외제차, 국산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자르카 자유무역지대의 중고차들 중에는 미국에서 수입된 차량이 많은데 이들 중에는 'salvage title'(폐차차량)을 가진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2) 자동차 보험료 가격

○ 요르단 자동차 보험의 종류로는 크게 자동차 종합보험, 자동차 의무보험 2가지가 있다. 요르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차 구매나 자동차 등록 갱신 시에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요르단 자동차 의무보험은 제3자책임(TPL)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책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르단보험협회(Jordan Insurance Federation)에서 해당 정책을 관리 감독하며 요르단 의무 보험 가입은 요르단 도처에 있는 요르단 자동차면허 관련 기관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

○ 자동차 의무보험은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야기하는 목적으로 생긴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큰 사고에 대해 상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법으로 “제3자 보험”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의무보험은 자동차 구매 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대한 결정권이 보험가입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므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규정을 가진 보험사를 선택할 수 없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아래 두 경우에서 달리 적용한다.

-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상대방의 자동차 파손이나 부상에 대해 보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자동차와 자신이 입은 부상은 해당 의무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 회사나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상대방의 자동차 파손이나 부상에 대해 보상을 법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상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의 규정에 따른다.

○ 자동차 종합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선택형 보험 상품으로 필수보험에 부가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의무보험보다 비싸다. 자동차 종합보험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보험가입자가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자동차 차체 손상에 대한 종합 보험금이 지급된다.

- 의무 보험과 달리, 보험가입자는 보험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 자동차 종합 보험의 가격은 보험 회사와의 상담 후에 결정되며 보험을 들고자 하는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시장가치, 연료의 종류, 자동차의 연식 등으로 인해 보험료는 달라진다.

- 또한 종합보험의 무료 서비스로는 긴급구조차량(렉카)서비스 지원, 자연 재해 보상 지원, 에어백 교체 지원 등이 있다.

○ 연간 종합보험료(모든 것을 커버하는)는 보통 준중형 승용차의 경우 약 600~700달러, 중형 승용차의 경우 약 800~1,000달러, SUV의 경우 약 1,000~1,400달러에 달한다. 다만, 해당 비용은 자동차 대물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통 교통경찰을 부르면 교통경찰은 차량 사고 사진을 찍고 크로카(Kroka, 사고경위서)를 전자패드로 작성한다. 그리고 인쇄된 크로카를 수령한 후에 보험사로 가면 보험사들은 차량 과실에 따라 보험 범위를 정한다.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운전면허 취득

1) 국제운전면허증

○ 요르단은 1949년 유엔 협약에 서명했으며, 요르단에 오는 모든 방문객은 요르단에서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전하기를 원할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요르단 렌트카 운전시만 사용 가능) 국제운전면허증(IDP)은 1년 동안 유효하다.

○ 요르단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요르단왕립자동차클럽(Royal Automobile Club of Jordan)에 방문하여 아래 서

류를 제출해야 한다.

-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
- 신청서
- 개인 사진 1장
- 여권 사본
- 거주증(이까마) 사본
- 수수료: 왕립자동차클럽(Royal Automobile Club) 가입자의 경우 15요르단디나르, 비가입자의 경우 20요르단디나르(2024년 5월 기준 현금만 가능하며 카드 결제 불가)

2) 한국 운전면허증에 요르단 차량 운전권한 부여

○ 요르단 일반교통부(General Traffic Department)는 외국 면허증으로 요르단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임시 운전 허가증(3개월)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서비스 신청자가 요르단 내에 체류
 - 서비스 신청자는 18세 이상
 - 요르단 운전면허증이 없어야 함
 - 차량 종류는 개인용이어야 하며, 임시 허가증으로 한 대의 차량만 운전 가능
- 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서비스에는 근무일 기준 2일이 소요되며, 서비스 신청 시 요르단 교통부 내 교통기획과(Traffic Department / Traffic Planning Branch)에 방문해야 한다. 임시허가증은 3개월 동안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하다.
- 개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외국 운전 면허증(원본 및 사본 모두 필요)
 - 아랍어 또는 영어로 쓰여진 면허증이 아닌 경우, 승인된 번역 사무소에서 발행한 면허증 번역본
 - 본인이 운전하고자 하는 자가용 소유 증빙 사본
 - 유효한 여권 사본(개인정보/입국일자)
 - 거주지(외국인의 경우) 또는 입국사증 사본
 - 개인 사진 2매
 - 10 요르단디나르
 - 요르단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확인 레터 필요
 - 운전할 차량은 본인 또는 친척 중 한 명이 소유해야 함 (친척이 소유자인 경우, 친척 증빙 필요)

3) 요르단 운전면허증

○ 요르단은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통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교환이 아니라 현지 면허증을 추가로 발급해주므로 한국인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과 요르단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소지할 수 있다. 2017년 규정이 개정돼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약 350달러 비용이 소요된다. 해당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몇몇 유럽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요르단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 사람은 아래와 같다.
 - 18세 이상의 요르단인
 - 1년 이상 요르단에 거주하거나 유효한 입국 비자를 소지한 비요르단인
- 비요르단이 요르단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면허증 신청자의 유효한 여권
 - 본인 사진 (4×6 사이즈)
 - 유효한 연간 거주 허가증(이까마)
 - 기업 직원을 위한 유효한 취업 허가증
 -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공증번역본(공증은 대사관에서 처리 가능)

○ 한국인의 요르단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모든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요르단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내 교통안전과(Traffic Safety Dept.)에 방문

* 내무부 위치: 두아라 다클리아 근처 리젠시 호텔 뒤편(혹은 Royal Cultural Center 옆)

* 내무부 내 교통안전과 위치: 내무부 건물 내 B1

② 요르단 일반정보국(General Intelligence Department)의 보안 승인(2주)

③ 요르단 내무부 장관(신청인이 외교 관련자인 경우 외교부 장관)의 교체승인서(면허증 교환협조공문) 발급

④ Marka에 있는 요르단 교통면허과(Traffic License Dept.)를 방문하여 아래의 사항을 처리해야 함 (접수가능시간은 일~목, 13:00까지)

- 운전면허증 교체신청서 작성(면허센터 민원실에서 발급) 및 제출

- 운전면허센터 내 진료과에서 의사의 진찰 기록 취득 (시력 검사 등)

- 외국면허증을 승인하기 위해 학과 등록소를 방문, 담당자 서명 득

- 센터 내 안내카운터에서 서류내역을 최종 확인하고, 법정수수료(약 5요르단디나르) 납부 후 요르단 운전면허증 수령(유효기간은 5년 혹은 10년으로 발급되며 수수료는 대략 350달러 내외)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Bank of Jordan: 지난 1960년 암만에 설립된 은행으로 요르단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다.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지점과 150개 이상의 ATM이 분포되어 있다.

○ Arab Bank: 지난 1930년에 설립된 중동 최대 금융 기관으로 본사는 암만에 위치해 있다. 전 세계에 600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다.

○ Jordan Ahli Bank: 지난 1955년에 설립되었으며 Jordan National Bank로도 알려져 있다. 다양한 종류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 Jordan Kuwait Bank: 지난 1976년에 설립되었고 요르단 전국에 키프로스 지점을 제외하고 64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 그 밖의 은행은 Standard Chartered Bank, Bank Al Ethihad 등이 있다.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계좌 개설방법

1) 은행 계좌 개설 방법

○ 정상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다면 요르단 현지 은행 또는 외국계 은행에서 현지화 계좌 혹은 미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까마(거주증) 및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체류목적에 따라서는 주택임차계약서, 전기세 또는 수도세 영수증 등의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요르단에서는 계좌를 이용해 해외 자금을 수령하고 송금하는 데 제약이 없다. 은행 계좌 개설 시 필요한 경우 현금카드와 수표(개인 당좌 수표 성격)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 banking 시스템도 현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월 전기 및 수도세도 자동으로 납부하는 등 현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학생일 경우 재학증명서 및 학생증이 필요하며 현지계좌 개설에는 은행 영업일 기준 10일가량이 소요된다. 원화-요르단디나르 환전에 드는 환전 수수료 등에 대한 현지 은행의 혜택은 대개 한국에서 마스터, 비자 카드의 수수료 혜택보다 좋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환전수수료 혜택이 많은 주거래은행의 카드를 발급받아 오는 것이 권장된다.

2) 신용카드 발급 방법

○ 신용카드는 최근 들어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통해 마스터, 비자 등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신용이 구축된 후 발급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입국 후 즉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어려우며 이는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현재 요르단에서는 외국 기업명의 법인카드 발급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보통 신용카드는 우리나라처럼 암호를 4자리로 설정하며 SMS 내역도 송부받을 수 있다.

3) 모바일 지갑 개설 방법

○ 현재 요르단에는 7개의 모바일 지갑 사업자와 1개의 전자결제 플랫폼 제공 사업자로 총 8개의 관련 사업자가 있다. 은행 계좌 생성이 어려운 유학생들의 경우, Zain Cash, Orange Money, Mahfazti 등 7개 공식 모바일 지갑 사업자들을 통하여 간단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지갑을 생성할 수 있다. 입출금은 시중에 있는 환전소에서 입출금할 수 있어 계좌 대용으로 사용하기 편하다.

[자료: 암만무역관 자체 조사]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King's Academy

도시명	마다바(암만에서 약 30분 정도 거리)
커리큘럼	7학년부터 12학년 학생만 입학할 수 있다. 입학 시 SSAT 시험을 응시해야 하나, PSAT, SAT, ACT 등의 미국계 시험 성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험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영어를 기본 언어로 하는 학교에 2년 이상 재학하지 않은 학생은 TOEFL 또는 IELTS 시험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수업 시간은 08시 30분부터 15시 35분까지이며 정규 수업 이후에 방과 후 활동이 진행된다.
학비	학년별로 상이하나 2023-2024학년도의 경우 통학 42,000달러, 기숙사 53,250달러, 중학교의 경우 통학 26,600달러이다.
홈페이지	http://www.kingsacademy.edu.jo/
비고	왕립 국제학교

○ American Community School

도시명	암만
커리큘럼	수업은 화요일 제외(9시 시작)하고 8시부터 15시까지 진행되며 학교는 암만 시내에 위치해 있다. 신학기는 8월 말에 시작되며 익년 6월 초에 1년 과정이 끝난다. 온라인에서 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학교에서 지정한 날짜에 Level Test를 거친 후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어 가능한 한 속히 신청서를 제출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학교의 학제는 5-3-4년으로 돼 있다. (대부분 적정 학년을 결정하기 위한 Test임)

학비	<p>2024/2025 학비 중 수업료(Tuition fee)는 아래와 같다. (기타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rly Years Program: 9,720달러 ○ Kindergarten: 13,710 달러 ○ Grades 1 - 5: 17,080달러 ○ Grades 6 - 8: 21,520 달러 ○ Grades 9 -12: 26,910달러 <p>이 외에 환불, 양도가 불가능한 Capital Fund Assessment Fee(학교자본기여금)이 추가로 부과된다.</p>
홈페이지	http://www.acsamman.edu.jo/
비고	미국계 국제 학교

○ International Community School

도시명	암만
커리큘럼	입학 시 학부모 면담 및 배치고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업은 9:00부터 15:00까지 진행되며 신학기는 8월 말에 시작되며 익년 6월 초에 1년 과정이 끝난다.
학비	<p>2024/2025학기의 수업료는 아래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rly years 1-2 : 10,678달러 ○ Year 1 -2: 15,453달러 ○ Year 3- 6: 17,300달러 ○ Year 7- 9: 20,970달러 ○ Year 10- 11: 23,692달러 ○ Year 12 - 13: 25,909달러 <p>기타 자세한 학비는 https://www.ics.edu.jo/school-fees 에 공지되어 있다.</p>
홈페이지	https://www.ics.edu.jo/
비고	영국계 국제 학교

○ Modern American School

도시명	암만
커리큘럼	KG1,2 및 1~12학년까지 존재한다. 수업은 화요일 제외(13시 하교)하고 초등학교는 8시 30분부터 15시까지, 중고등학교는 8시부터 15시까지 진행된다. 입학 시 알맞은 학년 수준 결정을 위해 1시간 15분가량의 수학, 영어 배치고사를 치른다. 인기 있는 학년은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학기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학비	3월, 9월, 12월에 걸쳐 총 3회 학비를 지불한다. 학년별로 비용이 상이하나 고등학교의 경우 10학년은 1년에 10,950요르단디나르, 11~12학년은 13,450요르단디나르를 지불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학비는 https://www.mas.edu.jo/admissions/fees/tuition 에 공지되어 있다.
홈페이지	https://www.mas.edu.jo/
비고	미국계 국제 학교

○ Roy & Dora Whitman Academy

도시명	암
커리큘럼	수업은 평일 8시부터 15시까지 진행되며 방과후에 스포츠, 학교 의회, 리더십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독교 학교이므로 입학 전 학부모는 복음주의 신앙고백서, 아동보호 정책동의서 및 부모동의서에 서명하고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학비	입학 신청 시 25달러, 등록비로 300요르단디나르를 지불해야 한다. 학비는 초등학교(1-6학년)의 경우 9,373달러, 중학교(7-8학년)의 경우 11,805달러, 고등학교(9-12학년)의 경우 12,280달러이다. Capital assessment fee(학교자본기여금)로 첫 1년은 1,000요르단 디나르가 부과된다. 이후에는 1년에 50요르단 디나르를 부과해야 한다.
홈페이지	https://whitmanacademy.org/
비고	기독교 계 국제 학교

○ Canadian International School Amman

도시명	암만
커리큘럼	유치부부터 12학년까지 존재하며 중학교 과정부터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다.
학비	입학 시 등록비 350요르단디나르가 부과되며, 학비는 8월, 10월, 12월 총 3회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형제자매의 경우 수에 따라 연간 등록금이 10%, 15%, 20% 순으로 할인된다. KG2 졸업 또는 12학년 졸업 시 250 요르단디나르를 졸업관련 비용으로 내야 한다. (학년별 학비는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https://www.cis.edu.jo/
비고	캐나다계 국제 학교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 현지학교

○ Al-Omariyah

도시명	암만
학비	약 3,000요르단 디나르(4,230달러)
비고	암만 시내에 위치한 현지 학교

○ Baptist School

도시명	암만
홈페이지	https://www.baptist.edu.jo/

비고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이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은 현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	---

○ Al-Hoffaz Academy

도시명	암만
커리큘럼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이 있으며 높은 교육 수준이 특징임.
학비	약 6,000요르단 디나르(8,460달러)
홈페이지	http://alhoffaz.com/
비고	암만 남부에 위치한 사립 현지 학교로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나 학비가 높은 편임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마. 병원

○ Abdali Hospital

도시명	암만
주소	Al-Istethmar Street - Abdali Boulevard Amman, 11191 Jordan
전화번호	+962-6-510-9999
진료과목	응급실,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경형외과, 심장내과, 신경과, 방사선과, 병리과 등
비고	200병상 규모의 종합 전문 병원으로, 존스 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널과 제휴한 베이루트 클레망소 메디컬 센터의 투자 그룹이 설립한 병원 웹사이트: https://www.abdalihospital.com/

○ Arab Medical Center

도시명	암만
주소	Jabal Amman 5th Circle Khalil Mizel St, Amman
전화번호	+962 6 592 1199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웹사이트: https://amc-hospital.com/

○ Jordan University Hospital

도시명	암만
주소	Queen Rania St, Amman
전화번호	+962 6 535 3444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요르단대학교 학생증 소지 시 무료 웹사이트: http://hospital.ju.edu.jo/Home.aspx

◦ Jordan Hospital

도시명	암만
주소	Jabal Amman, Queen Nour st. Jordan 11152
전화번호	+962 6 560-808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웹사이트: https://www.jordan-hospital.com/

◦ The Specialty Hospital

도시명	암만
주소	Jaber Ibn Hayyan St. Shmeisani, Amman Jordan
전화번호	+962 6 200 1111
진료과목	외과, 소아과 전문 병원
비고	웹사이트: https://www.specialty-hospital.com/en/home/

◦ AL Khaledi Hospital

도시명	암만
주소	Ibn Khaldoun St. 39, Amman
전화번호	+962 6 464-428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웹사이트: http://khmc.jo/en/home/

◦ Ibn Alhytham Hospital

도시명	암만
주소	Al-Madina Al-Monawara St, Amman
전화번호	+962 6 520 5555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https://ihh.com.jo/

○ Al Amal Hospotal

도시명	암만
주소	Al-Dakhliya Cir, Amman
전화번호	+962 6 500-5060
진료과목	산부인과 병원
비고	웹사이트: https://www.alamalhospital.com/ar/Home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및 주요르단한국대사관 웹사이트>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City Mall

도시명	암만
주소	King Abdulla II Street Amman
홈페이지	https://www.citymall.jo/
비고	+962 6 586 8502

○ Taj Mall

도시명	암만
주소	Pr. Hashim St 72, Amman
홈페이지	http://www.tajlifestyle.com/

○ Abdali Mall

도시명	암만
주소	Suliman Al Nabulsi St, Amman
홈페이지	http://www.abdalimall.com/
비고	+962 6 400 6800

○ Mecca mall

도시명	암만
-----	----

주소	Mecca Street MeccaMall Amman, Jordan
홈페이지	http://meccamall.jo/
비고	동 링크 접속불가 시 구글에서 Mecca Mall Jordan 검색 및 접속 요청 +962 6 552 7948

○ Galleria Center

도시명	암만
주소	Abd Ar-Rahim Al-Hajj Muhammad St., Amman
홈페이지	http://www.galleriajordan.com
비고	+962 7 9095 0222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 식품점

○ Asia Market

도시명	암만
주소	Al-Buhtori St. 67, Amman
취급 식료품	한국식품을 포함한 아시안 식료품, 잡화, 소비재 등
비고	암만 내의 가장 인기있는 아시아 식료품 취급점으로 한인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계 체류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원하는 재고가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문 전 전화를 통해 재고 유무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권장된다.

○ Carrefour

도시명	암만
주소	Al-Aayan St., Amman
취급 식료품	식품, 잡화, 소비재 등
비고	암만 시내에 다수 분포되어 있음

○ Cozmo

도시명	암만
주소	Issa An-Nouri St, Amman
취급 식료품	식품, 잡화, 소비재 등
비고	https://www.cozmo.jo/

○ Wasfi At-Tall St., Amman

도시명	암만
주소	Wasfi At-Tall St., Amman
취급 식료품	식품, 잡화, 소비재 등

○ Miles

도시명	암만
주소	Mecca Mall, Abdullah Al Dawoud St 20, Amman
취급 식료품	식품, 잡화, 소비재 등
비고	http://www.miles.com.jo/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 기타 편의시설

○ Ayla Golf Club

도시명	아카바
주소	Ayla Oasis, Aqaba
홈페이지	http://www.ayla.com.jo/golf-course/
소개	아카바에 소재한 골프장
비고	동 링크 접속 불가 시, 구글에서 Ayla golf club Jordan 검색 및 접속 요청

○ Strikers Entertainment Centre

도시명	암만
주소	Kempinski Amman Hotel, Abd Al Hameed Shoman St 24, Amman
홈페이지	https://www.kempinski.com/en/amman/hotel-amman/hotel-facilities/strikers-entertainment-centre/
소개	암만 Kempinski 호텔 내 볼링장

○ Jingo's jungle

도시명	암만
주소	City mall, 3rd floor Amman – Jordan

홈페이지	https://www.jingosjungle.com/
소개	시티몰에 위치한 실내 어린이용 테마파크
비고	+962 6 582 3700

○ JETT Bus Station, Abdali

도시명	암만
주소	Abdali or 7 Circle bus station
홈페이지	https://www.jett.com.jo
소개	시외 버스 터미널이며 암만에 2군데가 있다. 구글에 Jett station을 검색하면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 Taj Cinemas

도시명	암만
주소	TAJ Mall, Pr. Hashim St 72, Amman
홈페이지	http://www.tajcinemas.com
소개	암만 시내 영화관

○ Thrifty car rental jordan

도시명	암만
주소	AMMAN MECCA ST, Amman
홈페이지	http://www.avis.com.jo/
소개	암만에 소재한 렌터카 업체

○ 요르단 우체국(Jordan post office)

도시명	암만
주소	암만 전역에 소재함
홈페이지	http://jordanpost.com.jo
소개	우체국(구글에 Jordan Post Office를 검색하면 위치 파악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ems 등 수령을 원할 경우 , Main Branch로 검색하여 방문 필요)

○ AVIS(rent car shop)

도시명	암만
-----	----

주소	InterContinental Jordan, Al Kulliyah Al Elmiyah Al Eslamiyah St 66, Amman 11196
홈페이지	http://www.avis.com.jo/
소개	암만에 소재한 렌터카 업체

◦ Fitness First Gym

도시명	암만
주소	Saed Abdo Shammout St. 28, Amman
홈페이지	https://jordan.fitnessfirstme.com/find-a-fitness-club/amman/abdoun-vyj
소개	암만에 소재한 헬스장

◦ Amman Airport Transfers

도시명	암만
주소	Al Madina Al Munawara St Amman
홈페이지	https://www.amman-airport.com/transport.php
소개	공항운송 서비스
비고	동 링크 접속 불가 시, 구글에서 Amman Airport Transfers 검색 및 접속 요청

◦ Lost items office

도시명	암만
주소	Queen Alia International Airport Cargo Center/Airport Custom, Queen Alia Airport St E867, Amman
소개	퀸 알리아 공항 내 분실물 찾는 곳

◦ Airport International Group (Information Desk)

도시명	암만
주소	Amman Airport Hotel, Queen Alia Airport St A867, Amman
홈페이지	http://www.aig.aero/en
소개	공항 인포데스크

◦ Amman Airport Hotel

도시명	암만
-----	----

주소	Amman Airport Hotel, Queen Alia Airport St A867, Amman
홈페이지	http://www.ammanairporthotel.com
소개	공항 인근 호텔

○ GOLD GYM

도시명	암만
주소	Al-Aayan St., Amman 11821
홈페이지	http://www.goldsgym.jo/
소개	헬스, 수영, 복싱 등 종합 운동 센터

<자료원 : 암만무역관 자체조사>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New year	2024-01-01	2024-01-01
Eid-Al-Fitr	2024-04-09	2024-04-09
Eid-Al-Fitr	2024-04-10	2024-04-10
Eid-Al-Fitr	2024-04-11	2024-04-11
Labour Day	2024-05-01	2024-05-01
Eid-Al-Adha	2024-06-16	2024-06-16
Eid-Al-Adha	2024-06-17	2024-06-17
Eid-Al-Adha	2024-06-18	2024-06-18
Eid-Al-Adha	2024-06-19	2024-06-19
Islamic New Year	2024-07-07	2024-07-07
Prophet's Birthday	2024-09-15	2024-09-15
Christmas	2024-12-25	2024-12-25

10. KOTRA 무역관 안내

○ 암만무역관 (KOTRA Amman)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Office No. 303 &304 (3rd Floor), Campbell Gray Living Building, Abdali St., New Abdali area, P.O Box 940593 Amman, 11194 Jordan

- 무역관으로 우편배송시에는 DHL, 프리미엄EMS, 일반EMS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DHL과 프리미엄EMS의 경우 현지 통관/배송비가 과다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EMS 사용이 권장된다.

○ 위치: 쿤 알리아공항에서 북쪽으로 약 36km 떨어져 있으며, 암만 내 신도시인 압달리(Abdali) 지역의 법원(아랍어로 까스릴 아딜) 앞에 위치하고 있다.

- Google map에서 Kotra Amman으로 검색시, 위치 및 경로 확인이 가능하다. *링크:
<https://maps.app.goo.gl/7ekMnHku756PPS9r7>

○ 대표번호: +962-6-510-4060

○ 대표이메일: kotra3@kotraamm.com

○ 홈페이지

- (요르단인 대상) SNS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JordanKotra/>

- (한국인 대상) <https://www.kotra.or.kr/amman/index.do>

공항-무역관 이동

1) JoLimo 서비스 이용

○ 공항과 시내를 오가는 리무진 승용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통 ID4 또는 ID6 차량을 운행하며 가격은 시내-공항 간 편도 20요르단디나르(2024년 5월 기준)이다. 차량 대수별로 요금이 징수되므로 1개 차량에 복수 인원이 탑승해도 추가 요금은 없다. 요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했다가 운행 종료 후 리무진 기사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별도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리무진 서비스 웹사이트 주소: <https://jolimos.com/>

2) 기타 운송수단 이용시 주의사항

○ 공항 터미널 밖으로 나오면 공항 전용 택시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보통 택시 출차 관리자도 함께 대기하고 있다. 공항 전용 택시를 이용할 경우, 공항에서 암만 시내까지의 요금은 현지화로 약 25 요르단 디나르(약 35달러 상당)로 공항에서 특정지역까지 이동 시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 이동 시간은 약 30-40분이 소요된다. 택시 기사에게 압달리 몰로 가자고 말한 뒤 핸드폰 지도를 이용해 무역관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가 30분마다 있다. 티켓은 편도 3.5요르단디나르이며, 공항 도착 터미널 밖 부스에서 티켓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공항 출발 뒤 암만 시내 7th Circle에서 잠시 정차하며, 이후 최종 목적지인 북부 터미널(아랍어: 무잠마 샤말)에 정차한다. 무역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7th Circle에서 하차한 뒤 택시(노란색)를 타거나 Uber를 이용해야 한다(약 5~10분 거리). 동일하게 공항으로 이동 시에도 해당 루트를 활용할 수 있다.

○ 쿤 알리아 공항에서 우버 또는 카림 등의 공유형 운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경찰 검문에서 적발될 시 여권을 요구하는 등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공항에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기보다는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공항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참고로 일반 택시와 비용차이는 크지 않다.

[자료: KOTRA 암만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11.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기회기간(잠정)	장소	주최
The 8th Diet and Nutrition Expo(식품 및 영양 전시회)	2024-05-24 ~ 2024-05-25	Le Royal Hotel	Events Consultant
JIMEX 2024 (산업 기계 전시회)	2024-06-03 ~ 2024-06-06	Mecca Mall & Gate 3/ Amman Jordan	Jordan Engineers Association & EEPC India
SONEX 2024 (태양광/에너지 전시회)	2024-06-03 ~ 2024-06-06	Mecca Mall & Gate 3/ Amman Jordan	Jordan Engine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rchitecture and Design(건축 및 디자인 전시회)	2024-06-04 ~ 2024-06-06	St 594, Al Zaytoonah University of Jordan, Airport Rd., Amman	Al Zaytoonah University of Jordan
Arab Pharma Manufacturers Expo (아랍 제약 제조업체 전시회)	2024-07-02 ~ 2024-07-03	Jord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JIEC) Mecca Mall	Arab Union of The Manufacturers of Pharmaceuticals and Medical Appliances
Jordan Build 2024 (건축 전시회)	2024-08-13 ~ 2024-08-15	Jord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Amman, Mecca Mall	Global Exhibitions
15th JOENERGY (에너지, 태양광, 풍력 산업 전시회)	2024-08-13 ~ 2024-08-15	Jord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Amman, Mecca Mall	Global Exhibitions
SEMEX 2024(전기, 재생에너지, 기계 및 산업 전시회)	2024-08-13 ~ 2024-08-15	Jord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Amman, Mecca Mall	Global Exhibitions
Jordan Startup Expo 2024 (스타트업 전시회)	2024-08-14 ~ 2024-08-15	Fairmont Hotel, Amman	The Future Event
International Food and Technology Expo 2024 (식품산업 전시회)	2024-08-21 ~ 2024-08-24	Jord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Jordan Chamber of Commerce
Jordan Financial Expo & Awards (금융 전시회)	2024-09-03 ~ 2024-09-04	Mövenpick Hotel, Amman - Jordan	AFAQ Group

Interbuild Jordan (건설 및 건축자재 전시회)	2024-09-09 ~ 2024-09-12	JIEC Halls, Amman	Golden Gate Exhibitions
STONEJO SHOW(석재 전시회)	2024-09-09 ~ 2024-09-12	JIEC Halls, Amman	Golden Gate Exhibitions
EPPM/ZEC 2024 Conference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및 생산 관리 컨퍼런스)	2024-09-17 ~ 2024-09-19	Al-Zaytoonah University of Jordan, Amman	Facul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at Al-Zaytoonah University of Jordan
HORECA JORDAN 2024 (호텔, 케이터링 등 환대산업 전시회)	2024-10-01 ~ 2024-10-03	Jord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 Mecca Mall Amman	Modern for conferences & Exhibition Services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